

573돌 한글날 · 한글학회 창립 111돌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우리말 연구가 나아갈 방향

○때 : 2019년 10월 11일(금) 09:50-16:40

○곳 : 한글회관 열말글교육관

주최:  한글 학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주제: 우리말 연구가 나아갈 방향

•차 례•

[제1부] 주제 발표

허재영(단국대 교수) : 국어 연구가 나아갈 길—학술어 연구 방향	7
목정수(서울시립대 교수) : 한국어 통사론의 나아갈 방향: 논항 구조에서 인칭 구조로의 전환	23

[제2부] 연구 발표

조원형(서울대 강사) : 한국 텍스트언어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	61
이병규(서울교대 교수) : 국어과 문법 영역의 평가 개선을 위한 논의	67
양영희(전남대 교수) : 국어 청자존대법 쟁점의 회고와 전망	85

[제3부] 연구 발표

최영미(경동대 교수) : 영월방언의 거성형 실현과 성조 변화	105
박소영(부산대 교수) : 한국어 문법 연구와 통사 이론: 종결어미 결합형 접속어미 새로 보기	131
김한샘(연세대 교수) : 한국어 문장의 구조와 의미 정보—국제적 통용 주석 체계의 적용을 중심으로—	157

[제4부] 연구 발표

최운호(목포대 교수) : 한국어 어휘 연구와 코퍼스	173
조태린(연세대 교수) : 사회언어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의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185
박동근(대진대 교수) : 국어 어휘 연구의 주요 대상과 어휘 범주의 체계화	205

제1부 주제 발표

국어 연구가 나아갈 길—학술어 연구 방향/ 허재영

한국어 통사론의 나아갈 방향: 논항 구조에서
인칭 구조로의 전환/ 목정수

573돌 한글날 · 한글학회 창립 111돌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2019년 10월 11일 (금) 09:50 ~ 16:40

한글회관 열말글교육관

□ 제1부: 주제 발표

국어 연구가 나아갈 길-학술어 연구 방향

허재영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hgy435@hanmail.net

1. 시작하기

‘국어 연구가 나아갈 길’이라는 말 속에는 ‘국어 연구’라는 내용적인 측면과 ‘나아갈 길’이라는 ‘목적’ 또는 ‘방향’이 내포되어 있다. 흔히 ‘진단’과 ‘전망’이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진단’을 위한 폭넓은 지식과 ‘전망’을 위한 객관적 시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학문 분야의 대가일지라도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한 대부분의 글에서 자신의 지식과 관점에서 진단하고 전망하는 것임을 밝힌 뒤, 독자들에게 다양한 비판을 감내(?)하겠다는 양해의 말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지난 10여 년 간 포괄적인 ‘근현대 한국 학문 발달사’에 관해 관심을 기울여 온 글쓴이의 처지에서 ‘국어 연구의 나아갈 길’을 전망하는 일은 극히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럼에도 573돌 한글날 기념 학술대회의 발표를 맡고자 한 것은 근현대 한국 학문 발달사에서 ‘학술어’ 문제가 비교적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학술어는 학술 활동과 관련된 용어로 학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합리주의와 실증주의를 토대로 한 근대 학문이 발달하면서, 학술어 문제는 특정 국가와 사회를 막론하고 지식 유통의 중요 수단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근대 서양 지식의 수용 과정에서 등장한 다수의 번역 학술어 생성 양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근대의 번역 학술어는 서구 지식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 또는 존재하더라도 의미가 다른 개념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적당한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그 양상은 중국과 일본, 한국의 상황이 동일하지 않는데, 중국의 경우 16세기 마테오리치(중국명 利瑪竇)로부터 시작된 서양인의 중문 번역 사업이 아편전쟁과 1860년대 실용지식전파회의 성립과 함께 ‘구역필술(口譯筆述)’ 문화를 이루었고, 일본의 경우 17세기 난가쿠(蘭學)에서 시작된 번역 작업이 메이지 시기를 거치면서 일본문의 근대화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발달해 갔다.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 동문(同文) 한자어일지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학술어가 다수 산출되었고, 그렇게 산출된 용어의 생명력이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이며 학술 발전의 차이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한국에서도 근대 학문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학술어 문제가 대두된다. 유길준(1895)의 『서유견문』에 등장하는 ‘학업하는 조목’의 근대 학문 분야에 대한 설명이나 다수의 근대 잡지에 소재한 용어해(用語解), 『대한학회월보』 제8호(1908. 10.) ‘수문수록(隨聞隨錄)’에 등장하는 『법률경제용사(法律經濟用辭)』(현재 미발굴) 등은 전통적인 운서(韻書), 자전(字典), 유해류(類解類)의 어휘 정리와는 달리 학술 전문 용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비록 근대 시기 서구 학문을 수용하는 일이 급선무였고, 일제 강점기 체계적인 학문 발전을 기약하기 어려웠을지라도 주시경(1910)의 『국어문법』의 고유 학술어 생성 노력이나 김두봉(1932)의 ‘과학술어와 우리말’ 등의 자료는 한국어 학술어 발달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 학문은 근대 시기나 일제 강점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문화, 세분화 과정을 거치고 있고, 특히 21세기에는 이른바 ‘정보화 시대’를 뛰어넘어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말이 유행할 정도로 학문 상황이 달라져 있다. 이와 같은 학문 상황의 변화는 대량의 학술어 생성과 유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특정 학문 내, 또는 학문 상호간의 소통 부재를 낳으며, 이로 인해 학문생활뿐만 아니라 국어생활 전반에 걸쳐 예측하기 힘든 다양한 문제를 낳게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글에서는 학술어의 개념과 범위, 학술어 연구 방법, 학술어 연구의 역사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술어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하는 데 목표를 둔다.

2. 학술어의 개념과 범위

사전적 의미에서 ‘학술어’란 “학술 분야에 한정된 뜻으로 쓰는 전문 용어”, 즉 주시경(1910)에서 사용한 ‘갈말’에 해당하는 한자어이다. 주시경(1910)의 『국어문법』에서는 “學術에 쓰이는 말은 반듯이 俗語로 다하지 못할 것이요, 또 맞지 안이함과 便하지 안이함이 있음으로 여기에는 글말로 쓰되 없는 말은 새로 表를 짓어 쓰노라”라고 진술한 뒤, “같은 硯의 뜻과 같은 말이니 각 낫 기의 방탕[性質과 한가지의 뜻으로 씀이라] 따르어 결에[族, 同種, 類의 뜻과 같은 말]되는 分別이 있음을 이름이라.¹⁾”라고 하여, ‘갈말’이 연구하는 데 사용하는 말임을 분명히 하였다.

학술어 또는 갈말은 학술 연구에 사용하는 특수한 용어로, 개념상으로 본다면 학술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학술어’와 ‘전문 용어(또는 전문어)’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개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면을 고려할 때, 좀 더 논리적인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학술어’와 ‘전문어’, ‘전문 용어’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1)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

- ㄱ. 학술어: 학술 분야에 한정된 뜻으로 쓰는 전문 용어.≒갈말, 술어
- ㄴ. 술어: 학술 분야에 한정된 뜻으로 쓰는 전문 용어.=학술어.
- ㄷ. 전문 용어: 『언어』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
- ㄹ. 전문어: 학술이나 기타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로 쓰는 말.≒전용어
- ㅁ. 전용어: 학술이나 기타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로 쓰는 말.=전문어.

이와 같이 사전적인 의미에서 ‘학술어’와 ‘전문 용어’는 다소간의 의미 차이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국립국어원(2014) ‘중앙 행정기관의 전문 용어 개선 지원 및 순화어 정비 사업’에서는 신기철·신용철(1958)의 『표준국어사전』(을유문화사), 한글학회(1957)의 『우리말큰사전』(을유문화사), 문세영(1938)의 『조선어사전』(박문서관) 등 대표적인 국어사전의 ‘학술어’와 ‘전문 용어(전문어)’ 풀이를 살펴보고, 조동성(2006), 김양진(2006), 남길임(2008) 등의 용어 사용 예를 바탕으로 “두 용어를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예는 많지 않다.”는 전제 아래 “전문 용어는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단어나 어휘 차원의 언어 단위를 넘어 특정 분야에서 사용하는 단어, 숙어, 구 등을 지칭하는 용어”라

1) 주시경(1910), 『국어문법』, 박문서관. 27쪽.

고 정의하였다²⁾.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보고서는 ‘전문 용어 개선’과 관련한 것이므로, 전문 용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점에서 학술어는 ‘학술 분야의 전문 용어’라고 명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예를 들어 은희철 · 송영빈 · 정인혁(2013)에서는 ‘의학 전문 용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달리 말해 의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전문 용어를 지칭한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행정학 분야의 학술 용어’, ‘농업 기계 학술 용어’ 등과 같이 특정 학술 분야의 용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학술 용어’를 사용한 연구는 비교적 많으며³⁾, 차석기(2006)의 ‘민족주의 연구에 사용되는 학술어 및 민족의 생성된 근원’과 같이 ‘학술 용어’를 줄여 ‘학술어’로 사용하는 예도 비교적 많이 발견된다. 이처럼 학술어는, “특정 직종에만 존재하는 제도나 행정 양식, 기구의 부속품 등을 나타내는 용어는 전문 용어로 볼 수 있지만, 학술 전문 용어라고 부를 경우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국립국어원(2014)의 보고서의 지적과 같이 개념상 ‘학술 전문 용어’를 지칭하는 용어로 이해하는 것이 단어의 의미상으로 타당하다⁴⁾.

학술어가 전문 용어의 하위 개념이라는 점에서, 학술어는 전문 용어의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최석두(2000)에서 소개한 전문 용어의 11가지 특성⁵⁾을 대부분 갖고 있다. 특히 일상어와는 달리 특정 학문 분야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탄생하며, 일상어와는 다른 개념을 갖고, 인위적 조작이 가능하다는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학술어를 포함한 전문 용어는 연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며, 그 의미나 용법이 특수하기 때문이다. 다만 최석두(2000)에서 지적한 ‘원어와 대역어의 존재’는 번역 학술어의 경우에는 타당하지만 전통적인 학문을 계승하여 사용한 용어의 경우 원어의 존재를 상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생리학 용어에서 신체를 나타내는 ‘팔, 다리, 심장’ 등은 일상어이지만 경우에 따라 전문성을 띠 수도 있다. 이 점은 근대 계몽기 생물학 교재에서 빈번히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독립신문』 1897년 6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논설’에

2) 국립국어원(2014), 『중앙 행정 기관의 전문 용어 개선 지원 및 순화어 정비 사업』, 국립국어원, 8-10쪽.

3) 한국학술정보서비스(<http://www.re.kr>)에서 ‘학술 용어’를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대략 7천 건 정도가 검색된다.

4) 물론 학술 전문 용어와 비학술 전문 용어를 구분하는 실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 특히 직업 용어라고 할지라도 개별 용어를 대상으로 학술 전문 용어인지 비학술 전문 용어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5) 최석두(2000), 전문 용어학의 내용과 과제, 『지식처리연구』 1-1, 문헌정보처리연구회, 61-75쪽. 이 논문에서는 시바타 다케시(柴田武, 1989)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전문 용어는 ‘통용 범위가 좁음, 일상어를 습득한 이후 습득함, 성립 시기가 짧음, 개념 변화가 가능함, 원어와 대역어가 존재함, 인위적 조작이 가능함, 단의적(單義的)임, 문장체 문자 언어를 기반으로 함, 표준어를 기반으로 함, 대부분 명사로 존재함, 일반 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음’을 특성으로 제시하였다.

역술된 생물학 용어 중 ‘털 잇는 짐승, 글거 먹는 것, 불근 피 가진 것, 룩디에서 사는 짐승’ 등 구 구조를 가진 표현이나 ‘등썰, 목뒤, 마디’ 등의 고유어 어휘는 동물 분류 및 신체 구조를 설명하는 용어로 번역 대상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원어: 대역어’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생물학 이론을 번역 소개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용어(일상어)를 활용했기 때문인데, 이때 사용한 용어는 일상어일지라도 학술적 의미를 내포한다.

이 점에서 일상어와 학술어의 경계를 나누는 일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근대 번역의 경우 일상어를 학술적으로 사용하는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듣는 신경: 청신경(聽神經), 호흡하는 것: 호흡기(呼吸器), 소화하는 것: 소화기(消化器)’ 등에서 구 구조의 표현이 한자어를 대용한 학술어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학술어와 일상어의 경계를 설정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증명한다⁶⁾.

이러한 관점에서 비록 순환논리의 오류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학술어(전문 용어)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최종 기준은 ‘사전 등재 여부’ 또는 특정 학문 분야의 인정 여부가 될 것이다. 달리 말해 특정 학문 분야에서 그 용어를 그 분야의 학술어로 인정할 것인가는 해당 분야의 사전 편찬자가 결정할 문제⁷⁾이며,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용어가 해당 분야의 학술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궁극적으로 사전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3. 학술어 연구 목적과 방법

특정 용어가 해당 분야의 학술어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기준이 명료하지 않다는 점은 학술어 연구가 용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근현대 학문이 발달하면서 학술어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 왔고, 오늘날에는 전문 용어에 대한 연구가 이른바 ‘전문 용어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탄생하기도 하였다.

최석두(2000)에서는 “전문 용어학은 전문 용어의 체계적 연구, 즉 개념에 대한 명명(命名), 전문 용어의 수집 및 관리, 언어학적 현상의 기술 및 표현, 개념과 용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전제, 그리고 그것들을 실행하고 응용하는 방법론⁸⁾”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비록 최석두(2000)에서 ‘전문 용어’와

6) 물론 여기서 구 구조의 학술어가 사라지고 한자어가 이를 대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상어에서 비롯된 표현은 학술어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할 듯하다. 그러나 일상어에서 비롯된 학술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일상어와 학술어의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에서 계통(또는 출처?)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7) 이 때 결정 기준이 무엇인가는 해당 분야의 사전 편찬자가 고민할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8) 최석두(2000), 앞의 논문, 66쪽.

‘학술어’ 또는 ‘술어’를 구분하고 있지만, 전문 용어학의 성립은 학술어와 관련한 용어학의 성립 가능성을 의미한다.

전문 용어학의 성립 과정에 대한 이현주(2015)에서는 “전문 용어학은 그 탄생 초기부터 일반 어휘론, 일반 사전학과 대립하면서 독자적인 학문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이론 틀과 체계를 갖추고자 했다.”⁹⁾고 한다. 이는 전문 용어가 어휘론이나 사전학과 다른 차원의 ‘고유한 분석 단위’(대상)를 갖고 있으며, ‘인접 분야와는 구별되는 목표와 그에 따른 방법론’(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진술은 범박하게 해석할 때,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론을 기준으로 한 학문 분야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전문 용어학은 전문 용어라는 연구 대상이 존재하며, 전문 용어를 연구하기 위한 방법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즉 최석두(2000)에서 언급한 전문 용어의 ‘명명’, ‘수집’, ‘관리’, ‘응용’ 등이 전문 용어학의 목표가 되는 셈이다.

전문 용어학의 목표는 근본적으로 ‘용어’를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용어는 단순히 개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이현주(2015)에서는 마이킹(Myking, 2001)을 인용하여 용어 이론에 대한 태도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도 충실파(moderate and loyal)’로 불리는 전통적 용어 이론가, 단일어를 연구 대상으로 사회언어학적 관점을 용어론에 대입하는 ‘전복적 급진파(radical and subversive)’, 전통적인 용어 이론의 기본 원칙을 수용하고 이를 심화·재정비하는 작업에 관심을 갖는 ‘급진적 추종파(radical and loyal)’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 흐름에서 전통적 용어론과는 달리 용어의 사회적 성격에 주목하는 사회 용어론이나 사회 인지 용어론자의 경우, 용어의 조어(造語)나 표준화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학술어 연구의 목적이나 방법도 일반적인 전문 용어학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전문 용어의 분포에 대한 기술, 생성되는 과정, 표준화 및 정리 작업의 필요성, 전문 용어의 체계적 관리 등은 학술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이 점에서 학술어의 분포, 새로운 학술어 생성, 다양한 학술어의 표준화, 학술어 사전 편찬 등의 연구 과제가 등장할 수 있다.

첫째, 학술어 분포의 경우 통시적, 공시적 관점의 종합적인 연구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정 학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학술어는 해당 분야의 학문 체계나 지식 발달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예를 들어 15세기 『경국대전』의

9) 이현주(2015), 전문용어학의 이론적 토대를 위한 개념 연구, 『한국사전학』 26, 한국사전학회, 40-67.

학문 체계와 19세기 말 유길준(1895)의 『서유견문』에 등장하는 학문 체계는 판이하게 다르다. 『경국대전』에는 인재 등용과 관련하여, ‘유학(儒學), 한학(漢學), 몽학(蒙學), 여진학(女眞學), 왜학(倭學), 의학(醫學), 천문학(天文學), 지리학(地理學), 명과학(命課學), 산학(算學), 율학(律學), 화학(畫學), 도학(道學)’ 등 13학을 설정한다¹⁰⁾. 이 때 등장하는 ‘명과학’, ‘율학’, ‘도학’ 등은 현대의 학문 체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분야이다. 유길준(1895)의 『서유견문』(교순사, 도교)에는 ‘농학(農學), 의학(醫學), 산학(算學), 정치학(政治學), 법률학(法律學), 격물학(格物學), 화학(化學), 철학(哲學), 광물학(礦物學), 식물학(植物學), 동물학(動物學), 천문학(天文學), 지리학(地理學), 인신학(人身學), 박고학(博古學), 언어학(言語學), 병학(兵學), 기계학(器械學), 종교학(宗敎學)’ 등 19개 학문 분과명이 등장한다¹¹⁾. 이 가운데 ‘격물학, 인신학, 박고학’ 등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응용과학’ 등을 기준으로 하는 현대의 학문 체계¹²⁾에서는 어느 특정 분야로 대치하기 힘든 분야들이다. 즉 시대와 사회에 따라 학문 체계가 다르고, 지식의 구조 및 발전 과정이 다름을 고려할 때, 학술어의 분포와 의미, 용법이 동일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학술어의 분포와 기술은 시대와 사회의 특성에 맞게,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술어의 생성과 관련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전통적인 학문을 계승할 때보다 새로운 학문이 출현할 때 더 빈번히 제기된다. 특히 새로운 학문을 번역·수용할 경우, 기존에 없던 학술 용어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이러한 사례는 근대 동아시아의 서구 학문 수용 과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6세기 이후 중국어로 번역된 서양 종교서에서 서양의 유일신을 ‘천주(天主)’, ‘상제(上帝)’로 번역한 것¹³⁾이나, 근대 일본에서 난가쿠(蘭學)을 수용하면서 ‘신경(神經), 탄소(炭素), 수소(水素)’ 등을 만들어 낸 것¹⁴⁾은 기존의 어휘소를 활용하여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다. 이렇게 생성된 학술어는 일종의 ‘번역 학술어’로 간주된다. 근대 한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성한 번역 학술어가 많지 않지만, 서구 지식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의 경우 번역 학술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존재했다. 예를 들어 중

10) 한국학문헌연구소 편(1983), 『경국대전(經國大典)』 권(卷)3, 아세아문화사. 예전(禮典) ‘생도(生徒)’, 240-244.

11) 유길준(1895), 『서유견문』, 교순사, 도교. 제13편 ‘학업하는 조목’.

12) 소광희 외(1994), 『현대의 학문체계』, 민음사.

13) 이해경(2010), 근대 중국 윤리 개념의 번역과 변용, 『철학사상』 37,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95-129.

14) 이에 대해서는 김동기(2003), 일본의 근대 번역, 『시대와 철학』 14-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63-290 참고.

국의 경우 1868년 상해에 설치된 ‘강남 제조총국 번역국’의 역서(譯書) 사업에서 “역서의 방법”과 관련한 원칙을 천명한 바 있고, 1903년 존 스튜어트 밀의 『On Liberty(자유론)』를 『군기권계론(羣己權界論)』이라는 이름으로 번역한 옌푸(嚴復)도 ‘역범례(譯凡例)’에서 번역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강남 제조총국 번역국의 ‘역서 방법’은 ‘중국에 이미 존재하는 명사’, ‘새로운 명사를 만드는 일’, ‘중국과 서양의 자휘(字彙)를 만들어 대조하는 일’ 등 세 가지였다¹⁵⁾. 옌푸의 ‘역범례’에서 liberty(중국어 음역은 里勃而遠)와 justice(중국어 음역은 札思直思)를 ‘공도(公道)’로 혼용하는 대신 자국 전통의 표현을 찾아 ‘자요(自繇)’를 생성한 이유¹⁶⁾도 번역 학술어를 만드는 원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비슷한 시기 량치차오(梁啟超)가 ‘역서를 논함(論譯書)’에서 전문 번역가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인명과 지명’, ‘관제’, ‘물명’, ‘도량형’, ‘기년(紀年)’을 중국식으로 번역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¹⁷⁾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에서도 학술어 생성과 관련한 고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시경의 국어 문법 용어나 김두봉(1932)의 ‘과학 술어와 우리말’은 근현대 우리말식 학술어 생성에서 주목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김두봉(1932)에서는 “흙이들 科學上 術語는 우리말로 다 찾아 적을 수 없고 다만 歐美語 發音 그대로나 漢字 發音 그대로 부르는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라고 하면서, “물건의 性質, 形狀, 動作, 出處, 用途들을 뜻하여 맨든 것이니, 이같이 그 術語 속에 숨겨 잇는 말의 要素를 살필진댄 우리말이 모잘라서 術語를 못 찾을 念慮가 도모지 없는 것입니다.”¹⁸⁾라는 태도는 중국의 옌푸나 량치차오의 술어 생성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허재영(2015)에서 밝힌 바와 같이, 김두봉(1932)에서 제시한 과학 술어 가운데 현재까지 쓰이는 용어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그의 과학 술어 만들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광복 이후 남한의 ‘우리말 도로 찾기 운동’이나 북한의 학술용어 통일 운동 등의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다¹⁹⁾. 그 중 하나로 리익환(1949)의 ‘학술 용어 통일 방법론’²⁰⁾을 들 수

15) 존 프라이어(중국명 傅蘭雅, 1880), 『역서사략(譯書事略)』, 격치휘편관. 이 책은 글쓰이가 황중원 외(2019), 『한국에 영향을 미친 중국 근대 지식과 사상』(경진)의 부록으로 번역 수록하였다.

16) 옌푸의 ‘군기권계론 역범례’는 최석원 외(2019), 『지식 산출의 기반으로서 근대 번역의 기능』(평사리)의 부록을 참고할 수 있다. 옌푸는 ‘자요’라는 표현을 당나라 때 시인 유종원(柳宗元)의 ‘시어사 조씨에게 답하다(酬曹侍御)’에서 찾아냈다.

17) 최석원 외(2019), 『지식 산출의 기반으로서 근대 번역의 기능』(평사리) 부록, 량치차오 ‘논역서’ 참고.

18) 김두봉(1932), 과학 술어와 우리말, 『한글』 1-4, 조선어학회.

19) 허재영(2015), 과학 술어와 우리말(김두봉, 1932)의 전문 용어 다듬기, 『동악어문학』 64, 동악어문학회, 201-226.

20) 리익환(1949), 학술 용어 통일 방법론, 『조선어연구』 2-2, 조선어문연구회, 평양, 12-30.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학술 용어 통일 원칙으로 ‘대중적인 쉬운 말’, ‘조선의 단일 문자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말’, ‘분석적 및 종합적 과학 개념을 계통적으로 충실히 표현할 수 있는 말’ 등을 택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원칙은 용어 통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용어를 만들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셋째, 학술어의 표준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전문 용어학의 핵심 과제의 하나로 최기선(2002, 2006), 조동성(2006) 등의 선행 연구에서도 비교적 자세히 언급된 사항이다. 최기선(2002)에서는 ‘생물학, 의학’ 분야의 전문 용어(학술어) 표준화를 대상으로 하였으며²¹⁾, 최기선(2006)에서는 ‘산업공학, 물리학, 화학, 의학, 수학’ 등의 분야로 이를 확대하였다²²⁾. 물론 전문 용어 표준화와 관련한 선행 연구가 해당 분야에서 사용하는 학술어를 모두 표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전문 용어(학술어)를 정리하고 표준화해야 하는 이유는 뚜렷하다. 이와 관련하여 조동성(2006)에서는 ‘전문 용어 정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²³⁾.

(2) 전문 용어 정리의 목적

- ㄱ. 전문 지식의 전달: 분야 내, 또는 인접 분야와의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동일한 개념을 다른 용어로 지칭하거나 잘못된 용어 사용에서 오는 소통 장애 방지 차원
- ㄴ. 전문 영역을 이루는 기본 어휘 교육: 한 전문 분야의 근간을 이루는 어휘를 교육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공
- ㄷ. 번역 및 통역: 제대로 번역되지 않은 용어로 인한 혼란 방지
- ㄹ. 언어 정비: 언어 내적 의사소통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어와의 접촉에 따른 새로운 언어 체계 정비
- ㅁ. 학술적, 기술적 글쓰기: 논문, 행정 부서 및 관청의 공문서에서 전문화된 용어를 사용할 때의 기준 제시. 배타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용어, 용인되는 용어, 피해야 할 용어 등의 목록 필요
- ㅂ. 용어의 로컬화(용어의 조정): 대상이 되는 문화의 특성, 지역 특성에 따른 용어의 조정 필요

학술어 표준화 문제는 특정 학문 분야 내부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학문 상호간

21) 최기선(2002), 『21세기 세종계획 전문용어의 정비』,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22) 최기선(2006), 『21세기 세종계획 전문용어의 정비』, 국립국어원.

23) 조동성(2009), 『전문 용어 정리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의 관계, 남북한 학술 교류 등 다차원적인 입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립국어원·이화여대 국어문화원(2009)에서 밝힌 바와 같이²⁴⁾, “전문 용어(학술어)는 한 학술 영역이나 전문 분야를 이루는 근간이며, 지식과 정보를 생산·축적·소통·확산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데,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식·정보의 소통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셈이다.

넷째, 학술어 사전과 관련된 문제이다. 학문 발달에 따라 해당 분야의 학술어 사전이 편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박형익(2004)²⁵⁾에 따르면 한자 사전이나 운서 편찬의 역사는 조선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근대 이후의 학문 발달과 함께 19세기 후반부터 국어사전 편찬이 시작되고²⁶⁾, ‘신래성어’, ‘신어’, ‘현용 신어’ 등의 명목으로 전문 용어에 해당하는 용어 자료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신래성어나 신어가 모두 학술어는 아니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 당시 신학문의 도입과 함께 쓰인 용어들이라는 점에서 번역 학술어의 생성 및 수용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1917년 신문사의 『간명 법률·경제 속어 사해』가 등장하였고, 학술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닐지라도 『최신 실용 조선 백과대전』(1917, 신문사)도 편찬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약품 및 의약품명’(1930.3.30. 조선총독부령 제66호), ‘삼림 수목명’(1912.9.2. 조선총독부 고시 제18호) 등의 전문 용어나 각종 근대 교과서 및 논문에 사용된 용어의 색인 자료 등을 고려하면 학술어 자료집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는 한국학술정보서비스에서 전문용어를 키워드로 검색할 때 대략 1만 종의 단행본이 검색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된다. 허재영(2013)의 조사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검색되는 용어 사전 2300종 중 국내에서 출판된 사전이 625종에 이른다²⁷⁾. 특히 용어사전은 1980년대 이후 급증했는데, 최근에는 각 학문 분야마다 해당 학술어(전문용어) 사전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을 만큼 다양해졌다. 그러나 각 용어 사전마다 수록 어휘의 차이뿐만 아니라 수록 정보, 어휘 풀이 방식 등이 다양하여, 어떤 경우는 사전으로 간주하기 힘든 것들도 많다. 달리 말해 각 학문 분야의 필요에 따라 어휘 자료집을 만들기는 했지만, 학술어 사전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는 뜻이다. 아울러 매체 발달이나 데이터 처리 방식의 변화

24) 국립국어원·이화여대 국어문화원(2009), 『전문용어 정비 지원 사업 최종 보고서』, 국립국어원.

25) 박형익(2004), 『한국의 사전과 사전학』, 월인.

26) 이병근(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태학사)에서는 19세기를 국어사전 편찬 태동기로 규정한다.

27) 허재영(2013), 전문용어 사전의 역사성과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발전 방향, 『한말연구』33, 한말연구학회, 359-365.

에 따라 사전 편찬 양식도 달라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터넷 매체에서 활용하는 사전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연구도 필요하다.

4. 학술어의 연구 방향

일찍이 주시경은 『국어문전음학』에서 음학(音學)이 음리(音理)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²⁸⁾.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치는 이론이나 법칙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학문이 “어떤 현상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상을 기술하고, 이론과 법칙을 산출하여 그 현상을 설명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예측하고 응용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매우 원론적인 논의이지만 이돈희(1992)에서는 학문이 진리 탐구의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진리라는 것은 실체나 사실이나 존재 그 자체에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 관한 인간의 생각, 의견, 믿음, 주장, 서술, 설명, 이론 등, 즉 인간이 이해하는 바대로의 표현에 관한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²⁹⁾. 또한 차배근(1992)에서는 학문 생활을 ‘진리 탐구’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모든 연구의 1차적 목적은 기술(to describe)에 있는데, 여기서 기술이란 주어진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관찰·보고하는 것”이며 “모든 연구의 목적은 어떤 주어진 현상을 기술하는 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주어진 현상에 대한 기술이 끝나면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와 같이 어떤 현상을 설명(to explain)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이다. 그 다음 연구의 세 번째 목적은 어떤 주어진 현상을 사전에 예측(to predict)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점쟁이의 비과학적 예언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앞서서와 같이 어떤 현상을 과학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네 번째 목적은 통제(to control)로서 이는 예측을 토대로 어떠한 현상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³⁰⁾라고 하여, 학문이 ‘기

28) 주시경(1908), 『국어문전음학』, 박문서관. “浩蕩無極호여 上下中外가 엮는 지 宇宙에 이 存호여 四方에 充滿호니 生滅과 始終이 無호지라. 其間에 無數호 物體가 有호니 다 此로 從호며 成호고 또 모든 物體가 各各 此로 從호여 命호 性이 有호지라. 此는 萬有의 源이요 萬有의 主니 天이라 上帝라 理라 함이 다 此를 謂호이라.”라고 하여 만물이 존재하는 이치가 있음을 밝히고, “音은 天地에 自在한 者”, “音은 刑象이 無호 者”, “音은 空氣의 波動”, “音은 有別聲과 無別聲의 別이 有호” 등과 같은 음의 특성을 설명한 뒤, “余는 此事(17세 만국지지를 학습한 경험과 19세 함음설을 주장하고, 국문동식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회원들이 독립당의 혐(嫌)으로 사망으로 숨어야 했던 일)을 인호여 幸히 閑隙을 得호므로 己亥年에 國語를 더 研究호고 以後로 다시 此理를 親知間에 申複히 說明호며”라고 하여, 국어 연구 즉 음학 연구가 음의 이치를 연구하는 일임을 밝혔다.

29) 이돈희(1992), 대학과 학문, 『대학생활과 학문』, 서울대 출판부. 24쪽.

30) 차배근(1992), 탐구하는 인간, 『대학생활과 학문』, 서울대 출판부. 63쪽.

술, 설명, 예측, 통제’를 기본적인 활동으로 하고 있음을 명료히 제시하였다.

학문 분야에 따라 학문 활동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떤 분야의 학문이든 문제 현상에 대한 객관적 기술과 변인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 산출된 이론을 근거로 한 예측과 변인 통제를 통한 응용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문에 공통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학술어(또는 전문 용어)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과 설명, 학술어 생성과 변화 원리에 대한 타당한 설명, 학술어의 미래에 대한 예측, 바람직한 학술어 사용에 대한 응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학술어 연구(전문 용어학)가 지향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 점에서 학술어 연구의 첫 번째 고려해야 할 문제는 학술어 현상에 대한 공시적, 통시적 실태 조사 및 기술과 관련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은희철 외(2013)의 ‘우리나라 의학 용어의 역사’와 같이 통시적 차원에서의 학술어 생성 과정을 비롯하여, 각 학문 분야의 학술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술하는 문제가 급선무로 보인다. 물론 학문 제반 분야의 학술어를 모두 조사하는 일을 쉽지 않다. 그럼에도 각 학문 분야에서 산출한 용어 사전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특징을 기술하는 문제는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과제에서 유의할 점은, 학문 체계 또는 유래가 다르면 학술어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학술어 현상이 현대의 학문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근대, 일제강점기 등 시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된다는 뜻이다.

두 번째 고려해야 할 문제는 “학술어의 생성과 변화”의 기본 원리를 탐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이 문제는 근대 동아시아의 ‘번역 학술어’ 생성 과정에서 비교적 많은 고민이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존 프라이어(1880)의 『역서사략』, 옌푸(1903)의 ‘군기관계론 역범례’, 량치차오(1902)의 ‘논역서(論譯書)’에 등장하는 ‘역서의 방법’과 관련된 논의나 『신민총보』, 『역서공회보』 등과 같은 근대 중국 신문에 등장하는 번역어의 적합성에 관한 논쟁³¹⁾, 1770년 일본에서 발행된 『해체신서』(네덜란드 해부학 번역서), 1753년 오규 소라이(荻生徂來)의 『역문전제(譯文箋蹄)』, 1847년 우다카와 요안(宇田川榕菴)의 『세이미가이소(舍密開宗)』 등에 나타나는 번역 학술어 생성과 관련된 고민 등³²⁾은 이 문제를 해

31) 이에 대해서는 허재영(2018), 근대 중국어 번역 학술어 생성 양상과 한국에 미친 영향, 『한민족어문학』 79(한민족어문학회, 9-37), 허재영(2019), 근대 중국의 서학 수용과 한국에서의 번역 서양서 수용 양상, 『어문학』 144(한국언어문학회, 303-330), 허재영(2019), 근대 한국에서의 번역 서학서 수용과 학술어 사용 양상, 『인문사회과학연구』 20-3(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63-85) 등에서 몇 차례 논의한 바가 있다.

32) 최석원 외(2019), 『지식 산출의 기반으로 근대 번역의 기능』, 평사리, 32-33.

결하는 데 참고해야 할 자료들이다. 이는 근대 한국에서 주시경의 문법 용어, 김두봉(1932)의 ‘과학 술어’, 광복 이후 ‘우리말 도로 찾기’, 한글학회(1967)의 『쉬운말사전』(정음사) 등이 출현하는 과정과도 다르지 않다. 학술어는 전통적인 학문을 계승하여 사용하는 용어와 새로 만들어 내는 용어가 혼재한다. 특히 학술어의 생성 과정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학술어를 만들 것인가, 여러 가지 학술어가 혼재할 경우 어떤 학술어가 수용되는가, 어떤 요인에 의해 수용되는가 등은 전문 용어학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국어 어휘사의 차원에서조차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인 셈이다.

세 번째 고려해야 할 문제는 ‘우리말다운 학술어’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주시경의 문법 용어나 김두봉(1932) 등에서 일찍부터 논의되어 온 것들이나 현재까지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학술어의 고유어화를 주장하는 다양한 논의에도, 현실적으로 학술어에서 고유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주시경의 문법 용어나 김두봉의 ‘과학 술어’ 가운데 현재 사용하는 용어가 많지 않다. 고유어 학술어뿐만 아니라 한자어 학술어의 경우 근대 중국에서 만든 학술어보다 일본식 학술어가 더 많이 사용되는 현상, 근대에 생성된 한자 기반의 번역 학술어가 서양어를 음차한 용어로 대체되는 현상 등도 그 요인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³³⁾. 분명한 것은 학술어의 범주에서 ‘고유어: 한자어: 외국어’의 대립 관계가 ‘국어사용에 대한 태도’의 문제(고유어와 한자어 선호 문제 등)로만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좀 더 확장하여 말하면 ‘국문(國文)’의 범위에 대한 ‘국한혼용론: 한글 전용론’, 국어의 얼과 관련한 ‘우리말 존중 의식’ 등의 문제는 다분히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띠지만, 이 문제를 학술어와 관련지어 해석할 경우, ‘고유어 학술어로 대체하기’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해부학 용어를 대상으로 한 은희철 외(2013)에서 ‘고유어 용어의 경제성과 효율성’, ‘용어 길이의 문제’, ‘전문 용어의 이해도 문제’ 등에서 고유어 학술어 사용 가능성이 검증되고 있듯이, 전문 용어의 고유어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나 쉬운 학술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네 번째 고려해야 할 문제는 전문 용어 정책과 마찬가지로 학술어 문제도 정

33) 아직까지 이에 대한 분석이 없지만, 학술어의 수용과 정착 과정은 ‘언어적인 요인’, ‘교육적인 요인’, ‘사회 환경적인 요인’ 등이 다양하게 작용할 것으로 추론된다. 예를 들어 『화학감원(化學鑑原)』에 등장하는 단음절 신자(新字) 학술어의 경우 국문으로 표기할 때 부연하여 설명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을 지시하는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다. 차자의 경우도 비슷한데, 서양인의 인지명을 중국식 발음에 따라 음차한 용어(예를 들어 栢納圖는 한국식 한자음 ‘백납도’이지만 중국 발음으로는 ‘플레이토’, 즉 플라톤에 가깝다)를 한국식 한자음으로 읽을 경우 전혀 다른 발음이 된다. 또한 근대 계몽기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일본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는 점도 학술어 수용 양상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을 것이다.

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학술어는 근본적으로 국어 어휘론이나 전문 용어학의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한국 학문의 역사와 현실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학문의 자유와 다양성을 고려할 때 학술어 연구가 개별 학문 분야를 떠나 존재할 수 없지만, 학술어의 표준화나 학술어 사전 편찬 등 제반 문제를 고려할 때, 학술어 연구는 정책적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일제 강점기 조선어학회의 『한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전문 용어, 1960-70년대 문교부에서 발행한 각종 전문 용어집, 광복 이후 15차에 걸쳐 진행된 행정 용어 고시 등은 ‘학술어’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전문 용어의 표준화가 왜 필요한지를 역사적으로 증명한다. 더욱이 지식의 양이 급증하고, 인터넷 통신이 발달된 현실에 맞는 학술어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국립국어원에서 ‘개방형 지식 대사전’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각 행정 기관이나 학술 단체에서 인터넷을 통해 각종 용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또한 학리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책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따를 수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2014), 『중앙 행정 기관의 전문 용어 개선 지원 및 순화어 정비 사업』, 국립국어원, 8-10.
- 국립국어원 · 이화여대 국어문화원(2009), 『전문용어 정비 지원 사업 최종 보고서』, 국립국어원.
- 김동기(2003), 일본의 근대 번역, 『시대와 철학』 14-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63-290.
- 김두봉(1932), 과학 술어와 우리말, 『한글』 1-4, 조선어학회.
- 리익환(1949), 학술 용어 통일 방법론, 『조선어연구』 2-2, 조선어문연구회, 평양, 12-30.
- 박형익(2004), 『한국의 사전과 사전학』, 월인.
- 소광희 외(1994), 『현대의 학문체계』, 민음사.
- 유길준(1895), 『서유견문』, 교순사, 도쿄. 제13편 ‘학업하는 조목’.
- 이돈희(1992), 대학과 학문, 『대학생활과 학문』, 서울대출판부. 24
- 이병근(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 이현주(2015), 전문용어학의 이론적 토대를 위한 개념 연구, 『한국사전학』 26, 한국사전학회, 40-67.
- 이혜경(2010), 근대 중국 윤리 개념의 번역과 변용, 『철학사상』 37,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95-129.
- 정호정(2010), 번역과 전문 용어학, 전문 용어학과 번역학, 『통역과 번역』 12, 한국통역번역학회, 235-255.
- 조동성(2009), 『전문 용어 정리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존 프라이어(중국명 傅蘭雅, 1880), 『역서사략(譯書事略)』, 격치휘편관.
- 주시경(1908), 『국어문전음학』, 박문서관.
- 주시경(1910), 『국어문법』, 박문서관. 27.
- 차석기(2006), 민족주의 연구에 사용되는 학술어 및 민족의 생성 근원, 『교육연구』25, 원광대 교육문제연구소, 659-671.
- 최기선(2002), 『21세기 세종계획 전문용어의 정비』,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 최기선(2006), 『21세기 세종계획 전문용어의 정비』, 국립국어원.
- 최석두(2000), 전문용어학의 내용과 과제, 『지식처리연구』1-1, 문헌정보처리연구회, 61-75.
- 최석원 외(2019), 『지식 산출의 기반으로서 근대 번역의 기능』, 평사리.
- 한국학문헌연구소 편(1983), 『경국대전(經國大典)』권(卷)3, 아세아문화사. 예전(禮典) ‘생도(生徒)’, 240-244.
- 허재영(2013), 전문용어 사전의 역사성과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발전 방향, 『한말연구』33, 한말연구학회, 359-365.
- 허재영(2015), 과학 술어와 우리말(김두봉, 1932)의 전문 용어 다듬기, 『동악어문학』64, 동악어문학회, 201-226.
- 허재영(2018), 근대 중국어 번역 학술어 생성 양상과 한국에 미친 영향, 『한민족어문학』79, 한민족어문학회, 9-37.
- 허재영(2018), 지식 유통의 관점에서 본 근대 동아시아의 번역 학술어 생성·변화 및 그 영향, 『독서연구』49, 한국독서학회, 29-58.
- 허재영(2019), 근대 중국의 서학 수용과 한국에서의 번역 서양서 수용 양상, 『어문학』144, 한국언어학회, 303-330.
- 허재영(2019), 근대 한국에서의 번역 서학서 수용과 학술어 사용 양상, 『인문사회과학연구』20-3, 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63-85.
- 허재영(2019), 한국 근현대 종교 지식 담론의 발달과 학술어 수용 양상 연구, 『인문연구』86,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33-62.
- 황중원 외(2019), 『한국에 영향을 미친 중국 근대 지식과 사상』, 경진.

573돌 한글날 · 한글학회 창립 111돌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2019년 10월 11일 (금) 09:50 ~ 16:40

한글회관 열말글교육관

□ 제1부: 주제 발표

한국어 통사론의 나아갈 방향 : 논항 구조에서 인칭 구조로의 전환

목정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mjismok@uos.ac.kr

1. 들어가기

우리는 이제 지난 20세기에 걸쳐 서구의 전통문법, 구조주의 문법, 기술문법, 변형생성문법의 빛을 받으면서 또 근대 일본어 문법으로부터의 강력한 직간접적 영향권 안에서 형성되어 온 한국어 문법의 담론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어 문법, 특히 통사론 영역이 현재 어떤 모습으로 표준화되어 있는가를 반성해 보고 앞으로 21세기에, 가능하다면, 한국어 통사론이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한국어 통사론의 발전 방향을 추구한다는 것은 과거의 틀에 남아 있는 문제점을 살살이 들춰내고 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 국어학계에서 발전시켜 정립한 학교문법이나 표준문법을 중심으로¹⁾ 그런 문법 틀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나 이론적 근거가 일반성과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먼저 학교문법이나 표준문법으로 불

1) 본고에서는 허웅(1983), 남기십·고영근(1993), 이관규(1999), 고영근·구본관(2018), 유현경 외(2019)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리는 체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입장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고 그러한 입장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비일관성/비체계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앞뒤 모순이 없는 체계적이고도 일관된 필자 나름의 한국어 문법 체계를 구성하는 일로 이어진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필자가 취하는 이론적 토대는 세 가지로 요약됨을 밝힌다. 첫째는 통사 단위의 정확한 설정과 문법적 위상의 정립을 위하여 어휘 요소와 문법요소들을 철저히 분포에 입각하여 분석한다는 기술주의적(descriptive)이며 동시에 구조주의적(structural)인 방법이다. 둘째는 구조주의에서 발전된 후기구조주의적 성향을 띤 정신역학론이다. 정신역학론은 프랑스 언어학자 기욤(Guillaume)의 이론으로서, 철저한 구조주의적 분석에 토대를 두되 소쉬르(Saussure)의 랑그와 빠롤의 이원성을 심리작용 시간(temps opératif)을 통하여 랑그 차원의 잠재태에서 담화(discours) 차원의 현실태로의 적분 형태로 통합하려는 일원론적이자 동적인 언어 모델이다. 정신역학론에서는 언어를 구성하는 정신역학체(psychomécanisme)를 찾아내고 모든 언어 현상을 움직임 또는 벡터 형태로 설명한다.²⁾ 마지막으로 한국어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드러내는 언어유형론의 관점을 방법론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제반 이론을 수용하면서 기존 한국어 학교문법이나 표준문법을 다시 살펴보면, 개념이나 용어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데, 다음 2장에서는 한국어의 기본 통사 단위로서의 단어 구조, 특히 조사와 어미의 통사 구조를 분명히 하고 한국어의 명사구나 동사구의 확장 구조를 표상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다. 이때 정신역학론의 동적 모델을 적극 원용하여 나무그림으로 어떻게 표상할 수 있고 이 모델이 여러 언어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론적인 문제도 문제이거니와 특히 이론과 자료의 관계에서 한국어 문법이 실제 자연스럽게 구성되어 사용되는 한국어 자료에 얼마만큼 토대를 두고 있는가 또 거꾸로 한국어의 자연 발화를 설명하는 데 얼마나 적합한 문법 이론으로 정립되어 있는가의 문제를 조목조목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한국어 문법의 틀이 실제 자료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어 통사론 연구가 이른바 논항 구조(argument structure)의 차원을 넘어서 어미의 특성을 적극 반영한 인칭 구조(person structure)의 차원으로까지 올라서야 된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정신역학론에서 사용하는 도식은 근원적 이원 장력(tenseur binaire radical)이라 불린다. 다음과 같은 도식이다.

$$U_1 \text{ -----} \rightarrow \text{ } _1 S_2 \text{ -----} \rightarrow U_2$$

2. 한국어 통사론 입론 과정에서의 몇 가지 문제들

2.1. 형태론과 통사론의 영역 구분

먼저, 한국어 통사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통사론의 기본 단위인 단어에 대한 입장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학교문법이나 표준문법을 보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품사 구분 단계에서 문법요소이자 구속형태소인 조사들은 독립된 품사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면서도 명사와 조사의 결합을 통사론이 아닌 단어의 내부 구조를 논하는 형태론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고영근·구분관, 2018). 조사의 분류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임동훈 2004, 목정수 2018a 참조),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등으로 분류된 각각의 조사가 명사와 결합하는 형식이 미국 구조주의 언어학자 블룸필드(Bloomfield) 식의 ‘최소 자립 형식’이라는 통사적 차원과 음운론적 차원이 혼효된 단어의 정의 방식에 이끌려 ‘어절’이라는 특이한/어정쩡한 개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동시에 굴절어와 교착어의 언어유형론적 특성/차이가 적극 고려되지 못한 상태에서 서구 고전어에서 형성된 곡용(declension)과 활용(conjugation)의 패러다임을 한국어 조사와 어미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한 것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표적으로 허웅(1983)은 미국 기술문법의 방법론을 받아들였고 더 나아가 생성문법의 심층구조와 표면구조의 관계를 적극 고려하는가 하면, 문법형태소가 발달한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태론 중심의 문법 기술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현실에 딱 들어맞지 않는 분석 방식과 용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조사의 지위를 설정하기 위해 도입한 ‘준굴곡’ 개념이 그것인데, 굴절어인 고전 인구어를 중심으로 짜여진 서구 전통문법의 틀에 갇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허웅(1983:184-188)에서는 ‘그 꽃이 매우 아름답다’란 예를 가지고 [그 꽃이]의 구조를 ‘그’와 ‘꽃이’의 결합으로 그리고 이들의 결합을 ‘통어론적 짜임새’라³⁾ 하고 ‘꽃이’를 ‘형태적 짜임새’라⁴⁾ 하고 있다. ‘꽃이’라는 형식을 ‘자유형식 + 구속형식’의 결합체로서 최소 자립 형식을 이룬다고 봄으로써 하나의 단어로 취급

3) 어떤 자립형식을 직접성분으로 쪼개어서 얻어지는 언어형식이 다 자립형식일 때에, 그 큰 언어형식을 ‘통어적 짜임새’라 하고, 통어적 짜임새의 됴됨이, 그 짜여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연구하는 부문을 ‘통어론’이라 한다(허웅 1983: 186).

4) ‘꽃-이’와 ‘아름답-다’는 두 형태소로 된 하나의 말마디인데, 이러한 한 말마디의 짜임새(자+구, 구+구)를 ‘형태적 짜임새’라 하고, 그 짜임새와, 그 때에 나타나는 ‘-이’, ‘-다’와 같은 구속 형식의 뜻을 연구하는 부문은 ‘형태론’이다(허웅 1983: 186).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허웅(1983)에서는 부득이 ‘준굴곡법’이란 어색한 용어로 타협하려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한국어의 통사 단위에 대한 엄격한 시각이 정립되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의 조사는 굴절 요소라기보다는 교착 요소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조사 하나하나가 단독적으로 그의 숙주(host)인 체언 요소에 붙어서 문법 관념이 표현된다. 조사는 체언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조사의 그 기능도 형태와의 관계에서 일대일의 대응 관계를 보여준다.⁵⁾ 심성 어휘론(mental lexicon)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체언과 조사는 따로따로 어휘부에 독립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단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수식의 통사적 관계를 따져볼 때도 한국어의 ‘체언 + 조사’를 (준)굴절형으로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난점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소녀가/소녀와’에서 관형어 ‘아름다운’이 수식하는 것이 ‘소녀’이지 ‘소녀가/소녀와’ 전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허웅(1983)에서는 최소 자립 형식에 의지해 단어를 규정하고 있고 ‘소녀가/소녀와’를 최소 자립 형식의 단어, 즉 굴절형으로 볼 수밖에 없었으므로, 수식어 ‘아름다운’이 이들 말마디를 꾸며주는 것으로 파악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고 만 것이다.⁶⁾

또한 ‘공원이/공원에서(는)’ 같은 단위는 소위 ‘어절’이라 불리며 통사의 기본 단위로 설정되기도 했다(고영근·구본관 2018, 유현경 외 2019). 이 ‘어절’이란 것은 대개 문장 성분과 일치하기는 하지만 문장 성분은 한 단위로 기능을 하긴 하지만 통사론의 기본 단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굴절어에서 곡용 형태의 단어 형이 랑그의 기본 단위로서 통사론에 참여하는 것과 혼동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원에서’, ‘공원이’, ‘공원을’, ‘공원으로는’ 등이 곡용 패러다임을 형성하여 기억의 단위가 된다는 것은 직관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여기서 굴절어인 라틴어의 한 예를 통하여 굴절어의 곡용 형태를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서술어와 논항의 문법 관계를 표시하는 문법 범주가 ‘격’이다. 따라서 명사는 서술어와 문법 관계를 맺으며 문장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실현 형식을 체계화한 것이 라틴어의 곡용표이다.

이러한 곡용표로 나타나 있는 것들은 해당 언어에서 모두 명사 상태의 실현형으로 기억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어간과 곡용어미의 두 단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의 곡용형으로 랑그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다.

5) 권재일(2012)에서는 ‘체언’과 ‘조사’의 결합을 ‘결합과정’으로 부르고 성분과 성분의 결합을 ‘통합과정’으로 불러 양분하고 있으나, 체언과 조사의 결합체를 원리적으로 굴절어에서 말하는 ‘곡용형’의 단어형, 즉 형태론적 구성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6) ‘아름다운 소녀에 대하여 (이야기하다)’라는 구성에서도 직접성분 분석은 [아름다운 소녀]와 [-에 대하여]로 나누지, [아름다운 소녀에]와 [대하여]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에 대하여]를 복합후치사로 파악한다. 영어의 ‘according to’나 ‘in front of’ 등에 대응된다.

(1) 라틴어 제2곡용 남성 명사 ‘dominus, domini’

	<i>dominus, domini</i> master m.			
	Singular		Plural	
Nominative	dominus	-us	dominī	-ī
Vocative	domine	-e		
Accusative	dominum	-um	dominōs	-ōs
Genitive	dominī	-ī	dominōrum	-ōrum
Dative	dominō	-ō	dominīs	-īs
Abl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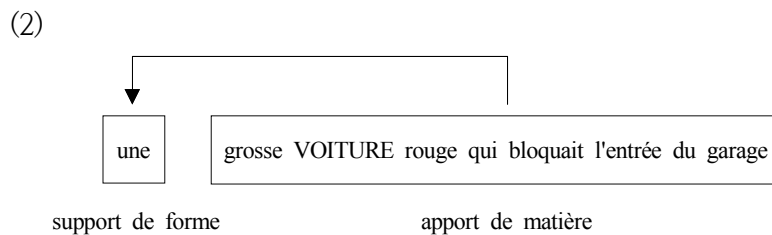
한국어의 조사들은 라틴어의 격 곡용어미에 대응되는 요소가 아니다. 굴절어의 성격을 벗어버린 불어의 전치사나 관사와 같은 문법요소에 대응된다. 굴절어로 분류되는 인구어들의 역사적 변모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라틴어 같은 굴절어에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던 굴절어미가 사라지면서 그것이 담당하던 기능이 어순이나 전치사로 넘어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구어 굴절어에서의 곡용어미(désinence)는 독립적인 통사 단위를 이루지 못하는 반면에 불어의 전치사나 관사는 독립적인 통사 단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라틴어에서는 어근 또는 어간과 격어미가 융합된 형태가 랑그의 기본 단위가 되므로, 격어미를 통사론의 최소 단위로 따로 떼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에 비해 불어의 전치사나 관사는 하나의 독립적인 통사 단위가 될 수 있다.⁷⁾ 따라서 굴절어의 곡용 어미가 사라지면서 교착어나 고립어적 성격으로 바뀐 불어나 영어 같은 언어에서 ‘dans le parc’나 ‘in the park’ 같은 언어 형식을 단어형으로 볼 수 없듯이, 한국어의 ‘공원에서’는 준굴곡법의 단어형이 아니라 단어 ‘공원’과 단어 ‘에서’의 결합인 통사적 구성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이러한 성분의 내적 구조는 통사적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통사적 구성으로 봐야 한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표상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돼야 한다.

더욱이 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결합하는 대상이 명사뿐만 아니라 명사구 구성도 가능한 것이므로 국어학계의 일부에서는 ‘통사적 접사’라는 개념으로 이를 포착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창수 1992, 시정곤 1994, 임홍빈 1979). 그러나 이것은 별것은 아니고 조사가 통사 단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영어에서 ‘in the national park’에서 ‘in’이 ‘the national park’와 결합하고 ‘the’가 ‘national park’라는 명사구와 결합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렇다고 영어에서 ‘in’이나 ‘the’를 ‘통사적 접(두)사’라고 하지는 않지 않는가? 따라서 불어에서는 명사구에 관사와 전치사가 붙어 어떻게 확장되어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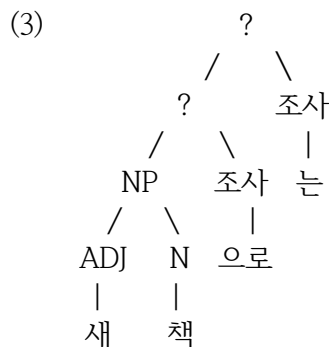
7) Guillaume(1973) 참조.

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듯이,⁸⁾ 한국어에서는 명사(구)와 조사의 결합 구조에서 명사구 자체의 양적 확장보다는 명사 자체가 어떻게 조사의 교착을 통해 문법적으로 확장되어 가는가를 포착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다음은 불어의 부정관사 ‘une’가 형용사 ‘grosse’와 인접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grosse voiture rouge qui bloquait l’entrée du garage’라는 명사구와 결합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문제는 한국어에서 ‘새 책으로’나 ‘새 책으로는’의 구조를 어떤 결점(node)로 규정하느냐이다.



2.2. 한국어의 조사와 명사의 결합 구조

이런 라틴어의 곡용표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대응될 수 있는 번역형을 적절하게 격조사로 분류한 것이 일본어나 한국어의 소위 격조사 부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격조사라 한 것은 인구어의 경우처럼 딱 짜여진 패러다임을 구성하기 어렵다. 조사라고 하는 것의 숫자 자체도 문제이거나 명사와 조사는 붙여쓰긴 하지만 각각 독립된 요소로 분석되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명사의 패러다임형으로서 격조사 체계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8) 구조적으로 전치사는 관사와 명사의 결합체와 결합하나 전치사와 관사가 형태적으로 통합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불어의 ‘au/aux’나 ‘du/des’나 포어의 ‘no/na’ (em+o/a) ‘na escola’(=학교에서(는))’ 등등.

한국어에서는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고도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데, 정보 구조에 의한 제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격조사가 없어도 통사적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⁹⁾ 반면에 라틴어에서는 격어미가 없이 문장에 실현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4) 가. 철수가 밥만 잘 먹던데.

나. 철수 밥은 먹었대?

(5) 가. 네가 그 밥을 어떻게 다 먹을 수가 있어?

나. 철수야, 밥 먹었어?

(6) 가. Dominus pascit me, et nihil mihi deerit.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나. *Domin pascit me

(7) 가. Laudate Dominum. (주님을 찬양하라.)

나. *Laudate Domin.

또한 격조사 부류로 설정된 것 중에서 ‘가, 를, 의’는 나머지 부사격조사와 달리 보조사 ‘는, 도’와 그 행태를 같이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생략된 격조사가 무엇인지가 문제가 된다.

(8) 가. 학교에 가다

나. 학교 가다

(9) 가. 학교를 가다

나. 학교 가다

‘학교 가다’는 (8)에서는 부사격조사 ‘에’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고, (9)에서는 구조격조사 ‘를’이 생략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것을 비교해 봤을 때는 어느 격조사가 생략된 것으로 봐야 할까?

(10) 가. 학교에를 가지 않기로 했다.

나. 학교에가 가고 싶지 않아서...

다. 학교 안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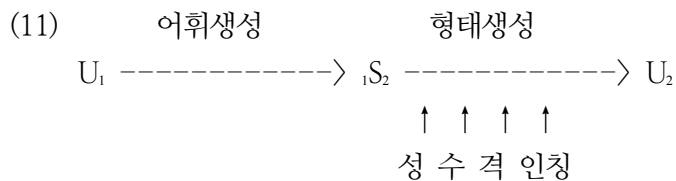
9) 물론 이 경우의 격조사라는 것은 소위 구조격조사라 부르는 ‘가, 를, 의’를 말하는 것이지 부사격조사‘로, 과, 에’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소위 구조격조사라고 한 ‘가, 를, 의’를 보조사 ‘는, 도’와 함께 묶어 격조사 부류에서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목정수(1998, 2003, 2009, 2013) 등을 참조할 것.

(10가, 나)에서의 ‘가’와 ‘를’은 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라는 논리로 (10다)는 부사격조사 ‘에’가 생략된 것으로 보려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는 다시 다음과 같은 문제에 부딪힌다. ‘학교에를 가다’에서 ‘에’가 생략된 것이라면 ‘학교를 가다’의 ‘를’은 보조사가 남아 있는 것이 된다. 그러면 (9)에서 ‘학교를 가다’의 ‘를’은 보조사인가 격조사인가? 혹자는 격조사라고 대답할지 모른다. 명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말이다. 그러면 이러한 분포에 기댄 대답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학교를 가다’의 ‘를’은 격조사이고 ‘학교에를 가다’의 ‘를’은 보조사(=비격조사)라고 하면, 똑같은 논리로 ‘학교에는 가지 마’의 ‘는’은 보조사이고 ‘학교는 가지 마’의 ‘는’은 격조사(=비보조사)라고 해야 하는가? 문제가 국부적인 영역에 그치지 않고 일파만파 문법 전반으로 퍼져 나간다.

2.3. 한국어 조사구의 표상 방법

우리는 한국어 문법요소 중 조사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어와 순서는 다르지만 유사한 유형으로 변모한 영어나 불어의 명사구의 쓰임을 먼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아니 이렇게 해야 한국어의 구조와 비교 대응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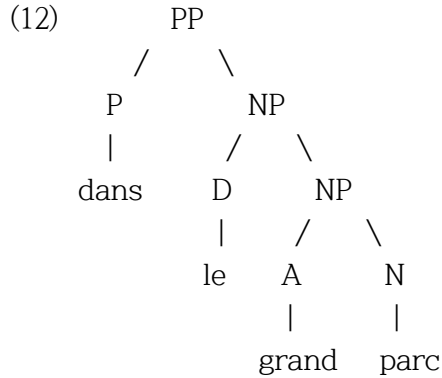
기욤의 정신역학론에서는 불어를 비롯한 인구어의 명사라는 단어를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통사론의 단계로 넘어가기 이전에 이미 형태론의 영역에서 잠재적으로 생성되는 어휘생성(idéogénèse)과 형태생성(morphogénèse)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하여 명사 분석은 문법요소(성, 수, 격, 외연성, 인칭)의 분포를 중심으로 하되, 그 요소들이 실현되는 과정의 시간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대 생성문법에서 제시한 NP 분석이나 DP 분석과는 기본적으로 시각을 달리한다. 기욤의 분석은 동적 절차를 따라 진행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우리는 기존의 NP 분석과 차별화하여 DP 분석과 PP 분석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되 동적 모델로 전환하여 명사 확장 구조를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을지를 보이고자 한다.¹⁰⁾

10) 국어학에서도 격조사가 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임동훈(1991), 한정환(2003), 임동훈(2008) 등으로 이어진 논의가 그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논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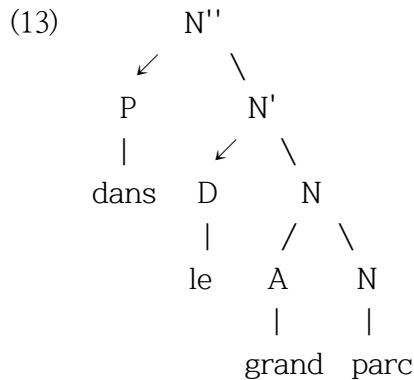
전통적으로 명사는 다음과 같은 확장 구조를 갖는 것으로 상정되었고, 나무그림으로 다음과 같이 표상되어 왔다.



그러나 위의 전통적인 나무그림은 몇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이 나무그림은 형태와 의미의 중심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 즉 형용사와 관사를 동일한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 형용사와 관사를 동일차원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로 파악되고 있으나, 형용사와 관사는 ‘개방성/어휘성’과 ‘폐쇄성/문법성’의 대립적인 성격에 의해 완전히 구분되는 별개의 단어 부류(word class)이다. 기욤은 형용사를 명사의 어휘적 의미와 관련된 내포/외연에 영향을 주는 수의적 성분으로서 질료적 한정사로 보고, 관사를 결과명사 외연의 적용영역을 한정하는 형식적 한정사로 보아 이 둘을 명쾌하게 구분한다. 둘째, 첫 번째 문제의 연장선에서 마찬가지로 관사와 명사의 관계와 전치사와 명사구의 관계가 이질적으로 표상되어 있다. 명사를 중심으로 보더라도 관사와 전치사는 문법적 관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형상(forme)과 질료(matière)의 관계로 환원되는데, 한 차원에서는 질료(=명사)를 중심으로 범주가 NP로 결정되고, 다른 차원에서는 형상(=전치사)을 중심으로 범주가 PP로 결정되고 있다. 이어지는 문제로 문장 성분의 차원에서 주어니 직접목적어니 간접목적어니 하는 통사적 기능은 똑같이 문장 내에서 실현된 표층의 담화적 사실(fait de discours)인데 주어나 목적어의 최대 투사는 NP로, 간접목적어나 처소어 등은 PP로 최대 투사되고 있다. 표면에 집착하고 언어의 실현과정, 즉 그 과정에 숨어 있는 시간의 흐름을 놓치면 랑그 차원의 명사 자체와 담화 차원에서 실현된 명사를 결과적으로 형태가 동일하다고 해서 동일 차원에 놓고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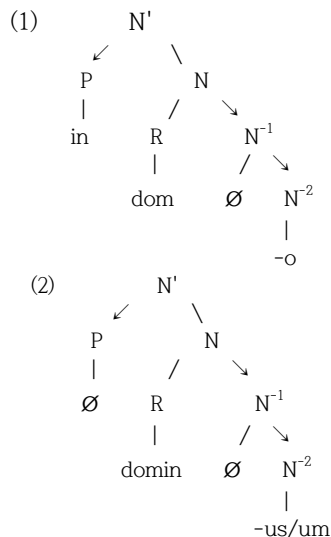
생성문법의 투사(projection)와 ‘X-bar’ 이론에 입각한 핵성(headness)의 문제로 인한 것이었다. 필자는 이러한 논의들이 핵을 어휘적 핵과 문법적 핵으로 구분해서 보는 시각을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의들에 Guillaume의 ‘결림관계(incidence)’ 이론과 품사 체계 논의, 그리고 영미권의 Corbett et al(ed)(1993)을 참조하면 본고의 동적 모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나무그림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기욤의 시간성을 고려하여 필자가 제안한 나무그림은 다음 (13)과 같다. 먼저, 어휘(=의미) 중심에서 문법(=형태) 중심으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화살표로 결림관계(incidence)의 방향을 표시하고, 명사의 랑그에서 담화로의 이행(=실현) 과정이 두 차원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바의 개수로 표시한다. 바의 수는 명사의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명사에 첨가되는 형용사는 그 수에 관계없이 명사(N)의 자격(=형상)을 바꾸지 못하므로, 양적 변화만 가져오지 질적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하는 것이다. ‘parc’나 ‘grand parc’나 ‘grand parc national’나 ‘grand parc national qui se trouve à Paris’나 다 똑같은 성질을 갖는다.¹²⁾



11) 직접목적어가 [전치사 + (대)명사]로 실현되는 전치사 동반 목적어 구문에 대해서는 목정수(1996, 2013b)를 참조할 것. 스페인어의 ‘Te quiero a tí’, ‘Espero a mis padres’나 루마니아어의 ‘Te iubesc pe tine’ 등등.

12) 명사구의 문법적 확장이 단어 바깥으로 외적으로 펼쳐지는 양상을 이와 같이 보여 주었다면, 단어 내부에 문법적 확장을 포함하고 있는 굴절어의 곡용어미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라틴어의 명사는 어근과 제일 가깝게 위치하여 어근의 어휘적 성격에 지배를 많이 받는 성(genre)과 수(nombre)의 어미가 결합하고 이후에 그에 따른 격(cas) 어미가 붙는 형태가 형태론 구성의 마지막 단계에서 완성되어 그 형태로서 통사적 차원에서 실현된다. 이에 더해 전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치사와 함께 통사적 성분을 구성하는 차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 입각하여 문장에서 실현된 명사(구)의 내적 구조는 일정하게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¹³⁾ 따라서 다음 (14)에 제시된 명사구의 확장 구조를 다음 (15)와 같이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14) 가. Il y a un grand parc à New York], qui s'appelle "Central Park".

나. Je vais aller aux Etats Unis en av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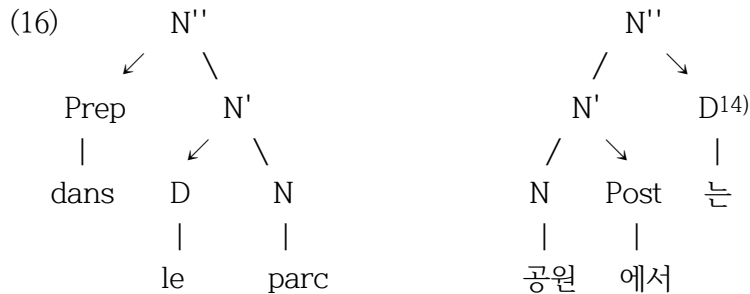
다. Paul, il est mon ami.

(15) 가. Il y a [$\emptyset_1$ un grand parc] [à $\emptyset_2$ New York], qui s'appelle "Central Park".

나. Je vais aller [aux Etats Unis] [en $\emptyset_2$ avion].

다. [$\emptyset_1$ $\emptyset_2$ Paul], il est [$\emptyset_1$ mon ami].

이러한 방법론을 따라 한국어도 동일하게 분석된다. 먼저 목정수(1998, 2003)에서 제시한 명사구의 확장 구조 [$N \rightarrow N' (=N+Post) \rightarrow N'' (=N'+Det)$]를 표상하는 나무그림은 다음과 같다. 불어 명사구의 확장과 동일한 형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나란히 제시한다.



이러한 구조적 분석을 토대로 앞서 제시한 ‘학교에 가다’와 ‘학교를 가다’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17) 가. 학교에 가다 => 학교-에- $\emptyset_2$ 가다

나. 학교에를 가다 => 학교-에-를 가다

다. 학교에는 가다 => 학교-에-는 가다

13) 우리의 명사구 확장 구조의 표상 방식은 생성문법에서의 DP 분석으로의 발전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생성문법의 엑스바 도식을 참조하되, 기움의 동적 모델을 원용하여 새롭게 나무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문제는 이 그림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이 있다.

14) 이 그림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D(éterminant) 범주(=한정조사=관사)를 기존 한국어 문법의 관형사 또는 한정사라고 불리는 ‘이, 그, 저’나 ‘한, 하나의’ 등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목정수(1998, 2003) 등을 참조할 것.

- 라. 학교 가다 => 학교- $\emptyset_1$ - $\emptyset_2$ 가다
 마. 학교를 가다 => 학교- $\emptyset_1$ -를 가다¹⁵⁾
 바. 학교는 가다 => 학교- $\emptyset_1$ -는 가다
 사. 학교도 가다 => 학교- $\emptyset_1$ -도 가다

일반적으로 ‘학교에 가다’와 ‘학교를 가다’를 비교하여 격조사 교체 현상을 논의하곤 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는 ‘학교 가다’가 어느 조사의 생략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우리의 구조적 분석에 의하면, ‘학교 가다’는 ‘학교에 가다’의 ‘에’나 ‘학교를 가다’의 ‘를’이 생략된 것이 아니다. ‘학교 가다’는 ‘학교에 가다’의 ‘에’라는 후치사 없이(=구조적으로 ‘ $\emptyset_1$ ’에 의해) ‘학교’라는 성분이 서술어 ‘가다’와 직접 통사적 관계를 맺어 형성된 동사구 구성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가다’와 ‘학교에 가다’가 일차적으로 대립한다. [‘ $\emptyset_1$ ’ vs. ‘에’] 이때 [학교- $\emptyset_1$ 가다] 구성은 타동 구성이 되는 것이고, [학교-에 가다] 구성은 [학교-로 가다] 구성 등과 같이 자동 구성이 된다. 전자의 타동 구성에 ‘를’이 추가되어도 타동 구성이 유지되는 것이고, 후자의 자동 구성에 ‘를’이 추가되어도 여전히 자동 구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는 타동 구성만 허용되는 다음과 같은 ‘가다’ 동사구 구성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 ‘쇼핑 가다’, ‘이사 가다’, ‘장가 가다’ 등의 이동 목적어 구성에서는 구체적인 후치사 ‘에’나 ‘로’가 개입될 수 없다. 따

15) 필자의 국어학 세계에서 ‘학교를’의 속 구조를 [학교- $\emptyset_1$ -를]로 파악한 것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학교에’와 ‘학교를’을 비교하면서 조사 ‘에’와 ‘를’의 교체(alternation)를 논의했던 논문들의 맹점을 지적했다. 필자가 보기에, 당연히 ‘에’와 ‘를’은 계열관계(paradigmatic relation)에 놓여 있지 않으므로 조사 ‘에’와 ‘를’의 교체 현상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러한 본포적 사실의 새로운 발견은 격조사로서의 ‘가₁’/‘를₁’과 보조사로서의 ‘가₂’/‘를₂’를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는’, ‘도’와 더불어 ‘가’나 ‘를’의 본질이 격 표시 기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의 인식으로 이어졌다. 최종적으로 동일 부류에 속하는 {가, 를, 도, 는, 의}는 한정사(determiner)의 역할을 하는 담화적 기능 요소로 파악하면서, ‘주어’, ‘목적어’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기고 한국어 통사 구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뒤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미리 영형 격조사 ‘ $\emptyset_1$ ’나 다른 격조사(=후치사)들과 한정사 {가, 를, 도, 는, 의, 이나, 이라도}나 영형 한정사 ‘ $\emptyset_2$ ’의 결합형, 그리고 아무 조사도 쓰이지 않은 ‘맨명사(bare noun)’를 예로 들어 그들의 속 구조를 표상하면 다음과 같다.

- (1) 가. 칼로 잘라. => [칼-로- $\emptyset_2$]
 나. 칼로는 곧 망한다. => [칼-로-는]
 다. 칼로가 더 잘 잘라진다. => [칼-로-가]
 라. 칼은 펜보다 약하다. => [칼- $\emptyset_1$ -은]
 마. 칼 쓰지 마, 이 칼 안 좋아. => [칼- $\emptyset_1$ - $\emptyset_2$], [이 칼- $\emptyset_1$ - $\emptyset_2$]
 바. 칼을 갈았다. => [칼- $\emptyset_1$ -을]
 사. 칼도 샀다. => [칼- $\emptyset_1$ -도]
 아. 칼에 녹이 슬었다. => [칼-에- $\emptyset_2$]
 자. 칼로의 절단. => [칼-로-의]
 차. 칼의 성능. => [칼- $\emptyset_1$ -의]
 카. 칼이나 사자. => [칼- $\emptyset_1$ -이나]
 타. 칼로라도 잘라 보시지. => [칼-로-라도]

라서 여기에 덧붙는 ‘을/를’의 경우 ‘쇼핑 가다’와 ‘*쇼핑에 가다’에서 보이는 문법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쇼핑 $\emptyset_1$ 가다’와 ‘쇼핑을 가다’처럼 타동 구문만 가능한 것이다.

- (18) 가. 쇼핑/이사/장가 가다
나. *쇼핑/이사/장가-에 가다

- (19) 가. 쇼핑/이사/장가-를 가다
나. *쇼핑/이사/장가-에를 가다

이를 위의 (17)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20) 가. *쇼핑에 가다 $\Rightarrow$ *쇼핑-에- $\emptyset_2$ 가다
나. *쇼핑에를 가다 $\Rightarrow$ *쇼핑-에-를 가다
다. *쇼핑에는 가다 $\Rightarrow$ *쇼핑-에-는 가다
라. 쇼핑 가다 $\Rightarrow$ 쇼핑- $\emptyset_1$ - $\emptyset_2$ 가다
마. 쇼핑을 가다 $\Rightarrow$ 쇼핑- $\emptyset_1$ -을 가다
바. 쇼핑은 가다 $\Rightarrow$ 쇼핑- $\emptyset_1$ -은 가다
사. 쇼핑도 가다 $\Rightarrow$ 쇼핑- $\emptyset_1$ -도 가다

이렇게 보면 그간 문장에서 문장 성분에 복수로 표지되는 ‘가’나 ‘를’과 관련된 현상을 두고 이중 주어나 다중 목적어 등의 현상으로 보아 왔는데, 외국어에서 격어미나 격표지가 중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없다는 점에서 과연 이러한 현상이 격과 관련된 것인가 정보구조와 관련된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본고는 한 문장 내에서 이러한 조사 ‘가’나 ‘를’ 성분이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격의 중출 현상과 무관한 정보구조의 실현 문제라고 보고 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서술어와 해당 논항은 하나의 문법 관계만을 맺는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 (21) 가. 철수가 고향이 생각이 나지가 않는가 보다.
나. 철수는 고향 생각이 나지 않나 봐.
다. 철수는 고향이 생각 나지 않는대.
라. 철수 고향 생각 안 난대?
- (22) 가. 도대체가 내 설명이 이해가 가지가 않는다고 언어학을 하는 자가?
나. 언젠가는 너는 성공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 (23) 가. The cat went on a picnic to the park with the rats.
나. A cat came into my room with a pen in the mouth.

- (24) 가. The ... killed the ... in the ...
 나. A ... put a ... on a ... with a ...

2.4. 통사론의 기본 단위는 단어인가 성분인가?

앞 절에서 제기한 통사론의 기본 단위의 문제와 이어지는 것으로서 한국어 통사론 담론에서는 단어와 성분의 혼동이 많이 발생했다. ‘어순’이라는 개념이 대표적으로 이를 보여준다. 실제로 한국어의 ‘어순의 자유성’이라고 했을 때 이는 단어들 간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와 조사라는 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명사구, 즉 통사적 성분들 간에 이루어지는 순서의 제약을 말하는 것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한국어의 어순 그 자체는 엄격하게 제약되어 있다. 조사는 명사 뒤에만 위치할 수 있고, 어미는 동사 뒤에만 올 수 있는 ‘head-final language’인 것이다. 핵이 후행한다는 것의 진의가 바로 이것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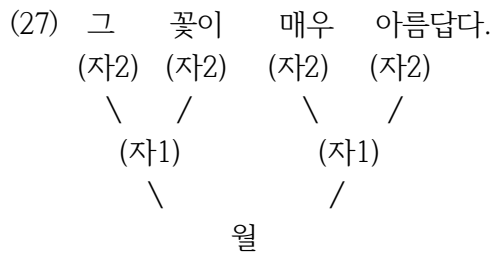
따라서 한국어는 서술어의 지배를 받는 논항 명사(구)의 구조가 일차적으로 조사와 결합한 성분이 통사 단위가 되어 이차적으로 서술어의 어휘핵과 연결된다. 따라서 명사 또는 명사구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수식 구조는 양적 확장이라 부를 수 있는 만큼 그 성격은 명사에 머문다. 예를 들어, ‘공원’이라는 명사의 특성은 왼쪽에 아무리 많은 수식어가 결합하여도 그 명사의 외연을 한정하는 데에 그치고 ‘공원’이라는 명사의 특성을 바꾸지는 못하는 것이다. 즉 양적으로 명사나 명사구는 어휘핵이 같은 것으로 머문다. ‘공원’이든 ‘국립 공원’이든 ‘넓은 그 국립 공원’, ‘저 내가 좋아하는 국립 공원’이든 조사가 붙는 환경은 똑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NP 구조로 표상할 수 있고 이는 다시 N으로 환원할 수 있다.

- (25) N
 |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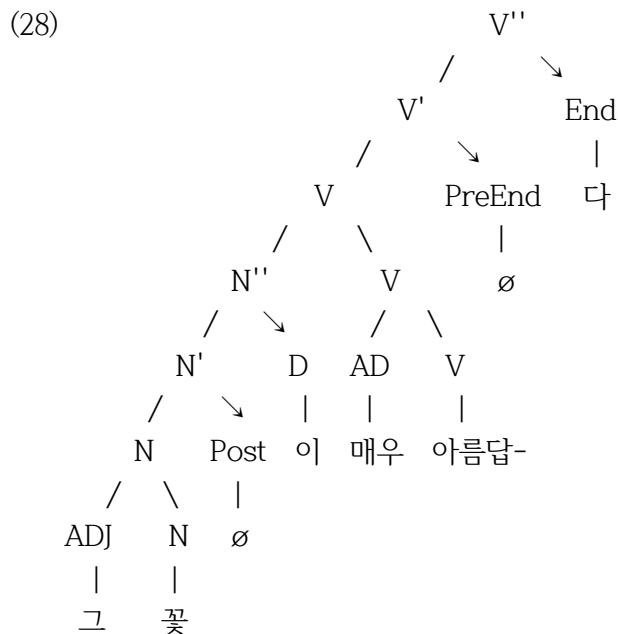
- (26) NP = N
 / \
 A NP = N
 | / \
 넓은 A NP = N
 | / \
 그 A N
 | |
 국립 공원

따라서 한국어의 통사 구조를 계층적으로 구성할 때는 명사(구) 뒤에 붙는 조사와의 결합을 어떤 범주로 표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앞서 우리가 영어의 DP 구조 이론과 엑스바 이론을 원용하여 조사 결합과 함께 이루어지는 명사(구)의 질적 확장이 표상한 방식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자.

이제 한국어의 문장 ‘그 꽃이 매우 아름답다’의 구조가 전통적으로 어떻게 그려졌고 본고에서 제안하는 표상 방법에 의한 문장의 나무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비교해 보자. 먼저 허웅(1983)에서 따온 그림이다.



그리고 필자가 그린 그림이다. 동사구의 확장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논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명사구 확장 구조에만 주목하자.



2.5. 어미의 확장 구조: 어미는 형태적 구성의 요소인가 통사적 구성의 요소인가?

단어를 ‘최소 자립 형식’에 입각하여 분석하면 불어의 ‘je t’aime’ 같은 문장도 하나의 단어처럼 취급된다. 그러나 이것은 통사적 구성의 최대 단위인 문장 단

위이지 결코 단어가 될 수 없다. 이처럼 접어(clitic)가 하는 구성은 한국어의 조사나 어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조사나 어미가 관여하는 구성은 통사적 구성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의 문법요소인 조사와 어미는 학교문법에서 하나는 품사 체계에 편입이 되었고 하나는 배제가 되었다. 어떻게 해서 ‘거북 두 마리 가, 기여 가오’(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 4, 28쪽)와 같은 표기법이 반영하듯이, 조사는 품사 단위가 되었고, 어미는 그렇게 되지 못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제 왜 어미가 통사적 단위로 분석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본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단어와 성분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무엇인가?’라는 문장을 이루고 있는 단어들이 어떤 품사에 속하는지, 그리고 이 문장의 이른바 어절들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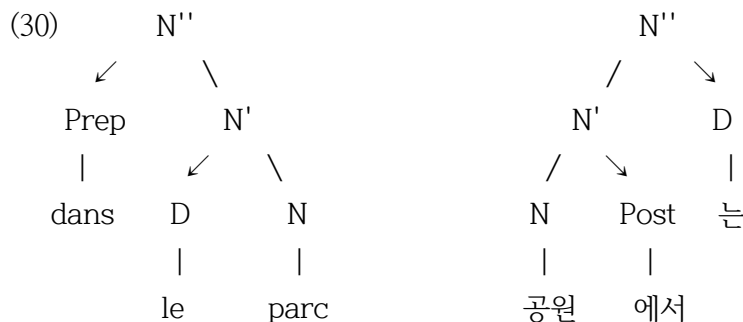
- (29) 그 달마- 가 동쪽- 으로 가- ㄴ 까닭- 은 무엇- 아 ㄴ가?
 관형사 명사 조사 명사 조사 동사 어미 명사 조사 대명사 계사 어미
 관형어 주어 부사어 관형어 주어 보어 서술어

만약 문장 내의 요소와 요소 사이의 관계를 품사 층위만 사용하여 기술한다면 ‘그 달마’에 대해 관형사 ‘그’가 명사 ‘달마’를 수식한다고 기술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간 까닭’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할까? 관형사형 어미 ‘-ㄴ’이 명사 ‘까닭’을 수식한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동사 ‘가-’가 명사 ‘까닭’을 수식한다고 해야 할까? 둘 다 만족스러운 기술로 보기 어렵다. 그럼 문장 성분만을 사용하여 문장의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기술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럴 경우에는 ‘그 달마가’에 대해 관형어 ‘그’가 주어 ‘달마가’를 수식한다고 해야 하고, ‘간 까닭은’에 대해 관형어 ‘간’이 주어 ‘까닭은’을 수식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더 나아가 ‘동쪽으로 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할까? 앞서서도 지적하였듯이, 이에 대해서는 부사어 ‘동쪽으로’가 관형어 ‘간’을 수식한다고 해야 하는데 부사어가 관형어를 수식한다는 것이 이상해진다. 가장 바람직한 기술은 관형어 ‘그’가 명사 ‘달마’를 수식한다고 하고 관형어 ‘간’이 명사 ‘까닭’을 수식한다고 하고, 부사어 ‘동쪽으로’가 동사 ‘가-’를 수식한다고 하는 것이다. 관형어 ‘그’가 수식하는 것은 ‘달마가’가 아니라 ‘달마’이고 관형어 ‘간’이 수식하는 것은 ‘까닭은’이 아니라 ‘까닭’이며, 부사어 ‘동쪽으로’가 수식하는 것은 ‘간’이 아니라 ‘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장 내의 요소들 사이의 관계는 앞에 오는 어떤 문장성분이 뒤에 오는 어떤 품사와 관련을 맺는다는 식으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관형사형 어미 ‘-은’은 선행 동사에

의존적이지만 ‘동쪽으로 가-’ 구성 전체에 걸쳐 기능하는 것으로서 통사적 단위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어미의 통사적 지위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던지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사의 실현을 돕는 어미의 단계를 명사의 실현 양상에 맞추어 몇 단계로 설정해야 하는가? 선어말어미 ‘-시-’, ‘-었-’, ‘-겠-’, ‘-더-’ 등의 실현 표기 방안과 어말어미 ‘-(는)다’, ‘-어’, ‘-나’, ‘-지’ 등의 실현 표기 방안이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선어말어미와 견주어 보조동사 구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가? ‘-잖- < -지 않-’, ‘-고프- < -고 싶-’ 등과 ‘-어 버리-’, ‘-고 말-’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진정한 의미의 선어말어미를 규정할 수 있고, 동시에 어말어미의 분류도 가능해진다.

먼저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하는 데 성공한 명사구의 확장 구조를 동사구의 확장 구조에 적용해 보기로 하자.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 다시 한 번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명사구 확장 구조를 가져와 보기로 한다.



위의 (30)의 오른쪽 그림은 한국어의 명사구 확장 구조로서 최대 두 단계로 파악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명사가 문장 내에 성분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두 단계의 실현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는 문법 관계를 표시하는 후치사류가 실현되는 단계이고 다른 하나는 명사의 외연범위를 결정해 주는 한정조사류가 실현되는 단계이다.¹⁶⁾

16) 여기에 더해 명사구에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표시하는 ‘요’가 실현될 수 있으나, 이는 서술어의 어말어미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명사구에 복사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요’를 수의적인 요소로 본다면 한국어 명사구의 확장 구조는 후치사와 한정사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음 예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 (1) 공원에서(는)요 놀지 좀(요) 마세요.
- (2) 제(가)요 당신에게(를)요 기대(고)요 싶(다)니까요!

그리고 ‘만’, ‘마저’, ‘조차’ 등의 보조사-필자의 용어로는 질화사(qualifier)로 분석함-는 명사구 확장 구조에서 양적 추가만 되지 질적 변환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그냥 선행 구조에 추가(adjoining)되어 범주의 성격을 바꾸지 못한다. ‘만’은 양화사/질화사로서 명사구 확장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N 단계나 N' 단계에 첨가되는, 즉 유동하

이를 기반으로 해서 동사구의 확장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동사를 문법적으로 확장시키는 것 중에서 선행 본동사의 성격을 바꾸어 주지 못하는 것으로 ‘-시-’를 들 수 있다. 선어말어미 ‘-시-’는 선행 동사의 어휘적 성격에 변화를 주지 못한다. 동사의 어휘적 성격이 후행하는 어미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의 개입은 어휘적 확장에 장벽이 되지 못한다.

- (31) 가. 잡-는데 > 잡-으시-는데
나. 예쁘-은데 > 예쁘-시-은데

반면에 보조동사 구성은 선행 본동사의 어휘적 영향이 후행 어말어미에 미치지 못하도록 어휘적 장벽이 된다.

- (32) 가. 잡-는데 > 잡-고싶-은데
나. 예쁘-은데 > 예쁘-고싶-은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선어말어미 ‘-었-’이나 ‘-겠-’은 어휘적 장벽요소가 되므로, 보조동사 구성의 확장형으로 볼 수도 있다. ‘-어 있-’이나 ‘-고 있-’과 같은 행태를 보인다.

- (33) 가. 잡-는데 > 잡-았-는데
나. 예쁘-은데 > 예쁘-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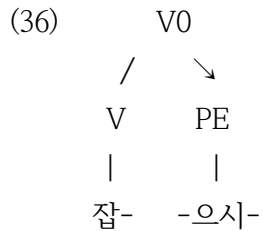
- (34) 가. 잡-는데 > 잡-겠-는데
나. 예쁘-은데 > 예쁘-겠-는데

- (35) 가. 남-는데 > 남-아있-는데
나. 크-은데 > 크-고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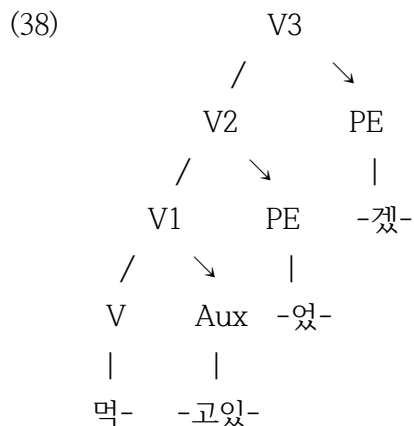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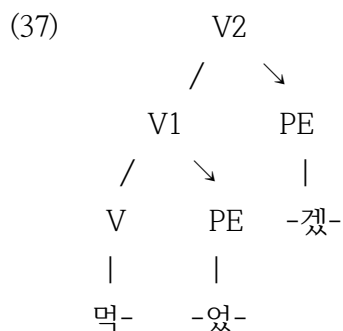
는(floating) 특성이 있다. ‘만’은 ‘는, 도’와 동일 위상의 보조사류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가, 를, 도, 는, 의, 이나, 이라도} 같은 한정사 계열에 속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만’의 문법적 위상에 대해서는 목정수(1998, 2003)을 참조할 것. [[뽕으로]_N만]_N [[뽕]_N만]_N으로]_N [[학교에서]_N만]_N 몇 개의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가. [뽕만-으로-는] 살 수 없다.
나. [뽕-으로만-은] 살기 어렵지.
다. [그것만- $\emptyset_1$ -이] 내 세상.
라. [너만- $\emptyset_1$ -을] 사랑해.
마. [나만- $\emptyset_1$ -의] 사랑.
바. [나-에게만- $\emptyset_2$] 속삭여 줘.
사. [한 번만- $\emptyset_1$ - $\emptyset_2$] 더.
아. [올해만- $\emptyset_1$ -도] 벌써 수천 대가 팔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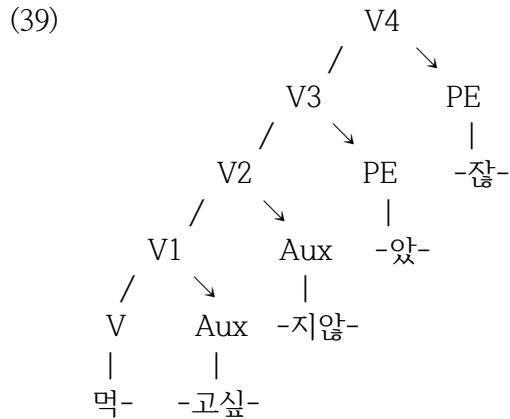
따라서, 동사에 ‘-시-’가 붙어도 V의 성격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과 동사의 어휘적 성격에도 변화가 없이 다만 행위자 인칭이 상위자라는 것을 가리키는 대명사인칭 단계의 문법요소임을 감안하여 ‘-시-’와의 결합형을 다시 V0로 표시한다.



더 나아가 다른 보조동사 성격의 선어말어미들이 붙으면 후행 보조동사의 어휘문법적 의미가 추가된다는 의미에서 V1, V2, V3 등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새로운 어휘의 시작임을 알리는 것이지, 질적인 동사 확장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V'로의 승격은 인정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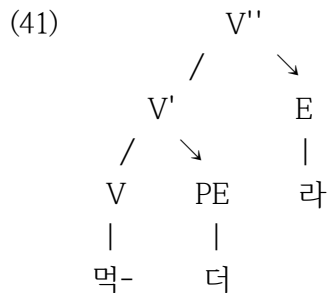
좀 더 복잡하게 구성된 ‘먹고 싶지 않았잖-아’는 다음과 표상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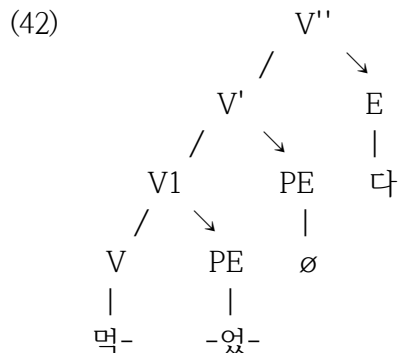
V'로의 승격은 선어말어미 ‘-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더-’는 후행하는 어미가 제약되어 있고, ‘-더-’가 있으면 바로 문장을 ‘-라’나 ‘-군’ ‘-구나’ 등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

- (40) 가. 이루어지더구나.
나. 잘 먹더라.

따라서, 마지막에 와서 문장을 끝맺어 주는 종결어미가 붙어야 V'가 V''로 문장을 종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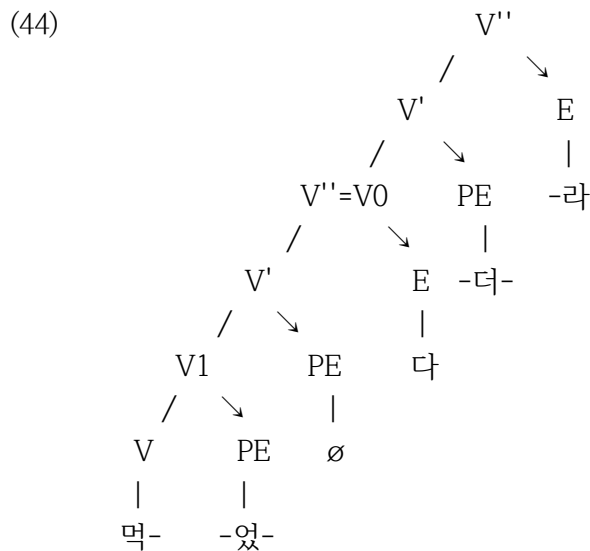
그러면, ‘먹었다’처럼 선어말어미 ‘-더-’가 없이 바로 어말어미로 끝나는 경우는 제로형을 설정하여 V'로의 단계를 거쳐서 V''로 실현되는 것으로 그릴 수 있다.



이러한 어말어미로는 ‘-(는)다, -(느)냐, -자, -(으)라, -(으)려’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어미들 뒤에는 복합형어미들이 덧붙을 수 있다.

- (43) 가. 먹었다더라.
 나. 가자시더냐?
 다. 먹으라신다.

따라서 이들 어미는 완전히 문장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미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인용접속법 어말어미들은 V"로 실현시키는 동시에 중화형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V0로 표시하면 좋을 듯하다.



여기서 ‘-다’를 단순히 어말어미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니, -어, -나, -지, -게’ 같은 어말어미와 대립시켜 비순수 종결어미로 보고자 하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프랑스 언어학자 기욤(Guillaume)은 인구어 전반을 대상으로 시제, 상, 서법의 체계를 세웠고, 특히 서법의 체계를 ‘우주시(universe time)’라는 시간 개념을 통해 일관되게 설정했다. 주지하다시피, 인구어에서 동사 문법에서 시제, 상, 서법 체계의 구분이 이루어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간의 개념이다. 상(aspect)은 사건에 포함된 ‘상황 내적 시간’과 관계가 있고 시제(tense)는 사건을 포함하는 ‘상황 외적 시간’과 관계가 있다(Comrie 1976: 3). 상황 내적 시간을 상 체계로써 문법적으로 표상한 것을 ‘사건시(event time)’라고 한다면, 시제는 사건의 시간상의 위치를 문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Comrie 1985: 9). 이렇게 상과 시제를 정의하고 나면 시제 체계는 인간의 경험이나 상황, 즉 일물 상황이나 배고픈 상황 같은 언어외적 상황을 시간상에 위치시키지 못한다는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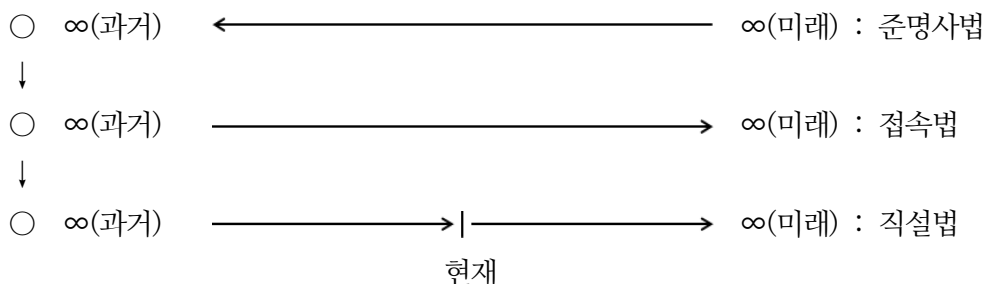
제가 남는다. 사건시, 즉 사건에 포함된 시간을 표상하는 것이 상이고 이 표상을 포함하는 시간에 위치시키는 것이 시제라면 그 포함하는 시간을 표상하는 체계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 것이다. 사건을 담지하는 포함시(containing time)로서의 시간 표상이 선행 조건으로 주어져야 한다. 이것을 ‘사건시(event time)’에 대비하여 ‘우주시(universe time)’라 부른다(Valin 1994). 이 우주시의 표상 체계가 바로 서법과 관련된다. 기욤은 시간생성(chronogénèse)과 시간차단(chronothèse)의 개념에 입각하여 프랑스어의 서법(mode) 체계를 세웠다. Guillaume(1929)에 따르면, 프랑스어의 서법 체계는 세 가지 차원의 시간차단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짜여진다.

(45)

- 준명사법(mode quasi-nominal): march-er, march-ant, march-é; être, étant, été
- ↓
- 접속법(mode subjonctif): que je march-e; que je sois, que tu sois
- ↓
- 직설법(mode indicatif): je march-e, tu march-es; je suis, tu es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각 단계의 서법에 관여하는 우주시(universe time)의 표상 방식인 시간생성(chronogenesis)의 시간 영상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Hirtle 1996: 62). 수직 화살표는 시간영상(time image)의 생성 순서를 말하는 것이고, 수평의 화살표는 우주시의 전개 방향을 말한다.

(46)



목정수(2016a)에서는 기욤의 서법 체계를 현대국어 어미에 적용하여 한국어 서법 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축하였다. 인구어 서법 체계의 분포적 기준을 참조하되 한국어 종결어미의 분포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얻어낸 결과이다.¹⁷⁾

17) 자세한 논의는 목정수(2016a)를 참고할 것.

(47)

○ 준명사법 단계: 명사형/형용사형(=관형사형)/부사형 어미; ‘-음/기, -은/을, -아/게/지고’

↓

○ 접속법 단계: 인용-접속법 종결어미; ‘-냐, -다, -자, -라, -려’

↓

○ 직설법 단계: 순수 종결어미; ‘-니, -어, -나, -지, -습니다, -을게’

3. 논항 구조 중심의 통사론에서 인칭 구조 중심의 통사론으로의 전환

3.1. 논항 구조와 인칭 구조

한국어의 문장 구조를 논항 구조를 중심으로 논의할 때 문장 성분을 필수 성분, 즉 논항과 수의 성분, 즉 부가어를 구분한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성분 생략을 제시한다(남기심·고영근 1993, 고영근·구본관 2018). 이는 모순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필수성이라는 것과 생략 가능성이 양립하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어의 실상은 주어나 목적어라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외현적으로 실현되지 않으나 그것을 알려주는 장치가 언어 내외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특히 주어 성분이 실현되지 않는 문장이 많이 생산되는데 필자는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문법요소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문법요소는 다름 아닌 선어말어미로부터 종결어미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다. 특히 한국어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가장 필수적인 것은 동사에 대한 어말어미이기 때문에 어말어미가 문장 구성에서 논항 구조를 암시하는 힘이 가장 강하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처럼 동사 없는 문장이 있을 수 있지만, 서술어가 중심이 되어 짜여지는 문장에서는 어미가 필수적으로 나타난다. 다음 문장을 보자.

(48) 가. 음악이 싫다네!

나. 밥만 잘 먹더라.

다. 고향에 가고 싶은가 봐.

(49) 가. 외롭니?

나. 술 마시고 싶어요.

다. 호랑이가 무서워 죽겠다.

대개 주어 이외의 성분은 사태를 이루는 내부 성분이기 때문에 서술어와 묶여

- 다. 철수는 고고학을 연구한다.
라. 철수는 고고학을 연구를 한다.

- (52) 가. 철수는 고고학 연구에 몰두했다.
나. *철수는 고고학을 연구에 몰두했다.¹⁸⁾

지금까지 타동성 서술명사 ‘연구’와 같은 기능동사 구문 연구에서 전형적인 것으로는 (51라)나 (51나) 같은 구문이 부각되었다(채희락 1996, 멜축 2015).¹⁹⁾ 그러나 필자는 (51나) 같은 문장은 비문법적이라 판단한다. 대신에 (51가)와 같은 구문이 가장 전형적인 구조로 파악한다. 이때 대상 논항인 ‘고고학’의 격은 속격으로 실현되는데, 그 형태가 후치사 ‘ $\emptyset_1$ ’으로 실현되지 소유한정사 ‘의’로는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53) 가. [철수- $\emptyset_1$ -는] [[고고학- $\emptyset_1$ - $\emptyset_2$] [연구- $\emptyset_1$ -를]] 한다.
나. *[철수- $\emptyset_1$ -는] [고고학- $\emptyset_1$ -의] [연구- $\emptyset_1$ -를] 한다.

‘고고학’이 서술명사 ‘연구’와 분리되면 대격으로서의 후치사 ‘ $\emptyset_1$ ’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

- (54) 가. [철수- $\emptyset_1$ -는] [고고학- $\emptyset_1$ - $\emptyset_2$], [연구- $\emptyset_1$ -를] 한다.
나. [철수- $\emptyset_1$ -는] [고고학- $\emptyset_1$ -을], [연구- $\emptyset_1$ -를] 한다.

타동성 서술명사가 자동성 기능동사와 결합하는 경우도 서술명사와 대상 논항이 한정조사 ‘가’로 실현된다는 점을 빼고는 똑같은 구조적 양상을 보인다(목정수 2017).

- (55) 가. 나는 고향 생각이 났다.
나. *?나는 고향의 생각이 났다.
다. 나는 고향이 생각났다.
라. 나는 고향이 생각이 났다.

- (56) 가. 나는 고향 생각에 젖어 들었다.

18)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한국어 서술명사의 용법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오류를 가장 많이 범한다.

19) 논의의 대상이 된 구문을 그대로 소개한다.

(1) 철수가 영희에게 미희의 소개(를) 했다. (채희락 1996)
(2) 준이 언어학의 공부를 했다. (멜축 2015)

나. *나는 고향이 생각에 젖어 들었다.

다. *나는 고향을 생각에 젖어 들었다.

지금까지 타동성 서술명사 ‘생각’이 자동성 기능동사 ‘나다’와 결합이 된 구문에서는 대상 논항이 영형 후치사에 의해 실현된다. 대상 논항인 ‘고향’의 격은 속격으로 분석되는데, 마찬가지로 그 형태가 후치사 ‘ $\emptyset_1$ ’으로 실현되지 소유한 정사 ‘의’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55나) 같은 문장은 비문법적이다. 대신에 (55가)와 같은 구문이 가장 전형적인 구조로 쓰임을 알 수 있다. (55)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57) 가. [나- $\emptyset_1$ -는] [[고향- $\emptyset_1$ - $\emptyset_2$] [생각- $\emptyset_1$ -이]] 닳다.

나. *[나- $\emptyset_1$ -는] [고향- $\emptyset_1$ -의] [생각- $\emptyset_1$ -이] 닳다.

‘고향’이 서술명사 ‘생각’과 분리되면 대격으로서의 영형 후치사의 ‘ $\emptyset_1$ ’으로 분화될 수도 있다.

(58) 가. [나- $\emptyset_1$ -는] [고향- $\emptyset_1$ - $\emptyset_2$], [생각- $\emptyset_1$ -이] 닳다.

나. [나- $\emptyset_1$ -는] [고향- $\emptyset_1$ -이], [생각- $\emptyset_1$ -이] 닳다.

서술명사 ‘생각’이 타동성 기능동사 ‘하다’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한정조사 ‘가’ 대신에 ‘를’이 사용된다는 차이를 빼고는 나머지 상황은 평행하게 나타난다.

(59) 가. 나는 고향 생각을 했다.

나. *?나는 고향의 생각을 했다.

다. 나는 고향을 생각했다.

라. 나는 고향을 생각을 했다.

(60) 가. 나는 고향 생각을 떨쳐 버렸다.

나. *나는 고향이 생각을 떨쳐 버렸다.

다. *나는 고향을 생각을 떨쳐 버렸다.

따라서 기능동사 구문을 통하여도 우리는 목적어 기능이 영형 후치사 ‘ $\emptyset_1$ ’에 의해 실현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는 점, 그리고 서술어의 의미적 속성에 따라 ‘를형 목적어’와 ‘가형 목적어’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절에서 살펴본 기본 문형 [주어 + 가형 목적어 + 서술어], [주어 + 를형 목적어 + 서술어] 구문과 평행성을 보여준다.²⁰⁾

20) 목정수(2018)에서는 ‘서술절’ 개념을 비판함으로써 한국어의 소위 이중 주어 구문을 ‘가형

(61) 가. 코끼리는 코가 길다.

나. 나는 코끼리가 싫다.

(62) 가. 코끼리는 긴 코를 가지고 있다.

나. 철수는 코끼리를 싫어한다.

목정수(2003) 이래로, 우리는 (61)의 문장 분석에서 서술절을 부정하고 이러한 구문이 기본 문형의 하나로 설정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목정수 2018). 서술절이란 개념은 일반언어학적으로도 타당성이 없으며 한국어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함으로써, 이중 주어 가설을 뒤엎고 ‘가형 목적어’라는 개념을 통해 두 번째 논항은 주어로 분석될 수 없다는 점을 보였다.

유현경 외(2018: 424)에서는 보어 설정과 관련하여 서술명사와 기능동사의 결합도 ‘보어 + 서술어’의 복합 술어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 다음 문장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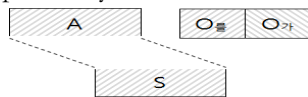
(63) 가. 그 설명은 수궁이 간다.

나. 그는 그제야 멋진 생각이 났는지 무릎을 쳤다.

(63가, 나)에서는 보어 자리에 ‘수궁, 생각’ 등 술어 명사(=본고의 서술명사)가 오고 서술어인 ‘가다, 나다’ 등은 기능동사처럼 쓰여 ‘수궁이 가다’가 ‘이해가 되다, 공부를 하다’와 같은 복합 술어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두 문장의 주어를 ‘그 설명은’과 ‘그는’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많은 의문을 제기한다. 먼저, 다음 문장에서 보듯이 ‘그 설명은’과 ‘그는’은 같은 자리/위상의 성분으로 보기 어렵다. 계열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²¹⁾ (64가)의

목적어’를 취하는 일종의 타동 구문으로 분석했다. 더 나아가 한국어는 ‘를형 목적어’와 ‘가형 목적어’를 갖는 ‘조개진 목적어’를 갖는 주격-대격형 언어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1) Split-O system



21) 한국어에 대한 생성 문법 계열의 논의에서 가장 심각한 점이 바로 구성 요소들의 통합관계(syntagmatic relation)와 계열관계(paradigmatic relation)를 따져 보지 않고 논의를 너무 추상적으로 자신들의 이론 틀에 맞춰 마구잡이식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것이다. 구조적/기술 주의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생략된 채 곧바로 생성문법의 논의 속으로 급히 편입된 결과가 아닐까 한다. 예를 들어, ‘학교는 죽었다’에서 ‘학교는’이라는 주제어의 속 구조가 [학교-가-는]인데 거기서 ‘가’가 생략됨으로써 ‘학교는’이 도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던 것처럼, 조사 ‘가’와 ‘는’이 통합관계를 맺을 수 없는 계열관계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리한 가정을 하는 생성문법학자들의 논의를 재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는 죽었다’와 ‘소년이 온다’라는 자동사 문장을 비교할 때도 ‘학교는’과 ‘소년이’가 계열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코끼리가 과자를 먹는다고?’와 ‘코끼리는 코가 길다’를 비

‘나는’ 성분과 (64나)의 ‘그가’ 성분이 평행 관계에 놓이고, (64가)의 ‘그 설명은’ 성분과 (64나)의 ‘엄마가’ 성분이 평행 관계에 놓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64) 가. 나는 그 설명은 수궁이 가지만 동의는 할 수 없어.
나. 그가 엄마가 생각이 났는지 눈물을 보였다.

우리는 유현경(2018)에서 (64가)와 (64나)의 문장에서 ‘수궁’과 ‘생각’이 주어 성분이 아니라고 본 것에는 동의할 수 있겠다. 그러나 ‘수궁’과 ‘생각’이라는 술어명사가 요구하는 논항으로는 ‘수궁, 생각’의 주체와 객체가 요구되는데, ‘수궁, 생각’의 비행위적(=인식) 의미로 말미암아 그 술어 명사의 주체는 ‘행위주’보다는 ‘경험주’ 또는 ‘인식주’ 정도의 의미역을 부여 받을 수 있겠고 객체는 ‘대상’의 의미역을 부여 받을 수 있겠다. 이때 ‘그 설명은’ 성분은 주체로 해석되지 않는다. 주체는 복원할 수 있는 ‘나는’이 된다. 이는 (64나)에서 ‘생각’의 주체가 ‘그가’가 되고 객체가 ‘엄마가’가 되는 이치와 같다. 또한 (64나)에서처럼 ‘그는 주어 + 생각이보여 나다_{서술어/기능동사}’로 분석했을 때 ‘생각’이라는 서술명사가 요구하는 성분 ‘엄마가’의 통사적 기능을 보어로 설정하게 된다면 이른바 이중 보어 구문으로 봐야 할지도 모르는데, 이는 불필요한 개념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복합술어가 언어 보편적으로 ‘목적어 + 기능동사’ 구성에서 말미암는다는 것을 토대로 우리는 ‘수궁이 가다’나 ‘생각이 나다’를 ‘목적어’ 관계의 복합술어 구성으로 보고, 그 복합 구성이 다시 목적어를 요구하되, 그 복합서술어의 의미 자질에 의해 ‘가형 목적어’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하면 매끄럽게 문법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어라는 개념 대신에 ‘가형 목적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고자 한다.²²⁾

다음과 같은 구성의 짝도 ‘를형 목적어’와 ‘가형 목적어’의 대립성을 잘 보여

교할 때는 ‘코끼리가’와 ‘코끼리는’이라는 성분이 계열관계에 놓이고 ‘과자를’과 ‘코가’가 계열관계에 놓인다고 분석하는 것이 우리의 직관에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가’라는 조사에 이끌려 ‘코끼리가’라는 주어에 대등한 ‘코가’ 성분을 주어로 보아, 이들 ‘코끼리가’와 ‘코가’의 계열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코끼리는’을 주체어 또는 대주어 등으로 분석하는 통사론자들의 입장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이선웅 2012, 2019)

한국어에서는 ‘를형 목적어’와 ‘가형 목적어’가 계열 관계를 맺으며 복문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빈번하다.

(1) 나는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잘 못하고 아니 잘 안 하고 노는 것만 좋아한다.

(2) 호랑이가 무섭기도 하고 밤을 안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나는 외출을 삼가기로 결정했다.

22) 유현경 외(2018: 436)에서는 “보어의 의미역은 대상(Theme)이다. 보어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의미역할이 대상으로 규정됨으로써 필수적 부사어의 의미역할인 ‘처소(Location), 도달점(Goal), 수혜주(Benefactive)’ 등과 구별된다. 보어의 의미역할이 대상이므로 보어가 부사어가 아니라 오히려 목적어와 흡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어와 필수적인 부사어의 공통점은 서술어가 주어, 목적어 이외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라는 사실밖에 없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준다.²³⁾

(65)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66) 가. 철수는 공산당이 싫대요.
나. 철수는 공산당을 싫어해요.

(67) 나는 이 바지가 마음에 듭니다.

(68) 가. 할아버지(께서)는 이 바지가 마음에 드시는가 봅니다.
나. 할아버지(께서)는 이 바지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유현경(2019: 15)에서는 마지막으로 조사 ‘가’가 무조건 주어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예로 보여주고 있다. 텍스트의 흐름에서 ‘가’로 신정보로 도입된 주어가 다음 문장에서 구정보로 쓰일 때는 ‘는’으로 실현되거나 그 해당 성분이 생략된다. 따라서 다음 문장들에서 (69나)와 (69다)의 밑줄 친 성분은 주어 성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이 밑줄 친 성분을 주어 성분으로 분석하는 관점을 취하는 입장이라면 한국어의 문장 구조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미궁에 빠지게 될 것이다. 특히 복문 구조의 문장을 정확히 분석해 내는 알고리즘 개발에 성공하기 매우 어려운 문법 모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69) 가. 옛날 깊은 숲속에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가 나무꾼이었습니다.
나. 나는 철수가 좋았다. 그러나 곧 철수가/*는 싫어졌다.
하지만 지금도 철수가/*는 걱정된다.
다. 나는 철수를 좋아했다. 그러나 곧 철수를/*는 싫어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철수를/*는 걱정한다.

(69다)에서 ‘철수를 싫어하게 되었다’는 ‘나는 철수를 싫어하게 되었다’의 주어 성분 ‘나는’이 생략된 문장이듯이, (69나)에서도 ‘철수가 싫어졌다’는 단순히 ‘철수가’ 성분이 주어 성분으로 분석될 수 없고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선행 문장에

23) 생성문법 계열의 논의 Koizumi (2008)에서도 본고의 ‘가형 목적어’와 유사한 논의가 찾아진다. 유형론적 시각에서는 角田(2009)의 심리용언에 대한 분석을 참고할 수 있겠다. 여기서도 이른바 주격조사 ‘가’가 쓰인 목적어, 즉 ‘가형 목적어’ 분석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太郎が	花子が	好きであること
意味役割	感情の持ち主	対象	
格	主格	主格	
文法機能	主語	目的語	

서 이어지는 ‘나는 철수가 싫어졌다’의 주어 성분 ‘나는’이 생략된 문장으로 분석되어야 전체 텍스트의 흐름이 이어지는 한국어 문장의 연속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유현경(2019)에서는 (69나, 다)에서 밑줄 친 성분을 ‘보어’로 보고 있는 반면에 필자는 ‘가형 목적어’로 보고 있지만, 필자와 함께 주어로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이선웅(2010, 2012, 2019)의 경우는 이를 ‘가’가 있는 것을 근거로 문법적 주어로 분석하고자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복문 구성에서 주어 찾기에 있어 난관에 봉착할 것임에 틀림없다.

목정수·이상희(2016)에서는 세계 유형론의 논의를 받아들여 한국어의 여격 주어를 상정하는 논의들의 맹점을 지적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Yoon(2004) 등의 논의를 전면 부정하였다. 한국어의 여격형 성분은 처소어로 해석되지 진정한 의미의 주어로 분석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복문 구성에서 이른바 여격 주어는 종속절과 주절의 동일 주어로 쓰일 수 없다. 다음 예를 보자.

(70) 가. *철수에게는 돈이 많아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었다.

나. *돈이 많아 철수에게는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었다.

(71) 가. 철수는 돈이 많아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었다.

나. 돈이 많아 철수는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었다.

(72) 가. *철수에게는 호랑이가 무서워 오금이 저렸다. 그래서 도망갈 수 없었다.

나. *철수에게는 호랑이가 무서워 오금이 저렸다. 그래서 호랑이가 도망갈 수 없었다.

(73) 가. 철수는 호랑이가 무서워 오금이 저렸다. 그래서 도망갈 수 없었다.

나. 호랑이가 무서워 철수는 오금이 저렸다. 그래서 철수는 도망갈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 주어 제약을 요구하는 연결어미 ‘-고(도)’, ‘-면서(도)’ 등에서 똑같이 발생한다.

(74) 가. 나는 소주를 여러 병 마시고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 나는 소주를 한 병 마시고도 잠이 안 온다.

다. *?나에게 잠이 안 와서 소주를 두 병이나 마시고 잤다.

(75) 가. 나는 소주를 여러 병 마시고도 그녀가 무서워 말을 건네지 못했다.

나. 내가 소주를 여러 병 마신 것은 그녀가 무서웠고 고백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다. *?나에게 그녀가 무서워서 소주를 마시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 (76) 가. 책을 여러 번 읽고도 철수는 이해가 가지 않나 보다.
나. 철수는 이해가 가지 않자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다.
다. *?책을 여러 번 읽고도 철수에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
- (77) 가. 돈이 없으면서도 철수는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다.
나. 철수가 돈이 진짜 많으면서도 친구들에게는 한 푼 빌려 주지 않았다.
다. *?철수에게 돈이 많으면서도 친구들을 도와주는 데 인색했다.
- (78) 가. 철수는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췄다.
나. 비가 오면서 천둥이 쳤다.
다.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비로소 내용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라. *철수가 춤을 추면서 영희가 노래를 한다.

4. 끝맺기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어 통사론 논의에서 사용되는 용어 하나하나가 일반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어의 문법 틀이 실제 한국어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고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지를 반성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어 통사론의 기본 단위 설정에서부터 단문, 복문의 분석에 이르기까지 주어 설정의 문제가 다른 층위의 주제어 문제나, 이중/다중 주어/목적어의 문제, 목적어와 보어의 구분 문제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그 엉킴의 시초로 돌아가서 한 올 한 올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급하다고 이 줄 먼저 당겨보고 안 되면 저 줄 당겨보고 하는 식으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했다. 우리의 결론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어 통사 단위는 단어이다. 어휘의 한 부류인 명사류는 그 문법적 실현이 조사에 의해 실현되는데, 조사는 후치사라는 부류와 한정사라는 부류로 대별된다. 따라서 ‘명사 + 후치사’, ‘명사 + 한정사’, ‘명사 + 후치사 + 한정사’는 모두 통사적 구성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사적 구성이 성분을 이루어 성분과 성분의 순서라든가 성분 이동의 문제는 이차적인 통사 단위가 되는 것이다.

둘째, 어휘의 한 부류인 동사류와 결합하는 어미도 크게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나뉘는데 이들도 통사 단위, 즉 단어의 자격으로 보아 ‘동사 + 어미’를 통사적 구성으로 본다.

셋째, 한국어의 주어나 목적어 성분은 그것을 표시하는 어미 이외의 여러 문

법적인 장치로 인해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복원되어 해석될 수 있다. 한국어에서 성분 생략이 잘 일어나거나 성분의 순서가 자유로운 것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서술어의 의미 구조에 바탕을 두고 설정된 논항 구조 속의 논항 성분은 서술어와 어미의 상호작용을 통해 파악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존의 논항 구조를 중심으로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던 방식을 보완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길은 통사 단위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어미 구조체에 주목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어의 문장 분석은 가장 필수적인 어말어미가 반영하는 인칭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서술어의 의미 특성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인칭 제약과 구체적으로는 명시적으로 실현된/실현될 수 있는 대명사 인칭을 통해 이루어 나가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부제 “논항 구조에서 인칭 구조로의 전환”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참고 문헌〉

- 고영근(2018a), 『한국어와 언어 유형론』, 월인.
 고영근(2018b), 『우리말 문법: 그 총체적 모습』, 집문당.
 고영근·구본관(2018), 『(개정판)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고창수(1992), 국어의 통사적 어형성, 『국어학』 22, 국어학회, 145-175.
 권재일(2012),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김민국(2016), 『한국어 주어의 격표지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남기심(1986), ‘서술절’의 설정은 타당한가?, 『국어학신연구 1』(유목상 편), 탑출판사, 191-198.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 국어문법론 (개정판)』, 탑출판사.
 멜축(Mel'čuk, I.)(2015), “Multiple Subjects” and “Multiple Direct Objects” in Korean, 『Language Research(어학연구)』 51(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485-516.
 목정수(1996), 루어의 전치사 동반 직접 목적어 구문에 대하여: 담화적 기능 표지로서의 ‘pe’, 『언어학』 19, 한국언어학회, 181-208.
 목정수(1998), 한국어 격조사와 특수조사의 지위와 그 의미: 유형론적 접근, 『언어학』 23, 한국언어학회, 47-78.
 목정수(2003), 『한국어 문법론』, 월인.
 목정수(2005), 국어 이중 주어 구문의 새로운 해석, 『언어학』 41, (사)한국언어학회, 75-99.
 목정수(2013a), 선어말어미 ‘-시-’의 기능과 주어 존대, 『국어학』 61, 국어학회, 63-105.
 목정수(2013b), 『한국어, 보편과 특수 사이』, 태학사.

- 목정수(2014a), 허웅 선생의 일반언어학 이론, 『허웅 선생 학문 새롭게 읽기』 (권재일 역음), 박이정.
- 목정수(2014b), 『한국어, 그 인칭의 비밀』, 태학사.
- 목정수(2015), 알타이제어의 구문 유형론적 친연성 연구: 한국어의 타동 구문을 중심으로, 『한글』 307, 한글학회, 75-124.
- 목정수(2016a), 유형론과 정신역학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 서법과 양태, 『한국어학』 171, 한국어학회, 55-108.
- 목정수(2016b), 한국어의 진성 주어를 찾아서, 『어문연구』 17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7-46.
- 목정수(2017), 자동성 기능동사 구문과 논항의 격 실현 양상: 여격 주어설 비판을 위하여, 『한민족어문학』 76, 105-142.
- 목정수(2018a), 서술절 설정에 대한 재론: ‘서술절’ 개념 비판에서 ‘조개진 목적어’ 유형 정립까지, 『국어학』 87, 국어학회, 39-83.
- 목정수(2018b), 한국어 품사 체계의 몇 가지 문제: 통사 단위 설정을 토대로, 『송철의 교수 정년기념논총』, 325-380.
- 목정수·이상희(2016), 문두여격어 구문의 정체: 여격주어 설정은 타당한가?, 『형태론』 18-2, 217-241.
- 문창학·목정수(2015), 일한 ‘이중 주어 구문’에 대한 대조 연구, 『日本學研究』 45, 349-368.
- 시정곤(1994), ‘X를 하다’와 ‘X하다’의 상관성, 『국어학』 24, 국어학회, 231-258.
- 심유경(2015), 『한국어 문두 여격어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양인석(1972), Korean Syntax : Case Markers, Delimiters, Complementation, and Relativization, 서울: 백합사.
- 연재훈(1996), 국어 여격주어 구문에 대한 범언어적 관점의 연구, 『국어학』 28, 241-275.
- 연재훈(2003), Korean Grammatical Constructions: their form and meaning, Saffron Books.
- 연재훈(2011), 『한국어 구문 유형론』, 태학사.
- 유현경(2018), 보어를 요구하는 용언의 범위와 유형, 『한국사전학』 31, 117-146.
- 유현경(2019), 보어 다시보기, 2019년 여름 형태론 집담회 발표문.
- 유현경 외(2018), 『한국어 표준 문법』, 집문당.
- 이관규(1999), 『학교 문법론』, 월인.
- 이선웅(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 이선웅(2014), 통사 단위 ‘절’에 대하여, 『배달말』 56, 배달말학회, 77-104.
- 이선웅(2019), 한국어 보어의 개념과 범위, 2019년 여름 형태론 집담회 발표문.
- 임동훈(1997), 이중 주어문의 통사 구조, 『한국문화』 19,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1-66.
- 임동훈(2000), 『한국어 어미 ‘-시-’의 문법』, 태학사.

- 임동훈(2004), 한국어 조사의 하위 부류와 결합 유형, 『국어학』 43, 119-154.
- 임홍빈(1979), 용언의 어근분리 현상에 대하여, 『언어』 4-2, 한국언어학회, 55-76.
- 채희락, 「“하-”의 특성과 경술어구문」, 『어학연구』 32-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1996, pp. 409-476.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사.
- 허웅(1983), 『국어학, 우리말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 허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 허웅(1999), 『20세기 우리말의 통어론』, 샘문화사.
- 角田 太作(2009), 『世界の言語と日本語 (改訂版): 言語類型論から見た日本語』, くろしお出版.
- Corbett G.G. et al. (eds.) (1993), *Heads in grammatical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oft, William. (1990), *Typology and universals*, Cambridge: CUP.
- Croft, William. (1991), *Syntactic categories and grammatical relations: The cognitive organization of information*,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ryer, Matthew S. and Haspelmath, Martin (eds.) (2013),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nline*, Leipzig: Max Planck Institute for Evolutionary Anthropology.
- Guillaume, G. (1919), *Le problème de l'article et sa solution dans la langue française*, Paris, Hachette.
- Guillaume, G. (1929), *Temps et Verbe*, Paris, Champion.
- Guillaume, G. (1973), *Principes de linguistique théorique de Gustave Guillaume*, Paris, Klincksieck et Québec,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et Paris, Klincksieck.
- Hewson, J. (1972), *Article and Noun in English*, The Hague, Mouton.
- Hewson, J. (1997), *The Cognitive System of the French Verb*,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 Hirtle, W. (1975), *Time, Aspect and the Verb*, Cahiers de psychomécanique du langage, Québec,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 Hirtle, W. (1996), “Aspect, Tense and The Missing Link”, *Kaliat Al-Balamand Numéro 3: Linguistique*, University of Blamand, 51-64.
- Martinet, A. (1970), *Elément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 Librairie Armand Colin.
- Hopper, P. & S. Thompson. (1980),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56:2, 251-299.
- Kittila, Seppo. (2002a), *Transitivity: Towards a comprehensive typology*, Turku:

- Abo Akademis Tryckeri.
- Kittila, Seppo. (2002b), "Remarks on the basic transitive sentence", *Language Sciences* 24(2): 107-130.
- Koizumi, M. (2008), "Nominative Object", *The Oxford Handbook of Japanese Linguistics*, Miyagawa & Saito (eds.), Oxford University Press, 141-164.
- Montaut, A. (1991), "Constructions objectives, subjectives et déterminatives en hindi/urdu: où les paramètres sémantiques croisent les paramètres discursifs", *LINX* 24, Université Paris X - Nanterre, 111-132.
- Næss, Åshild. (2007), *Prototypical Transitivit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Radford, A.(1981),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dford, A.(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vas, J. (2004), *Clause Structure Typology: Grammatical Relations in cross-linguistic perspective*, TrisTram.
- Shibatani, Masayoshi. (1982), *Japanese grammar and universal grammar*, *Lingua* 57(2-4): 103-123.
- Shibatani M. (2001), "Non-canonical constructions in Japanese", Aikhenvald, Dixon and Onishi (eds.), *Non-canonical Marking of Subjects and Object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307-354.
- Tsunoda, Tasaku. (1985), "Remarks on transitivity", *Journal of Linguistics* 21(2): 385-396.
- Valin, R. (1994), *L'envers des mot*,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et Kincksieck.
- Yoon, James H. (2004), "Non-nominative (major) subjects and case stacking in Korean", Bhaskararao & Subbarao (eds.), *Non-nominative Subjects vol. 2*,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65-314.

제2부 연구 발표

한국 텍스트언어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 조원형

국어과 문법 영역의 평가 개선을 위한 논의/ 이병규

국어 청자존대법 쟁점의 회고와 전망/ 양영희

573돌 한글날 · 한글학회 창립 111돌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2019년 10월 11일 (금) 09:50 ~ 16:40

한글회관 열말글교육관

□ 제2부: 연구 발표

한국 텍스트언어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

조원형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사

nanumbit@gmail.com

1. 머리말

1.1. 텍스트‘언어학’? 왜 ‘텍스트론’이 아니라 ‘텍스트언어학’인가?

- (1) 참고로 다른 언어로도 ‘Textlinguistik, text linguistics’ 등으로 이야기한다.
- (2) 음운‘론’, 통사‘론’과 명칭의 유형이 다른 이유는?
 - 현대적인 의미의 텍스트언어학이 20세기 후반에야 본격적으로 생겨나서?
 - 텍스트는 ‘언어학적인’ 대상으로만 한정해서 설명하기 어려워서?
- (3) ‘텍스트언어학’과 ‘담화분석’?
 - ‘텍스트(Text)’라는 용어는 독일어권 언어학계에서 쓰기 시작했고 프랑스어권과 영어권에서는 주로 ‘담화(discours, discourse)’라는 말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상 같은 것을 가리킨다.¹⁾
 - 다만 구체적 연구 영역으로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차이가 보이는 것이

1) ‘텍스트’와 ‘담화’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상위의 언어 단위인가 하는 논의가 한동안 있었으나 단지 이것만 갖고 따지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텍스트가 곧 담화요 담화가 곧 텍스트다.

사실이다. 영어권에서는 담화 ‘분석’이라는 말을 자주 써 온 반면²⁾ 독일어권에서는 텍스트‘언어학’ 내지 텍스트‘학’(Textwissenschaft)이라는 말을 써 왔다는 점 정도다. 실제로 독일어권의 텍스트언어학에서 다루는 범위가 조금 더 넓은 감이 있다. 영어권의 담화분석이 주로 담화 층위에서 나타나는 문법적 현상(랑그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³⁾ 독일어권의 텍스트언어학에서는 랑그 중심 언어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랑그 연구와 파롤 연구를 아우르려는 경향을 보인다.⁴⁾

1.2. ‘한국’ 텍스트언어학?

- (1) 한국어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언어학?
- (2) 한국어를 학술 언어로 쓰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텍스트언어학?

2. 한국 텍스트언어학 연구 동향

2.1. 텍스트언어학 이론 수용의 역사

(1) 서구 사회(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서는 이론 자체에 대한 언어학사적, 이론사적 논의의 결과로 기능주의 언어학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텍스트(담화)에 대한 언어학적 관심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으나 국내에서는 그러한 논의나 고민 없이 ‘논의의 결과로 얻어진’ 기능주의적 연구 방법을 수용하고 도입하는 방식으로 텍스트언어학 연구가 시작되었다.

(2) 다시 말하면, 머리말의 ‘(3)’에서 이야기한 ‘텍스트’와 ‘담화’의 의미와 관련 연구 범위 등은 언어학사적 차원에서 논의할 것들이 적지 않으나⁵⁾ 한국에서는 언어학사적 고민 없이 그 고민의 결과로 나오게 된 텍스트언어학의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만을 수용해 주로 한국어 텍스트 분석에 적용해 왔다는 뜻이다.

(3) 텍스트언어학(담화분석) 연구는 영어권에서도 하고 있으나 이 분야는 독일

2) 영어권에서도 ‘text linguistics’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상 담화분석과 같은 것을 가리킨다.

3) 한국에서도 여러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 온 담화표지 연구도 이 범주 안에 넣을 수 있다.

4) 보그랑드(1997)가 이 점을 특히 강조한 바 있다. 권재일(2016), 조원형(2017) 등이 이에 대해 언급했다.

5) 당장 ‘언어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와도 관련이 깊다. 이것은 ‘언어학’이라는 학문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 사실상 종주국이며 상당히 많은 연구 성과들이 독일어로 출판되고 있다. 하지만 독일어 문헌을 활용하는 한국인 학자들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까닭에 독일어권의 텍스트언어학 연구 성과가 국내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어권의 담화분석 연구도 그 연륜을 무시할 수 없으나 한국에는 독일어권 텍스트언어학보다도 덜 알려져 있다.⁶⁾

(4) 그러나 최근 텍스트언어학 연구사를 조망한 연구 성과들이 자주 발표되고 있다. 이재원(2018), 조원형(2017, 2018) 등이 그 예이다.

2.2. 텍스트언어학 이론 생산의 역사

(1) 위에서 ‘텍스트언어학 연구사를 조망한’ 연구가 나오고 있다고 했지만 한국 언어학자들이 이론 생산을 주도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이 사실이다. 독일어권과 영어권에서 이론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과 대비된다.

(2) 그러나 텍스트언어학 이론을 적용해서 한국어 텍스트를 분석한 연구 성과는 꾸준히 나왔다. 조원형(2018)이 그 연구사를 정리한 바 있다.

(3) 다만 독일어권이나 영어권에서도 ‘텍스트 분석’ 논문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으며, ‘아직까지 언어학적 관점에서 다루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텍스트’를 어떻게 분석할지를 논하는 사례들이 많다. 뒤에서 이야기할 ‘쉬운 언어’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3. 한국 텍스트언어학 연구의 전망

3.1. 텍스트언어학은 무엇을 지향하는 학문인가?

(1) 텍스트‘론’? 텍스트‘언어학’? 텍스트‘학’?

(2) 텍스트언어학은, 특히 독일어권 텍스트언어학은 시종 ‘언어학의 경계를 넘는 학제적 학문’을 지향해 왔다. 텍스트언어학을 단순히 문법 분석용 이론으로만 다루려 하지 않은 것이다. 보그랑드(1997)가 이야기한 대로 “텍스트와 담화 과학의 최고 목표는 담화를 통하여 지식과 사회에 접근하는 자유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조원형 2018: 362 참조).

(3) 박용익(2017)은 ‘인문 텍스트언어학’을 텍스트언어학의 미래 청사진으로

6) 최윤선(2014)이 이를 소개했으나 그는 반대로 독일어권의 텍스트언어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제시한 바 있다.

3.2. 구체적 사례 1: ‘장벽 없는 의사소통’과 텍스트언어학

(1) 독일어권에서는 학습장애인을 위한 ‘쉬운 언어(leichte Sprache)’ 연구를 해왔다.

(2) 일본에서도 ‘쉬운 일본어(易しい日本語)’ 연구를 하고 있다.

(3) 독일어권의 ‘쉬운 언어’는 한국에서 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공공언어 개선’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후자가 일반인들을 위한 것이라면 전자는 일상적인 언어 소통이 힘든 언어 장애인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쉬운 언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한국 안에서 이루어진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⁷⁾

(4) 일반적인 언어와 ‘쉬운 언어’ 사이의 문법론적, 어휘론적 차이는 BMAS(2014)가 다룬 바 있다. 그리고 텍스트언어학적 차원의 연구는 보크 외(2017) 등이 다루었다. 한국어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담화를 통하여 지식과 사회에 접근한다는’ 이상을 실현하는 일이 될 것이다.

3.3. 구체적 사례 2: 한국어를 텍스트언어학 학술 언어로

(1) 한국어도 학술 언어가 될 자질이 충분하다.

(2) 그런데 한국어로 발표되고 있는 텍스트언어학, 담화분석 논저들을 찾아보면 당장 용어 통일부터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조원형 2018: 372~373 참조). 서로 중구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텍스트언어학 용어들을 통일하고 텍스트언어학 사전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4.1. 텍스트언어학은 랑그 연구와 파롤 연구를 아우름으로써 언어학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7) 필자가 2019년 4월 20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한 한국텍스트언어학회 학술대회와 2019년 8월 27일 일본 삿포로 홋카이가쿠엔대학에서 개최한 아시아 독어독문학자 대회에서 이에 관한 발표를 한 바 있다. 2019년 10월 26일 한국독일어문학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다만 필자 역시 공식적으로 출판된 논문이나 저서를 낸 적은 아직 없다.

4.2. 한국 텍스트언어학은 이론적인 면에서도, 실천적인 면에서도 한국 학계와 사회에 기여할 점이 많을 것이다.

〈참고 문헌〉 (본문에 언급한 것만)

- 권재일(2016), 〈언어학사 연구〉, 박이정.
- 박용익(2017), “텍스트언어학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인문 텍스트언어학’”, 〈텍스트언어학〉 42, 31-57.
- 보그랑드(Robert de Beaugrande)(1997), 〈*New Foundations for a Science of Text and Discourse*〉,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 보크(Bettina M. Bock) 외(2017), 〈*“Leichte Sprache” im Spiegel theoretischer und angewandter Forschung*〉, Frank & Timme.
- 신용권 외(2018), 〈한국어 연구의 새로운 흐름〉, 박이정.
- 이재원(2018), 〈텍스트언어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 조원형(2017), “보그랑드의 언어학 이론에 대한 재고찰—New Foundations for a Science of Text and Discourse(1997)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42, 175-203.
- 조원형(2018), “한국 텍스트언어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 연구의 새로운 흐름〉, 351~385.
- 최윤선(2014), 〈비판적 담화분석〉, 한국문화사.
- BMAS(2014), 〈*Leichte Sprache: ein Ratgeber*〉,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독일연방공화국 노동사회부).

573돌 한글날 · 한글학회 창립 111돌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2019년 10월 11일 (금) 09:50 ~ 16:40

한글회관 열말글교육관

□ 제2부: 연구 발표

국어과 문법 영역의 평가 개선을 위한 논의

이병규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leebk@snue.ac.kr

1. 머리말

교육의 시작은 기르고자 하는 학습자의 모습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교육의 완성은 그러한 학습자를 길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처음에 설정한 기르고자 하는 학습자를 길러내었는지를 확인하는 교육적 행위를 ‘교육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교육 평가에는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변화 양상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교사의 수업 행위, 거기에 투입한 교육 자료 일체가 해당된다. 평가의 성격, 평가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가운데 이 논의에서는 국어과 문법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지식관과 사고관의 변화에 따른 평가 내용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그리고 문법 영역의 평가가 그러한 변화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2. 문법 영역의 평가 내용의 변화와 배경

이 장에서는 국어과 문법 영역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학습자상을 문법 영역

의 내용 변화 양상을 통하여 확인한다.

2.1. 평가 내용의 변화

문법 영역의 평가 내용은 크게 인지적인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지적인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의 평가 내용은 교육과정의 목표나 성취 기준,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상의 유의점 등을 통해 분석해 볼 수 있다.

2.1.1. 인지적 측면

문법 영역이 국어과에 처음 등장한 것은 제4차 교육과정 시기이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은 제4차 교육과정부터 제6차 교육과정까지는 ‘언어’ 영역으로,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지식’ 영역으로 불렸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부터 비로소 ‘문법’ 영역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논의에서는 문법 영역이 처음 설정된 제4차 국어과 교육과정부터 분석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제4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지식 중심’ 교육과정의 성격을 띤다. 제4차 교육과정의 문법(언어) 영역과 문법에 대한 교수·학습은 국어 문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도 국어 문법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4차 초등학교¹⁾,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과 ‘언어’ 영역의 평가의 유의점(국가 교육과정 정보센터)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²⁾

(1) 제4차 ‘언어’ 영역의 평가의 유의점

나) ‘언어’의 평가는 언어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심으로 하여 평가³⁾한다.(제4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2) 평가)

나) ‘언어’는 언어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심으로 하여 평가한다.(제4차 중학교 교육과정, 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2) 평가)

1) 6차 교육과정까지는 현재 ‘초등학교’급을 ‘국민 학교’로 명명했다. 여기서는 직접 인용의 경우가 아니면 초등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이와 같은 평가 방향은 국어 II의 문법 영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이하 밑줄은 필자가 표시한 것임.

나) ‘언어’는 체계적인 언어 지식과 그 적용 능력을 중심으로 하여 평가한다.(제4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2) 평가)

고등학교 <문법> 과목의 경우도 “문법은 체계적인 문법 지식과 그 적용 능력을 중심으로 하여 평가한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교수·학습과 평가의 성격이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법에 대한 교수·학습 및 평가에 대한 관점은 제5차 교육과정부터 변화를 보인다. 제5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과 ‘언어’ 영역의 평가의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2) 제5차 ‘언어’ 영역의 평가의 유의점

바) ‘언어’ 평가는 국어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국어의 사용에 중점을 둔다. 언어 지식의 평가는 지식 자체의 기억보다는 언어 자료로부터 언어에 대한 지식을 도출해 내는 ‘지식의 생산’ 측면에 더욱 비중을 둔다.(제5차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2, 평가)

바) ‘언어’ 평가는 국어 자체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국어의 사용에 중점을 둔다. 언어 지식은 지식 자체의 기억보다는 언어 자료로부터 언어에 대한 지식을 도출해 내는 ‘지식의 생산’ 측면의 평가에 비중을 둔다.(제5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2, 평가)

(6) ‘언어’ 평가는 국어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올바른 이해에 중점을 둔다.(제5차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2) 평가)

제5차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는 문법에 대한 이해와 사용에서 나아가 문법을 도출해 내는 과정 즉 ‘지식의 생산’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이전 교육과정 시기와의 차이이다.

제6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언어’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도 이와 다르지 않음을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제6차 ‘언어’ 영역의 평가의 유의점

다. 언어 영역의 평가 목표는 단편적인 언어 지식 그 자체보다는 언어 지식의 활용에 중점을 두어 설정한다.(초등학교, 국어, 5. 평가)

다. “언어” 영역의 교수·학습은 언어 지식을 직접 제시하거나 설명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국어 자료로부터 언어 지식을 도출하는 탐구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언어 지식을 활용하여 국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한다.(중학교(1992. 06), 국어, 4. 방법)

(4) “언어” 영역은 구체적인 국어 자료로부터 언어 지식을 도출할 수 있는 탐구 과정 중심으로 구성한다.

다. “언어” 영역의 평가에서는 언어 지식 그 자체보다는 언어 자료로부터 언어 지식을 도출하는 과정과 언어 지식의 활용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중학교(1992. 06), 국어, 5. 평가)

다. 언어 영역의 교수·학습은 국어의 음운, 형태, 동사 구조 등에 관한 지식 자체의 설명보다는 구체적인 국어 자료로부터 지식을 도출해 내는 탐구 과정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지도록 하고, 언어 지식을 활용하여 국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한다.(고등학교, 국어, 4. 방법)

(4) ‘언어’ 영역은 구체적인 언어 자료로부터 언어 지식을 도출하는 탐구 과정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성한다.

다. ‘언어’ 영역의 평가 목표는 단편적인 언어 지식 그 자체보다는 언어 지식을 도출해 내는 과정과 언어 지식의 활용에 중점을 두어 설정하도록 한다.(고등학교, 국어, 5. 평가)

제4차 교육과정과 제5차, 제6차 교육과정의 차이는 문법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방법과 내용으로 국어 자료(국어 현상)에서 문법을 도출하는 과정, 즉 탐구 과정을 반영할 것을 교육과정상에서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문법 지식을 기억하고 이해하여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서 문법 지식을 도출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으로 성격을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큰 변화라고 하겠다. 이러한 문법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의 성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되고 있는 현재까지 점점 강화되어 오고 있다.

제5차,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문법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유의점에서 탐구의 과정을 고려하였던 데서 나아가 제7차 교육과정, 2007,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는 물론 탐구의 과정이나 탐구의 기능을 교수·학습 내용으로까지 포함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는 다음 <표 1>~<표 5>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교육과정별 문법 영역의 내용 체계⁴⁾

• 국어의 본질	• 국어의 이해와 탐구 - 음운 - 낱말 - 어휘 - 문장 - 의미 - 담화	• 국어에 대한 태도
• 국어의 규범과 적용		

<표 1> 국어 지식 영역(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4) 교육과정별 문법 영역의 내용 체계를 탐구를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며,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문법 영역에 해당하는 영역을 ‘국어 지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국어 사용의 실제			
- 음운	- 단어	- 문장	- 담화/글
지 식		탐 구	
○언어의 본질	○국어의 특징	○관찰과 분석	○설명과 일반화
○국어의 역사	○국어의 규범	○판단과 적용	
맥 락			
○국어 의식 ○국어 생활 문화			

〈표 2〉 문법 영역(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실제		
• 국어 문화와 자료: 구어 자료, 문어 자료 • 다양한 매체와 국어 자료		
지식	탐구와 적용	태도
• 언어의 특성 • 국어의 구조 • 국어의 규범	• 국어의 분석과 탐구 • 국어 지식의 적용 • 국어 생활의 점검과 문제 해결	• 국어의 가치와 중요성 • 국어 탐구에 대한 흥미 • 국어 의식과 국어 사랑

〈표 3〉 문법 영역(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 국어의 본질	...	...	• 문제 발견하기 • 자료 수집하기 • 비교·분석하기 • 분류·범주화하기 • 종합·설명하기 • 적용·검증하기 • 언어생활 성찰하기
▶ 국어 구조의 탐구와 활용 • 음운 • 단어 • 문장 • 담화	... 이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 국어 지식을 얻고 이를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 국어 규범과 국어생활 ...	...		
▶ 국어에 대한 태도 ...	...		

〈표 4〉 문법 영역(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표 1〉~〈표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체계의 상위 범주명만 ‘국어의 탐구와 이해’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위 범주는 ‘음운, 낱말, 어휘, 문장, 의미, 담화’를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탐구는 그 하위 범주를 학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탐구로 볼 수 있다.

그런데,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제7차 교육과정과 차이가 있다. 2007 개정은 내용 체계의 상위 범주명을 ‘탐구’로 그 하위 범주명을 ‘관찰과 분석’, ‘설명과 일반화’, ‘판단과 적용’ 등 탐구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탐구 과정에 수반되는 하위 기능들을 통틀어 ‘국어의 분석과 탐구’로 범주화하고 ‘태도’ 범주의 하위 범주로 ‘국어 탐구에 대한 흥미’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가장 상위 범주인 ‘핵심 개념’ 범주에 ‘국어 구조의 탐구와 활용’을 설정하고 있으며 ‘기능’ 범주의 하위 범주에 국어 현상의

탐구 과정에 동원되는 ‘탐구 기능’-문제 발견하기, 자료 수집하기, 비교·분석하기, 분류·범주화하기, 종합·설명하기, 적용·검증하기, 언어생활 성찰하기-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탐구 기능을 내용 체계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이를 문법 영역의 교수학습 내용 요소로 삼겠다는 의도이다. ‘일반화된 지식’ 범주에서 밝히고 있듯이, 문법 영역에서는 국어 현상을 탐구하는 데 요구되는 탐구 기능을 익혀 이를 통해 국어 지식을 얻고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자 하는 것이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이와 같은 의도는 교과 목표와 성취 기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7 개정,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과 목표 중 문법 영역의 인지적 측면과 관련된 목표를 비교하여 보자.

(5)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 문법 관련 목표

가.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 활용하면서 자신의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한다.

가.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힌다.(2009 개정)

나.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 및 문법 탐구와 문학 향유에 도움이 되는 기본 지식을 갖춘다.(2015 개정)

(5)에서 볼 수 있듯이 2007 개정,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문법 지식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문법 탐구에 도움이 되는 기본 지식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법 탐구에 도움이 되는 기본 지식을 갖추는 것과 문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히는 것은 차이가 있다. 문법 탐구에 도움이 되는 기본 지식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할 경우 문법은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도구’나 ‘재료’로서의 성격이 강한 데 비해, 문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할 경우는 문법은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내용이자 목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법 탐구에 대한 기본 지식에는 도구나 재료로서의 문법과 함께 <표 4>의 탐구 기능을 익히는 데 요구되는 절차적 지식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탐구 과정이나 탐구 기능이 문법 영역의 내용 체계에 도입되면서 성취 기준도 탐구를 강조하는 경우가 등장하고 있다. 탐구가 성취 기준에서 등장하는 사례는 다음 (6)과 같다.

(6)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일부

- ㄱ. [6국04-03] 낱말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됨을 탐구한다.
- 나. [10국04-01]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하고 국어생활을 한다.
- ㄷ. [10국04-02] 음운의 변동을 탐구하여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한다.
- 르. [10국04-03] 문법 요소의 특성을 탐구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6)에서 볼 수 있듯이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은 ‘성격’, ‘목표’, ‘내용 체계’에 서와 달리 국어 현상의 ‘탐구 과정’이나 ‘탐구 기능’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1학년에서 10학년까지 단 한 항목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6ㄱ)의 밑줄은 다 의어의 쓰임을 탐구하는 경우이고, (6ㄷ)의 밑줄은 음운 변동 현상을 탐구하는 경우이다. 다시 말하면 다의어의 쓰임과 음운 변동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탐구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성취 기준이 이와 같이 진술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나 수업의 실제 장면에서는 ‘탐구’가 교수학습 방법의 일부로만 다루어지고 있다. 금까지 문법 영역에서 ‘탐구’는 문법 지식을 발견하여 그 결과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지 그 방법 자체가 교수학습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음을 성취 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법 영역의 교수학습 내용 체계상의 내용 범주의 변화는 제5차 교육과정 이래 큰 변화가 있어 왔다. 그러나 성취 기준은 변화된 내용을 적절히 수용하고 있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1.2. 정의적 측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국어과의 목표와 교수학습의 내용은 인지적인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법 영역의 처음 설정된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목표의 전문은 정의적인 측면을 그 하위 목표는 인지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7)~(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지적인 측면은 주로 ‘하위 목표’로 정의적인 측면은 ‘전문’에서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7) 제4차 초등학교 국어과의 목표

- 가. 전문: 일상의 국어 생활을 바르게 하고, 국어를 소중히 여기게 한다.
- 나. 하위 목표
 - 1) 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바르게 표현하고 이해하며,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르게 한다.
 - 2) 국어에 관한 초보적인 이해를 가지게 한다.
 - 3) 상상의 세계를 표현한 글을 즐겨 읽고, 아름다운 정서를 기르게 한다.

(8) 제4차 중학교 국어과의 목표

가. 전문: 국민 학교의 교육 성과를 발전시키고, 국어와 민족 문화에 대한 관심을 깊게 한다.

나. 하위 목표

- 1) 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며, 합리적인 판단력을 기른다.
- 2) 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게 한다.
- 3) 문학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시키고, 문학 작품 감상력과 상상력을 기르며, 삶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게 한다.

(9) 제4차 고등학교 국어과의 목표

가. 전문: 중학교의 교육 성과를 발전시키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한다.

나. 하위 목표

- 1) 말과 글을 통하여 사상과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합리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른다.
- 2) 언어와 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게 한다.
- 3) 문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시키고, 문학 감상력과 상상력을 기르며, 인간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게 한다.

제5차 교육과정, 제6차 교육과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문법 영역과 관련된 하위 목표에 “2) 국어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을 익히고,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한다.”와 같이 제시함으로써 ‘국어의 올바른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라고 하겠다. 특히 내용 체계가 처음 설정된 제6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언어’ 영역의 내용 체계에서 ‘3) 낱말과 문장을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 및 습관’을 내용 체계 하위 범주로 제시하여 정의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 요소를 더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정의적인 측면의 평가 내용 요소 제시 방법은 제7차 교육과정부터 변화가 있다. 제7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인 현행 교육과정까지는 교과 목표나 내용 체계를 학교급별로 구분하지 않고 1학년부터 10학년(또는 9학년⁵⁾)까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설정하고 단일하게 제시하고 있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과 목표를 살펴보자.

5)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1학년부터 9학년(중학교 3학년)까지를 단일하게 보았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시 10학년까지로 설정하고 있다.

(10) 2015 개정 국어과의 교과 목표

가. 전문

국어로 이루어지는 이해·표현 활동 및 문법과 문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품위 있고 개성 있는 국어를 사용하며, 국어문화를 향유하면서 국어의 발전과 국어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나. 하위 목표

가) 다양한 유형의 담화, 글, 작품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소통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익힌다.

나)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 및 문법 탐구와 문학 향유에 도움이 되는 기본 지식을 갖춘다.

다) 국어의 가치와 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국어생활을 하는 태도를 기른다.

제7차 교육과정 이래로 교과 목표의 전문과 하위 목표 모두 인지적인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문법 영역과 관련된 목표 역시 마찬가지이다. 밑줄을 그은 부분은 문법 영역과 관련된 인지적인 측면의 목표와 정의적인 측면의 목표를 나타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내용 체계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태도 범주가 내용 체계상에서 별도로 설정되지 않고 ‘국어 사용 범주’에서 ‘국어의 올바른 사용’ 요소만 제시하였던 것에서 나아가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내용 체계상에 ‘태도’ 범주를 설정하여 그 하위 요소로 ‘국어의 가치, 국어의 중요성, 국어 사랑, 국어 의식, 국어 탐구에 대한 흥미’⁶⁾ 등을 설정하여 정의적인 측면의 내용 요소를 강조하고 인지적인 측면과 균형을 꾀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적 측면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태도와 관련된 성취 기준을 다수 설정하고 있다.⁷⁾

2.2. 평가 내용 변화의 배경

제5차 교육과정 이래 문법 영역의 인지적인 측면의 내용과 정의적인 측면의 내용 변화,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 평가의 변화는 지식관의 변화와 사고력 신장

6) 정의적 측면의 하위 내용 범주는 제7차 교육과정 이래 교육과정 시기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예컨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의식’이 맥락 범주의 하위 범주에 포함되어 있고 ‘국어 탐구에 대한 흥미’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에서만 제시되고 있다.

7) 제7차 교육과정부터 정의적 측면의 문법 성취 기준이 강화되어 왔다. 다만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체계상에서 태도 범주가 삭제됨으로써 성취 기준에서도 대부분 삭제되기도 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내용 체계상으로는 성취 기준상으로 다시 제시되어 오고 있다.

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국어과에서 제4차 교육과정까지의 지식관은 절대주의적, 객관주의적 지식관이 수용되어 왔다. 지식은 전문가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사용자의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고정 불변의 실체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제5차 교육과정부터 지식은 상대주의적, 주관적,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인식되고 있다. 지식은 개인의 경험, 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합의의 산물로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실체로 인식된다. 따라서 학습자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탐색하여 정리한 고정된 지식 자체를 전수받아 암기 또는 이해하는 능력보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찾아내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주체로 파악된다. 전자를 통해서 학습자는 기억, 이해, 적용 수준의 사고를, 후자를 통해서 분석, 종합, 평가 수준의 고차적 사고를 함양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성격의 지식관과 사고관은 기능 영역에서 과정 중심의 국어 교육을, 문학 영역에서는 반응 중심 문학 교육을 도입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학습자 중심 국어 교육과 협력 학습의 수업 형태를 강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관점은 문법 교육에서도 제5차 교육과정부터 문법 영역의 평가의 유의점에 수용되어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문법 영역의 내용 체계에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지식의 범람과 홍수로 특징짓는 지식 정보화 시대, 4차 산업 혁명으로 성격 규정되는 지능 정보화 시대에는 불완전하고 가변적인 지식에 대한 암기와 이해 능력보다 지식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신장에 초점을 둔 교육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국어과의 문법 영역의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역시 이에 대한 교육의 변화가 수용되어야 한다.

3. 문법 영역의 평가 현황과 개선 방향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어과의 문법 영역과 관련된 교육의 목표나 내용 체계, 내용 요소는 변화된 지식관과 사고관에 맞추어 변화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도 이에 맞추어 변화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3.1. 평가 현황

제5차 교육과정 이후 문법 영역의 평가와 관련하여 수용되었어야 할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평가 내용의 변화이고 두 번째는 평

가 방법의 변화이다. 평가 내용에 대한 변화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단순히 문법 지식 요소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탐구 기능 요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문법 지식을 발견해 내는 과정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지식과 탐구 기능(탐구적 사고력: 분석, 분류, 종합, 평가 등)뿐만 아니라 문법 영역에서 기르고자 하는 학습자상으로서의 정의적인 요소를 실제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 방법에 대한 변화는 문법 지식에 대한 이해 여부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둔 지필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결과 평가뿐만이 아니라, 국어 현상(국어 자료)을 탐색하여 문법 지식을 발견해 내는 과정을 수행하는 능력 즉 고차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둔 관찰을 통한 탐구 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의적 요소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국어 수행 태도를 상시적으로 관찰 평가하고 국어 의식 형성에 대한 결과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 남가영(2017), 구본관(2010), 이도영(2007), 이승황(2017), 최은정·조용기(2015), 하성욱(2011) 등에서는 문법 교육에서 이루어져 온 지식 이해 중심의 평가를 비판하고, 탐구 능력에 대한 평가, 태도와 같은 정의적인 측면의 평가, 선택형 평가뿐만 아니라 서술형 평가, 기능 영역과의 통합적 평가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 논의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문법 영역 평가는 절대주의적인 지식관에 따른 고정 불변의 ‘학교 문법’으로 제시해 온 문법에 대한 암기·이해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식관의 변화에 따른 탐구 기능이나 탐구 과정에 대한 평가 방안 역시 주로 지필 평가를 통한 결과 중심의 평가 방법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탐구 기능의 평가는 탐구 과정을 기술해 놓은 것에서 옳은 답을 찾아내는 지필 평가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실제적인 탐구 수행 능력(고차적 사고력)이 아닌 이해와 적용 중심의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한다는 비판도 있다. 서술형 평가나 통합형 평가는 문법을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보다는 절대주의적인 지식관에 따라 정리된 ‘학교 문법’을 읽기 자료나 쓰기 자료를 통해 그 이해 및 적용 능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도영(2007)에서는 태도, 흥미, 습관 등과 같은 정의적 요소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다는 점에서 지필 평가는 부적합하고 관찰 평가, 조사법(척도법, 설문지법), 면접법을 비롯하여 교사가 직접 평가하기 어려운 행동 특성에 대한 정보는 동료 평가법을 통하여 평가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교육과정상으로는 교과 목표와 내용 체계,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유의점에서는 문법 탐구 기능

과 탐구 과정을 수용하고 있으나, 성취 기준과 교과서, 교사 교육,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의 운용에서는 변화된 지식관과 사고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3.2. 개선 방향

3.2.1. 인지적인 측면

절대주의적인 지식관에 따른 학교 문법의 암기와 이해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교과서를 비롯한 교재 구성의 준거가 되는 성취 기준은 교수학습 방법으로서의 탐구를 일부 수용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학교 문법에서 기술하고 있는 문법 지식을 이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⁸⁾ 이와 같은 성취 기준의 진술 방식은 교재의 구성과 평가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이병규, 2019: 제10장 참고)

(11) 중1~3학년군의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 ㄱ. [9국04-01] 언어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생활을 한다.
- ㄴ. [9국04-02] 음운의 체계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한다.
- ㄷ. [9국04-03]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한다.
- ㄹ. [9국04-04] 품사의 종류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한다.
- ㅁ. [9국04-05]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
- ㅂ. [9국04-06] 문장의 짜임과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
- ㅅ. [9국04-07]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 ㅇ. [9국04-08]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해한다.
- ㅈ. [9국04-09] 통일 시대의 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지닌다.

(11)에서 볼 수 있듯이 성취 기준은 평가의 기준과 내용으로 기능한다. 그런데 지식을 도출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문법 지식의 이해와 그에 대한 적용 능력의 교수학습에 초점을 둔 성취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성취 기준을 이와 같이 진술하게 되면 교재의 구성도 내용 전달 수준으로 기술될 수밖에 없고 평가 자료도 이에 대한 이해 여부를 평가하는 도구 수준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다. 음운의 체계나 품사의 종류, 어휘 체계, 문장의 짜임 등은

8) 교과서 구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병규(2009ㄱ: 10.3.절), (2009ㄴ) 참고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답을 도출할 수 있는 열린 교재 구성과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어 현상을 자료로 2015 개정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내용 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탐구 기능-문제 발견하기, 자료 수집하기, 비교·분석하기, 분류·범주화하기, 종합·설명하기, 적용·검증하기, 언어생활 성찰하기-의 교수학습에 초점을 둔 성취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연역적 탐구와 귀납적 탐구가 문법 요소를 이해하는 데 활용되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국어 (사용) 현상에 대한 탐구 기능 자체가 교수 학습의 내용으로 제시되는 성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어 현상과 문법 요소는 ‘탐구 기능’의 교수학습을 위한 도구 즉 재료가 되는 것이다.

(12)는 국어 현상을 통하여 탐구 기능을 교수학습 하는 것을 초점화하여 제시해 본 성취 기준이다.

(12) 탐구 기능 교수학습을 위한 성취 기준 예

- ㄱ. 국어 자료를 분석하여 (형태적으로, 의미적으로, 기능적으로)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분류하다.
- ㄴ. 국어 자료에서 문장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성분들을 찾고 설명한다.
- ㄷ. 나는 자리가 같은 소리들을 찾아본다.
- ㄹ. 나는 방법이 같은 소리들을 찾아본다.
- ㅁ. 국어 자료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나타나는지를 찾고 문장의 짜임을 분석한다.
- ㅂ. 국어 자료에서 소리의 바뀔 현상을 찾아보고 그 원인을 설명한다.
- ㅅ. 국어 생활을 떠올려 설명문이 사용되는 상황을 찾고 설명한다.
- ㅇ. 국어 자료에서 설명문의 거시 구조의 특징을 비교·분석한다.
- ㅈ. 국어 자료에서 설명문의 표현의 특징을 비교·분석한다.

(12ㄱ)은 품사 분류를 활용한 탐구 기능을, (12ㄴ)은 문장 성분을 활용한 탐구 기능을, (12ㄷ)은 소리 나는 자리에 따른 음운 식별을, (12ㄹ)은 소리 나는 방법에 따른 음운 식별을, (12ㅁ)은 문장의 짜임을 활용한 탐구 기능을, (12ㅂ)은 음운 현상을 활용한 탐구 기능을, (12ㅅ)~(12ㅈ)은 텍스트의 특징을 활용한 탐구 기능을 학습할 수 있는 성취 기준이다. 이들 각각의 성취 기준에 이르게 하는 답은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다양한 답을 도출하도록 교재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도출한 결과로서의 문법 지식뿐만 아니라 문법 지식을 도출하기까지 자료 분석의 기준 설정을 비롯하여 결과 도출 과정 또한 확인할 수 있다. 학자들이 특정한 기준에 따라 제시해 둔 절대적인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발견해 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성취 기준의 이와 같은 진술 방식은 교재의 기술 방향을 유도하게 되며, 결국 탐구 기능 중심, 과정 중심, 학습자 중심의 문법 교재 구성과 평가 방법을 안내하게 된다.

변화된 지식관에 따른, 문법 영역과 관련된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체계, 교수 학습 및 평가의 유의점에 부합하는 문법 교육은 문법 지식 이해에 초점을 둔 성취 기준과 탐구 기능에 초점을 둔 성취 기준의 구분과 각각의 진술 방식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된 지식관에 부합하는 교과서를 비롯한 교재 구성, 교사의 수업 실행 능력을 위한 연수 등이 전제될 때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문법 평가가 충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제 아래 문법 영역의 평가 방향은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인지적인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이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학교 문법에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문법에 대한 기억과 이해 능력에서 나아가 국어 현상(국어 자료)에서 연역적 탐구와 귀납적 탐구를 통하여 지식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 즉 고차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평가 내용으로서 연역적 탐구 기능과 귀납적 탐구 기능의 수용과 이에 대한 교수학습 및 평가가 필요하다. 평가 방법으로서 오지선택형 지필 평가와 수행 평가, 관찰 평가의 균형, 결과중심의 평가와 과정 중심의 평가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지적인 측면의 문법 지식 평가 내용을 음운, 단어, 어휘, 문장 중심에서 나아가 텍스트(담화와 글)에 대한 내용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텍스트에 대한 내용의 교수학습 내용의 구체화, 과정 중심의 국어교육과의 텍스트 중심의 국어교육의 내용 융합화도 필요하다.

지식관의 변화에 따른 과정 중심의 표현과 이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마련되었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텍스트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다. 텍스트 중심 교육과정의 핵심⁹⁾은 국어 활동의 목적(언어의 기능: 친교적 기능, 표현적 기능, 선언적 기능, 제보적 기능, 설득적 기능, 책무적 기능, 심미적 기능)을 성취 기준 구성의 1차 조직자로 설정한 점, 내용 체계의 ‘지식’ 범주의 하위 범주에 ‘텍스트의 유형(특성)’과 범주를 설정한 점, 학년군별 성취 기준 제시한 후 ‘담화와 글, 작품의 예’를 제시한 점 등이 그것이다. 문법 영역은 추상적인 실체로서의 문장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실체로서의 발화와 텍스트의 특징과 그 수용과 생산의 원리를 규명하여 교수·학습의 내용으로서 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이 과정 중심의 국어 교육의 표현과 이해 과정에 어떻게 통합되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그 평가 방안도 모

9)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병규(2019ㄱ) 1.1.과 12장 참고

색하여야 한다.

닫힌 평가와 열린 평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과정 중심의 평가에서는 특정 지식의 도출 결과를 이해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타당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답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 또한 중요하다. 지금까지 문법 영역의 평가에서는 대부분 매우 한정된 정답을 요구하는 닫힌 평가가 이루어졌다. 문법 영역의 평가에서도 얼마든지 개방적 답을 유도하는 열린 평가가 가능하다.

예컨대 (13)과 같은 문항이 가능하다. (13)은 비교, 분석 및 분류, 설명의 탐구 기능과 함께 품사에 대한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계한 문항이다.¹⁰⁾

(13) 열림 탐구 문항 예

ㄱ. 국어 자료 제시: 가다, 나무, 먹다, 새 (집), 아름답다, 의자, 책상, 토론, 헌 (집), 크다

ㄴ. 영어 자료 제시: go, tree, eat, new (house), beautiful, chair, desk, debate, old (house), big

문항 1: ㄱ의 자료를 공통적 특성을 설정한 후, 분류하고 설명해 보자.

문항 2: ㄴ의 자료를 공통적 특성을 설정한 후, 분류하여 설명해 보자.

문항 3: ㄱ과 ㄴ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여 보자.

(13)의 문항 1과 문항 2의 답은 매우 다양하게 유도될 수 있다. 공통적 기준으로 ‘의미’를 고려하느냐, ‘형태’를 고려하느냐, ‘기능’을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 또 이 가운데 한 가지 기준만을 적용하느냐, 그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또 기준을 어떤 순서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 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문항 1과 문항 2의 결과는 같지 않다. 이 문항은 도출한 결과뿐만 아니라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교 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품사 분류를 암기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품사가 무엇인지를 이해시키고 품사 분류의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고차적인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문항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지식을 구성해 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더 설득력이 있는 지식과 상대적으로 덜 설득력이 있는 지식을 경험할 수 있다. 학습자의 인지 발달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며, 문법 영역에서도 열린 평가가 얼마든지 가능함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10) 여기서는 문항 설계의 방향과 틀만 제시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세부적인 문항 설계는 인지 발달과 학습 수준, 평가의 목적 등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지식의 이해뿐만이 아니라 실제 국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발음, 단어, 문장 구성 차원의 몇몇 통합형 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한계가 있다. 첫 번째는 텍스트 차원으로 평가 내용을 확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총괄 평가나 성취도 평가를 위한 지필 평가를 통한 일회적 평가에 그친다는 점이다. 텍스트 문법을 국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국어 생활 속에서 문법 수행 능력을 관찰하여 상시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 계획의 수립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관찰 평가를 위한 점검표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인지적인 측면의 지식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는 탐구 기능에 대한 성취 기준에의 반영, 탐구 기능 신장을 위한 문법 교재 구현, 교사 교육과 병행되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3.2.2. 정의적인 측면

정의적인 측면의 평가에 대한 평가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평가 방법도 실제화하여야 한다. 상시적으로나 일정 기간 동안의 국어 생활 평가, 국어 사용에 대한 평가, 국어에 대한 의식의 평가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도영(2007)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의적 측면의 평가는 지필 평가와 같은 간접 평가로는 한계가 있다.

정의적 측면을 직접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시적 평가를 위한 평가 계획 수립, 평가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처럼 학생부가 대학교 진학에 중요한 사정 자료로 활용되는 상황에서는 평가자의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실행 가능성은 요원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 내용에 부합하는 평가 방법 활용과 같은 평가 요소를 다각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방법과 평가 도구의 다양화, 평가 요소와 평가 주체를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밖에도 학습자의 학습 수행 능력과 결과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교수자의 교수 설계, 교수 방법과 평가의 운영, 교구 및 평가 도구에 대한 평가도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4. 맺음말

이 논의는 지식관의 변화에 따른 국어과 교육 내용의 변화 양상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고려한 문법 영역의 평가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먼저 제5차

교육과정을 기점으로 국어과 문법 영역의 평가 내용의 변화 양상을 국어과 교육의 목표, 내용 체계, 성취 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유의점의 진술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객관적이고 절대주의적인 지식관에서 상대주의적이고 구성주의적인 지식관으로의 변화에 따라 변화된 인지적인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의 평가 내용 변화를 분석하고 문법 평가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된 지식관에 부합하는 평가의 방향을 인지적인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참고 문헌〉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국어과 교육과정. <http://ncic.re.kr/mobile.kri.org4.inventoryList.do>
- 강보선(2018), 「국어과 교과 역량 신장을 위한 문법 평가 설계 -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평가를 위한 문법 평가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 한국문법교육학회.
- 강여순(2008), 「문법 평가의 실태와 개선 방안」, 『국어교과교육연구』 15, 국어교과교육학회.
- 구본관(2010), 「문법 능력과 문법 평가 문항 개발의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37, 국어교육학회.
- 김광해(1997), 「어휘력과 어휘력의 평가」, 『先淸語文』 25-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김규훈(2012), 「문법교육의 생태학적 평가 방안 연구-텍스트와 맥락을 활용한 평가 문항 개발을 위하여-」, 『국어교육학연구』 43, 국어교육학회.
- 남가영(2013), 「예비 국어 교사의 문법 평가 문항 설계 양상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16-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남가영(2017), 「통합형 문법 평가 문항의 양상과 설계 방향」, 『우리말 글』 75, 우리말글학회.
- 신명선(2018), 「단어의 문맥적 의미 평가 문항의 특성과 자장 -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언어) 영역을 중심으로 -」, 『새국어교육』 116, 한국국어교육학회.
- 우형식(1999), 「교육과정에 근거한 국어과 교육의 평가 방법 모색」, 『교육논총』, 부산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기연(2012), 「국어 어휘 평가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박사학위 논문.
- 이기연(2013), 「문법 능력 평가 내용 연구-문법적 판단력 설정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이도영(2007), 「문법 영역의 평가 방법: 형성 평가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1, 국어교육학회.

- 이병규(2019ㄱ), 『국어 문법 교육론』, 집문당.
- 이병규(2019ㄴ), 「초등 국어과 문법 영역의 교과서 실행 분석 연구-2015 개정 교육과정
정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이승왕(2017), 「국어과 문법 영역의 서술형 평가 적용 방안」, 『한국초등국어교육』 62,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이춘근(2001), 「문법 교육 내용의 계열화 분석 및 평가」, 『국어교육연구학』 13, 국어교
육학회.
- 주세형(2007), 「“문법 교사의 수업 전문성 평가 모형”에 대한 현장 교사의 인식 실태 연
구」, 『새국어교육』 77, 한국국어교육학회.
- 최규홍(2013), 「초등학교 문법 교육 평가 방법 연구」, 『청람어문교육』 47, 청람어문교육
학회.
- 최은정·조용기(2015), 「문법 탐구 능력 평가 방안 연구」, 『국어교육』 148, 한국어교육
학회.
- 하성욱(2011), 「문법의 통합적 평가 방안 연구」, 『국어교과교육연구』 18, 국어교과교육
학회.

573돌 한글날 · 한글학회 창립 111돌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2019년 10월 11일 (금) 09:50 ~ 16:40

한글회관 열말글교육관

□ 제2부: 연구 발표

국어 청자존대법 쟁점의 회고와 전망

양영희

전남대학교 교수
chamnamu@jnu.ac.kr

1. 머리말

주지하듯이 존대법¹⁾은 국어의 중요한 특질 가운데 하나여서 일찍부터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그 결과 국어 존대법은 대상에 따라 ‘주체 존대, 객체 존대, 청자 존대’로 분류되고 이러한 기능은 특정 문법 형태(소)에 의해 실현된다는 관점이 이룬 시기에 확립되었다. 본고의 관심 대상인 청자존대법은 다른 존대법과 다음의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중심 대상인 화자와 청자라는 용어가 문장 단위를 벗어난 성분이라는 점, 청자에 대한 화자의 대우 태도에 대한 규정이어서 종결 어미의 활용과 관련되는 만큼 서법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에 따라 청자존대법은 종결어미를 존대 정도에 따라 등급화 하는 화계

1) 이윤하(2001: 62)에 의하면 본고에서 사용하는 존대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명명되고 있다.

(가) 높이는 면만을 고려한 명칭: 경어법, 공대법, 존대법, 높임법, 존경법

(나) 높임과 낮춤의 면을 모두 고려한 명칭: 존비법, 더 낮춤법과 더 높임법

(다) 높임과 낮춤의 면을 표면에 드러내지 않은 명칭: 대우법, 말 대접법, 말 대우

현재 학교문법에서는 높임법이라는 용어를 취하고 있다. ‘청자에 대한 대우’에 대한 문법 표지라는 면을 감안하면 (다)의 대우법이라는 명칭이 타당하게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현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존대법’이라는 용어를 취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명칭의 유래와 장·단점 등은 이윤하(2001)로 미루기로 한다.

설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 (비)격식성, 유대, 연령, 성별과 같은 문법 외적 요인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중세국어국어에서 현대국어에 이르는 동안 청자 존대 등급은 3단계에서 6단계로 확대·분화된 것으로 간주하는 데에는 대부분의 연구자가 동의하지만 존대 정도의 판정, 존대 체계 수립 시 위와 같은 문법 외적 요인의 수용 여부와 적용의 국면 등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이견이 존재한다. 필자가 이번 과제를 준비하면서 전자자료 학술 DB를 통해 구한 존대법 논문 50여 편 가운데 35여 편이 청자 존대 등급의 재설정에 관한 주제였다. 청자 존대 체계에 관한 재인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주지하듯이 문법은 언중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내재된 질서를 찾아내 규범화하는 분야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언중들의 언어 사용 양상을 기술하거나 설명하는 데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체제 구축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언어의 기본 속성에서 기인하는 부족함인 것이다. 청자존대 체계의 재설정 요구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중들의 모든 존대 사용 양상을 규범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

여기서 청자 존대법에 관한 그동안의 논의들을 점검하여 공통된 입장은 무엇이고 어떤 면이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과정에서 보다 완전한 청자 존대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나아가 할 연구 방향을 탐색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이다. 본 논문의 의의는 이 지점에서 찾아진다.

2. 청자 존대법 쟁점

청자존대법의 연구는 청자에 대한 존대 정도를 몇 단계로 분류할 것인가라는 논의부터 시작되었다. 고대국어시기에는 2단계(존대: 비 존대)로 나뉘다가(이호권 · 이기문: 2012) 중세국어에서는 3단계로²⁾, 근대국어에서 4단계로 분화되어 현대국어에서 6단계에 이른 것으로 간주된다.

2) 고영근(1981: 9)에서는 다음에서 확인되는 ‘니’체를 독립 화계인 반말로 규정하였다. ‘화자가 청자를 아주 낮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썩 높일 수도 없는 처지일 때 쓰이는’ 말씨로 ‘하라체’와 ‘하야씨’체의 중간 정도의 등급으로 판정한 것이다.

(1) 가. (공주가 태자에게) 엇더넛가 그되 나를 미드시니 몬 미드시니 (월석 22, 57ㄱ)

나. (구이가 선혜에게) 부텃기 받즈바 므슴 호려 하시느니 (월석 1, 10ㄴ)

반면 허웅(1995)은 ‘니’체를 ‘하쇼셔’체의 ‘이다, 잇가’의 생략형으로 해석하여 그것과 같은 화계로 간주하였다. 이에 대해 안병희(1992), 김영옥(1997), 장윤희(1998) 등은 ‘니’를 종결어미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을 적시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니’체를 독립적인 화계로 설정하지는 않았다. 여기서는 안병희(1992) 등의 입장을 취하기로 한다.

〈표1〉 청자 높임 등급 분화 양상

중세		근대		현대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ᄃ쇼셔	ᄃ쇼셔	ᄃ쇼셔	ᄃ쇼셔	하십시오	하십시오	격식체
			ᄃ오	하오	하오	
ᄃ야씨	ᄃ니	ᄃ니	ᄃ니	하게	하게	
ᄃ라	ᄃ라	ᄃ라	ᄃ라	해라	해라	
					해요	비격식체
				해	해	

15세기의 ‘ᄃ야씨’체를 ‘ᄃ쇼셔’체와 ‘ᄃ라’체의 중간 정도의 독립된 화계로 설정한 것은 안병희(1965)에서이다. 그는 ‘ᄃ야씨’체가 ‘대명사를 안 쓰는 대상’보다 낮고 ‘너’로 부르는 대상보다 높은 인물을 지칭하는 ‘그딴’과 호응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명사를 안 쓰는 대상’과 호응하는 ‘ᄃ쇼셔’체보다 낮고 ‘너’와 호응하는 ‘ᄃ라’체보다 높은 대상에게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³⁾

이 같은 논의 과정에서 형성된 4등급에 ‘(비)격식’성을 적용시킨 결과가 〈표1〉의 2분 4등급 체계이다. 곧 동일 대상일지라도 격식적인 장면(소)에서는 ‘하십시오·하오·하게·해라’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비격식적인 장면(소)에서는 ‘해요·해라’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관점은 연구자들에게 논쟁의 대상이 된바, 핵심은 ‘하오체와 하게’체, ‘해요체와 해체’의 구분이다. ‘하오’체, ‘하게’체의 연령 별 사용 양상의 차이를 고려한 화계의 재설정 필요성, ‘해요체: 하십시오체’, ‘해체: 해라체’의 변별성 확보를 위한 ‘격식/ 비격식’의 도입 여부에 대한 문제인식으로 파악되는 까닭이다.

2.1. ‘하게’체와 ‘하오’체

일반적으로 ‘하오’체는 상위자를 ‘보통으로 존대(예사 존대)’할 때, ‘하게’체는 하위자를 ‘보통으로 낮출(예사 낮춤)’ 때 사용하는 종결어미로, ‘하십시오’와 ‘해

3) ‘ᄃ야씨’체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2) 가. (수달이 호미에게) (호미가 수달에게) 그리 아냐다... 그리 아니라 부터와 중과를 請ᄃ쇼셔보려 ᄃ녕다 (석상 6, 17ㄴ)

나. (수달이 호미에게) 主人이 므슴 차바늘 손소 뜯네 밍ᄃ노닛가 太子를 請ᄃ쇼셔바 이받ᄃ보려ᄃ노닛가 大臣을 請ᄃ야 이바도려 ᄃ노닛가 (석상 6, 17ㄴ)

다. (바라문이 호미 딸에게) 내 보아져 ᄃ는다 슬ᄃ씨 (석상 6, 14ㄴ)

하웅(1995), 성기철(1979) 등은 ‘ᄃ야씨’체를 ‘ᄃ쇼셔’체와 같은 화계로 해석하기도 한다. 곧 ‘ᄃ다, ᄃ갸’를 ‘ᄃ이다, ᄃ잇갸’의 축약 혹은 생략형으로 해석하여 ‘ᄃ쇼셔’체와 같은 화계로 간주하는 것이다.

라'체의 중간 등급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이들의 변별력이 희미해지면서 동일 대상에게 사용할 수 있는 같은 정도의 [존대]를 지닌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고 젊은 층에서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들어 존대 체계에서 제외시키려는 경향이 있기도 한다.

2.1.1. 하계체

‘하계’체는 ‘하늬’체의 계승형으로 간주되는데, ‘하늬’체는 15세기 ‘하야씨’체를 대신하여 16세기 중반부터 사용된 종결어미이다.

- (1) 가. (남편이 부인에게) 오직 옷출 자기 주실가 하뇌 엇디 편지를 아기 하여 쓰여 보내신고 (순천김씨 간찰 108)
 나. (남편이 부인에게) ...그를 민망하여 하뇌 귀소닉 지브 무려 보와 가부하소 (순천김씨 간찰 52)
 다. (시누이가 손아래 올케에게) 동싱님네의 대되 요스이 엇디 겨신고 ...우리 는 대되 무스히 뵈와 인뇌 (순천김씨 간찰 53)
 라. (장모가 사위에게) 요스이 괴별 하 모르니 아히들하고 엇디 인노고 분별하뇌 (순천김씨 간찰 48)
- (2) 가. (남편이 아내에게) 안쥬란 념통 산덕과 싱치 다리 둘 돕지 둘 네홀 구워셔 젓드려 하 그르세 노케 하소 (진주하씨간찰 35)
 나. (손위시누가 손아래올케에게) 세 대를 설되 주매 인뇌 아므리나 전하심 브라뇌 ㄱ업서 이만 하뇌 (진주하씨간찰 115)
 라.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무스히 희산을 하다 하니 깃버하늬 아히 일홈으란 남여라 하소 (연간 보3)
 마. (사도세자가 혜경궁 홍씨에게) 즈늬는 못 싱각하늬 세손은 효장세주의 양즈를 삼으면 엇디홀가 본고 (한중 260)
 바. (시숙모가 조카 며느리에게) 극한의 뵈오셔 평안하오신 일 아읍고 든든하 년하여 뵈오셔 평안하 바르늬 (연간 190)
 사. (강동지가 아내에게) 술잔이 썬날 썬가 업섯네 (귀의성 상 5)
 아. (동궁이 신하들에게) 자늬네로 하여 우리 집이 다 죽게 되엿늬 (산성 80)
 자. (김승지 부인이 침모에게) 자네 눈우슴만 하여도 사람 여럿 굿칠줄 아랫네 (귀의성 상 27)

(1)의 용례는 중세국어(16세기)에 해당하고 (2)는 근대국어에 해당한다. 여기서 (2. 아, 자)를 제외하고는 주로 가족 관계에서 연장자가 연하자에게 사용하였음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이 두 경우의 화자와 청자도 ‘어린 왕자’와 그를 가까

이서 보필하는 ‘신하’ 혹은 ‘안주인’과 ‘침모’라는 점에서 가족에 버금가는 친밀한 관계로 인정할 만하다. 이로 볼 때, 하계체는 친밀한 관계의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현대로 오면서 사용역이 사회적 관계로 확산된 듯하다.

2.1.2. 하오체

18세기 일동장유가에서 처음 사용된 ‘호오’체(이 승희 2004: 106)의 형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⁴⁾ ‘습’에서 기원하며 존대해야 할 청자에게 사용되었고 현대국어 ‘하오’체로 계승되었다는 점에서는 의견 일치를 보인다.

- (3) 가. (혜경궁이 사도세자에게) 어이 못디 아니하시느 사름 죽이오신 말을 호야 격오시오 (한중 196)
- 나. (화완옹주가 정조에게) 그 일을 그티도록 호일리오 저리 요란이 호야 세상 의 모르리 업스니 마노라 무슨 사름이 되게소 (한중 404)
- 다. (혜경궁이 정조에게) 과연 다형리오 …… 그 집의셔 날을 원망을 오죽히 호가 보오 (한중 408)
- (4) 가. (향단이 이도령에게) 셔방님 시장흔디 어셔 요기나 호읍시오 (남원 4, 39
ㄱ)
- 나. (방자가 이도령에게) 도련님 여러 말씀 그만호오 (남원 1, 16ㄴ)
- 다. (춘향이 관속에게) 나는 읍늬 춘향리오 (남원 4, 41ㄴ)
- 라. (옥련이가 양어머니에게) 어머니 늬는 졸업장 맛탓소 (홍도화 48)
- 마. (강동지 부인이 남편에게) 나는 우리 길순의 싱갯을 호면 뼈가 녹는듯 호오 (귀의성 상 3)

‘호오’체는 가족 관계나 그에 버금가는 친밀한 관계에서 사용되다가 현대로 오면서 사용역이 사회적 관계로 확산된 듯하다. 아내가 남편에게(3. 가), 옹주가 왕인 조카에게(3. 나) 혹은 어머니가 왕이 된 자식(3. 다)에게 사용하거나 비록 가족은 아니지만 자신의 상위자와 연인 관계(4. 가)이거나 자신이 가족처럼 모시는 상위자(나)에게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참조할 때 그러하다. 이러한 사용 환경은 ‘호계’체와 일치되지만 사용 대상은 상반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런데 최근 ‘하오’체와 ‘하계’체의 위상을 재고하려는 경향이 적지 않다. 이들의 존대 정도를 고려할 때 ‘하계’체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정택: 2015)과 젊

4) 최명옥(1976), 이기갑(1978)은 호늬’체의 간소형으로, 서 정목(1993), 남 미정(2007) 등은 ‘호오이 다’류의 절단형으로 이해한다.

은 층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으므로 공히 존대 체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왕문용 · 민현식 1993, 이경우 2001, 김병건 2012, 박지순 2005, 홍종선 · 김서형 2016)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비록 젊은 층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등급 상의 지위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임동훈 2006, 이익섭 1997)도 여전히 존재한다.⁵⁾ 이러한 견해 차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언어의 속성과 그것의 사용 주체인 언중, 사용 환경인 사회 구조의 변화 등이 상호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곧 살피겠지만 젊은 층이 해요체와 해체를 활발히 사용하게 되면서 하오체와 하계체를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하오체를 사용할 대상은 해요체를, 하계체를 사용할 대상은 ‘해’체로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굳이 이들을 구별 · 사용함으로써 기억의 부담을 가중시킬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일 터이다.

2.2. ‘해요’체와 ‘해’체

청자존대법의 또 다른 쟁점은 ‘해: 해라’체, ‘해요: 하십시오’ 간의 존대 정도와 ‘비격식/ 격식’의 설정이다. <표 1>에서 살펴지는 2분 4등급 체계는 주지하는 대로 격식적인 장소와 비격식적인 장소에서 청자를 대하는 태도가 같지 않음을 전제로, 전자에서는 청자에 대한 존대 정도에 따라 ‘하십시오 · 하오 · 하계 · 해라’체를 선택하며 후자에서는 ‘해요 · 해’체를 선택한다는 논리이다.

2.2.1. 해체와 해라체

‘해’체는 19세기에 다음 (5. 가, 나)와 같은 용례로 출발하여 현재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 (5) 가. (강동지가 아내에게) 우리 길순이를 첩으로 들라하니 참 농쌔 꾸엇지 (귀상 4)
 나. (이시종이 처남에게) 비혼 것이 잊셔야 식집을 가지 (추월색 29)
 다. (궁의 부인이 하녀에게) 남의 자식을 위하여 이 고삿을 헛고 잇는 것이 너 가 병신이지. (혈의누 51)
 라. (어사가 농부에게) 성엿장 다랏시면 응당 츠지 (남원 4, 28ㄴ)
 마. (어사가 월매에게) 집으로 가지 (남원 5, 14ㄱ)

5) 이러한 의견 차이는 교육(계)에서도 형성되어 있다. 박지순(2015, 2016), 나동숙(2016) 등은 ‘하오’체와 ‘하계’체가 비록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되지 않지만 한국어 교육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백봉자(2006)은 ‘하오’체의 교육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에서 ‘해’체는 남편이 부인(5. 가)에게, 가족 관계의 연장자가 연하자(5. 나)에게, 혹은 양반이 상민(5. 다~마)에게 사용한 점을 참조할 때,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사용하는 종결어미로 추정된다. 이런 면은 앞서 살핀 ‘하계’체와 공통되는바, 주로 가족이나 그에 버금가는 친근한 관계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어쨌든 이러한 종결어미를 이희승(1964)은 존대 등급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최현배(1929=1987)는 체계에 포함시키되 등외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하여 김민수(1964)는 ‘보통 하대’로, 허웅(1969)은 ‘낮춤’으로, 성기철(1975, 1985), 서정수(1972, 1984)는 ‘두루낮춤’의 화계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이견은 해체의 위상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이 같지 않은 데서 형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현재 ‘해’체는 하위자에게 활발히 사용되면서 다음처럼 ‘해라’체와 혼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바, 성기철(1999), 허웅(1995, 1999), 김병건(2012), 박지순(2016) 등이 ‘해라’체와 ‘해체’의 낮춤 정도를 같이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 (6) (교수가 학생에게) 오늘 언제 한번 내 연구실에 들러라. 어제 내가 부탁한 논문 찾아 놓았어. 요즘 임용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지? 그래도 건강 챙기면서 공부해야 한다.

반면 왕문용·민현식(1993), 유현경(2015), 유송영(1994), 한길(2002), 조용준(2017), 이정택(2015) 등은 다음과 같은 사용을 고려하여 ‘해’체를 ‘해라’체보다 높은 등급으로 판정하기도 한다. 보다시피 ‘해’체는윗사람에게 사용(7, 8. 가)하며 존대 표지 ‘시’도 연결(9. 가) 가능하지만 ‘해라’체는 그렇지 못한 점을 주목한 것이다.

- (7) 가. 엄마, 나 학교 가. 나. *엄마, 나 학교 간다.(한길 2002)

- (8) 가. 삼촌, 집에 왔어. 나. *삼촌, 집에 왔니?(한길)

- (9) 가. 이봐요, 벌써 일 끝내셨어?

- 나. *이봐요, 벌써 일 끝내셨나?(왕문용·민현식)

여기에 더하여 서정수(1972, 1985), 황적륜(1976), 성기철(1975, 1985)에서 비롯된 ‘해체, 해라’체의 ‘격식/비격식’성 구별은 연구자들에게 또 다른 쟁점의 대상으로 작용하였다. 고영근·구본관(2018)에서는 비격식체 대신 ‘요-결락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하계, 해라’체를 아우르거나 대응하는 말씨로 규정하였고 김병건(2012), 은 20·30대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해라’체와 ‘해’체 모두 격

식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개진하였으며, 이은희(2009), 박지순(2014) 등도 같은 맥락에서 해라체의 비격식적 사용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격식과 비격식성 구분의 필요성을 인정한 이정택(2015)도 ‘해라’체를 격식체로 간주하는 데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2.2.2. 해요체와 하십시오체

‘해요’체는 다음의 (10)과 같이 1864~1869년 사이에 출판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원고사」에서 확인되지만 현재의 기능으로 사용된 시기는 20세기(고영근 1974: 83)로 간주된다.

- (10) 가. (책방이 사또에게) 사또 그식 심심히지요? (춘향전 81)
 나. (춘향이 이도령에게) 나를 어버건이와 나는 무거워 엇찌 어버요? (춘향전 90)
 다. (향단이 어사또에게) 엇찌쓰나요 엇찌쓰나요? (춘향전 286)
 라. (금분이가 상전에게) 엇지 익가 더럭 쓰이논지 별싱각을 다 히 보았서요
 (빈상설 21)

위의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살필 때 ‘해요’체는 친밀한 관계의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사용하는 종결어미로 확인되는바, 앞서 살핀 ‘하오’체와 공통된 면이 없지 않다. ‘하오’체는 주로 가족 간에 사용되었지만 ‘해요’체는 친분이 있는 사회적 관계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책방과 사또, 춘향과 이도령, 향단과 어사또의 관계를 참조할 때 그러하다. 비교적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이유에서인지 최현배(1929=1987), 이희승(1964), 김민수(1964)등은 ‘해요’체를 단독 화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허웅(1995, 1999)은 ‘예사 높임’으로, 성기철(1975, 1985), 서정수(1972, 1984)는 ‘두루 높임’의 화계로 설정하였다. 여하튼 ‘해요’체는 다음처럼 ‘하십시오’체와 혼용되기도 한바, 유현경(2015), 박지순(2012)이 ‘하십시오’체와 대등한 등급으로 판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 (11) 잠깐 다니러 왔습니다. 이번에 강원도로 떠나게 됐어요. 작별 인사 겸 찾아뵈러 왔습니다.(고영근·구본관 2018: 474)

그러나 성기철(1970), 서정수(1994), 허웅(1995, 1999), 김병건(2012), 조용준(2017)등은 ‘해요’체보다 ‘하십시오’체를 더 높은 등급으로 파악하였다. 김병건(2012), 조용준(2017)은 일반적으로 젊은 층에서 ‘해요’와 ‘해’체를 많이 혼용하면서 대등한 등급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설문 조사 결과 ‘해요’체보다

‘하십시오’체를 더 높게 인식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기도 하였다. ‘하십시오’체를 격식체로 ‘해요’체를 비격식체로 구분한 데에 대해서는 고영근·구본관(2018)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자가 동의하는바, ‘해요’체와 ‘해’체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구분하는 데에 많은 연구자들이 회의적이었던 점과 비견되는 면이 없지 않다.

3. 청자존대법의 두 가지 논의 방향

이상에서, 청자 존대와 관련한 쟁점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인정할 것인가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등급 간의 동요를 인정할 것인가이다. 전자는 청자존대 체계 전반에 해당되는 문제로, ‘해’체와 ‘해요’체의 출현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주지하듯이 학계에서는 중세국어부터 근대국어의 종결어미를 분석하여 ‘하십시오: 하오: 하계: 해라’라는 4등급 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러다가 19·20세기에 사용되기 시작한 ‘해’체와 ‘해요’체를 존대 체계로 수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격식/ 비격식’성을 도입하여 2분 4등급 체제를 완성하였으나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은 이점이 꾸준히 개진됨에 따라 제기된 문제의식이 아닌가 한다. 이에 비해 후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언어의 속성에 대응하는 문법 태도의 문제로, 특정 층의 동요를 문법에 반영해야 하는 정당성의 확보, 그에 따른 적용 시기와 정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판단된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본 ‘격식/ 비격식’ 장면 설정에 관한 학계의 반응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된다.

(12) 격식성, 비격식성 설정의 문제

가.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이 지지를 보내지만, 이 ‘격식/비격식’ 틀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높임법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많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격식/비격식’으로만 선택이 결정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데 있다. (김병건 2012: 6)

나. 학계에는 4원적 체계를 격식체, 2원적 체계를 비격식체로 보아 용법을 설명하는 일이 많은데, 이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종결어미에 격식과 비격식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특성, 곧 장면이 단독적이냐, 상관적이냐에 따라 형태가 배치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고영근·구본관 2018: 493)

(12. 가)는 청자 존대 체계 수립에서 격식/ 비격식의 수용 자체에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는 대신 다른 조건이나 요소들을 더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보완적 입장으로 이해된다. 이에 비하여 (12. 나)는 ‘격식/비격식’성의 도입 자체에 회의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입장이다. 현재는 (12. 가)에 입각점을

둔 논의가 우세하지만 (12.나)와 같은 관점에서의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3.1. 사회언어학의 관점

주지하듯이 ‘사회언어학’은 언어를 사회 맥락 안에서 이해하려는 학문으로, 특정 화자의 언어 사용에는 자신이 속한 계층, 연령, 세대, 성별, 직업 등의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어떤 언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격식/ 비격식’의 개념도 사회언어학의 관점에서 형성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만으로는 존대법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으니 다른 사회적 요인을 참고하려는 움직임(12. 가)이 일었던 것이다. 화자 자신과 청자의 힘(power), 유대(solidarity) 정도를 고려하여 종결어미를 선택한다거나 성별,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종결어미가 다른 것으로 파악하는 유송영(1994), 김병건(2012), 이정복(2002, 2012), 김정호(2004, 2005, 2008), 박지순(2014), 조용준(2017), 이정택(2015), 양영희(2009, 2010)이 여기에 해당한다. 화자의 의도된 전략으로 종결어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고영근·구본관(2018)의 관점도 마찬가지이다.⁶⁾ 이러한 경향은 존대법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사용역(register)을 구별하려는 방향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김병건 2012, 박지순 2016). 가령 화자는 ‘하십시오’체를 ‘해요’체보다 높게 인식하지만 혼용하기도 하고, ‘해라’체와 ‘해’를 대등하게 인식하지만 전자는 청자와 친밀할 때, 후자는 그에게 힘(power)을 행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등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⁷⁾

사회언어학 관점의 최대 장점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언중들의 언어 사용 양상을 민감하게 수용하려는 태도에 있다. 문법을 언중들의 언어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불변의 장치가 아닌 그들의 언어 사용을 존중하여 그렇게 사용한 이유나 배경 등을 규명하는 체계로 인정하는 태도이다. 형식과 기능(의미)을 ‘1: 1’의 대응 관계로만 인식하는 대신 ‘1: 多’의 관계로 해석할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화자는 고정된 문법 기능에만 의존하여 존대

6) “화자들은 존대법 사용을 통하여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기도 한다.”는 관점이다. 가령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전략적·일시적으로 높임 형식을 씌으로써 아랫사람의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고, 화자 자신의 생각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이정복 2012: 168)”는 전략적 차원에서 존대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7) 최윤지(2019)는 뉴스는 ‘하십시오’라는 격식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해요’체가 끼어드는 경우가 있으며 여기에도 일정한 제약이 있음을 피력하였다.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사용역이 구분된다는 관점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격식 여부를 존대 체계의 설정 기준으로 인정하는 면에서는 위의 입장과 차이를 보이지만 사용역에 따른 선택을 중시한 점은 일치된다.

등급이나 종결어미를 선택하지 않고 사회 요인이나 전략 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이렇게 분석된 결과는 존대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 만큼 사회언어학 관점의 존대법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구자들 수만큼이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형성되리라는 조심스런 우려가 형성되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하오’체와 ‘하계’체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데, 이들을 모두 반영한 존대체계를 수립하려 할 경우에 예상되는 우려인 것이다.

(13) 연구자별 존대 체계(안)

가. 하오·하계체 제외

㉡ 김 병건(2012: 23)

하십시오체> 해요체> 해체·해라체

㉢ 조 용준(2017: 310)

하십시오체> 해요체> 해체> 해라체

㉣ 박 지순(2016: 151)

하십시오체=해요체> 해체=해라체

㉤ 이 정택(2015: 156)

		격식체	비격식체
높임	서열 구분 없음	하십시오체	해요체
	+아랫사람	하계체	
안높임	-윗사람		해라체
	서열 구분 없음		해체

나. 하오·하계체 포함

㉦ 유현경 외(2015: 218)

높임 여부	대상	문체	
		격식체	비격식체
높임	-윗사람	하계체	하오체

(13. 가)는 연령 대 언어변이를 고려한 존대 체계이고, (13. 나)는 이러한 변이를 고려하지 않은 등급 체계이다. 먼저 (13. 가)를 보면 ㉡~㉣는 등급 체계에서 ‘하오’와 ‘하계’체를 제외하고 ‘격식/ 비격식’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일치하지만 ‘하십시오·해요·해·해라’체의 존대 정도에 대한 파악은 다르다. 이에 비해 ㉤는 ‘격식/ 비격식’성을 고려하면서 존대 체계에서 ‘하오’체만을 제외하고 ‘하계’체는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13. 나)의 경우, 존대 체계를 먼저 ‘격식/비격식성’으로 구분한 점은 (13. 가)의 ㉤와 같지만 ‘하오’체와 ‘하계’체를 유지하면서 각각을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구분하면서 존대 정도를 대등하게 파악한 점에

서는 차이를 보인다. 결국 (13)은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같은 입장을 취할 것으로 기대했던 견해들이 사실은 연구자에 따라 각기 다른 관점을 취하였음을 확인시켜 준다. 필자 역시 학교 문법과 달리 학문 문법은 객관적인 논리와 자료에 근거한 경우라면 연구자 나름의 주장을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편적인 규칙의 수립도 간과하기 어려운 문법의 중요한 일면이라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회적 요인을 수용하다보면 연령대별 존대 체계, 극단적으로 개인별 존대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할 터이기 때문이다.

3.2. 규범 중심의 관점

사회언어학의 관점이 사회 요인에서 비롯하는 개별 존대 사용 양상에 주목한다면 규범 중심의 관점은 종결어미 사용에 내재하는 질서를 규명하여 규칙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존대법에 ‘격식/ 비격식’성을 고려하는 입장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은 문장 구성의 규칙과 무관한 언어 외적 요소이므로 규칙을 세우는 데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이다. 분석 대상을 문장에서 담화로 확대하는 최근 문법 경향에 입각하면 다소 경직된 태도로 간주될 만하지만 숙고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반복하여 강조하지만 개별적인 언어 사용 양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개별 현상에 내재하는 질서를 규명하여 체계화하는 것도 문법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는 까닭이다. 남기심 · 고영근(1993=2002: 332)에서 정리한 다음의 청자 존대 체계를 검토할 때, 1970년대 이전의 존대법 연구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14) 1960년대 연구의 청자존대 체계

가. 반말의 등외 설정

㉓ 최현배(1959, 「우리말본」)

아주높임(합쇼), 예사높임(하오), 예사낮춤(하계), 아주낮춤(해라), 등외(반말)

㉔ 이희승(1964, 「새문법」)

하소서체, 합쇼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반말

㉕ 김민수(1964, 「신국어학」)

극존경(하나이다), 보통 존경(합니다), 존경(하오), 하대(하계), 보통하대(해), 극하대(해라)

㉖ 강윤희(1968, 「정수 문법」)

극존대체(하소서), 보통 존대체(합쇼, 하오), 보통 비대체(하계), 극비대체(해라)

㉞ 허 웅(1969, 「표준문법」)

갑니다, 가오, 가네, 간다, 반말

먼저 위의 체계에는 ‘격식/비격식’성이 고려되지 않았음이 주목된다. 다음으로 현대 존대법의 쟁점인 ‘하오’와 ‘하계’체가 독립 화계로 설정되었다는 점도 주목되는데, 이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들의 사용은 안정적이었음을 의미한다. 도리어 이때는 ‘해’체의 자리 매김이 쟁점으로 대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㉚, ㉜에서만 이를 고려하고 있음을 참고할 때 그러하다. 어쨌든 위와 같은 등급은 1970년대에 들어서 ‘하십시오-하오-하계-해라’체의 4등급 체제로 확정되었는데, 여기에 다음과 같은 ‘해요’체와 ‘해’체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더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15) 청자 존대 체계

가. 허웅(1995, 1999)

아주 높임(‘습’형, ‘이’형), 예사높임(+요형, -요형), 안높임(‘다’형, ‘니’형, ‘네’형)

나. 고영근·구본관(2018)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해체(요-결락형), 해요체(요-통합형)

(15. 가)는 이들을 화계로 인정하지만 (15. 나)는 공식적인 화계와 구분되는 다른 체계로 인정하고 있다. 곧 전자는 ‘해요’체와 ‘해’체를 각각 ‘+요’형과 ‘니’형으로 명명하여 ‘예사높임’과 ‘안 높임’의 화계로 설정하였지만 (15. 나)는 독립 화계(4등급)와 별도로 ‘요-결락형’과 ‘요-통합형’으로 구분하였다.⁸⁾ 여기서 다음과 같은 기술이 참고된다.

(16) 사회적 요인의 반영 양상

가. 여러 등급의 상대높임법은 ... 특정한 인물 대 특정한 인물 사이의 개체적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듣는 이를 높이는 기능이 있다. 그런데 높임법의 종결어미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고, 그들을 다시 존대와 비존대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남기심·고영근 1993=2002: 334)

나. 화자는 존비법을 자기의 기분이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 높임의 등분 조정을 통해 자신과의 거리감을 두려는 감정을 드러낸 전략적 사용이다. ... 상대 높임의 등분이 성격을 창조하는 데에 쓰이기도 한다. (고영근·구본관 2018: 476~477)

8) 남기심·고영근(1993=2002: 332)에서는 ‘두루 높임’과 ‘두루 낮춤’으로 명명하였다. (12. 나)의 관점에서 선택된 용어인 듯하다. 문법에서 ‘격식/ 비격식’이라는 언어 외적 개념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16. 가)는 ‘격식/ 비격식성’을 적용한 존대 체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개진된 입장이지만 (16. 나)는 우선 ‘격식/ 비격식’의 개념을 부정하는 차원에서 ‘전략’의 개념을 수용한바, 훨씬 비판적인 입장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여기의 ‘전략’이 화자의 심리와 관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범 중심의 기본 태도와 모순되는 것으로 간주할 만하다. 심리적 현상 역시 문법 외적 요인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은 까닭이다. 그러나 종결어미 선택이 장면(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과 특정 종결어미로써 청자에 대한 화자 자신의 심리적 태도(psychological attitude)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은 다르다. 요컨대 청자 존대 등급에 관여하는 종결어미의 선택이 서법(mood)의 범주에서 행해지는 문법적 사실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16)의 태도는 청자 존대법은 규범적 관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다음과 같은 종결어미의 혼용도 규범 중심의 관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17) 가. 엄마, 나 학교 가(간다). 나. 아빠, 나 용돈 좀 주라.

(18) 잠깐 다니러 왔습니다. 이번에 강원도로 떠나게 됐어요. 작별 인사 겸 찾아뵈러 왔습니다.

앞에서 살핀 대로 현재 젊은 층에서는 (17)과 같은 형식을 자주 사용하는데, 사회언어학의 관점에서는 친밀감의 표현으로 간주하지만 규칙 중심의 관점에서는 종결어미와 호(지)칭의 호응이 일치하지 않은 비문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물론 문법적인가와 사용 가능한가는 다른 문제이며, 사회언어학의 관점에서도 (17)과 같은 표현은 비문으로 처리해야 마땅하다. 다만 언중들의 언어 사용을 고려해서 용인하는 태도를 취할 따름이다. 이런 차원에 입각하면 규범 중심의 관점에서도 (18)의 경우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해요’와 ‘하십시오’체의 기본 기능은 [+존대]로 동일하므로 같은 대상에게라도 혼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범위 안에서 화자의 심리적 태도에 따라 ‘해요’체와 ‘하십시오’체를 선택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어색한 면이 없지 않다. 이런 점에 방점을 두어서 사회언어학의 관점만을 중시하면 앞에서 언급했던 문제점이 고스란히 되풀이되는 순환 논리에 봉착하게 된다.

요컨대 규범 중심의 관점만을 중시하면 문법을 위한 문법, 사회와 유리된 문법으로 인식될 확률이 높고 사회언어학의 관점을 중시하면 보편 문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런 난제를 해결할 방안은 지금까지 양립하는 관점을 하나로 통합하여 일관되게 설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극히 이상적인 결론으로 간주되지만 그렇다고 전혀 가능

성이 없어 보이지도 않는다. ‘하오체’를 예로 들어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9) 가. 여보시오 학우님들, 변론 동아리를 널리 알려 주시오
 나. 본좌는 그리 생각하오만, 그대는 어떠 하오.
 다. 그러시오. 뜻대로 하시오. 내가 따르리다.

(19. 가)는 학교의 동아리 홍보 문구로 최근 사용된 예이며, (19. 나, 다)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된 용례이다. 사회언어학 관점에서는 젊은 층의 동요 양상을 고려하여 화계에서 제외하려는 입장이 우세하겠지만 규범 중심의 관점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점을 중시하여 화계로 유지하려는 입장이 더 우세할 것이다. 이처럼 두 관점이 양립할 경우, 하오체의 화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령대 언어 변이를 문법의 한 기능으로 설명하는 방안을 고려해 봄직하다. 그러나 현재 필자는 이러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다만 분석 대상을 문장 이외의 담화와 장르로 확대해 가는 최근 문법 연구의 경향으로 미루어 볼 때, 해결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리라는 바람을 갖게 된다.

4.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는 중세국어부터 현대국어까지의 청자 존대 사용 양상을 살피는 한편으로, 이에 대한 그동안의 견해들을 검토하였다. 그럼으로써 청자존대법이 나가야 할 방향을 거칠게라도 생각해보기 위함이었다. 그 과정에서 청자존대법 연구는 사회언어학의 관점과 규범 중심의 관점이 양립되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규범 중심의 관점은 청자에 대한 화자의 대우 태도를 종결어미로써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존대법을 설명하면서 문법 외적 요인을 고려하는 데에 회의적이다. 이에 비하여 사회언어학 관점은 언어와 사회를 불가분의 관계로 파악하므로 존대법의 설명에 연령, 성별, 계층 등의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는 데에 적극적이다. 이러한 상반된 관점에 더해 ‘하오’체와 ‘하계’체의 화계 설정 여부, ‘해’체와 ‘해라’체, ‘해요’체와 ‘하십시오’체 간의 ‘격식/ 비격식’성 적용 여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본 논의에서는 규범 중심의 관점은 문법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비교적 안정된 존대 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 비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언어의 본질과 언중들의 사용 양상을 문법 범위로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문법만을 위한 문법, 언어 사회와 유리된 문법으로 될 간

주될 여지가 많은 단점을 지닌 것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사회언어학 관점은 언중들의 언어 사용 양상을 문법 체계에서 민감하게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아울러 세대 별 혹은 성별에 따른 다양한 존대 등급을 설정하게 됨으로써 표준 문법을 설정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서 두 관점이 상호보완적으로 진행될 때 완전한 청자 존대 체계를 수립하리라는 생각에 도달하였다. 문법을 언중들의 언어 양상을 기술하여 정리한 결과로 간주한다면 사회언어학의 관점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인 언어 현상에 내재하는 보편적인 질서를 찾아서 규명하는 것도 문법의 중요한 역할임을 고려하여 규범 중심의 관점에서 청자 존대 체계를 수립한 후에, 사회언어학의 관점에서 기능으로 설명할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언하였다. 그러나 연구자의 역량으로는 거칠고 어설픈 제언만을 하는 데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참고 문헌〉

- 고영근. 1974. 「현대국어의 존비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0-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66~91쪽.
- 고영근 · 구본관. 201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김병건. 2012. 「20·30대 상대높임법 체계 연구」, 문법교육 17. 한국문법교육학회. 1~32쪽.
- 김정호. 2004. 「국어 높임법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언어학적 접근」, 겨레어문학 33. 겨레어문학회. 31~53쪽.
- 남기심 · 고영근. 1985=2002.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남미정. 2007. 「근대국어 청자경어법의 형태 원리와 체계」, 시학과 언어학 14. 시학과 언어학회. 153~189쪽.
- 박지순. 2014. 「상대높임법 교육 관점 비교 연구」, 한국문법교육학회 제20차 전국학술대회. 문법교육학회. 128~143쪽.
- 박지순. 2015.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하오체, 하계체 교육 내용 연구」, 이중언어학 59. 이중언어학회. 53~81쪽.
- 박지순. 2016. 「한국 모어 화자의 상대높임법 인식 양상—20, 30대 화자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73. 한민족어문학회. 119~154쪽.
- 서정수. 1972. 「현대국어의 대우법 연구」, 어학연구 8-2. 서울대 어학연구소. 78~99쪽.
- 서정수. 1984. 『존대법의 연구』. 한신문화사.
- 서정수. 1994. 『국어 문법』. 뿌리깊은나무.
- 성기철. 1970. 「국어 대우법 연구」, 논문집 4. 충북대학교. 35~58쪽.
- 성기철. 1985. 『현대 국어 대우법 연구』. 개문사.

- 신창순. 1984. 『국어문법연구』. 박영사.
- 안병희. 1965. 「十五世紀國語 恭遜法の 한 研究: 二人稱代名詞「그디」와 關聯하여」, 국어국문학 28. 국어국문학회. 117~126쪽.
- 양영희. 2009. 「국어 청자 존대 등급의 분화 과정 고찰」, 한글 286, 5-36쪽.
- 양영희. 2010. 『중세국어 존대법 연구』. 도서출판 역락.
- 유송영. 1994. 「국어 청자 대우법에서의 힘(power)과 유대(solidarity) (Ⅰ)」, 국어학 24. 국어학회. 291~317쪽.
- 유현경. 2015. 『2015 표준 국어 문법 개발』. 국립국어원.
- 윤천탁. 2004. 「학교 문법의 상대 높임법 기술 내용 재고」, 청람어문교육 29. 청람어문교육학회. 385~406쪽.
- 이기갑. 1978. 「우리말 상대높임 등급 체계의 변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승녕. 1962. 「겸양법 연구」, 아세아연구 5.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33~184쪽.
- 이승희. 2004. 「국어의 청자높임법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은희. 2009. 『국어 높임법 표현의 발달』. 박문사. 203~234쪽.
- 이정복. 2012. 『한국어 경어법의 기능과 사용 원리』. 소통.
- 이정택. 2015. 「우리말 높임법의 본질과 상대 높임법 체계」, 문법교육 24. 한국문법교육학회. 145~160쪽.
- 이정택. 2016. 「우리말 존대법의 성격 변화」, 문법교육 28. 한국문법교육학회. 165~181쪽.
- 임동훈. 2006. 「현대국어 경어법의 체계」, 국어학 47. 국어학회. 287~320쪽.
- 임지룡. 2015. 「학교문법 상대 높임법의 새로운 이해」, 한민족어문학 69. 한민족어문학회. 361~398쪽.
- 조용준. 2017. 「대학생 연령층의 상대높임법 화계연구」, 국제어문 74. 국제어문학회. 291~314쪽.
- 최명옥. 1976. 「현대국어의 의문법 연구」, 학술원 논문집 15. 대한민국 학술원.
- 최윤지. 2019. 「상대높임 등급 혼용 현상에 대한 일고찰: 텔레비전 뉴스에 나타나는 해요체의 분석을 바탕으로」, 언어와 정보 사회 37.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39~180쪽.
- 최재웅. 2018. 「존대 현시에 의한 공손법 -한국어 존대법의 역동성-」, 언어사실과 관점 45.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161~182쪽.
- 한길. 2002. 『현대 우리말의 높임법 연구』. 도서출판 역락.
- 허웅. 199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허웅. 1995/2000.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 문화사.
- 허웅. 1999. 『20세기 우리말의 통어론』. 샘 문화사.
- 홍종선 · 김서형. 2016. 「국어과 교재의 상대 높임 화계 설정과, 구어 현실」, 국어교육학 연구 51. 국어교육학회. 47~68쪽.
- 황적륜. 1976. 「한국어대우법의 사회언어학적 기술 -그 형식화의 가능성 기술」, 언어와 언어학 4.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 종합연구센터 언어연구소. 115~124쪽.

제3부 연구 발표

영월방언의 거성형 실현과 성조 변화/ 최영미

한국어 문법 연구와 통사 이론
: 종결어미 결합형 접속어미 새로 보기/ 박소영

한국어 문장의 구조와 의미 정보/ 김한샘

573돌 한글날 · 한글학회 창립 111돌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2019년 10월 11일 (금) 09:50 ~ 16:40

한글회관 열말글교육관

□ 제3부: 연구 발표

영월방언의 거성형 실현과 성조 변화

최영미

경동대학교 교수
heyum95@naver.com

1. 머리말

이 연구의 목표는 영월방언 체언의 성조를 분석하고, 약 30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거성형¹⁾의 성조 실현을 비교하여 영월방언의 성조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영월방언은 성조방언으로 설명하고 있다²⁾. 최명옥(1998, 1999)은 삼척과 명주 지역어는 동남방언과 동북방언의 전이지역으로 기술하고, 영월지역어는 경북방언에 훨씬 가까운 성조방언으로 설명했다. 방언학 사전(2001)과 이상녀(2006)도 영월지역어를 성조소가 단어의 의미를 변별하고, 거성형이 존재하는 성조방언으로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토 다카요시(2005:66)는 비록 형태음운론적 기술을 통한 정밀한 성조 기술은 하지 않았지만 영월방언의 거성형의 음조형이 [MHM]으로 실현된다고 확인한 바가 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보면, 영월방언의 거성형 즉, 고조 연속이 가능한 성조형

1) 거성형이란 중세국어의 거성형의 반사형으로, 성조방언에서 [H]가 두 번 연속적으로 실현되는 성조형과 음조형을 갖는 형태소나 단어를 지칭한다.

2) 이기문 외(1991), 최명옥(1998, 1999), 방언학 사전(2001), 이상녀(2006), 이토 다카요시(2015) 등이 있다.

의 존재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임을 예측할 수 있다. 최명옥(1999)는 형태음운론적 기술을 통해 거성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비교적 최근에 이상녀(2006)은 거성형이 존재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이토 다카요시(2015)는 거성형의 음조형이 평2형화 한 음조형인 [MHM₀]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영월방언의 성조형을 분석하고, 약 30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거성형 성조를 비교하여 성조변화를 설명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최명옥(1999)³⁾에 기술된 영월방언의 성조와 필자가 약 30년 후인 2016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영월군 김삿갓면(구 하동면) 외릉리 일대에서 조사한 영월방언 성조를 비교하여 영월방언의 성조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조사 지점

이 연구의 조사 지점은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구 하동면) 외릉리와 와석리 일대이다. 영월군은 2읍 7면의 행정조직을 가지며, 북으로는 평창군, 정선군, 동으로는 태백시, 서쪽으로는 원주시, 남으로는 경상북도 영주시, 봉화군,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에 접하고 있다. 영월군 지도에서 조사지점의 위치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1〉 영월군 행정구역

3) 이기문 외(1991)은 대한민국 학술원이 한국어언어지도집을 작성하기 위하여 222곳에 달하는 조사지점을 1987년 12월부터 1990년 11월까지 3년 동안 추진한 대연구이다. 강원방언은 최명옥 교수님이 조사하였고, 그 조사 결과는 최명옥(1999)에서 강원방언의 성조체계와 강릉, 삼척, 영월에서 실현되는 성조형을 기술하였다.

영월군은 지리적으로 태백산맥 서쪽에 위치하여 영서지역에 속하지만, 언어적으로 영서형과 영동형이 공존하는 전이지대로써 영동방언권에 속한다(이익섭 1981:86, 김동언 1998). 김삿갓면을 포함하여 중동면, 상동면 등의 영월의 동부 지역은 정선과 태백에 접해서 영동방언의 어휘형이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경상북도 영주시 봉화군에 접해 있어서 경북방언과 같이 성조가 변별적 기능을 수행하는 성조방언으로 기술되고 있다(최명옥 1998, 1999).

한편, 김삿갓면 외릉리와 와석리 사람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이전의 생활권은 영동권과 경북인 듯하다. 즉, 마을 사람들은 병원 갈 때 태백이나 강릉으로 갔으며, 물건을 사거나 팔러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의 소천장으로 다녔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은 원주나 춘천으로 가고, 시장도 영월읍의 시장으로 다닌다고 한다.

2.2. 제보자

제보자는 영월군 김삿갓면 토박이로 3명을 선정했다. 제보자들은 영월군 외릉리와 와석리에서 3대 이상 살아왔고, 연령과 학력은 70세 이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다. 영월지역의 말을 알려주신 제보자⁴⁾는 아래와 같다.

(1) 제보자

- ㄱ. 주 : 신○○ 남자 1942년생 75세 강원도 영월군 외릉리 국졸
- ㄴ. 부 : 정○○ 남자 1936년생 82세 강원도 영월군 외릉리 국졸
- ㄷ. 부 : 주○○ 남자 1933년생 86세 강원도 영월군 와석리 국졸

2.3. 조사 항목 및 조사 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조사 항목은 체언과 조사를 포함하여 극히 일부이다. 원래 영월방언의 성조를 연구하기 위해 선정한 조사 항목은 총 600여 개 어휘 항목에 달한다. 이 중에 체언 항목이 250 여개이고, 용언 항목이 350개가 포함되었다. 여기에 조사와 어미의 성조도 조사항목에 포함했다.

모든 조사 항목은 문장 단위로 조사했다. 이에 따라 체언, 용언은 조사 또는 어미와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 형태로 문장 안에서 조사했다. 문장 단위로 조사

4) 방언 조사 중에 제보자가 2회 바꾸는 일이 있었다. 1차 제보자 변경은 정○○ 할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 일로 이○○ 할아버지로 변경했다. 하지만 부제보자인 이○○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 대에 영주에서 영월로 이주하여 영월군 외릉리에서 살고 있다고 하셨다. 이에 2차 제보자 변경이 불가피하게 주○○ 할아버지로 부제보자를 바꾸었다.

한 이유는 성조 실현 단위를 어절이기도 하고, 추후 강원방언 억양 연구를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조사 항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 조사 항목

ㄱ. 체언

국·이 /HM/[HM]

국·을 /HM/[HM]

국·도 /HM/[HM]

국·에 /HM/[HM]

국부·터 /H²M/[MHM]

국버·터 /H²M/[MHM]

국까·지 /H²M/[MHM]

국꺼·지 /H²M/[MHM]

ㄴ. 용언

잡·고 /HM/[HM]

잡·지 /HM/[HM]

잡·나 /HM/[HM]

잡·으·먼 /HM²/[HM²]

잡·아·서 /HM²/[HM²]

잡거·든 /H²M/[MHM]

잡더·라 /H²M/[MHM]

잡·도·록 /HM²/[HM²]

조사 방법은 직접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면담 장소는 제보자의 집과 면담자의 숙소인 민박집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면담 과정은 녹음과 기록을 병행했다. 녹음을 한 이유는 조사 후 언어자료를 반복 청취하면서 전사의 정확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녹음 시 사용한 녹음기는 TASCAM DR-680 DAT를 사용했고, 마이크는 Shure KSM 44A/SL를 사용했다. 필자는 영월군 김삿갓면을 총 8회를 방문했다. 조사 일정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3) 조사 일정

ㄱ. 1차 : 2016년 1월 25일 (1일간) 제보자 선정

ㄴ. 2차 : 2016년 2월 20일~(4일간) 체언 조사항목 조사1

ㄷ. 3차 : 2016년 7월 18일~(3일간) 체언 조사항목 조사2

ㄹ. 4차 : 2017년 1월 16일~(4일간) 용언 조사항목 조사1

ㅁ. 5차 : 2017년 2월 13일~(4일간) 용언 조사항목 조사2

ㅂ. 6차 : 2017년 7월 21일~(3일간) 용언 조사항목 조사3

ㅅ. 7차 : 2018년 1월 18일~(2일간) 성조 음성실험 녹음1

ㅇ. 8차 : 2018년 2월 19일~(2일간) 성조 음성실험 녹음2

2.4. 성조 기술 방법

이 연구는 새로운 방점법⁵⁾을 토대로 성조를 기술할 것이다. 새로운 방점법은

5) 새로운 방법점은 김차균(1977)에서 체계화 한 이후 김차균(1991, 1998)에 다듬어지고 확정되어 정원수(1994), 이호영(1996), 이문규(1997), 박숙희(2005), 김세진(2006), 최영미(2009, 2015, 2019) 등에서 검증된 성조 기술 방법이다.

성조 체계 안에서 대립과 분포를 기반을 두고 기저층위와 표면층위로 구분하여 성조를 기술하는 방법이다.

영월방언의 성조체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성조의 음역을 저조와 고조로 2단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공통적이거나 상승조를 단일성조로 보는 입장과 복합성조로 보는 입장으로 나뉜다. 즉, 최명옥(1998, 1999), 방언학 사전(2001), 이상녀(2006) 등은 영월방언의 성조체계가 저조/M/와 고조/H/로 구성된 2단 2성조체계로 설명하였고, 최영미(2019:23-24)는 영월방언 성조체계는 저조/M/, 고조/H/, 상승조/M/의 3성조소로 구성된 2단 3성조체계라고 기술하였다. 즉, 음성 분석을 통해 1음절의 시작, 중간, 끝 위치의 F0값과 F0곡선의 기울기를 토대로 영월방언의 상승조가 저조의 음역에서 상승하는 단일성조 [M]으로 설명했다. 영월방언의 성조체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 영월방언의 성조소

구분	성조소			
	단일성조			복합성조
최명옥(1998, 1999)	L	H		R=L · H
방언학 사전(2001)	L	H		R=L · H
이상녀(2006)	L	H		R=L · H
최영미(2019)	M	H	Ṁ	

성조방언에서 성조소가 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한하지만, 중화의 원리에 의해 최종방점형 층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방점의 연결 방법은 극히 제한된다. 김차균(2006ㄴ)은 국어 모든 성조방언에서 적용되는 중화규칙과 예시를 설명했다.

(4) 성조의 중화규칙(김차균 2006ㄴ:34)

ㄱ.《□_》의 환경에서 □(평성) 이외의 모든 성조는 ·□(측성)으로 바뀐다.

ㄴ.《{·□, :□, ·回, :回}_》의 환경에서 모든 성조는 ·□(측성)으로 바뀐다.

중화규칙⁶⁾은 한 어절에서 평성(□)은 뒤따르는 성조를 측성으로 중화시키지 못하지만, 거성(·□), 상성(:□), 음거성(·回), 음상성(:回)은 뒤따르는 성조를 측성으로 중화시키는 성조규칙이다. (5)의 중화규칙이 중화규칙을 적용한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6) 성조의 중화 규칙에서 □은 평성, ·□은 거성, ·回은 음거성, :回은 음상성을 지칭하고, ·□(측성)은 변별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성이 아니라 중화된 성조를 지칭한다.

(5) 중화규칙 예시 (김차균 2006ㄴ:34)⁷⁾

- ㄱ. /가실#구·름/ → /가실·구·름/ → /H²M²/[MH²M]
 ㄴ. /가을#채·소/ → /가을·채·소/ → /H²M²/[MH²M]
 ㄷ. /나무#송·근·다/ → /나무송·근·다/ → /H⁴M²/[MH³M]

(5ㄱ-ㄴ)은 중화규칙이 적용되어 평성형 ‘가실, 가을’ 뒤에서 거성형 ‘·구·름’과 상성형 ‘:채·소’가 모두 ·□(측성)으로 변동하고, (5ㄷ)은 평성형 뒤에서 평측형이 성조의 변동 없이 실현된 예이다. (5)처럼 거성과 상성의 강한 중화 기능으로 말미암아 최종방점형 층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방점형의 극히 제한된다. 영월방언 5음절의 방점 표상은 아래 (6)과 같다. 영월방언 거성형은 성조변화를 겪어서 1음절 어절에만 존재하므로 (6)에서 거성형은 1음절 방점형으로만 표기하여 제시했다.

(6) 영월방언 5음절 어절의 방점 표상

방점형	보통표시법	간략표시법
ㄱ. 평측형	(평1형) □·□·□·□·□	□·□ ⁴
	(평2형) □ □·□·□·□	□ ² ·□ ³
	(평3형) □ □ □·□·□	□ ³ ·□ ²
	(평4형) □ □ □ □·□	□ ⁴ □
	(평성형) □ □ □ □ □	□ ⁵
ㄴ. 거성형	·□	·□
ㄷ. 상성형	:□·□·□·□·□	:□ ⁵

성조현상도 음운과정을 겪는다. 즉 한 형태소나 단어의 기저방점 표상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표면 음조형으로 실현되는 음운 과정을 겪는다. 성조 음운과정은 방점형 → /성조형/ → [음조형]의 3단계를 거친다.

(7) 영월방언 성조의 음운 과정

어휘			집·이(家)	·몸·이(身)	:일·이(事)
층위	단계				
기저 층위	방	기저 방점 표상	□ +·□	·□ +·□	:□ +·□
	점	↓ ←성조 규칙	당연 규칙 ⁸⁾	거성의 평2형화규칙	중화 규칙
	형	최종 방점 표상	□·□	□□	:□·□~:□□
	성조형		/MH/	/H ² /	/M ² /
표면 층위	↓ ←음조실현규칙		당연 규칙	평성형 음조실현규칙	상성형 음조실현규칙
	음조형		[MH]	[MH]	[MH]

7) 김차균(2006ㄴ:34)에서는 창원방언 성조 실현을 예로 사용하여, 상성형과 거성형이 평성형 뒤에서 중화되는 예시와 평성형 뒤에서 평측형이 성조의 변동 없는 예시를 구분해서 제시했으나 (5)에서는 (2006ㄴ:34)의 예시 중 하나씩만 선택해서 제시한 것이다.

(7)의 성조 음운과정에서 기저 방점 표상은 형태소, 단어가 가지는 고유 성조소의 연결형이고, 최종 방점 표상은 기저 방점 표상에 성조 규칙이 적용되어 도출되는 성조소의 연속체이다. 성조 음운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방점형은 기저방점표상에 성조 규칙이 적용으로 도출된 최종방점표상을 지칭한다. 두 번째 단계인 /성조형/은 최종 방점 표상을 성조체계를 구성하는 성조소를 토대로 성조소의 연속체이고, 세 번째 단계인 [음조형]은 /성조형/에 음조 실현 규칙이 적용된 표면 층위의 성조 연속체이다. 또한 성조의 음운 과정에서 성조 규칙과 음조실현규칙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7)에서 거성형 ‘몌·이’와 상성형 ‘:일·이’를 보면 기저방점표상에 거성의 평2형화 규칙과 중화규칙을 적용해 최종방점표상이 ‘□□’와 ‘:□·□~:□□’으로 도출되고, 최종방점표상을 성조소로 바꿔서 성조형 ‘/H²/’과 ‘/M²/’를 도출했고, 음조형은 성조형에 음조실현규칙이 적용되어 [MH]와 [MH]로 도출되고 있다.

영월방언 체언의 성조 음운과정에서 적용되는 성조규칙과 음조규칙은 아래와 같다.

(8) 영월방언 성조규칙과 음조실현규칙

가. 성조규칙

ㄱ. 중화규칙(김차균 2006:34)

ㄴ. 거성의 평2형화(김차균 2006:40)

ㄷ. 조사 {에} 앞에서 거성의 평성화(허웅 1963:305)

나. 음조실현규칙

① 단음절

ㄱ. 평성 /H/→ [H] /#___#

ㄴ. 거성 /M/→ [M] /#___#

ㄷ. 상성 /M/→ [M] /#___#

② 다음절

ㄱ. 평1형 /HM₁/→ [HM₁]/#___#

ㄴ. 평복형 /H₂Mⁿ/→ [MHMⁿ]/#___#

ㄷ. 상성형 /M₂/→ [MHMⁿ]/#___#

2.5. 비교 분석 방법

이 연구는 최명옥(1999)에서 제시한 영월방언 성조 자료와 필자의 자료를 비교하여 영월방언의 성조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최명옥(1999)의 자료는 1987년 12월부터 1990년 11월까지 조사한 자료이고, 필자가 2016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수집한 자료이니, 이 두 자료를 비교하면, 약 30년 동안의 성조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8) 당연 규칙은(default rule)은 기저 방점 표상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최종 방점 표상으로 도출될 때 적용되는 규칙이다.

이 연구는 최명옥(1999)에서 제시한 영월방언 명사 성조형 자료 총 41개 항목을 분류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9) 최명옥(1990)의 명사 자료 목록(방점은 필자가)⁹⁾

가. 1음절

- ㄱ. □ 말(馬), 집, 꽃, 집, 밭, 콩, (논, 봄)
- ㄴ. :□ :말(語), :개(犬), :감(柿), :눈(雪)
- ㄷ. ·□ ·말(斗), ·물, ·비, ·달, ·밥, ·배(服), ·눈, ·손(手),

나. 2음절

- ㄱ. □·□ 가·시, 거·미, 나·비, (새·우, 그·림)
- ㄴ. □□ 다·리(脚), 바·람(風)
- ㄷ. :□·□ (:도·끼, :가·래, :파·리, :모·기)
- ㄹ. ·□·□ 예 없음

다. 3음절

- ㄱ. □·□·□ 며·느·리, 병·어·리
- ㄴ. □□·□ 코·끼·리
- ㄷ. □□□ 미·나·리, 사·다·리, (까·마·귀)
- ㄹ. :□·□·□ :사·마·귀, :기·지·개
- ㅁ. ·□·□·□ ·무·지·개

라. 4음절

- ㄱ. □□□□ 미·꾸·라·지

최명옥(1999)와 필자의 성조형 기술 방법이 다르다. 최명옥(1999)는 악센트(´)를 사용해서 성조형을 표시하고, 필자는 방점을 활용해서 어절의 성조형을 표시한다. 그리고 <표-1>에서 제시한 것처럼 최명옥(1999)는 저조[L], 고조[H], 복합성조[R]로 성조소를 표기하지만, 필자는 저조[M], 고조[H], 상승조[Ṁ]로 성조소를 표기한다. 때문에 각자의 성조 기술 방법을 그대로 존중하여 비교할 것이다. 또한 최명옥(1999)에서는 음절수에 따라 성조형을 제시했지만, 이 연구에서는 성조형을 구분하여 비교를 하되, 대표적인 예를 선택하여 비교하도록 한다.

3. 영월방언 체언의 성조형 실현

3.1. 조사의 성조형

조사는 체언에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을 형성하므로, 조사의 기저방점표상을 파악해야 체언과 조사가 결합한 통합체가 갖는 성조의 음운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9) 괄호 안에 제시된 ‘논(沓), 봄, 새우, 그림, 도끼, 가래, 파리, 모기, 까마귀, 병어리, :사·마·귀, :기·지·개’는 필자의 조사항목에 없으므로, 필자의 조사항목 중 음절수를 같은 단어로 비교할 것이다. 또한 4음절 명사 자료는 평북형의 명사 자료만 있어서 비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사의 기저방점표상은 평성형 체언과 결합할 때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거성형과 상성형은 중화 기능이 있어 뒤따르는 성조를 측성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영월방언 조사의 기저방점표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1음절 평성형 단어 ‘문’에 조사가 결합하여 어절을 형성할 때, 성조 실현을 기술하여 조사의 기저방점표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10) 영월방언 성조규칙과 음조실현규칙

/문/(門)	/H/[H']
ㄱ. 문·과 /HM/[HM]	ㄴ. 문갈·이 /H ² M/[MHM]
문·도 /HM/[HM]	문갈·이 /H ² M/[MHM]
문·만 /HM/[HM]	문마·다 /H ² M/[MHM]
문·에 /HM/[HM]	문마·치 /H ² M/[MHM]
문·을 /HM/[HM]	문부·터 /H ² M/[MHM]
문·은 /HM/[HM]	문버·터 /H ² M/[MHM]
문·의 /HM/[HM]	문처·럼 /H ² M/[MHM]
문·이·나 /HM ² /[HM ²]	문까·지 /H ² M/[MHM]
문·이·면 /HM ² /[HM ²]	문꺼·지 /H ² M/[MHM]
문·이·면 /HM ² /[HM ²]	문조·차 /H ² M/[MHM]
문·만·도 /HM ² /[HM ²]	문조·처 /H ² M/[MHM]
문·에·서 /HM ² /[HM ²]	문하·고 /H ² M/[MHM]
문·으·로 /HM ² /[HM ²]	

(10)에서 1음절 ‘문’을 삭제하면 영월방언 조사의 기저방점표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10ㄱ)은 1음절 ‘문’을 삭제하면 ·□과 ·□·□이 기저방점표상이 되고, (10ㄴ)도 1음절 ‘문’을 삭제하면 □·□이 기저방점표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월방언 조사의 기저방점표상을 정리하면 (11)과 같다.

(11) 영월방언 조사의 기저방점표상

- ㄱ. ·□ ·과, ·도, ·만, ·에, ·을, ·은, ·의, ·에
 ㄴ. ·□·□ ·이·나, ·이·면, ·만·도, ·에·서, ·으·로
 ㄷ. □·□ 갈·이~갈·이, 마·다~마·치, 부·터~버·터
 처·럼, 까·지~꺼·지, 조·차~조·처, 하·고

3.2. 체언의 성조형

3.2.1. 평1형

평1형은 평측형의 하위 방점형으로, 첫째음절이 평성이고, 둘째음절 이하의 성조는 거성(측성)으로 실현되는 성조형이다. 평측형은 한 어절의 가장 높은 고조

의 실현 위치와 음조의 하강이 일어나는 위치가 중요하다. 평1형의 음조형은 어절의 첫째음절에서 가장 높은 고조가 실현되고, 첫째음절에서 하강이 나타나는 특징을 갖는다.

영월방언에서 평1형의 성조실현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2) 평1형의 성조 실현

ㄱ. /배/(梨)/H/[H']	ㄴ. 사·슴(鹿)HM
배·가 /HM/[HM]	사·슴·이 /HM ² /[HM ²]
배·를 /HM/[HM]	사·슴·을 /HM ² /[HM ²]
배·도 /HM/[HM]	사·슴·도 /HM ² /[HM ²]
배·에 /HM/[HM]	사·슴·에 /HM ² /[HM ²]
배부·터 /H ² M/[MHM]	사·슴·부·터 /HM ³ /[HM ³]
배버·터 /H ² M/[MHM]	사·슴·버·텀 /HM ³ /[HM ³]
배까·지 /H ² M/[MHM]	사·슴·까·지 /HM ³ /[HM ³]
배꺼·지 /H ² M/[MHM]	사·슴·꺼·짐 /HM ³ /[HM ³]

(12ㄱ)에서 1음절 명사 ‘배(梨)’에 조사 {·가, ·를, ·도, ·에}가 결합한 어절의 성조형은 평1형으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어절의 첫째음절에서 하강이 일어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1음절 명사 ‘배(梨)’와 조사 {부·터, ·까지}가 결합한 어절로, 평복형(평2형)으로 실현되고 있다. (12ㄴ)에서 2음절 명사 ‘사·슴(鹿)’에 조사 {·가, ·를, ·도, ·에, 부·터, 까·지}가 결합한 어절의 성조형은 평1형이다. 즉, ‘사·슴’의 둘째음절이 측성이므로 뒤따르는 음절의 성조도 중화되어 측성으로 변동하기 때문이다.

영월방언에서 평1형으로 실현되는 명사를 음절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3) 영월방언 평1형 목록

- ㄱ. □ 겂, 국, 금, 기(旗), 꼴(貌), 콩(雉), 꽃(花), 낫(面), 닭, 덜, 돌(豚), 등(背), 동, 모(苗), 말(馬), 목(頸), 밑, 박, 밭, 벨(陽), 병(瓶), 북(鼓/紡錘), 빗(債), 산(山), 손(客), 연(薦), 옆, 장(場), 절, 종(鐘), 집(家), 초(燭), 침, 콩(豆), 털(毛), 활(弓), 흙(土)
- ㄴ. □□ 가·락, 가·매, 가·슴, 까·시, 까·새, 각·시, 거·무, 거·시, 거·울, 거·우, 거·품, 꺼·풀, 겨·울, 고·개, 구·리(銅), 구·슬, 그·룻, 가·름~자·름, 자·침, 까·달(理由), 껌·질, 껌·지, 꿀·밤, 나·라, 나·비~나·부, 노·래, 누·에~농·에, 다·섯, 더·이(暑), 마·늘, 머·리, 모·래, 목·젓, 무·게, 바·늘, 바·우~방·우(岩), 바·아, 방·울, 벼·개~비·개, 베·루, 베·슬, 부·채(扇), 사·슴(鹿), 사·우(婿), 새·애(間), 새·끼(兒), 서·른, 선·비, 소·리, 수·레, 아·들, 아·우, 아·홉, 애·비, 어·깨, 어·

제, 여·름, 여·덥[여덜], 여·섯~여·섯(六), 오·늘, 우·리(豚舍), 우·우(上), 이·름,
 이·불, 이·슬, 일·곱, 쟁·기, 저·울, 종·이, 줄·기, 짜·끼, 하·늘, 허·리(腰),
 ㄷ. □·□·□ 가·마·니~가·마·이, 가·물·치, 거·북·이, 나·그·네~나·근·네, 메·누·리

3.2.2. 평복형

평복형은 평측형의 하위 방점형으로, 한 어절에 첫째음절부터 평성(□)이 둘 이상 연속되는 성조형이다. 평복형도 평측형이므로, 음조실현에서 어절에서 가장 높은 음조의 실현과 음조의 하강 위치가 중요한데, 영월방언 평복형의 음조형은 주로 한 어절의 가장 높은 고조는 어절의 끝에서 둘째음절에서 실현되고, 음조의 하강이 끝에서 둘째음절에서 나타난다.

영월방언 평복형의 성조 실현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4) 평복형의 성조 실현

ㄱ. 감재 H²

감재·가	/H ² M/[MHM]
감재·를	/H ² M/[MHM]
감재·도	/H ² M/[MHM]
감재·에	/H ² M/[MHM]
감재부·터	/H ³ M/[M _H HM]
감재버·텀	/H ³ M/[M _H HM]
감재까·지	/H ³ M/[M _H HM]
감재꺼·짐	/H ³ M/[M _H HM]

ㄴ. 찢다·기 H²M

찢다·가·가	/H ² M ² /[MHM ²]
찢다·기·를	/H ² M ² /[MHM ²]
찢다·기·도	/H ² M ² /[MHM ²]
찢다·기·에	/H ² M ² /[MHM ²]
찢다·기·부·터	/H ² M ³ /[MHM ³]
찢다·기·버·터	/H ² M ³ /[MHM ³]
찢다·기·까·지	/H ² M ³ /[MHM ³]
찢다·기·꺼·지	/H ² M ³ /[MHM ³]

ㄷ. 너구리 H³

너구리·가	/H ² M/[MHM]
너구리·를	/H ² M/[MHM]
너구리·도	/H ² M/[MHM]
너구리·에	/H ² M/[MHM]
너구리부·터	/H ⁴ M/[M _H ² HM]
너구리버·텀	/H ⁴ M/[M _H ² HM]
너구리까·지	/H ⁴ M/[M _H ² HM]
너구리꺼·짐	/H ⁴ M/[M _H ² HM]

ㄹ. 미꾸라지 H⁴

미꾸라지·가	/H ⁴ M/[M _H ² HM]
미꾸라지·를	/H ⁴ M/[M _H ² HM]
미꾸라지·도	/H ⁴ M/[M _H ² HM]
미꾸라지·에	/H ⁴ M/[M _H ² HM]
미꾸라지부·터	/H ⁵ M/[M _H ³ HM]
미꾸라지버·터	/H ⁵ M/[M _H ³ HM]
미꾸라지까·지	/H ⁵ M/[M _H ³ HM]
미꾸라지꺼·지	/H ⁵ M/[M _H ³ HM]

(14)에서 평복형 명사 ‘감재, 찢다·기, 너구리, 미꾸라지’에 조사 {가, ·를, ·도, ·에, 부·터, 까·지}가 결합한 어절의 성조형을 보인 것이다. (14ㄱ, ㄷ-ㄹ)의 평복형 음조는 어절의 끝에서 둘째음절이 가장 높은 고조로 실현되고, 어절의 끝에서 둘째음절에서 음조 하강이 나타난다. 그러나 (14ㄴ)은 3음절 단어이지만 평2

형으로 실현된 예로, 어절에서 가장 높은 고조가 둘째음절에서 실현되고, 음조 하강도 둘째음절에서 실현된다. 이러한 음조형이 실현되는 평복형 단어는 ‘무지·개, 언나·아, 찢다·기’ 등이다.

영월방언에서 (14ㄱ, ㄷ-ㄹ)의 음조형[MHM~M_HHM]이 출현빈도가 높고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14ㄴ)의 음조형[MHM~MHM²]은 상대적으로 출현빈도가 낮고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월방언에서 평복형으로 실현되는 명사를 음절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5) 영월방언 평복형 목록

- ㄱ. □□ 가지(枝/茄子), 가루, 감재, 거름, 고랑, 고름, 구름, 구멍, 그물, 기슭, 나무~낭구, 나물, 놀개, 눈썰, 꼬치(고추), 골미, 나이, 다래, 다리(橋/脚), 도적, 도둑, 색경, 마디~매디(節), 마리(마루), 마음~마암, 마을, 목씨(몯), 문지(먼지), 무꾸(무), 바람, 배꼽, 번개, 복상(桃), 부체(佛), 풍구, 비네, 새끼(繩), 서울, 소매, 수물(二十), 스승(師), 애기~아가(兒), 아우, 아침, 예미, 얼굴, 오줌~오짐, 우리(我們), 자래, 자취, 잔치, 조개, 추우, 허물, 하루, 무지·개, 언나·아, 찢다·기~찢다·기
- ㄴ. □□□ 가운데, 고배이~고뱅이, 구들장, 구데이~구디이, 기저구~지자구, 까투리, 까슬치~까알치, 꼬랭이, 팽과리, 너구리, 노리개, 도깨비~토째비, 도데미, 도라지, 토바리~또아리, 막대기, 메나리, 벌거지, 병아리, 뿌레·기, 새다리, 심바구~썸바구, 어버이, 언나아, 열개미, 여깨이, 우수리, 작대기, 주머이, 지패이, 질게이, 코끼리, 토깽이, 피마주, 할마이, 지름종·이,
- ㄹ. □□□□ 고드래미, 꼬자배기, 귀띠래미~끼띠래미, 귀머거리, 두드레기, 딱따구리, 미꾸라지, 뿌스레기~부스러기, 아지랑이, 할아버지, 해바라기

3.2.3. 상성형

상성형은 어절의 첫째음절이 상성(:□)으로 시작되고, 뒤따르는 음절의 성조가 측성(·□)으로 실현되는 성조형이다. 상성형의 음조는 첫째음절에 상승조가 실현되고, 어절의 끝에서 둘째음절에 가장 높은 고조가 실현된다.

영월방언 상성형의 성조 실현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6) 상성형의 성조 실현

- | | |
|----------------------------|-------------------------------|
| ㄱ. :배(倍)M | ㄴ. :매·미M ² |
| :배·가 /M ² /[MH] | :매·미·가 /M ³ /[MHM] |
| :배·를 /M ² /[MH] | :매·미·를 /M ³ /[MHM] |

:배·도	/M ² /[MH]	:매·미·도	/M ³ /[MHM]
:배·예	/M ² /[MH]	:매·미·예	/M ³ /[MHM]
:배·부·터	/M ³ /[MHM]	:매·미·부·터	/M ⁴ /[M _H HM]
:배·버·터	/M ³ /[MHM]	:매·미·버·텀	/M ⁴ /[M _H HM]
:배·까·지	/M ³ /[MHM]	:매·미·까·지	/M ⁴ /[M _H HM]
:배·꺼·지	/M ³ /[MHM]	:매·미·꺼·짐	/M ⁴ /[M _H HM]

(16)을 보면, 1음절 명사 ‘배(倍)’와 2음절 명사 ‘:매·미’와 조사 {가, ·를, ·도, ·에, 부터, 까·지}가 결합한 어절의 성조형이 상성형이다. 상성형의 음조형도 어절의 끝에서 둘째음절의 성조가 가장 높은 고조가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월방언 상성형으로 실현되는 명사들을 음절별로 정리하면 (17)과 같다.

(17) 영월방언 상성형 목록

- ㄱ. :□ :가(邊), :감(옷감), :개(犬), :게, :골(谷), :곰(熊), :공(球), :짐(蒸), :짐(海苔), :눈(雪), :담(膽), :돈(錢), :돌(石), 둘(二), :뒤(後), :들(野), :말(言), :말(村), :매(鷹), :발(簾), :밤(栗), :배(倍), :뱀(蛇), :범(虎), 별(星), :병(病), :새(鳥), :샘(泉), :섬(島), :손(孫), :솔(刷), :솜, :숨, :실(絲), :일(事), :종(僕), :죄(罰), :줄(연장), :줌, :중(僧), :추(寒),
- ㄴ. :□□ :가·매(轎), :갈~:가·을(秋), :개·미, :계·집~:제·집~:지·집, :거·짓, :까·치, :갈·치, :구·실, :나·기(驪馬), :대·추, :매·미, :바·랑, :배·차, :보·배, :보·물, :소·경, :수·건, :췌·미, :아·래, :안·개, :열·세~을·세, :깍·지, :돌·쩍
- ㄷ. :□□□ :그·마·리~:거·머·리, :굶·병·이, :지·레·이, :호·래·이

3.1.4. 거성형

거성형은 어절의 첫째음절이 거성(·□)이고, 뒤따르는 음절의 성조가 측성(·□)으로 중화되어 실현되는 성조형이다. 동남방언에서 거성형의 음조는 고조 [H]가 연속되는 음조를 가져 [HHM₀]으로 실현되나 강원방언에서 거성형의 음조는 평 2형으로 합류하여 [MHMⁿ]으로 실현된다.

영월방언 거성형의 실현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8) 거성형의 실현

ㄱ. ·배(服/船)M		ㄴ. ·물(水)M	
(·배·가→)배가	/H ² /[MH]	(·물·이→)물이	/H ² /[MH]
(·배·를→)배를	/H ² /[MH]	(·물·을→)물을	/H ² /[MH]
(·배·도→)배도	/H ² /[MH]	(·물·도→)물도	/H ² /[MH]

배·에	/HM/[HM]	(·물·에→)물에	/H ² /[MH]
(·배·부·터→)배부·터	/H ² M/[MHM]	(·물·부·터→)물부·터	/H ² M/[MHM]
(·배·버·텀→)배버·텀	/H ² M/[MHM]	(·물·뿌·텀→)물뿌·텀	/H ² M/[MHM]
(·배·까·지→)배까·지	/H ² M/[MHM]	(·물·까·지→)물까·지	/H ² M/[MHM]
(·배·꺼·짐→)배꺼·짐	/H ² M/[MHM]	(·물·꺼·짐→)물꺼·짐	/H ² M/[MHM]
ㄷ. ·춤(舞)M		ㄷ. ·풀(草)M	
·춤·이	/M ² /[HH]	①(·풀·이→)풀이	/H ² /[MH]
		② ·풀·이	/M ² /[HH]
·춤·을	/M ² /[HH]	(·풀·을→)풀을	/H ² /[MH]
·춤·도	/M ² /[HH]	(·풀·도→)풀도	/H ² /[MH]
춤·에	/HM/[HM]	풀·에	/HM/[HM]
·춤·부·터→춤부·터	/H ² M/[MHM]	(·풀·부·터→)풀부·터	/H ² M/[MHM]
·춤·버·텀→춤버·텀	/H ² M/[MHM]	(·풀·버·텀→)풀버·텀	/H ² M/[MHM]
·춤·까·지→춤까·지	/H ² M/[MHM]	(·풀·까·지→)풀까·지	/H ² M/[MHM]
·춤·꺼·짐→춤꺼·짐	/H ² M/[MHM]	(·풀·꺼·짐→)풀꺼·짐	/H ² M/[MHM]

영월방언 거성형은 3음절 어절 이상에서 평2형과 합류가 완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18)를 보면, 1음절 명사 ‘배(服/船), 물(水), 춤(舞), 풀(草)’와 조사 ‘부·터, 까·지’가 결합한 어절은 (17ㄱ-ㄷ)에서 모든 예에서 거성형이 평2형으로 합류하고 있다.

영월방언에서 거성형 단독형의 음조는 수평으로 나가다가 끝 1/3 지점에서 축급하게 하강하는 음조[M]로 실현된다. 그러나, 2음절 이상 어절의 거성형은 다양한 성조 음운과정을 가진다. 즉, (18ㄱ-ㄷ)에서 1음절 명사 ‘배(服/船), 물(水), 춤(舞), 풀(草)’과 조사 ‘이, 을, 도, 에’가 결합한 어절은 성조 음운과정이 다르다. 즉, 1음절 명사 ‘배(服/船), 물(水), 춤(舞), 풀(草)’와 조사 ‘이, 을, 도’가 결합한 어절과 1음절 명사 ‘배(服/船), 물(水), 춤(舞), 풀(草)’와 조사 ‘에’가 결합한 어절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성조 음운과정이 달라, 표면 성조형과 음조형이 다르게 실현된다.

(18ㄷ)과 (18ㄷ)은 1음절 명사 ‘배(服/船), 물(水), 춤(舞), 풀(草)’와 조사 ‘이, 을, 도’가 결합한 어절은 모두 [H]가 연속적으로 실현되는 [HH]로 실현되고, (18ㄷ)은 제1 제보자는 평2형으로 발음하고, 제2 제보자는 [H]가 두 번 연속적으로 실현 [HH]로 실현되고 있다. 반면에 1음절 명사 ‘배(服/船), 물(水), 춤(舞), 풀(草)’와 조사 ‘에’가 결합한 어절은 (18ㄷ)과 (18ㄷ)은 모두 거성이 평성으로 변동하는 평성화가 일어나서 평1형으로 실현된다.

(18)의 영월방언 거성형은 삼척, 강릉, 정선, 평창 등의 강원 지역 성조방언과 2음절 이상의 거성형의 성조 실현이 다르다. 삼척방언에서는 평2형과 합류만 일

어나서 평2형으로 실현되나 강릉방언, 정선방언, 평창방언에서는 거성형이 평2형과 합류하고 평3형, 평4형 등과 같은 평복형으로 실현되어 음조형 차원에서 구별이 되지 않는다. 다만 김주원(2003:261-262)은 동해 방언에서 $\cdot\text{무}\cdot\text{지}\cdot\text{개}$ /M³/[HHM]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거성형의 잔존형으로 설명한 바가 있다.

하지만 영월방언에서 거성형은 3음절 이상 어절의 거성형은 평2형과 합류가 이미 완료되어 평복형과 구분이 성조 실현이 같다. 하지만 2음절 어절 거성형은 (19)과 같이 3가지 성조 실현을 보인다.

(19) 영월방언 거성형의 성조 실현 유형

- ㄱ. A유형 $\cdot\Box\cdot\Box$ /M²/[HH]
- ㄴ. B유형 $\cdot\Box\cdot\Box$ /M²/[HH] ~ ($\cdot\Box\cdot\Box\rightarrow$) $\Box\Box$ /H²/[MH]
- ㄷ. C유형 ($\cdot\Box\cdot\Box\rightarrow$) $\Box\Box$ /H²/[MH]

영월방언 거성형이 세 유형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성조 변화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19ㄱ)은 (18ㄷ)에 제시한 패러다임을 갖는 성조형이다. A유형은 성조방언인 동남방언에서도 [H]가 연속적으로 실현되는 성조형이다. (19ㄷ)은 (18ㄱ-ㄴ)에 제시한 성조 음운과정에서 평2형화 규칙이 적용된 성조형이다. C유형은 삼척, 강릉, 정선, 평창 등 강원방언에서 나타나는 성조형이다. (19ㄴ)은 (18ㄷ)에 제시된 패러다임을 갖는 성조형으로, A유형에서 B유형으로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성조형이다.

한편, 영월방언에서도 1음절 거성형 명사와 조사 {에X}가 결합하여 평성화하는 예가 나타나지만, (18ㄴ)과 같이 평성화 하지 않고 성조 음운과정에서 평2형화 규칙을 적용받아 평복형으로 실현되는 예들이 나타난다.

허웅(1963:305)은 중세국어와 김해방언의 꼭 대응하고, 거성형의 평성화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본래의 거성형을 유지하는 성조형도 나타나서 규칙성이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허웅(1963:305)에 제시된 평성화하지 않은 예를 가져와 영월방언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20) 중세국어와 영월방언 거성형과 조사 {에X}의 대응관계

- | | |
|---|---|
| ㄱ. $\cdot\text{므}\cdot\text{레}$ (석9:37) | ($\cdot\text{물}\cdot\text{에}\rightarrow$)물에 /H ² /[MH] |
| $\cdot\text{꾸}\cdot\text{매}$ (월인2:64) | 꿈·에 |
| $\cdot\text{그}\cdot\text{레}$ (월인2:48, 방 9:37) | 글·에 |
| $\cdot\text{비}\cdot\text{예}$ (월인2:24) | 배·에 |
| $\cdot\text{히}\cdot\text{예}$ (용50) | 해·에 |
| $\cdot\text{혀}\cdot\text{예}$ (월인2:15) | 세·에 |

ㄴ. 갈·해(용 22)	칼·에
고·해(월인1:32)	코·에
귀·예(월인1:1)	귀·에
갈·해(용 10, 30)	(·질·에→)질에 /H ² /[MH]
나·지(용 101)낮·에	
누·네(용 101)눈·에	
짜·해(용 101)땅·에	
모·매(용 101)몸·에	
더·레(용 101)	(조사 못함)

(20)에서 영월방언 1음절 거성형 명사가 조사 {·에}와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이 될 때, 주로 평성화 하나 ‘·물, ·질’을 보면 규칙적으로 평성화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월방언에서 거성형의 성조 실현을 갖는 단어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1) 거성형 단어 목록

- ㄱ. □ ·배(服/船), ·재(灰), ·팥(赤豆), ·귀, ·글(文), ·금(線), ·피(計), ·꿀(蜜), ·꿈(夢), 끝(末), ·날(日), ·낮(晝), ·눈(目), ·이(齒/蝨), ·달(月), ·담(牆), ·대(竹), ·돌(歲), ·되(斗), ·땀(汗), ·땅, 때(時/垢), ·떡, ·뜻, ·말(斗), ·맛(味), ·매(鞭), ·먹(墨), ·몸, ·못(釘), ·법(法), ·볼(顏), ·베(布), ·비(雨), ·빗(梳), ·뼈(骨), ·뿔(角), ·살(肉/箭), ·섬(苔), ·쇠[sö](牛), ·손(手), ·솔(松), ·쇠(金), ·쌀(米), ·쑥, ·안(內), ·알(卵), ·옷(衣), ·움(窩), ·일(一), ·입(口), ·잔(杯), ·점(點), ·젓, ·줄(漚), ·쥐(鼠), ·짐(貨物), ·치, ·톳, ·피, 세(舌), ·심(力),
- ㄴ. □ ·질(道), ·딸(女息), ·물(水), ·밀(小麥), ·발(足), ·밤(夜), ·벌(罰), ·불(火), ·살(肉/箭), ·열(十), ·일(一), ·값(價), 밥(食), ·엿,
- ㄷ. □ ·춤(舞), ·칼(刀), ·코(鼻), ·기, ·터(基),
- ㄹ. □ ·풀, ·해(日/年)

(21ㄱ-ㄴ)은 (19)에서 언급한 C유형으로, 영월방언에서 거성형이 성조 음운과정에서 평2형화 규칙이 적용되어 어절의 성조형이 평복형으로 실현된 예라는 점은 공통적이다. 하지만 거성형 1음절 명사와 조사 {·에}가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이 될 때 (21ㄱ)은 어절의 성조형이 평성화하여 평1형[HM]으로 실현되는 예이고, (21ㄴ)은 어절의 성조형이 평성화 하지 않고 평복형[MH]으로 실현되는 예이다.

(21ㄷ)은 (19)에서 언급한 A유형으로, 성조방언인 동남방언의 거성형처럼 [H]가 연속적으로 실현되는 성조형[H₁H₂M₀]으로 실현되고, (21ㄹ)은 (19)에서 언급한 B유형으로, A유형에서 C유형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유형이다.

4. 영월방언의 성조 변화

4.1. 평1형 음조형 비교

최명옥(1990)과 필자의 조사 결과에서 영월방언 평1형 명사가 조사와 결합한 어절 성조형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22) 평1형

ㄱ. 말(馬)[H]		말(馬)H ¹	
말·이	[HL]	말·이	/HM/[HM]
		말·을	/HM/[HM]
		말·도	/HM/[HM]
		말·에	/HM/[HM]
말·부터	[HLL]	말부·터	/HM ² /[HM ²]
말·보다	[HLL]	말까·지	/HM ² /[HM ²]
ㄴ. 가시[HL]		까·시HM	
가·시가	[HLL]	까·시·가	/HM ² /[HM ²]
까·시·를	/HM ² /[HM ²]		
까·시·도	/HM ² /[HM ²]		
까·시·에	/HM ² /[HM ²]		
가·시부터	[HLLL]	까·시·부·터	/HM ³ /[HM ³]
가·시보다	[HLLL]	까·시·까·지	/HM ³ /[HM ³]
ㄷ. 며·느리[HLL] 메·느리HM ²			
며·느리가	[HLLL]	메·느·리·가	/HM ³ /[HM ³]
메·느·리·를	/HM ³ /[HM ³]		
메·느·리·도	/HM ³ /[HM ³]		
메·느·리·에	/HM ³ /[HM ³]		
며·느리부터	[HLLLL]	메·느·리·부·터	/HM ⁴ /[HM ⁴]
며·느리보다	[HLLLL]	메·느·리·까·지	/HM ⁴ /[HM ⁴]

(22)의 왼쪽은 최명옥(1999)에서 평1형 명사와 조사 {·이/·가, 부·터, 보·다}가 결합할 때 성조형을 기술하였고, (22)의 오른쪽은 필자가 평1형 명사와 조사 {·이/·가, ·을/·를, ·도, ·에, 부·터, 까·지}가 결합할 때 성조 실현을 보인 것이다.

(22)에서 평1형의 음조형은 어절의 첫째음절에 가장 높은 고조가 실현되고, 동시에 첫째음절에서 음조 하강이 나타나는 음조로 실현되고 있다. 약 30년 전 후를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보면, 영월방언 평1형 명사의 성조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평북형 음조형 비교

영월방언 평북형 명사 ‘다리, 코끼리, 메나리’가 조사와 결합하여 어절을 이룰 때 어절의 성조형을 최명옥(1990)과 비교하면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3) 평북형 성조형 비교

ㄱ. 코끼리[LHL]	코끼리H ³ [MHM]
코끼리'가 [LHLL]	코끼리·가 /H ³ M/[M _H HM]
	코끼리·를 /H ³ M/[M _H HM]
	코끼리·도 /H ³ M/[M _H HM]
	코끼리·에 /H ³ M/[M _H HM]
코끼리'부터 [LHLLL]	코끼리부·터 /H ⁴ M/[M _H ² HM]
코끼리'보다 [LHLLL]	코끼리까·지 /H ⁴ M/[M _H ² HM]
ㄴ. 다리'(脚)[LH]	다리H ² [MH]
다리'가 [LHL]	다리·가 /H ² M/[MHM]
다리'를 [LHL]	다리·를 /H ² M/[MHM]
다리'도 [LHL]	다리·도 /H ² M/[MHM]
다리'에 [LHL]	다리·에 /H ² M/[MHM]
다리'부'터 [LHHL]	다리부·터 /H ³ M/[M _H HM]
다리'보'다 [LHHL]	다리까·지 /H ³ M/[M _H HM]
ㄷ. 미나리' [LHH]	메나리 H ³ [MHM]
미나리'가 [LHHL]	메나리·가 /H ³ M/[M _H HM]
	메나리·를 /H ³ M/[M _H HM]
	메나리·도 /H ³ M/[M _H HM]
	메나리·에 /H ³ M/[M _H HM]
미나리'부터 [LHHLL]	메나리부·터 /H ⁴ M/[M _H ² HM]
미나리'보다 [LHHLL]	메나리까·지 /H ⁴ M/[M _H ² HM]

(23ㄱ)에서 단독형 ‘코끼리’의 음조형이 동일하다. 하지만 ‘코끼리’가 조사와 결합한 어절의 음조형은 다르다. 즉, 왼쪽에 제시한 최명옥(1999)의 4음절로 이루어진 어절 음조형은 어절의 둘째음절에 가장 높은 고조가 실현되고, 둘째음절에서 음조 하강이 나타나는 [LHLL]이다. 하지만 오른쪽에 제시한 필자의 자료는 동일한 어절의 음조형이 어절의 끝에서 둘째음절에 가장 높은 고조가 실현되고, 음조의 하강이 둘째음절에서 나타나는 [M_HHM]고 있다.

(23ㄴ-ㄷ)에서도 단독형 ‘다리, 메나리’와 ‘다리’와 조사가 결합한 어절이 3음절이라면 성조 실현이 동일하다. (23ㄴ-ㄷ)에서 4음절 어절의 음조형이 [LHHL]와 [M_HHM]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들 음조형은 최명옥(1990)에서 어절의 가장

높은 고조가 2음절과 3음절 중에 어느 음절에 얹히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음조형이 어절의 음조 하강이 끝에서 둘째음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5음절 어절의 음조형은 [LHHLL]와 [M_H²HM]로 기술되어, 어절의 음조 하강이 최명옥(1990) 음조형에서는 어절의 셋째음절에서 나타나나 필자가 기술한 음조형 끝에서는 어절의 끝에서 둘째음절에서 음조하강이 나타나고 있다.

(23)의 자료를 토대로 영월방언에서 평북형의 성조 변화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4) 영월방언 평북형의 음조 변화

- ㄱ. 3음절 : [MHM] ~ [MHH] = [MHM]
- ㄴ. 4음절 : [MHMM] ~ [MHHM] > [M_HHM]
- ㄷ. 5음절 : [MHHMM] > [M_H²HM]

(24)에서 영월방언 평북형은 어절의 끝에서 둘째음절에 가장 높은 고조가 실현되고, 동일한 위치에서 음조의 하강이 나타나는 음조로 실현된다. 30년 전후의 시간차를 둔 영월방언의 평북형은 성조 변화가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24ㄱ)에서 제시한 3음절 어절 중에서 어절의 끝음절에 가장 높은 고조가 실현되는 [LHH=MHH]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이토 다카요시(2015:59-60)은 영월방언 평성형 합류를 언급하면서 미고형>Pen.형과, Ant.형>Pen.형의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¹⁰⁾. 영월방언에서 어절의 끝에서 둘째음절에 가장 높은 고조가 실현되고, 음조가 하강이 실현되는 음조형이 우세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지·개, 언나·아, 진다·기~찢다·기’ 등의 성조가 /H²M²/ [MHM²]로 실현되므로, 평북형의 성조 실현이 완전히 [M_HHM]로 합류되었다고 할 수 없다.

4.3. 상성형 비교

상성형은 어절의 첫째음절에 상승조 [M̃]가 실현되고, 가장 높은 고조의 실현과 음조의 하강이 끝에서 둘째음절에 실현되는 음조를 갖는다. 최명옥(1990)은 상승조를 [R]로 표기하면서 저조와 고조의 복합성조로 설명하나 필자는 상승를 가지는 단일성조로 기술하는 점은 다르다.

10) 이토 다카요시의 용어를 보면, 미고형은 어절의 마지막 음절에 고조를 가지는 평성형이고, Ant.형은 마지막에서 세 번째 음절에 고조를 가지는 평성형이며, Pen.형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음절에 고조를 가지는 평성형이다.

상성형 명사 ‘:말, :도·꾸, :매·미, :사·마·귀, :그·마·리’가 조사와 결합하여 어절을 이룰 때 어절의 성조 실현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5) 상성형 성조형 비교

ㄱ. 말(言)R		:말(言)M	
마알·이’ [RH]		:말·이 /M ² /[MH]	
		:말·을 /M ² /[MH]	
		:말·도 /M ² /[MH]	
		:말·에 /M ² /[MH]	
마알·부터 [RHL]		:말·부·터 /M ³ /[MHM]	
마알·보·다 [RHL]		:말·까·지 /M ³ /[MHM]	
ㄴ. 도끼(斧)RH		:매·미M ²	
도오·끼·가 [RHL]		:매·미·가 /M ³ /[MHM]	
		:매·미·를 /M ³ /[MHM]	
		:매·미·도 /M ³ /[MHM]	
		:매·미·에 /M ³ /[MHM]	
도오·끼·부터 [RHLL]		:매·미·부·터 /M ⁴ /[M _H HM]	
도오·끼·보·다 [RHLL]		:매·미·까·지 /M ⁴ /[M _H HM]	
ㄷ. 사마귀RHL		:그·마·리M ³	
사아·마·귀·가 [RHLL]		:그·마·리·가 /M ⁴ /[M _H HM]	
		:그·마·리·를 /M ⁴ /[M _H HM]	
		:그·마·리·도 /M ⁴ /[M _H HM]	
		:그·마·리·에 /M ⁴ /[M _H HM]	
사아·마·귀·부·터 [RHLLL]		:그·마·리·부·터 /M ⁵ /[M _H ² HM]	
사아·마·귀·보·다 [RHLLL]		:그·마·리·까·지 /M ⁵ /[M _H ² HM]	

(25)에서 왼쪽 최명옥(1990)의 자료를 보면, 명사 ‘:말, :도·꾸, :사·마·귀’의 음성절사를 ‘마알’, 도오·끼’, 사아·마·귀’로 2음절로 표기한 것은 상승조를 저조와 고조의 복합조로 보기 때문이다. (25)에서 영월방언 상성형의 음조가 첫째음절에 상승조가 없이는 것은 같다. 하지만, 어절에서 가장 높은 고조의 실현과 음조의 하강이 최명옥(1990)의 자료에서는 어절의 둘째음절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필자의 자료에서는 어절 끝에서 둘째음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영월방언 상성형의 음조가 3음절 이상에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월방언 상성형의 음조변화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6) 영월방언 상성형의 음조 변화

[RHLL] ~ [RHLLL] > [M_HHM] ~ [M_H²HM]

4.4. 거성형 비교

3.1.4에서 영월방언 거성형의 성조실현에서 진술했듯이, 영월방언 거성형은 성조 변화가 진행 중이다. 영월방언 거성형은 1음절 단독형의 음조는 [M]로 실현되고, 2음절 이상의 어절에서 음조는 세 가지 유형으로 실현된다. 첫째는 성조 음운과정에서 평2형화 규칙을 적용받아 평복형으로 실현되는 유형이고, 둘째는 동남방언의 거성형과 같이 고조[H] 연속적으로 실현되는 음조형으로 실현되는 유형이며, 셋째는 첫째 유형과 둘째 유형의 과도기적 유형이다. 즉 곡용 시 임의적으로 첫째 유형과 둘째 유형의 음조형을 모두 갖는 유형이다.

영월방언 거성형으로 최명옥(1999:578)에서 제시한 거성형 명사 중 ‘말(斗), ·무·지·개(虹)’의 성조 실현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7) 거성형 성조형 비교

ㄱ. 말(斗)H		·말(斗)M	
말'이'	[HH]	(·말·이→)물이	/H ² /[MH]
		(·말·을→)물을	/H ² /[MH]
		(·말·도→)물도	/H ² /[MH]
		말·에	/HM/[HM]
말'부'터	[HHM]	(·말·부·터→)물부·터	/H ² M/[MHM]
말'보'다	[HHM]	(·말·까·지→)물까·지	/H ² M/[MHM]
ㄴ. 무'지'개(虹)HHL		(·무·지·개·가→)무지·개[MHM]	
무'지'개가	[HHLL]	(·무·지·개·가→)무지·개·가	/H ² M ² /[M _H HM]
		(·무·지·개·를→)무지·개·를	/H ² M ² /[M _H HM]
		(·무·지·개·도→)무지·개·도	/H ² M ² /[M _H HM]
		(·무·지·개·에→)무지·개·에	/H ² M ² /[M _H HM]
무'지'개부터	[HHLLL]	(·무·지·개·부·터→)무지·개·부·터	/H ² M ³ /[M _H ² HM]
무'지'개보다	[HHLLL]	(·무·지·개·까·지→)무지·개·까·지	/H ² M ³ /[M _H ² HM]

영월방언 거성형은 [HHM₁] > [MHMⁿ]로의 성조 변화가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27)에서 왼쪽 최명옥(1999:578) 자료의 음조는 동남방언 거성형과 같이 고조가 연속적으로 실현되는 [HHM₀]로 실현되고 있으나, (27)의 오른쪽에 제시한 필자의 자료의 음조는 2음절 이상의 어절에서 평2형과 합류가 일어나서 평복형으로 실현돼서 음조형이 [MHMⁿ]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영월방언에서 [HHM₀] > [MHMⁿ]로의 성조 변화가 완성된 단계는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17ㄱ-ㄴ)에서 제시한 것처럼 영월방언 거성형은 세 가지 유형으로 성조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18)에 제시한 영월방언 거성형의 성조 유형

에 따라 어휘를 분류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8) 영월방언 거성형의 성조실현 유형

ㄱ. A유형 $\cdot\Box\Box / M^2/[HH]$

·춤(舞), ·칼(刀), ·코(鼻), ·키, ·터(基)

ㄴ. B유형 $\cdot\Box\Box / M^2/[HH] \sim (\cdot\Box\Box \rightarrow) \Box\Box / H^2/[MH]$

·풀, ·해(日/年)

ㄷ. C유형 $(\cdot\Box\Box \rightarrow) \Box\Box / H^2/[MH]$

a. 1음절

·배(服/船), ·재(灰), ·팥(赤豆), ·귀, ·글(文), ·금(線), ·피(計), ·꿀(蜜), ·꿈(夢), 끝(末), ·날(日), ·낮(晝), ·눈(目), ·이(齒/蝨), ·달(月), ·담(牆), ·대(竹), ·돌(歲), ·되(斗), ·땀(汗), ·땅, 때(時/垢), ·떡, ·뜻, ·말(斗), ·맛(味), ·매(鞭), ·먹(墨), ·몸, ·못(釘), ·법(法), ·볼(顏), ·베(布), ·비(雨), ·빗(梳), ·뼈(骨), ·뿔(角), ·살(肉/箭), ·섬(苦), ·쇠[sö](牛), ·손(手), ·솔(松), ·쇠(金), ·쌀(米), ·쑥, ·안(內), ·알(卵), ·옷(衣), ·움(窩), ·일(一), ·입(口), ·잔(杯), ·점(點), ·젓, ·줄(漚), ·쥐(鼠), ·짐(貨物), ·치, ·톱, ·피, 세(舌), ·심(力), ·질(道), ·딸(女息), ·물(水), ·밀(小麥), ·발(足), ·밤(夜), ·벌(罰), ·불(火), ·살(肉/箭), ·열(十), ·일(一), ·값(價), 밥(食), ·엿,

b. 2음절 이상

구름, 번개, 에미, 잔치, 무지개

(28)을 보면, 영월방언 거성형의 성조 변화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영월방언 거성형을 갖는 단어 중 A유형과 B 유형은 주로 음절 첫소리가 유기음으로 시작하는 강자음을 가진 단어들에서만 제한적인 성조 실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C유형은 1음절 어절과 2음절 이상의 어절로 구분할 수 있는데, (28ㄷa)에서 제시한 1음절 어절의 경우는 단독형으로 실현될 때 거성의 음조[M]로 실현과 조사 {·에X}에 결합할 때 평성화 하는 거성형의 특징이 유지되어 있으나 (28ㄷb)에서 제시한 2음절 이상의 거성형은 평2형과 합류가 완료되어 평복형과 성조 실현이 변별되지 않는다.

영월방언 거성형의 성조 변화 과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9) 영월방언 거성형의 성조 변화

A 시기		B 시기		C 시기
		(A유형) $\cdot\Box\Box$		
(A유형) $\cdot\Box\Box$	>	(B유형) $\cdot\Box\Box \sim (\cdot\Box\Box \rightarrow) \Box\Box$	>	(C유형) $(\cdot\Box\Box \rightarrow) \Box\Box$
		(C유형) $(\cdot\Box\Box \rightarrow) \Box\Box$		

(29)의 성조 변화 과정에서 영월방언 거성형은 B시기에 속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엄밀하게 기술하면, 2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거성형은 이미 평2형과 합류가 완료되어 C시기에 해당하고, 1음절 단어에서는 거성형의 특징을 유지하고 세 가지 유형이 공존함으로 B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이 연구는 영월방언 체언의 성조를 분석하여 약 30년 시간차를 두고 거성형의 성조 실현을 비교하여 영월방언 성조 변화를 설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차적으로 영월방언 체언의 성조 실현을 기술하고, 2차적으로 최명옥(1999)의 자료와 필자의 자료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영월방언 거성형은 성조 변화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월방언 거성형은 세 유형으로 실현된다. 첫째, A 유형은 어절의 첫째음절과 둘째음절이 연속적으로 고조[H]를 가지는 음조형 [HHM₀]으로 실현된다. 둘째, B유형은 거성형 1음절 명사와 조사가 결합하여 곡용을 할 때 A유형과 C유형의 음조형을 모두 실현되는 과도기적 유형이다. 셋째, C유형은 거성형이 성조 음운 과정에서 평2형화 규칙이 적용되어 평복형에 합류가 일어나 [MHMⁿ]으로 실현된다.

영월방언에서 거성형은 [HHM₀] > [MHMⁿ]으로 성조 변화가 진행 중이다. 즉, 영월방언에서 2음절 이상 거성형 명사가 조사와 결합한 어절에서는 이미 C유형으로 합류가 완료되어서 ‘무자·개, 찢다·기, 언나·아’ 등과 같은 일부 어휘를 제외하면 모두 평복형 [MHMⁿ]으로 실현된다. 반면에 어절 첫째음절의 첫소리가 유기음과 마찰음 /ㄱ, ㄷ, ㅍ, ㅈ, ㅎ/ 등의 강자음을 가진 1음절 명사가 조사와 결합한 거성형 어절에서만 A유형과 B유형으로 성조가 실현된다. 영월방언에서 전자는 선호하는 음조형으로 출현빈도가 매우 높고, 후자는 일부 1음절 명사에서 나타나는 음조형으로 출현빈도가 낮다.

한편, 영월방언에서 실현되는 성조형은 거성형 외에 3가지가 더 있다. 첫째, 평1형은 [HM]어절의 첫째음절에 가장 높은 고조[H]가 나타나고, 동일한 위치에서 음조 하강이 이루어지는 성조형이다. 둘째, 평복형은 어절의 둘째음절 이하의 어느 한 음절에 가장 높은 고조[H]가 실현되고 가장 높은 고조가 얹히는 음절에서 음조 하강이 실현되는 성조형이다. 셋째, 상승형은 어절의 첫째음절에 상승조가 나타나고, 둘째음절 이하 어느 한 음절에서 음조 하강이 일어나는 성조형이다.

성조 변화 측면에서 평1형은 성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나 평복형과 상승형은

성조 변화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다. 평북형은 최명옥(1990) 자료에서는 어절의 둘째음절에 가장 높은 고조가 실현되고, 동일한 위치에서 음조하강이 일어난다. 하지만 필자의 자료에서는 어절의 끝에서 둘째음절에 가장 높은 고조가 실현되고, 동일한 위치에서 음조 하강이 실현된다. 즉, 4음절 어절의 경우 $[MHM^2=LHLL] > [MhHM]$ 으로 성조 변화가 일어났다. 다만, ‘무자·개, 찌다·기, 언나·아’ 등과 같은 일부 거성형이 평2형화 한 어휘는 $[MHM^2]$ 로 드물게 실현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상성형은 어절의 첫째음절에 상승조가 실현되는 것은 동일하나, 최명옥(1990) 자료에서는 어절의 둘째음절에 가장 높은 고조가 실현되고 동일한 위치에서 음조의 하강이 일어났으나 필자의 자료에는 어절의 끝에서 둘째음절에 가장 높은 고조가 실현되고, 동일한 위치에서 음조 하강이 나타난다. 이처럼 상성형도 $[MHM^2=RHLL] > [MhHM]$ 으로 성조 변화가 일어났다.

〈참고 문헌〉

- 김동언(1998), 영월지역어의 연구와 특징, 『논문집』 32집. 강남대학교, 147-162쪽.
 김봉국(1999), 삼척지역어의 상승조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고찰, 『관악어문연구』 2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29-154쪽.
 김봉국(2002), 강원도 남부지역 방언의 음운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세진(2006), 경남 서남부 방언의 성조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주원(2003), 강원도 동해안 방언 성조의 특성, 『민족문화논총』 2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49-283쪽.
 김차균(1977), 경상도 방언의 성조 체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차균(1993), 『우리말의 성조』, 태학사.
 김차균(1998), 『나랏말과 겨레의 슬기에 바탕을 둔 음운학 강의』, 태학사.
 김차균(1999), 『우리말 방언 성조의 비교』, 역락.
 김차균(2006ㄱ), 우리말 성조사 500년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국어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김차균(2006ㄴ), 『중부 동해안의 성조 비교』, 글누리.
 문호근(1974), 한국어 성조의 분석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숙희(2005), 경북 동해안 방언의 성조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숙희(2012), 강원방언 외래어 성조형, 『어문학』 118, 한국어문학회, 1-35쪽.
 방언연구회(2001), 『방언학 사전』, 태학사.
 이문규(2012), 성조의 청취적 인식과 실험음성학적 실측의 상관성, 『어문연구』 72, 어문연구학회, 103-132쪽.
 이문규(2017), 『형태소 성조형 중심의 국어성조론』, 한국문화사.
 이상녀(2006), 강원도 영동방언의 음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

위 논문.

이익섭(1972), 영동방언의 Suprasegmental Phoneme 체계-특히 문효근 교수의 소론과 관련하여, 『동대어문』 2, 동덕여자대학교, 17-25쪽.

이익섭(1981), 『영동·영서의 언어분화-강원도의 언어지리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토 다카요시(2015), 동남방언 성조의 지리적 분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임석규(2003), 영주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임석규(2019), 「성조 방언의 비어두 장음에 관한 문제」-만두소(LLR), 그레도(LRH); 아랫마:(LLF), 바래고(LFL) 유형-, 『어문연구』47-1, 어문연구학회, 7-25쪽.

최명옥(1990), 「동남방언의 성조형과 그 분포」, 『제18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대한민국 학술원, 67-88쪽.

최명옥(1998), 현대국어의 성조체계, 『국어학』 31, 국어학회, 23-53쪽.

최명옥(1999), 현대국어의 성조체계와 그 분포, 『진단학보』, 진단학회, 555-581쪽.

최영미(2009), 정선방언의 성조체계와 그 역사적 변천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최영미(2010), 정선방언 성조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겨레어문학』 44, 겨레어문학회, 295-324쪽.

최영미(2015ㄱ), 평창방언 성조에 관한 연구, 『한글』 308, 한글학회, 31-84쪽.

최영미(2015ㄴ), 『평창방언 성조와 분화』, 박이정.

최영미(2015ㄷ), 강원방언 ‘가·다’류 동사의 성조 변화, 『한말연구』 38, 한말연구학회, 219-252쪽.

최영미(2017), 강원방언 성조의 인지에 대한 방언차 연구, 『한말연구』46, 한말연구학회, 207-237쪽.

허 웅(1963), 『중세 국어 연구』, 정음사.

허 웅(1985), 『국어음운학』, 샘문화사.

573돌 한글날 · 한글학회 창립 111돌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2019년 10월 11일 (금) 09:50 ~ 16:40

한글회관 열말글교육관

□ 제3부: 연구 발표

한국어 문법 연구와 통사 이론 : 종결어미 결합형 접속어미 새로 보기

박소영

부산대학교 교수
soyoungp@pusan.ac.kr

1. 서론

한국어 문법 연구와 일반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통사 이론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주지하다시피 인간 언어에 내재하는 보편 문법(Universal Grammar)을 가정하는 생성문법적인 관점에서는 개별 언어의 문법은 매개변인(parameter)의 차이로 설명된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의 개별 문법 연구는 보편 문법의 연구와 서로 긴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김용하 외 2018: 17). 언어 유형론적으로 다양한 개별 문법의 연구는 보편 문법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 기여한다. 역으로 보편 문법적 원리는 개별 문법의 성격을 제한하는데, 가령 개별 문법은 보편 문법이 허용하지 않는 성격을 가질 수 없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개별 언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연구는 통사 이론의 전개와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진행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통사 이론의 관점에서, 한국어 문법 체계 내에서는 예외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던 현상을 발굴하

고 이에 대하여 원리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 일례로, 이 논문은 최근 통사-화용 접면 이론의 관점에서(Speas & Tenny 2003; Speas 2004; Hill 2007; Haegeman & Hill 2011; Heageman 2014; Miyagawa 2012, 2017, 등) 종결어미 ‘-다/냐/라/자’가 선행하는 접속어미를 재조명하고, 그것의 한국어 문법 체계 내에서의 제자리 매김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한국어 접속문 체계 내에 이들 종결어미와의 결합에 의해 완성되는 통사성분을 새로운 접속문 층위로 인정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는 종결어미가 결합되지 않은 여타의 접속문과 통사·의미론적인 측면에서 서로 일관적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갖는다.

아래 예문 (1)에서 ‘-면/면서/니까/는데’ 등의 접속어미 앞에는 종결어미가 결합되어 있다.

- (1) 가. 어제 서울에 눈이 왔다면 길이 막혀 고생을 했겠다.
 나. 어제는 그만두라면서 오늘은 왜 나를 찾지?
 다. 빨리 떠나자니까 뭘 그리 꾸물거리고 있어.
 라. 점심을 먹었나는데 대답을 안 했다.

해당 접속어미는 보통 종결어미가 결합되지 않은 아래 (2)의 형태로 사용된다.

- (2) 가. 서울에 눈이 오면 길이 막혀 고생을 한다.
 나. 철수는 일을 그만두면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했다.
 다. 빨리 떠나니까 짐을 싸고 기다리고 있어.
 라. 점심을 먹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셨다.

이 논문은 종결어미가 개입된 (1)의 접속문과 종결어미가 개입하지 않은 (2)의 접속문의 통사·의미론적 특성을 면밀하게 대조하여 검토함으로써, 이들 대조를 설명할 수 있는 통사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어 접속문 체계 내에 ‘평서/의문/명령/청유’ 등의 언표내적 효력(illocutionary force)을 수반하는 새로운 접속문 층위를 인정해야 함을 함의하는데,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통사 분석은 한국어에서 종결어미가 선행하는 다른 복합문 구성, 가령 긴 관형절과 같은 내포문 구성에도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종결어미가 선행하는 (1)의 접속어미에 대하여는 그동안 접속문 체계에 대한 논의에서 다소 배제되어 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정의상 문장을 종결시키는 종결어미에 비종결어미인 접속어미가 결합되는 형태론적 연쇄는 한국어 어미 분류 체계에 합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일반적인 형태론적 구

성에도 맞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첫째는 종결어미와 접속어미 사이에 인용형식 ‘-(고)하-’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둘째는 이들 종결어미 결합형 접속어미를 하나의 융합형으로 뭉뚱그려 처리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¹⁾

그러나 첫째 방식은 이들 접속문이 모두 ‘-(고)하-’의 인용구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인용구성의 통사·의미론적 특성을 보이는 것도 아니라는 단적인 문제가 있다. 둘째의 견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데, 이는 종결어미 개입 여부에 따라 이들 접속문이 일관적으로 서로 다른 통사·의미론적 특성을 보이는데, 이들을 하나의 융합형으로 보아서는 그것이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다/냐/라/자’가 체계적이고 생산적으로 결합하는 접속어미를 각자 별개의 접속어미로 인정해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어 어미 항목의 범람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수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종결어미 결합형 접속어미를 종결어미와 접속어미로 각각 분석해내는 입장을 취한다. 이들 접속어미는 문장 유형을 나타내는 기능핵 ‘-다/냐/라/자’의 실현에 의하여 완성되는 접속문 층위에(이 논문에서는 이를 ForceP로 명명하기로 한다. 대표적으로 Rizzi 1997, 2004; Haegeman 2003, 2006, 2012; Cinque & Rizzi 2010, 등) 결합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종결어미가 개입되지 않는 접속문은 그보다 낮은 층위에(즉 vP나 TP) 병합되는 접속문 구조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의미론적 측면에 있어서도 이 두 접속문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데, 종결어미 결합형 접속문은 후행절의 처리(processing)를 위한 배경적인 담화 맥락(discourse context)을 제시하여 후행절의 언표내적 효력을 수식하는 의미론적 특성을 갖지만, 종결어미가 개입되지 않는 접속문은 후행절이 나타내는 사건(event)의 발생을 수식하고 제한하는 선행 사건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구분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종결어미의 개입 유무에 따른 접속문의 통사·의미론적 특성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2장의 논의를 기반으로 종결어미 결합형 접속어미의 통사 분석을 제시한다. 다음 4장은 이 논문의 분석이 한국어 복합문 체계에 대하여 가지는 이론적 함의를 논의한다. 마지막 5장은 결론이다.

1) 이들 종결어미 결합형 접속어미는 문장종결어미로도 빈번히 전용되는데, 이들 어미의 분석에 대하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왔다. 첫째, ‘-(고)하-’의 생략 형태로 간주하는 견해(이필영 1993; 박재연 2000), 둘째, 분석하지 않고 하나의 형태로 다루는 견해(김홍범 1987; 김태엽 1998; 이금희 2012), 셋째, 접속어미를 분리하여 강조법의 문법범주 실현 형태로 다루는 견해(권재일 1983; 홍경임 2019) 바로 그것이다. 이 논문은 종결어미와 접속어미를 각각의 독자적인 문법요소로 분리해낸다는 측면에서 이 중 세 번째의 연구 노선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2. 종결어미의 개입 유무에 따른 접속문의 통사·의미론적 특성

다음 2장에서는 종결어미의 개입 유무에 따른 접속문의 통사·의미론적 특성을 고찰하기로 한다. 종결어미 결합형 접속문은 의미 해석의 측면에서 그것이 결합되지 않은 접속문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이들은 통사적인 측면에서도 대조를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화제어 출현, 초점 성분 되기, ‘그러하다’ 대응, 종결법 분리, 화자 지향성(speaker-oriented) 부사 출현 등의 측면에서 서로 구분된다.

2.1. 의미론적 특성

먼저 종결어미 개입 유무에 따른 접속문의 의미론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3), (4)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어미 ‘-면’의 경우를 예시한다.²⁾

- (3) 가. 서울에 눈이 오면 길이 엄청 막힌다.
나. 서울에 눈이 왔다면 길이 엄청 막혔겠다.
- (4) 가. 그 곳에 가면 철수를 만날 수 있다.
나. 그 곳에 가자면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해야 한다.

위 (3가)와 (4가)는 종결어미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3나)와 (4나)는 종결어미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를 예시한다. 전자의 경우, 선행절은 후행절이 나타내는 사건에 대하여 일종의 충분조건이 되는 사건을 나타낸다. 가령 (3가)의

2) 조건문에 대한 의미론적 관점에서의 논의는 박정운(2006), 박재연(2014), 김수정·최동주(2018), 김수정(2019) 참조. 이들 논의에서는 주로 Sweetser(1990)의 내용, 인식, 화행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의 조건 구분을 기반으로 한국어 조건문의 의미 양상을 논의하였다. Sweetser(1990)의 내용, 인식, 화행 조건의 뜻을 요약하면 아래 (i)와 같다(김수정·최동주 2018: 207- 208 참조).

- (i) 가. 내용 조건: 조건절의 사건 발생이 후행절 사건 발생을 위한 충분조건이다.
나. 인식 조건: 조건절이 참임을 아는 지식이 후행절 명제가 참이라고 결론내리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다. 화행 조건: 조건절의 전제는 후행절의 화행 수행을 위한 관련성 조건 혹은 적정성 조건을 나타낸다.

이들 논의에서는 주로 접속어미 ‘-면’이 문맥에 따라 내용, 인식, 화행 조건의 의미론적 중의성을 가질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 논문은 이러한 다양한 의미해석의 가능성이 어떠한 유추와 같은 의미 작용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접속문의 통사 층위에 연원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 논문이 제시하는 분석에 따르면, 이 논문이 주목하는 종결어미 결합형 접속어미 ‘-면’은 통사적으로 가장 높은 층위, 즉 ForceP의 접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다)에 제시된 화행 조건의 의미 해석을 가짐을 추론할 수 있다.

경우, ‘서울에 눈이 오는’ 사건은 ‘길이 엄청 막히는’ 사건에 대하여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조건 사건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하지만 (3나)의 예문은 그 의미 해석이 좀 달라지는데, 곧 선행절은 후행절의 추론을 끌어내기 위한 배경적인 가정을 제공한다. 즉 ‘서울에 눈이 왔다’라는 조건적인 단언(assertion)은 후행절이 나타내는 ‘길이 엄청 막혔을 것이다’라는 추론을 제공하는 데 대하여 문맥적으로 관련적인 배경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 때 ‘서울에 눈이 왔다’라는 선행절은 그 진리치가 확정되지 않은 논쟁적인 단언이나, 혹은 이미 앞서 제시된 단언에 대한 메아리적(echoic) 명제일 수도 있다.

예문 (4가)와 (4나)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4가)의 ‘그 곳에 가는’ 사건은 ‘철수를 만나는’ 사건을 위한 충분조건이 되어, 선행절 사건은 후행절 사건이 일어나기 위한 일종의 제약 사건으로 해석된다. 반면 (4나)의 선행절은 후행절이 나타내는 주장, 혹은 진술에 대하여 배경이 되는 담화 맥락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종결어미가 개입되지 않는 (3가), (4가)의 접속문은 후행 사건의 발생을 제약하고 조직하는 것으로(즉 Haegeman(2003, 2006, 2012)의 ‘사건 조직화(structuring events)’의 개념) 그 의미론적 특성이 이해되지만, 종결어미가 개입되어 있는 (3나), (4나)의 접속문은 후행절이 나타내는 언표내적 효력에 대하여 그 배경이 되는 담화 맥락을 제시하는 것으로(Haegeman(ibids.))의 ‘담화 조직화(structuring discourse)’의 개념) 해석된다.³⁾

(3), (4)의 조건문에서 보이는 의미 대조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널리 목격되는 것이다. 가령 Hooper & Thompson(1973)은 영어의 *because*-절에 대하여, Haegeman(2012)은 *if*-절에 대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 (5)와 (6)에 각각 예시된다. 이는 (3)과 (4)에 제시된 대조에 비견될 만하다.

(5) 가. Sam is going out for dinner because his wife is cooking.

나. Sam is going out for dinner, because I just talked to his wife.

(6) 가. If it rains we will get terribly wet and miserable.

나. If (as you say) it is going to rain this afternoon, why don't we just stay at home and watch a video.

3) 한국어 (3나), (4나)에 예시된 것처럼, 담화 맥락을 조직하는 데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구성에 대한 통사론적 논의로는 이외에도 Cinque(2008)의 ‘비통합(non-integrated) 구성’, de Vries(2009)의 ‘삽입(parenthesis) 구성(즉 ParP)’, Haegeman and Greco(2018)의 ‘FrameP’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그 명칭은 다르지만, 이들 구성이 논항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문장의 중심적 통사구조에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담화구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직관을 공유하고 있다.

Hooper and Thompson(ibid.)에 따르면 (5가)의 *because*-절은 주절에 대한 원인 사건을 제시하여 주절을 의미적으로 제한하지만, (5나)는 주절의 정보를 화자가 어떻게 획득했는지의 담화적 배경을 나타내므로 주절을 의미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Haegeman(ibid.)는 (6가)의 *if*-절은 주절 사건의 실현을 위한 충분조건이 되지만, (6나)는 주절에 제시된 질문에 대하여 그 배경이 되는 맥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⁴⁾

Haegeman(ibids.)은 (6나)와 같은 구성의 경우, 그 내용은 담화 상에서 촉발되어 있는(salient) 명제를 골라낸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7)에 제시된 Declerck & Reed(2001)의 논의를 인용하고 있다.

- (7) 그것은 현실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이나 비현실 세계에 대한 명제를 반향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꼭 실제 발화를 반복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경험이나 지각에 대한 내면적 해석과 같은 정신적 사고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They can echo straightforward statements about the actual world, or they can echo Q-propositions about a nonfactual world. They need not mean that they have to be echoes of actual utterances. They may be echoes of an internal or mental thought such as the interpretation of an experience, perception, etc.)

다시 말해 해당 구성이 나타내는 내용은 좁은 의미에서 실제 발화를 되풀이하는 일종의 인용구성과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국한되지 않고 화자의 여러 심리적인 작용을 표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종결어미 결합형 접속어미는 ‘-(고)하-’가 개입되는 인용구성으로는 모두 환원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가령 (3나)와 (4나)의 접속문이 아래 (8가), (8나)로 환원되면 매우 어색하다.

- (8) 가. 서울에 눈이 왔다(??고하)면 길이 엄청 막혀 고생을 했겠다.

4) Haegeman(ibids.)는 전자를 ‘중심 부사절(central adverbial clause)’, 후자를 ‘외곽 부사절(peripheral adverbial clause)’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는 특히 해당 부사절의 통사적 병합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구분된 것이다. 즉 전자는 문장의 통사구조에서 가장 안쪽의 중심부에서 병합되지만, 후자는 보다 외곽 위치에 병합된다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통찰력이 한국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영어 (5나), (6나)의 외곽 부사절과 같은 구조는 한국어에서 종결어미가 형태론적으로 실현되는 종결어미 결합형 접속문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종결어미가 개입되지 않는 일반적인 접속문과 개입되어 있는 접속문은 그것이 병합되는 통사 층위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사 구조상의 차이는 일관적으로 예문 (3), (4)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의미 해석상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간주한다.

나. 그 곳에 가자(??고하)면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해야 한다.

(8)이 예시하듯이, 해당 문장은 인용구성으로 환원되었을 때 어색하거나 그 의미가 완전히 합치되지 않는다. 이는 위 문장의 선행절이 (7)에 설명된 것처럼 반드시 누군가의 말이나 생각을 되풀이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인데, 이러한 사실은 해당 접속문 구성을 모두 인용구성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음을 말해준다.

한편 위 조건의 ‘-면’ 이외에도, 종결어미의 개입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의미 차이를 보이는 접속어미들이 있다. 가령 ‘-면서’는 종결어미가 개입되지 않을 경우 시간적인 계기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종결어미가 개입되게 되면 양보나 대조의 의미만을 나타낸다. 종결어미가 개입될 때 해당 접속어미가 후행절 사건의 발생 양상을 수식하는 시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9) 가. 그 일을 그만두면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했다.

나. 어제는 그만두라면서 오늘은 나를 애타게 찾는다.

위 (9가)는 선행절이 후행절의 사건과 시간적으로 겹치는, 그리하여 후행절 사건 발생을 제한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한편 (9나)는 후행절의 내용과는 대조적인 명제를 나타낸다. (9나)의 선행절은 후행절의 다소 불만 섞인 단언에 대하여 그 담화 맥락을 제공하는 의미 해석을 갖는다.

이와 비슷한 양상이 다른 접속어미에서도 발견된다. 가령 아래 (10), (11)의 ‘-니까’와 ‘-는데’ 역시 종결어미가 개입되지 않을 때에는 후행하는 사건을 수식하고 제한하는 시간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지만, 종결어미가 개입되면 이러한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양보의 의미만을 나타내게 된다.

(10) 가. 출근길에 보니까 회사 앞 카페에 사람이 무척 많았다.

나. 출근길에 보자니까 자기 혼자 먼저 가 버렸다.

(11) 가.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나. 내가 텔레비전을 본다는데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다.

위 (10나), (11나)의 종결어미가 개입된 접속문은 후행절 내용에 대한 배경적인 담화 맥락을 제시한다. 가령 ‘자기 혼자 가 버렸다’, 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다’는 후행절의 진술에 대하여 그것의 배경이 되는 담화 맥락을 명시하는 것이다. 이 때, 종결어미가 개입하는 접속문이 시간적인 계기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는 종결어미가 개입되지 않는 접속문의 경우와 비교하면 확연한 대조를 이룬다. 요컨대, 종결어미가 개입되지 않는 접속문은 후행절이 나타

내는 사건의 발생을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사건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종결어미가 개입되었을 경우에는 후행절의 처리를 위하여 배경이 되는 담화 맥락을 제시해주는 의미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렇게 종결어미의 개입에 따른 접속문의 상이한 의미 해석 양상은 종결어미가 개입된 접속문을 인용구성으로 분석해서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인용구성 분석에 따르면 종결어미가 개입된 접속문은 ‘-(고)하-’가 생략된 것 이외에 종결어미가 개입되지 않은 접속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시간적 계기의 의미는 전혀 갖지 못하고, 후행절과 관계된 배경 담화를 명시해 주는 의미 해석에만 국한된다. 이러한 제약이 왜 나타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인용구성 분석은 명시적인 답변을 제공해 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의미론적 대조는 해당 어미를 하나의 융합형 어미로 처리하는 다른 대안적 관점 역시 설명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종결어미가 개입된 접속문과 그렇지 않은 접속문은 서로 일관적으로 의미론적 대조를 보이는데, 해당 입장은 이들을 각각 별개의 어미 항목으로 처리함으로써 그 일관성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이다.

2.2. 통사론적 특성

앞서 우리는 종결어미의 개입 여부에 따른 의미 해석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들 접속문은 통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낸다. 이는 종결어미의 결합이 실질적인 접속문 통사구조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함의한다.

2.2.1. 화제어 출현 가능성

먼저 ‘은/는’이 결합하는 전형적인 화제어가 선행절 내에 출현 가능한지의 여부이다. 종결어미가 결합하지 않을 때에는 화제어가 출현할 수 없지만, 종결어미가 결합하는 접속문에서는 화제어 출현이 가능하다. 이는 아래 (12), (13)에 예시된다.

(12) 가. 철수가/*는 학교에 가면 영희도 따라갈 것이다.

나. 철수가/는 학교에 갔다면 영희도 학교에 가지 않았을까?

(13) 가. 영희가/??는 한창 밥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셨다.

나. 영희가/는 밥을 먹었는데 여전히 영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12), (13)은 종결어미의 선행 여부에 따라 화제어 출현 가능성이 달라지는 것을 예시한다. (12가), (13가)의 선행절에 출현하는 ‘은/는’ 성분은 대조성이 없는, 무표적이고 전형적인 화제어로는 해석될 수 없다. 반면 (12나), (13나)에서의 해당 성분은 화제어로 읽히는 데에 문제가 없다. 이는 종결어미의 유무에 따라 이들 접속문이 통사구조 상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암시한다.

2.2.2. 초점 성분 되기 가능성

다음으로 초점 성분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 있어서 그 두 접속문은 차이를 보인다. 소위 분열문에서 ‘이다’ 앞에 직접 선행하는 성분은 초점 성분에 해당한다. 종결어미가 개입되지 않는 접속문은 분열문의 ‘이다’ 앞에 선행하여 초점 성분이 될 수 있지만, 종결어미가 개입되면 초점 성분이 될 수 없다. 이는 아래 (14), (15)에 예시된다.

(14) 가. 철수가 노래를 부른 것은 공부를 하면서이다.

나. *영희가 자꾸 그를 만난 것은 그 사람이 싫다면서이다.

(15) 가. ?아버지가 집에 들어온 것은 영희가 밥을 먹고 있는데이다.

나. *어머니가 상을 차리신 것은 영희가 밥을 먹었다는데이다.

(14가)와 (15가)는 종결어미가 결합되지 않은 접속문으로 ‘이다’ 앞에 선행할 수 있지만, (14나)와 (15나)는 그럴 수 없다.

2.2.3. ‘그리하다’ 대응 가능성

종결어미의 개입 여부는 동사구 대응어 ‘그리하다’에 의한 대응 가능성에 있어서도 차이를 유발시킨다. 이는 아래 (16), (17)에 예시된다.

(16) 가. 영수는 자기가 지면 막 화를 낸다. 철수도 그런다.

나. 영수는 자기 아들이 자고 있다면 늦게까지 공부할 것이다. 철수도 그럴 것이다.

(17) 가. 영수는 자기 논문을 읽으면서 밑줄을 긋는다. 철수도 그런다.

나. 영수는 자기 눈이 안 좋으면서 온종일 책만 읽는다. 철수도 그런다.

(16가)와 (17가)의 종결어미가 개입되지 않은 접속문은 후행하는 문장의 ‘그리하다’가 대응하는 내용에 포함되어 아래 (18가)와 (18나)와 같은 이완(sloppy)

해석으로도 읽힐 수 있다.

(18) 가. 철수도 자기_i가 지면 막 화를 낸다.

나. 철수도 자기_i 논문을 읽으면서 밑줄을 긋는다.

위 (18)은 재귀대명사 ‘자기’가 후행 문장의 주어 ‘철수’를 받는 해석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종결어미가 개입되는 (16나)와 (17나)의 접속문은 이러한 식의 이완 해석이 나오지 않는다.

(19) 가. ??철수도 자기_i 아들이 자고 있다면 늦게까지 공부할 것이다.

나. 철수도 늦게까지 공부할 것이다.

(20) 가. ??철수도 자기_i 눈이 안 좋다면서 온종일 책만 읽는다.

나. 철수도 온종일 책만 읽는다.

이들 후행 문장의 ‘그러하다’는 선행하는 문장의 후행절만을 대용하여, 각각 (19나), ‘철수도 늦게까지 공부한다’, 그리고 (20나), ‘철수도 온종일 책만 읽는다’의 의미로만 해석되는 것이다.

2.2.4. 종결법 분리 가능성

다음으로 종결법 분리 가능성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종결어미가 개입되지 않은 접속문은 후행절에 결합된 종결법의 언표내적 효력의 영향권 내에 포함될 수 있지만, 종결어미가 개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에 포함될 수 없다. 이는 아래 (21), (22)에 예시된다.

(21) 가. 서울에 눈이 오면 길이 막히니?

나. 서울에 눈이 온다면 오늘은 집에 있어라.

(22) 가. 밥을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어라.

나. 빨리 떠나자면서 왜 꾸물거리고 있니?

(21가)에서 조건의 선행절은 후행절에 표시된 질문의 언표내적 효력 내에 포함되어 선행절과 후행절 전체가 질문의 대상이 된다. (22가)에서의 선행절 역시 명령의 언표내적 효력 내에 포함된다. 그러나 종결어미가 개입되면 상황은 매우 달라진다. (21나)에서 선행절은 단언의 언표내적 효력으로, 후행절 명령의 영향권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22나) 역시 선행절은 청유이지만, 후행절은 질문으로, 선행절과 후행절이 서로 분리된 각각의 언표내적 효력을 나타낸다.

2.2.5. 화자 지향성 부사 출현 가능성

마지막으로 화자의 태도나 평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의 출현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23), (24)에서 ‘다행히’, ‘솔직히’와 같은 부사들은 종결어미가 개입되지 않는 접속문 내에 포함될 수 없지만, 종결어미가 개입되는 접속문에서는 독자적으로 출현 가능하다.

(23) 가. 다행히 [철수가 집에 오는데] 영화를 만났다.

나. [다행히 철수가 집에 왔다는데] 영화는 돌아오지 않았다.

(24) 가. 솔직히 [집에 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나. [솔직히 눈이 안 좋으면서] 하루 종일 책만 읽고 있다.

(23가), (24가)에서 해당 부사들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지만, (23나), (24나)에서는 선행절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종결어미의 개입 여부에 따른 통사론적 특성에 있어서의 차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종결어미의 개입 여부는 화제어 출현, 분열문에서의 초점 성분 되기, ‘그러하다’에 의한 대응, 종결법 분리, 화자 지향성 부사의 출현 등에서 분명한 대조를 유발시킨다. 이러한 대조는 종결어미 결합형 접속어미에 대한 두 번째 대안, 즉 종결어미와 연결어미 전체를 하나의 융합형 어미로 다루어서는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 이들을 하나의 융합형 어미로 간주하는 견해에 따르면, 가령 ‘-면’과 ‘-다면’은 별개의 다른 어미 항목에 불과할 뿐이지, 이들과 결합하는 성분들이 어떤 유의미한 통사적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종결어미의 개입 여부는 여러 측면에 있어서 유의미한 통사론적 대조를 야기한다. 이러한 양상은 종결어미가 개입되는 접속문과 그렇지 않은 접속문이 통사구조상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2장에서 우리는 종결어미의 개입 여부에 따른 접속문의 통사·의미론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종결어미가 개입된 접속문을 ‘-(고)하-’의 인용구성으로 환원하는 견해, 또한 종결어미와 접속어미를 뭉뚱그려 별개의 융합된 어미로 간주하는 견해 모두 해당 접속문의 통사·의미론적 특성을 설명하는 데에 문제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에 이 논문은 이러한 기존 견해를 탈피하여, 이들 접속문에 대한 대안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종결어미가 결합된 접속어미와 그렇지 않은 접속어미가 그들이 결합하는 성분의 통사적 층위에 있어서 서로 다름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사론적 차이는 일관적으로 의미 해석상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3. 통사 분석

3.1. 이론적 배경

앞서 2장에서 우리는 종결어미의 결합이 접속문의 유의미한 통사·의미론적 차이를 만들어냄을 검토하였다. 기존의 두 가지 대안, 즉 인용구성으로 환원하는 분석, 그리고 별개의 융합된 어미로 분석하는 분석은 이러한 사실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남은 분석은 딱 한 가지, 즉 종결어미 ‘-다/냐/라/자’와 접속어미를 따로따로 분석해내는 것이다. 이 견해는 종결어미에 유의미한 통사 지위를 부여해줌으로써, 종결어미의 실현 여부에 따라 접속문에 분명한 통사·의미론적 차이가 나는 2장의 관찰을 용이하게 포착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분석은 풀어야 할 선결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해당 구성이 소위 종결어미가 비종결어미를 선행하는 형태론적 연쇄를 이루어 한국어의 어미 체계에 합치되지 않는 예외적인 구성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적절하게 극복되지 않고서는 이 세 번째의 분석은 채택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논문은 해당 종결어미와 연결어미의 결합을 예외적인 것으로 보는 기존의 인식과는 대조적으로, 접속어미 앞에 선행하는 소위 종결어미 ‘-다/냐/라/자’는 문장을 완성시키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결어미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냐/라/자’와 이에 후행하는 접속어미의 결합은 예외적인 구성이 아니며, 이론적으로도 예측 가능한 한국어의 적법한 형태론적 구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근 문장의 외곽 구조(periphery), 즉 CP 구조에 대한 보다 진전된 통사론적 논의를(Rizzi 1997, 2004; Haegeman 2003, 2006, 2012; Cinque & Rizzi 2010, 등)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들 접속어미 앞에 결합되는 소위 종결어미 ‘-다/냐/라/자’의 문법적 특성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검토해 보기로 하자. 한국어에서 문장 유형, 혹은 언표내적 효력을 나타내는 이들 종결어미는 일부 접속문 구성에, 또한 간접인용문 및 긴 관형절 등의 내포문에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이들 구성에 나타나는 종결어미는 반드시 상대높임법이 중화된 형태로 실현되어야 한다는(유동석 1990; 권재일 1992) 것이다.

(25) 가. [서울에 눈이 온다/*옵니다]면 오늘은 집에 계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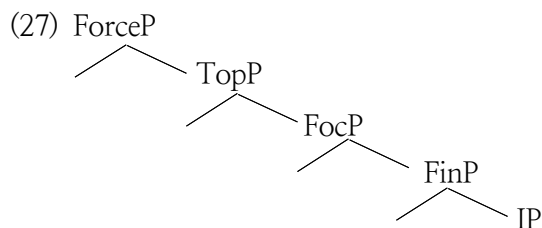
나. [빨리 떠나자/*떠나요]면서 왜 꾸물거리고 계세요?

(26) 가. 영이는 [철이가 학교에 갔다/*갔습니다]는 소식에 당황했다.

나. 영이는 [철이가 학교에 갔냐/*갔습니까]고 물었다.

상대높임법은 어떠한 내포문, 접속문에는 실현될 수 없고, 오직 근문(root sentence, Emonds 1969; Hooper & Thompson 1973) 환경에서만 실현된다는 엄격한 분포 제약을 갖는다(이에 대한 최근의 통사 논의는 Portner, Pak, & Zanuttini 2019 참조). 이 논문은 상대높임법이 실현된 종결어미는 문장을 종결시키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결어미에 해당하지만, 상대높임법이 중화된 종결어미는 진정한 종결어미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소위 종결어미에 연결어미가 결합되는 해당 형태론적 연쇄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적법한 구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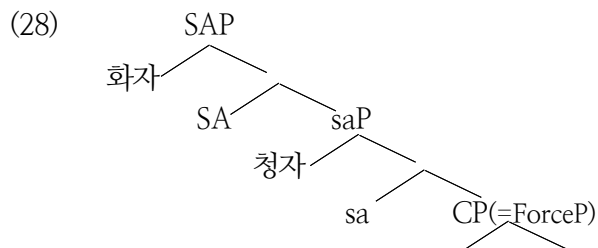
기존의 통사 이론 틀 내에서는 종결어미 및 상대높임법 어미 모두 C의 실현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해줄 수 있는 통사론적 장치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 Rizzi(1997, 2004) 등의 연구에 의하여 기존의 CP 구조는 더욱 세분화되었는데, Rizzi(ibids.)는 종래 문장을 완성시키는 최상위의 기능범주로 간주되어 왔던 CP 절점을 여러 하위의 기능범주로 더욱 세분화였다. 아래 (27)에 제시된 구조에서 ForceP에서 FinP까지의 기능범주는 원래는 CP로 명명되어왔던 단일한 범주였는데, 이것이 여러 하위 기능범주들로 분리된 것이다.



위 (27)에서 최상위의 ForceP는 문장의 언표내적 효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문장 유형(sentence type)을 결정한다. 한국어에서는 평서, 의문, 명령, 청유에 해당하는 ‘-다/냐/라/자’의 굴절소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보다 하위의 TopP는 전형적인 화제가 위치하는 곳이며, FocP는 초점 성분이 위치하는 곳이다. 그리고 FinP는 문장의 한정성(finiteness) 및 비한정성을 나타내는 기능범주인데, 문장 유형을 결정짓는 서법을 제외하고는 가장 상위의 굴절소가 위치하는 곳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27)의 세분화된 CP 구조는 최근 통사-화용 접면 이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Moro 2003; Speas & Tenny 2003; Speas 2004; Hill 2007; Haegeman & Hill 2011; Haegeman 2014; Miyagawa 2012, 2017 등) 더욱 보강되기에 이르렀는데, CP 절점 위에 새롭게 화행구(Speech Act phrase, Speas & Tenny 2003; Haegeman & Hill 2011) 투사가 상정된 것이다. 화행구는 기존에 화용론의 소관으로만 간주되어 왔던 담화 참여자인 화자와 청자를 통사구조상에 도입하는 것을 담당한다. 일찍이 생성문법 초기, Ross(1970)는 모든 문장을 수행 동사를 모문 동사로 하는 내포문 형식으로 분석하였는데, Ross의 이러한 수행 가설(performative hypothesis)이 화행구의 설정으로 재해석된 것이다. 화행구는 동사구 패각 구조와 평행적으로(Larson 1988), 화행의 행위주 격인 화자, 화행의 목표역에 해당하는 청자, 화행의 대상역인 발화(utterance)의 세 가지 논항을 순차적으로 취하는 아래 (28)과 같은 이중타동의 패각 구조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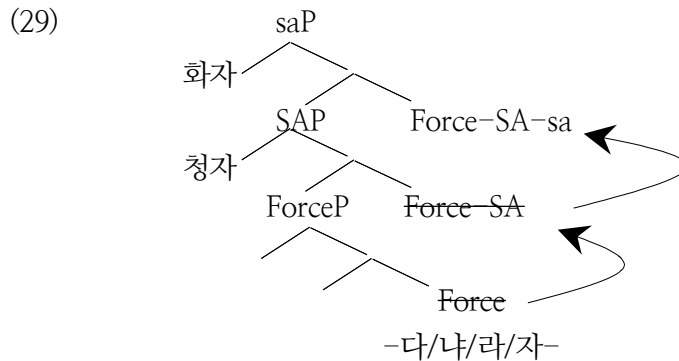


위 (28)의 구조에서 화행구의 내부 패각구조의 명시어 위치는 청자가, 보충어 위치는 발화인 CP(=ForceP)가 차지한다. 화행구의 외부 패각구조의 명시어 위치는 화자가 차지한다. 요컨대, 최근에는 문법적으로 관여적인 담화 맥락의 화용론적 정보와 통사론의 접면 이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문장의 가장 외곽구조에 해당하는 기존의 CP 구조는 더욱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게 된 것이다(이러한 통사-화용 접면 이론을 이용한 한국어 문법 현상에 대한 논의로는 김용하 2015; 홍용철 2018; 박소영 2019; 박소영·김석진 2019, 참조). 한국어는 시제나 서법을 나타내는 어미가 매우 발달하고 이들 사이의 순서가 엄격하게 제약이 되는 언어로서 이러한 문장의 외곽구조의 비밀을 푸는 데에 훌륭한 형태론적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언어이다.

이러한 CP 구조에 대한 논의에 따르면, 상대높임법이 실현된 종결어미와 그렇지 않은 종결어미는 구조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다. 상대높임법 어미는 특정 화자와 청자의 존재를 전제하는 화행구 핵의 실현으로, 근문에만 나타나며 화자와 청자 사이의 높임, 격식성/친밀성의 자질들을 명세한다. 따라서 상대높임법의 실현은 화행구의 투사를 함의하며, 이는 근문과 이외의 접속문, 내포문 구조를 변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상대높임법이 중화된 ‘-다/냐/라/자’의 종결

어미는 화행구 투사의 부재를 나타내며, 화행구 하위에 위치하는 ForceP 핵의 실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일부 내포문 및 접속문 내에 실현될 수 있으며, 특정 화-청자의 존재를 반드시 전제하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 한국어 어미 실현의 통사론적인 기제는 아래 (29)와 같은 구조를 가정한다(박소영 2019).



(30) 상대높임법 어미 실현(권재일 2012: 318 참조)

	평서 -다	의문 -냐	명령 -라	청유 -자
[+높임, +격식]	-습니다	-습니까	-으십시오	-읍시다
[-높임, +격식]	-어/지요			
[+높임, -격식]	-어/지			
[-높임, -격식]	-다	-니	-어라	-자

(29)에서 높임법이 중화된 ‘-다/냐/라/자’는 언표내적 효력을 표시하는 ForceP 핵의 실현이다. 문장은 그보다 상위, 화행구의 실현으로 비로소 완성되는데, 이는 상대높임법의 실현에 의해 표시된다. (29)에서 Force 핵은 하위 화행구 핵을 거쳐 상위 화행구 핵까지 핵이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평서, 의문, 명령, 청유 등의 문장 유형을 결정하는 ForceP 핵의 서법 정보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높임, 격식성/친밀성의 자질이 명시된 그보다 상위의 화행구 핵과 결합하여, 통사부 이후 음성형식부에서 (30)의 표에 제시된 것과 같은 최종적인 어말어미 형태로 실현된다.⁵⁾

이러한 관점에 입각한다면, 높임법이 중화된 ‘-다/냐/라/자’의 소위 종결어미는 문장을 완전하게 종결시키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결어미가 아니다. 화행구 투사를 전제하는 상대높임법이 명시된 종결어미만이 진정한 문장 종결어미인 것

5) 분산형태론(Distributed Morphology)의 소위 ‘지연-삽입(late-insertion)’ 모형을 가정하기로 한다. 분산형태론 개관 및 한국어 문법과의 관련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박소영(2017b), 이정훈(20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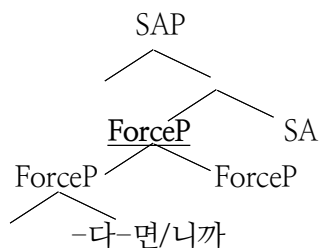
이다. 이렇게 ‘-다/냐/라/자’가 진정한 종결어미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들이 복합문 형성을 위한 다른 어미 앞에 결합되는 현상은 이론적으로 아무런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는다. 가령 접속어미 ‘-면’이나 ‘-면서’ 앞에 높임법이 명세되지 않은 종결어미가 온다면, 이는 해당 접속어미가 단순히 ForceP 성분에 결합되었다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특별한 문법적 처리를 요구하는 예외적인 구성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높임법이 명시된 종결어미는 화행구 투사를 내포하는 온전한 발화체임을 함의하기 때문에 내포문이나 접속문 환경에는 결코 출현할 수 없고 근문의 환경에서만 출현 가능하다. 문제를 이런 식의 관점으로 전환시킨다면, 2장에서 살펴보았던 종결어미 결합형 접속어미는 비로소 새로운 분석의 전기를 맞게 된다.

3.2. 종결어미 결합형 접속어미의 통사 구조

이 논문은 종결어미가 선행하는 접속어미는 ForceP의 통사 성분과 결합하지만, 종결어미가 없는 접속문은 그보다 더 하위 성분인 vP나 TP의 접속을 이루는 것으로 분석한다. 접속에 있어서 최대 ForceP까지 다양한 문장 층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⁶⁾ 다양한 접속 층위와 그 의미론적 특성을 정리하여 요약하면 아래 (31), (32)와 같다. 접속어미가 위치하는 구체적인 통사 절점에 대한 고려는 논의의 간결성을 위해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⁷⁾

(31) 종결어미 결합형 접속어미

ForceP 접속: 화행, 담화 조직화(discourse-structuring)



- 선행절, 후행절, 두 가지의 언표내적 효력의 접속
- 선행절은 후행절의 언표내적 효력을 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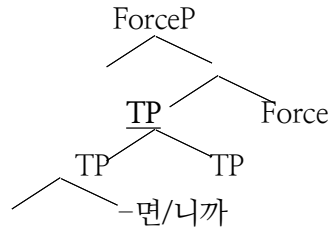
6) 이 논문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대등접속, 종속접속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접속문에 대해 동일 층위의 성분이 단순 접속되는 구조를 가정한다. 부사절과 같은 내포 구조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한국어 접속문 및 부사절 체계에 대한 논의는 이익섭·임홍빈(1983), 권재일(1985), 남기심(1985), 유현경(1986, 2011), 이관규(1992), 이은경(1996), 박소영(2002), 이정훈(2008), 김용하(2009) 등 참조.

7) 각주 3)에서 개관한 Sweetser(1990)의 내용, 인식, 화행의 구분을 이 논문이 제시하는 통사 분석과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면, 대략적으로 (32나)의 vP 접속은 내용 접속에, (32가)의 TP 접속은 인식 접속에, (31)의 ForceP 접속은 화행 접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 상위 SAP를 공유하여 동일한 화자, 청자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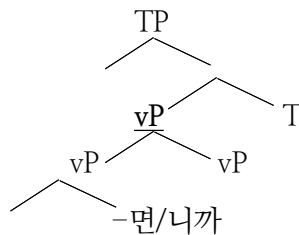
(32) 종결어미 비결합형 접속어미

가. TP 접속: 명제 조직화(proposition-structuring)



- 선행절, 후행절, 두 개의 명제 접속
- 선행절은 후행절 명제를 수식
- 상위 ForceP를 공유하여 동일한 언표내적 효력 전제

나. vP 접속: 사건 조직화(event-structuring)



- 선행절, 후행절, 두 개의 사건 접속
- 선행절은 후행절 사건을 수식
- 상위 TP를 공유하여 동일한 시공간 전제

먼저 (31)에 제시된 종결어미 결합형 접속어미의 구조이다. 이 경우 접속어미는 언표내적 효력이 명시된 ForceP 성분의 접속을 이룬다. 따라서 선행절과 후행절은 각각의 언표내적 효력을 나타낼 수 있다. 선행절은 후행절의 언표내적 효력을 제한하고 수식하므로, 이 때 접속문의 의미는 후행절 처리를 위한 담화 맥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의미 특성이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접속문은 상위 동일한 화행구 안에 내포되므로, 동일한 화자와 청자를 전제하는 하나의 발화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 (32)는 종결어미가 결합하지 않는 일반적인 접속어미의 구조이다. 이 경우 ForceP보다 구조적으로 작은 TP나 vP 성분의 접속을 이룬다. (31)의 ForceP 접속 구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상위의 기능범주를 공유함으로써, 선행절과 후행절이 더욱 긴밀하게 통합되는 접속 구조를 이룬다. 먼저 (32가)는 TP 접속 구조를 예시한다. T는 의미론적으로 vP가 표상하는 사건을 존재론적으로 양화하는 기능을 갖가지며(Heim & Kratzer 1998; Borer 2005), 따라서 TP는 사

실성이 확보된 명제의 의미 해석을 갖는다. 이러한 TP 층위의 접속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은 시제에 있어서 서로 독립적인 별도의 명제를 나타낼 수 있으며, 선행절은 후행절 명제의 의미를 제한한다. 이는 상위 ForceP 투사를 공유하므로, 선행절과 후행절이 동일한 언표내적 효력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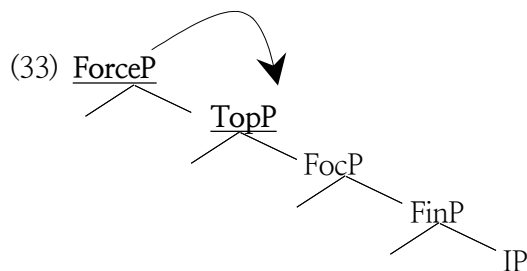
다음으로 (32나)의 vP 접속 구조이다. vP는 의미론적으로 사건을 나타낸다. 선행절과 후행절은 각각의 사건을 나타내는데, 선행절은 후행 사건의 발생을 제약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시간적 계기의 의미가 빈번하게 도출됨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의 접속문은 동일한 상위의 TP에 내포되므로, 해당 사건들은 동일한 시간과 공간을 갖는다.

요컨대, 종결어미가 결합하는 접속어미는 그렇지 않은 접속어미에 비해 더 상위의 통사 성분과 결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 상대높임법이 명시되지 않은 ‘-다/냐/라/자’의 소위 종결어미는 통사론적으로 ForceP 핵을 나타내는데, 이들이 포함된 ForceP 성분은 후행하는 다른 ForceP 성분과 결합하여 종결어미가 선행하는 접속 구조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해당 접속어미를 ‘-(고)하-’가 생략된 인용구성으로, 혹은 별도의 융합형 어미로 다룸으로써 생겨나는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

3.3. 통사론적 대조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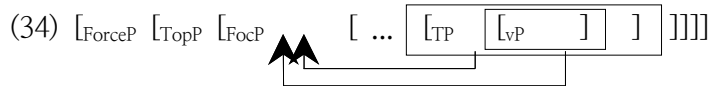
종결어미 결합형 접속어미는 ForceP의 접속 구조를 이루지만, 이외의 접속어미는 그보다 하위 성분의 접속 구조를 이룬다. 이러한 이 논문의 분석은 앞서 2.2.에서 논의했던 그 두 접속문 사이의 실질적인 통사론적 대조를 효과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

먼저 (12), (13)에 예시된 종결어미 결합 여부에 따른 화제어 출현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기로 하자. (27)의 Rizzi가 제안한 구조에 따르면, ForceP의 존재는 그보다 구조적으로 하위에 위치하는 화제구의 투사를 함의한다. 이는 논의의 편의상 아래 (33)에 다시 제시된다.



위 (33)의 구조는 ForceP가 투사된 구조는 화제어의 존재가 가능성을 함의한다. 만약 ForceP가 투사되지 않은 구조라면 화제어 출현 역시 불가능함을 함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한국어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면(이에 대한 논의는 박소영 2019 참조), 해당 사실은 원리적으로 설명된다. 전형적인 화제어는 종결어미가 실현된 ForceP 성분의 접속문에서만 출현 가능한 것이다. 종결어미가 실현되지 않으면 이들 화제어는 실현될 수 없다.⁸⁾

둘째로 (14), (15)에 예시된 초점 성분 되기 가능성에 있어서의 대조이다. 분열문 도출에 대하여 초점어의 초점구로의 통사 이동 분석을(박소영·김석진 2019) 가정한다면,⁹⁾ 해당 대조 역시 (33)의 구조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33)의 구조에서 초점구는 ForceP 하위에 위치한다. 따라서 분열문의 초점 성분으로는 구조적으로 그보다 하위에 있는 성분만이 가능할 것임이 예측된다. 초점구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ForceP 성분은 초점 성분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종결어미 결합형 접속어미는 초점구보다 상위인 ForceP 성분이므로 초점 성분이 될 수 없지만, 종결어미가 없는 일반적인 접속문은 ForceP보다 작은 초점구보다 아래의 vP나 TP의 접속 구성을 이루므로 초점구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아래 (34)에 도식적으로 제시된다.



셋째로 (16), (17)에 예시된 ‘그러하다’ 대응에 있어서의 대조이다. 한국어 ‘그러하다’가 vP 성분을 대응한다고 한다면(박소영 2017a), 이들 대조는 자연스럽게 귀결된다. 종결어미가 결합되지 않는 (16가), (17가)의 선행절은 vP 구성을 이루므로, ‘그러하다’가 대응하는 성분 내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반면 종결어미가 결합하는 (16나), (17나)의 선행절은 ForceP 성분으로 vP 대응에 포함될 수 없다. 이는 아래 (35)에 도식적으로 요약된다.

8) 일반적으로 화제어 출현 가능성 여부는 대등접속문과 부사절 내포문, 혹은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을 가르는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다(남기심 1985, 유현경 1986). 그러나 이 논문의 논의에 따르면, 화제어 출현 여부의 기준은 근본적으로 결합되는 선행절의 통사 층위에 따른 것이지, 접속 혹은 내포나, 대등 혹은 종속이나를 갈라주는 신빙성 있는 기준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논리적으로 대등접속도 통사적으로 다양한 층위의 접속을 허용할 수 있으며, 종속접속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9) 분열문의 도출 과정은 아래 (i)에 제시된다(박소영·김석진 2019).

(i) 가. $[_{\text{ForceP}} [_{\text{TP}} \text{철수가 영화를 도서관에서 만났-}]_{\text{다}}$.

나. 초점 성분의 초점구로의 이동:

$[_{\text{ForceP}} [_{\text{FocP}} \text{도서관에서 } [_{\text{TP}} \text{철수가 영화를 도서관에서 만났-}]_{\text{다}}$

다. 화제 성분의 화제구로의 이동, 명사화소 ‘것’, 형식동사 ‘이다’ 삽입:

$[_{\text{ForceP}} [_{\text{TopP}} \text{철수가 영화를 만난 것은 } [_{\text{FocP}} \text{도서관에서 } [_{\text{TP}} \text{철수가 영화를 만났-}] \text{이다}]]]$

(35) 가. 영수_i는 [_{VP} [_{VP} 자기_i가 지면] [_{VP} 막 화를 내-]]는다.

철수도 [_{VP} 그러하-]]는다.

→ 철수_i도 [_{VP} [_{VP} 자기_i가 지면] [_{VP} 막 화를 내-]]는다.

나. 영수_i는 [_{ForceP} 자기_i가 아들이 자고 있다면] [_{ForceP} [_{VP} 늦게까지 공부할] 것이 다]. 철수도 [_{VP} 그럴] 것이다.

→ 철수도 [_{VP} 늦게까지 공부할] 것이다.

넷째, (21), (22)에 예시된 독립적인 언표내적 효력의 실현 여부이다. 이는 선행절에 후행절과는 독립적인 ForceP의 투사에 의해 직접적으로 설명된다. 마지막으로 (23), (24)에 예시된 ‘솔직히’, ‘다행히’와 같은 화자 지향성 부사의 출현 가능성 여부인데, 이 역시 화자가 의도하는 언표내적 효력을 표시하는 ForceP 투사에 의해 설명된다(박소영 2000, 2004). ForceP가 투사되는 종결어미 결합형 접속문은 이들 부사가 허용되지만, 다른 접속문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요컨대, 종결어미의 개입 여부는 실질적인 통사론적 차이를 야기한다. 이러한 차이는 접속어미가 결합되는 통사 층위의 차이에 의하여 원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4. 이론적 함의: 한국어의 복합문 체계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종결어미 결합형 접속어미는 다른 아닌 ForceP 층위의 성분과 결합하는 것임을 논증하였다. 이는 종결어미가 매개되지 않는 접속문과는 그 접속의 통사 층위에서 차이가 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접속 층위를 인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어미 항목의 범람을 막을 수 있다. 종결어미 ‘-다/냐/라/자’는 생산적으로 일부 접속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데, 이들을 각각 분석해냄으로써 별개의 다른 어미 항목으로 따로 설정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들 소위 종결어미는 상대높임법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장 종결어미가 아니다. 형태론적으로 그 뒤에 다른 어미가 결합될 수도 있는 열린 구조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종결어미’, 혹은 ‘비종결어미’라는 현행 학교문법의 구분은 상대높임법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종결어미 결합형 접속어미의 통사·의미론적 특성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론적으로 접속 층위에서의 차이는 일관적으로 의미 해석과 통사 특성에 있어서의 차이로 귀결되는데, 이 논문의 분석은 이러한 특성을 원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의미상으로 종결어미 결합형 접속문은 후행절의 처리를 위해 배경이 되는 담화 맥락을 제공한다. 후행절 사건의 발생을 제한하는 일반적인 접속문과는 그 의미가 다른 것이다. 또한 통사적으로 더 상위의 성분과 결합함으로써 화제어 출현, 분열문 초점 되기, ‘그리하다’ 대응, 등 여러 통사 현상에 있어서도 상이한 양상을 드러낸다. 해당 접속문을 접속 층위의 차이로 인식함으로써 이러한 실질적인 통사상의 차이를 통사 구조의 차이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종결어미가 결합되는 구조를 ForceP 성분으로 간주하는 본 논문의 분석이 한국어 문법에 대하여 갖는 이론적 함의를 간략하게 검토해 보기로 하자. 해당 관점을 확장하여 다른 복합문 구성, 대표적으로 내포문의 한 유형인 긴 관형절의 경우를 사유한다면, 해당 분석의 관점에서 종결어미가 결합하는 긴 관형절은 짧은 관형절과는 달리 ForceP 성분과 결합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겠다. 긴 관형절과 짧은 관형절의 구분이 이렇게 결합하는 통사 층위에 있어서의 차이로 환원될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이 두 관형절을 ‘긴’과 ‘짧은’이라는 수식어를 써서 달리 명명할 필요성도 사라져버린다.

긴 관형절에 대하여는 아래 (36), (37)에 예시하듯이, 그 모든 경우에 ‘-(고)하-’의 인용구성으로 환원될 수는 없으므로, 종결어미와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합쳐 하나의 통합 어미로 처리하는 견해가 현재로서는 우세한 듯하다(김선효 2004, 이관규 2007).

- (36) 가. 신 여사는 의심스럽다(*고하)는 눈초리로 딸을 쏘아보았다.
나. 아빠도 안 됐다(*고하)는 기색이었다.
다. 자신이 지금 뛰고 있다(*고하)는 느낌조차 들지 않았다.

김선효(2004: 166)

- (37) 가. 벌써 가자(*고하)는 말이니?
나. 조용히 하라(*고하)는 소리 못 들었어?
다. 그는 우리가 돌아왔다(*고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관규(2007: 496)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앞서 접속문의 해당 논의에서 지적된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불필요하게 많은 어미 항목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종결어미-관형사형 어미’의 결합에서 해당 종결어미가 일반적인 문장 종결어미와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 기능을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종결어미의 매개 여부는 통사상의 차이로 이어지는 듯한데, 대표적으로 아래 (38)은 화제어 출현 가능성 여부를 드러낸다. 즉 종결어미의 출현은 전형적

인 화제어 출현을 허용함을 보여준다.

- (38) 가. [철이가/??는 학교에 가는] 모습을 영이가 보았다.
 나. [철이가/는 학교에 갔다는] 소식에 영이가 당황했다.
 다. [철이가/는 학교에 갔냐는] 질문에 영이가 당황했다.

박소영(2019: 30)

또한 화자-지향성 부사 허용 가능성 여부에도 차이를 보인다.

- (39) 가. [??다행히/*솔직히 철이가 학교에 가는] 모습을 영이가 보았다.
 나. [다행히 철이가 학교에 갔다는] 소식에 영이가 당황했다.
 다. [솔직히 철이가 학교에 갔냐는] 질문에 영이가 당황했다.

위 (38)과 (39)의 사실은 종결어미의 매개가 실질적인 통사상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긴 관형절과 짧은 관형절의 차이는 결국 결합하는 통사 성분에 있어서의 차이임이 논리적으로 귀결된다. 다시 말해 긴 관형절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언표내적 효력을 포함하는 ForceP라는 통사 성분과 결합하는 것이다. 짧은 관형절은 Force의 실현인 종결어미가 개입되지 않으므로 ForceP보다는 작은 통사 성분과 결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논문이 접속문에 ForceP, TP, vP 등 다양한 접속 층위를 인정했던 것처럼, 관형절을 이러한 다양한 내포 층위를 인정하여 분석할 수 있겠느냐는 재미있는 연구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¹⁰⁾ 기존 논의에서는 해당 구성이 모두

10) 긴 관형절과 짧은 관형절의 의미 차이에 대해서는 김영희(1981), 이익섭·임홍빈(1983), 장경희(1987), 김선호(2004), 등 참조. 이들 연구에서는 긴 관형절과 짧은 관형절의 의미에 대해 사실성의 유무, 혹은 직접성, 간접성 등의 의미 차이로 구분하였다. 이를 이 논문이 제시하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긴 관형절은 ForceP 구성으로 사실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는 단언에 해당한다. 가령 (37나)의 긴 관형절의 내용은 사실성이 전제되지 않는다. 반면 짧은 관형절은 TP 구성을 이루어 시제소구가 투사됨으로써 사실성이 담보된 명제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추론할 수 있는데, (37가)의 짧은 관형절의 사실성은 보장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과연 vP 층위의 관형절이 존재하는가의 질문도 제기될 수 있다. 해당 가능성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한다면 아래 (i)에 예시된 관형절이 이러한 구성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

(i) 순이야, [끓는 물] 가져 오너라.

위 (i)의 ‘끓는 물’은 반드시 특정 시공간에서 물이 끓고 있는 사건의 존재를 함의하지 않는다. 반드시 끓고 있지 않더라도 ‘100도 정도의 뜨거운 물’이라는 일종의 속성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해당 관형절은 특정 시공간에 일어나는 사건의 존재를 반드시 함의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통사론적으로 시제소구 투사의 부재를 의미한다. 즉 vP 상당의 구성에 해당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추론은 관형절의 크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통사 층위가 가능할 것임을 암시한다.

한편 전통적으로 관형절 구성을 하위분류하는 대표적인 입장으로는 최현배(1971)를 들 수

보문소 C에 상응하는 관형사형 어미에 의한 CP라는 균일한 구조, 균일한 층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의 논의를 확장한다면, 관형절 구성 역시 vP, TP, ForceP 등 다양한 내포 층위로 분석될 수 있음이 내포된다. 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소위 종결어미 ‘-다/냐/라/자’가 결합하는 접속어미의 통사, 의미론적 특성을 검토하고 그것의 통사론적 처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종결어미 결합형 접속어미는 그것이 결합되지 않은 접속어미와 일관적인 통사, 의미론적 대조를 보인다. 이러한 대조는 해당 접속어미를 ‘(-고)하-’의 인용 구성으로 보거나 하나의 개별적인 융합형 어미로 보아서는 충분하게 설명될 수 없음을 검토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종결어미 결합형 접속어미를 각각 종결어미와 접속어미의 결합으로 분석해내는 입장을 취하였다. 문장 최상위 구조에 화행구 투사를 가정하는 최근의 통사-화용 접면 이론의 관점을 수용한다면, 상대높임법이 중화된 소위 종결어미는 문장을 종결시키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결어미가 아니므로 해당 종결어미와 다른 어미의 결합이 형태·통사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을 피력하였다. 이 논문은 해당 접속어미를 ‘-다/냐/라/자’의 실현에 의하여 완성되는 ForceP라는 새로운 접속 층위에 결합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이 다른 복합문 구성, 가령 긴 관형절과 짧은 관형절과 같은 구성에도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앞으로 이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 권재일(1983), 현대국어의 강조법 연구—[종결어미]류 결합의 경우—, 《우리말글》1, 우리말글학회, 23-48.
 권재일(1992), 《한국어통사론》, 민음사.
 권재일(2012), 《한국어문법론》, 태학사.
 김선호(2004), 인용 구문 ‘-다고 하는’과 ‘-다는’의 특성, 《어학연구》 40-1, 161-176.

있다. 이에서는 주어가 빠진 것은 관형형, 주어가 있는 것은 관형절로 구분하고 있다. 즉 절적 지위를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관형절 성분의 통사 층위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연구 정신과 상통한다.

- 김수정(2019), 접속 영역의 관점에서 본 국어 접속문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수정·최동주(2018), ‘-면’ 조건문의 유형과 시제, 《언어》 43-2, 한국언어학회, 201-221.
- 김영희(1981), 간접명사 보문법과 ‘하’의 의미 기능, 《한글》 173·174, 한글학회, 153-191.
- 김영희(1998), 《한국어 통사론을 위한 논의》, 한국문화사.
- 김용하(2009), 한국어 등위 접속문의 구조적 표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 《현대문법연구》 58, 현대문법학회, 1-37.
- 김용하(2015), 자질 상속, 일치, 그리고 화행, 《현대문법연구》 84, 현대문법학회, 1-23.
- 김용하·박소영·이정훈·최기용(2018), 《한국어 생성 통사론》, 역락.
- 김태엽(1998), 국어 비종결어미의 종결어미화에 대하여, 《언어학》 22, 171-189.
- 김홍범(1987), ‘-다면서, -다고, -다니’의 구조와 의미, 《말》 12, 연세대학교한국어학당, 71-91.
- 남기심(1985), 접속어미와 부사형어미, 《말》 10, 연세대 한국어학당, 69-77.
- 남기심·고영근(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박소영(2000), 한국어 부사의 문장계층적 유형론, 《어학연구》36, 서울대 언어교육원, 615-642.
- 박소영(2002), 한국어 부사절과 접속문 체계 다시 보기, 《언어학》 34, 한국언어학회, 49-73.
- 박소영(2004), 《한국어 동사구 수식 부사와 사건구조》, 태학사.
- 박소영(2017a), 한국어 동사구 대용의 통사론: ‘그리하다’와 ‘그러다’를 중심으로, 국어학 81, 국어학회, 63-90.
- 박소영(2017b), 분산형태론의 이론적 동향과 한국어 문법, 《우리말연구》 49, 우리말학회, 91-121.
- 박소영(2019), 한국어 독립성분과 화용 정보의 통사구조 표상, 국어학 89, 국어학회, 25-62.
- 박소영·김석진(2019), ‘-기는’ 그리고 ‘-것은’ 분열문과 한국어의 외곽구조, 생성문법연구 29, 한국생성문법학회, 235-258.
- 박재연(2000), ‘-다고’류 어미에 대한 화용론적 접근, 《애산학보》 24, 171-194.
- 박재연(2014), 한국어 연결어미 의미 확장에서의 환유와 은유, 《국어학》 70, 국어학회, 117-155.
- 박정운(2006), 한국어 조건문의 인식태도, 《담화와 인지》, 13-2, 109-132.
- 유동석(1990), 국어 상대높임법과 호격어의 상관성에 대하여, 《주시경학보》 6, 주시경연구소, 61-72.
- 유현경(1986), 국어접속문의 통사적 특질에 대하여, 《한글》 191, 한글학회, 77-104.
- 유현경(2002), 어미 ‘-다고’의 의미와 용법, 《배달말》 31.
- 유현경(2011), 접속과 내포, 《국어학》 60, 국어학회, 389-410.
- 이관규(1992), 《국어 대등 구성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 이관규(2007), 관형사 어미 ‘다’에 대한 고찰, 《새국어교육》 77, 489-503.

- 이금희(2014), 확인 의문법 종결어미 ‘-다면서, -다고, -다지’의 화용적 조건과 의미, 《어문 연구》 42, 59-86.
- 이은경(1996), 국어의 연결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익섭·임홍빈(1995), 《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정훈(2008), 한국어 접속문의 구조, 《생성문법연구》 18, 한국생성문법학회, 115-135.
- 이정훈(2017), 어휘 응집성 원리를 넘어, 《한국어학》 75, 한국어학회, 1-44.
- 이필영(1993),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탑출판사.
- 장경희(1987), 국어의 완형보절의 해석, 《국어학》 16, 국어학회, 487-519.
- 채숙희(2011), 결과의 ‘-라고’와 목적의 ‘-자고’에 대하여, 《어문논집》 97-119.
- 최현배(197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홍경임(2019), 한국어 복합종결어미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용철(2019), 문장종결어미의 내포 가능성과 화행 투사범주, 《생성문법연구》 28-3, 한국 생성문법학회, 527-552.
- Borer, Hagit(2005), *Structuring Sense I*, Oxford University Press.
- Cinque, Guglielmo., Luigi Rizzi(2010) The 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s, in Bernd Heine., Heiko Narrog(eds.), *The Oxford Handbook of Grammatical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51-65.
- Cinque, Guglielmo(2008), Two types of non-restrictive relative clauses, in O. Bonami, & P. Cabredo Hofherr(eds.), *Empirical Issues in Syntax and Semantics 7*, CSSP, 99-137.
- Declerck, Renaat, & Susan Reed(2001), *Conditionals: A Comprehensive Empirical Analysis*, Walter de Gruyter.
- Emonds, Joseph(1969), Root and structure-preserving transformations, Ph. D. dissertation, MIT.
- Haegeman, Liliane(2003), Conditional clauses: External and internal syntax, *Mind and Language* 18, 317-339.
- Haegeman, Liliane(2006), Conditionals, factives and the left periphery, *Lingua* 116, 1651-1669.
- Haegeman, Liliane(2012), *Adverbial Clauses, Main Clause Phenomena, and the Composition of the Left Periphe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egeman, Liliane(2014), West Flemish verb-based discourse markers and the articulation of the speech act layer, *Studia Linguistica* 68-1, Blackwell, 116-139.
- Haegeman, Liliane, & Ciro Greco(2018), West Flemish V3 and the interaction of syntax and discourse, *Journal of Comparative Germanic Linguistics* 21-1, 1-56.
- Haegeman, Liliane, & Virginia Hill(2013), The syntacticization of discourse, in R. Folli, C. Sevdali, & R. Truswell(eds.), *Syntax and Its Limits*, Oxford

- University Press, 370-390.
- Heim, Irene, and Angelika Kratzer(1998), *Semantics in Generative Grammar*, Blackwell.
- Hill, Virginia(2007), Vocatives and the pragmatics-syntax interface, *Lingua* 117, Elsevier, 2077-2105.
- Hooper, J. B., & S. A. Thompson(1973), On the applicability of root transformations, *Linguistic Inquiry* 4, MIT Press, 465-497.
- Larson, Richard(1988), On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nguistic Inquiry* 19, 335-391.
- Miyagawa, Shigeru(2012), Agreement that occur mainly in main clauses, in Lobke Aelbrecht, Liliane Haegeman, & Rachel Nye(eds.), *Main Clause Phenomena*, John Benjamins, 79-112.
- Miyagawa, Shigeru(2017), *Agreement beyond Phi*, The MIT Press.
- Moro, Andrea(2003), Notes on vocative case: A case study in clause structure, in Josep Quer, & Jan Schroten(eds.), *Romance Languages and Linguistic Theory* 2001, John Benjamins, 247-261.
- Portner, Paul, Miok Pak, and Raffaella Zanuttini(2019), The speaker-addressee relation at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Language* 95, 1-36.
- Rizzi, Luigi(1997), The fine structure of the left periphery. in L. Haegeman(ed.), *Elements of Grammar*. Dordrecht: Kluwer.
- Rizzi, Luigi(2004), Locality and left periphery. in A. Belletti, C. Pontignano(eds.), *Structures and Beyo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15.
- Ross, Roberts(1970), On declarative sentences, in R. A. Jacobs, P. S. Rosenbaum (eds.),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Xerox College Publishing, 222-272.
- Speas, Peggy(2004), Evidentiality, logophoricity and the syntactic representation of pragmatic features, *Lingua* 114, Elsevier, 255-276.
- Speas, Peggy, & Carol Tenny(2003), Configurational properties of point of view roles, in A. M. Di Sciullo(ed.), *Asymmetry in Grammar* 1, John Benjamins, 315-345.
- Sweetser, Eve(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Metaph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Semantic Struc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 Vries, Mark(2009), Specifying coordination: An investigation into the syntax of dislocation, extraposition and parenthesis, *Language and linguistics* 57, 37-98.
- Zanuttini, R, M. Pak and P. Portner(2012), A syntactic analysis of interpretive restrictions on imperative, promissive, and exhortative subject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30, 1231-1274.

573돌 한글날 · 한글학회 창립 111돌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2019년 10월 11일 (금) 09:50 ~ 16:40

한글회관 열말글교육관

□ 제3부: 연구 발표

한국어 문장의 구조와 의미 정보 —국제적 통용 주석 체계의 적용을 중심으로—

김한샘

연세대학교 교수
khss@yonsei.ac.kr

1. 머리말

언어 정보화의 개념을 언어를 컴퓨터로 처리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정의할 때 하위 분야는 크게 자연언어 외적인 것과 자연언어 내적인 것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연언어 외적인 정보화는 언어를 물리적으로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게 컴퓨터의 이진수 방식에 맞추어 자연언어의 소통 체계를 대응시키는 문자의 정보화이다. 자연언어 내적인 정보화는 정의된 데이터 형식이 없는 대표적인 비정형 데이터로서의 언어 자료가 가진 정보를 체계화하여 컴퓨터가 처리하기 쉬운 구조화된 형식으로 변환하는 언어 특성의 정보화이다. 언어 정보화의 기반 위에서 언어 지능 개발이라는 공학적 언어 처리가 가능해진다. 문자와 언어 특성의 정보화 결과는 모두 규모가 크고 범위가 넓을수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준수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한국어의 정보화 현황을 살펴보면 규모와 표준의 관점에서 모두 수준이 낮아 남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문자 정보화의 결과인 문자 코드와 글꼴의 면에서 보면 옛글자의 국제적 호환성이 떨어지고 한자의 표현 범위에 한계가 있으며 한글 글꼴이 컴퓨터에서 제한적

으로 표현된다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이다. 언어 특성의 정보화는 언어 처리의 자원으로써 활용할 만한 양질의 자료가 부족하고 범언어적 언어 처리가 가능한 체계의 적용이 미흡하여 기술적, 학술적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언어 자료의 정보를 구조화된 형식으로 체계화한다고 할 때의 자료를 언어학의 용어로 표현하면 ‘말뭉치’가 된다. 전통적인 국어정보학 개론서에서는 ‘언어를 연구하는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 재료로서, 언어의 본질적인 모습을 총체적으로 드러내 보여 줄 수 있는 자료의 집합’으로 정의하였으나 현대적 의미의 말뭉치라면 ‘기계가독형 자료(MRD: Machine Readable Data)’라는 특성이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¹⁾ 구조화된 형식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은 말뭉치의 문서 구성과 메타 정보를 표현하는 마크업과 말뭉치에 언어 정보를 체계적으로 부착하는 주석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말뭉치의 주석은 유의미성, 정확성,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말뭉치 주석의 유의미성은 주석이 부가하는 정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와 관련이 있다. 주석을 통해 말뭉치에 언어 정보를 부여하여 가시적인 언어 단위에 포함된 것 이상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주석 표지 체계가 자세하고 단계가 깊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추출할 수 있지만 주석자의 판단을 많이 요구하는 주석 체계를 상정할 시 주석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말뭉치 주석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대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량적으로는 재현율과 정확률의 두 가지 개념으로 측정할 수 있다.

한국어 말뭉치의 주석은 위에 언급한 주석의 세 가지 요소 중 유의미성의 면에서 가장 취약한데 지금까지 주로 어휘 단위에 집중하여 말뭉치를 구축해 왔기 때문이다. 21세기 세종계획을 통해 국가에서 구축한 형태 주석, 형태 의미 주석, 구문 주석의 3단계 주석 중 형태 주석, 형태 의미 주석은 어절 내부의 요소를 분할하여 주석 표지를 할당하며 사전의 기술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다.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말뭉치가 있으나 미공개된 것까지 구축분을 모두 합쳐도 영어 구문 분석 말뭉치의 20% 정도 규모에 불과하며 영어권에서 이를 기반으로 문장 단위의 의미 주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것을 고려하면 주석 단계의 면에서 유의미한 말뭉치 구축이 부족한 상태이다. 한국형 인공지능 엑소브레인 과제를 통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문장 단위에 대한 주석 말뭉치를 구축하여 공개했지만 한국어에 최적화된 주석 표지를 적용하였으며 의미역 수준의 주석에 그쳐 언어 지능 개발을 위해서는 고차원적인 한국어 문장 주석 방법론이 도입되어야

1) Luke Curtis Collins(2019)에서는 말뭉치의 개념을 ‘principled collection of machine-readable texts for the purposes of a specific set of research question related to natural language use’로 정의하였다.

하는 시점이다. 또한 기존에 한국어 말뭉치가 존재하는 주석 단위의 경우에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주석 체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 말뭉치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자원 풍부한 언어(Resource Rich Language)의 기술을 적용하거나 다른 언어와 함께 처리를 하기 위한 호환성이 중요하다. 소위 자원 빈약 언어(Low Resource Language/Resource Poor Language)의 언어 자원과 기술 발전을 위한 논의는 Anil Kumar Singh 외(2008), Long Duong 외(2015), Meng Fang & Trevor Cohn(2017) 등을 거치며 꾸준히 이어져 왔다. 유형론적으로 유사한 언어의 자원을 적용하거나 신경망 기반 처리의 기법을 공유하고, 이중언어사전 등의 다른 언어 자원을 활용하는 등의 접근 방법을 한국어 처리와 연구에서도 시도해 봄직하다. 이번 발표에서는 문장 단위의 구조와 의미 정보에 집중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주석 체계를 소개하고 한국어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2. 문장 단위 정보의 주석 체계

문장 단위와 관련해 구조와 의미 정보를 주석하는 방식은 단계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ㄱ. 문장의 통사 정보 주석
 - ㄴ. 문장의 의미역 정보 주석
 - ㄷ. 문장의 개념 정보 주석
 - ㄹ. 문장의 명제적 의미 주석

(1ㄱ)은 우리가 흔히 구문 분석 말뭉치라 칭하는 언어 자원의 주석 단계이다. 21세기 세종계획에서는 구구조 기반으로 구문을 분석하였으나 이후 언어 처리 분야에서는 구구조 기반의 자원을 의존 구조로 변환하거나 아예 새로 의존 관계가 주석된 구문 분석 말뭉치를 구축하여 자연 언어 처리에 활용해 왔다. (1ㄴ)~(1ㄹ)은 넓은 범위의 의미 주석이라 할 수 있다. Cunningham et al.(2011)에서는 의미 주석(semantic annotation)을 의미 분류에 초점을 맞추어 지식 접근이나 정보 수집 체계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텍스트의 분절에 메타 정보 주석이나 온톨로지 분류 정보를 부가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여 언어 지능을 훈련하기 위한 서술어 중심의 의미 구조 주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의미 주석을 의미 분류(semantic typing)과 의미 분석(semantic parsing)로 하위 분류할 때 (1ㄴ)~(1ㄹ)은 의미 분석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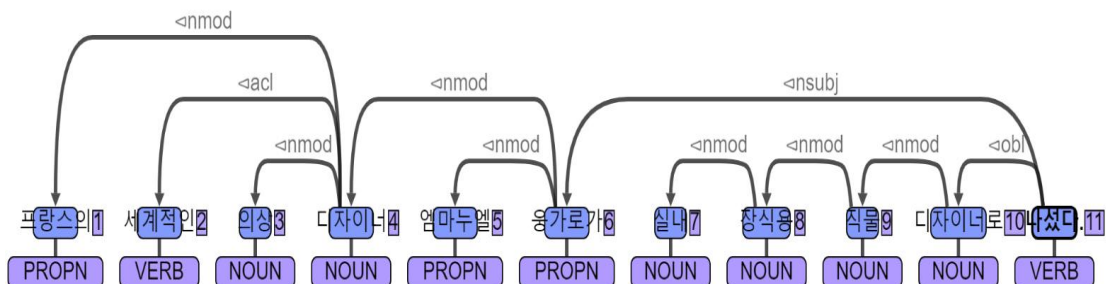
해당한다. 한편 (1ㄷ)은 단위가 문장이기는 하지만 주석 대상이 문장의 표면형이 아니기 때문에 주석의 결과가 추상적인 체계를 형성한다. 현재까지 문장 단위의 한국어 의미 주석 말뭉치를 구축하기 위한 구축 방법론이나 체계가 통일되어 정립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 및 업체에서 각각의 목적에 맞게 의미 주석 말뭉치를 구축하고 있다.

3. 국제 통용 문장 주석 체계와 한국어 적용

3.1. 보편 의존 구문 분석(UD: Universal Dependencies)

보편 의존 구문 분석 과제에서는 ‘CoNLL shared task’를 통해 전 세계의 여러 언어에 대한 다국어 트리뱅크(treebank) 말뭉치를 일관되게 주석하기 위한 프레임워크(architecture)를 제시하였고 현재 70개 이상의 언어에 적용되어 있다. 이 작업은 영어로부터 출발하였지만 인접 언어들뿐만 아니라 유형론적으로 상이한 여러 언어들 사이의 공통점 및 유사점과 차이점을 두루 아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개별 언어에 대한 구문 주석 표지와 관련한 연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한국어 구문 분석 말뭉치도 여러 종류 공개되어 있지만 주석 표지의 표준화 및 말뭉치 질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개된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자동 보편 의존 구문 분석 도구의 성능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보편 의존 구문 분석의 결과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보편 형태 주석 표지가 부착된 문장 구성 요소 간의 일대일의 의존 관계를 유향 그래프로 표상할 수 있다.

〈그림 1〉 보편 의존 구문 분석 예시



보편 의존 구문 분석의 주석 체계는 다양한 유형의 언어에 두루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어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되었다. 최신 버전(v2.2)의 보편 의존 구문 분석 표지 체계를 한국어

번역어와 함께 제시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보편 의존 관계 주석 체계

	Nominals(명사류)	Clauses(절)	Modifier words(수식어)	Function words(기능어)
Core arguments(핵심논항)	nsubj(주어) obj(목적어) iobj(간접목적어)	csubj(주어절) ccomp(보문) xcomp(개방보문)		
Non-core dependents(비핵심논항)	obl(사격어) vocative(호격) expl(허사) dislocated(전위)	advcl(부사절)	advmod(부사어) discourse(담화표지)	aux(조동사) cop(계사) mark(절접속표지)
Nominal dependents(명사류 의존소)	nmod(명사관형어) appos(동격어) nummod(수관형어)	acl(관형절)	amod(관형어)	det(한정사) clf(분류사) case(격표지)
Coordination(접속)	MWE (Multi word expression)(다단어 표현)	Loose(나열)	Special(특수 관계)	Other(기타)
conj(접속 성분) cc(접속어)	fixed(관용구) flat(명사구) compound(합성어구)	list(목록) parataxis (무표지접속)	orphan(생략) goeswith(분할어절) reparandum(발화수정)	punct(구두점) root(최상위 지배소) dep(주석불가)

<표 1>의 체계에 따라 보편 의존 구문 분석 주석 체계를 개별 언어에 적용하려고 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해당 언어의 특정 형식이 지닌 특성과, 보편 의존 구문 분석 주석의 정의적 속성 간 대응 과정이 수반된다. 한국어 문장의 성분들을 개별 주석에 대응시키는 데 있어서 잘 대응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 논리적으로 (2)와 같은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 (2) 가. 특정 주석의 정의적 속성이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아서 적용 과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한국어의 특성과 어느 정도 겹치지만 그 정의를 일부 확대·축소하거나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주석이 따로 없어서 새로 추가해야 하는 경우

(2)의 각 유형은 해결 방식을 중심으로 ‘주석 제외’, ‘주석 수정’, ‘주석 추가’와 같이 간략히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우선 이 중에서 (2다)에 해당하는 ‘주석 추가’ 유형은 범언어적 적용 가능성을 표방하는 보편 의존 구문 분석의 기본 철

학에 위배되는 것이다. 보편 의존 구문 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언어에 존재할 수 있는 의존 관계 표지들을 목록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각 언어들에 대해 주석 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한국어에만 해당하는 표지가 없다고 해서 독자적으로 추가하면 다른 언어들과의 호환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주석을 추가하는 가능성은 배제하기로 한다. 한편 (2나)의 ‘주석 수정’ 유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는 보편 의존 구문 분석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석의 정의를 한국어의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한 후 이에 걸맞은 한국어 형식 범주들에 대해 해당 표지를 부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이드라인에서의 정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어 자료들의 범주를 판단하여 각각 적합한 표지를 부여하는 것이다.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으로 인하여 보편 의존 구문 분석 표지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예로 iobj가 있다. iobj는 간접목적어 표지로, ‘She gave me a raise.’와 같이 두 개의 목적어 논항이 구조상의 배열에 의해 구분되는 영어 및 이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 언어에는 제 역할을 다하는 표지이다. 한국어에서는 ‘주다’와 같은 수여동사 구문에서 동사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에게/에’ 등으로 실현되는 수령자(recipient) 논항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문법관계는 대부분의 경우 어순이 아니라 격표지에 의해 구분되므로 수령자 성분을 다른 성분들과 구문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한국어에서 모든 수령자 성분이 ‘에게, 에, 한테’로 표시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에게, 에, 한테’가 결합한 성분이 모두 수령자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의존 관계 구문 주석에서 어떤 표지를 적용했을 때에는 그에 따른 효용성과 이점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어에서 iobj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는 성분들은 다른 성분들과 다른 지위를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오히려 부사어들을 한꺼번에 다루지 못하게 되는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iobj를 채택하지 않고 부사격조사에 대해 일률적으로 obl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obj와 같이 한국어에서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표지는 다음 (3)과 같다.

(3) 보편 의존 구문 분석 표지 중 한국어 적용 제외 대상

iobj (간접목적어), xcomp (개방보문), expl (허사), cop (계사)
mark (절접속표지), dislocated(전위), clf (분류사), case (격표지)

cop(계사), mark(절접속표지), case(격표지) 등을 제외하는 것은 한국어에 계사, 절접속표지, 격표지에 해당하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절 내부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어 텍스트에서 표기 오류로 인해 분리될 수 있는 요소는 이 세 가지를 포함하여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표기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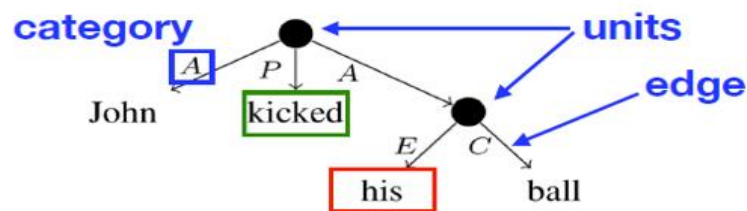
문제로 분리된 어절의 파편은 ‘goeswith’ 표지를 활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부류의 표지의 처리를 포함하여 한국어 UD 말뭉치의 구문 분석 기본 단위 설정에 대해 향후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3.2. 보편 개념 인지 주석(UCCA: Universal Conceptual Cognitive Annotation)

보편 개념 인지 주석은 문장의 구문 구조에 기반하여 문장의 개념을 주석하는 의미 주석 방식이다. 학습에 필요한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주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석의 범주 유형을 인지적으로 구상하였으며 개방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다층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보편 개념 인지 주석은 특정 구조, 특정 도메인, 특정 언어에 얽매이지 않는 포괄적 체계를 지향하는 것을 장점으로 표방하고 있다.

보편 개념 인지 주석은 구체적인 문장의 표면형을 대상으로 하여 아래와 그림 2와 같이 문장 구성 요소를 단위로 하는 유형 비순환 그래프로 표상한다.

〈그림 2〉 보편 개념 인지 주석의 예시



약자로 제시된 범주의 체계는 시간, 장소 등의 정보를 동반할 수 있는 행동 또는 상태로서의 장면(Scenes)을 이루는 단위이다. 각 단위들은 크게 장면(Scenes), 비장면 단위(Non-scene Units)와 장면 간 관계(Inter-Scene relations)로 나눌 수 있다.

장면(Scene categories)		
P	Process	진행
S	State	상태
A	Participant	참여자
D	Adverbial	부가 표현
T	Time	시간

〈장면 단위〉

각 장면은 장면의 유형을 결정하는 하나의 주 관계를 가진다. 만약 장면이 시

간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면 진행(P), 시간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것이라면 상태(S)가 할당된다.

각 장면은 임의의 수의 참여자(A)와 시간(T), 부가 표현(D)을 가질 수 있다.

비장면 단위(Non-scene Units)		
C	Center	중심
E	Elaborator	상술 표현
N	Connectors	연결어
Q	Quantifier	양화사

〈비장면 단위〉

장면이 아닌 단위들도 더 세부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데, 이를 비장면 단위라고 한다. 비장면 단위 내에서 다른 단위의 수식을 받는 단위를 중심(C)이라고 한다. 비장면 단위들은 무조건 한 개 이상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중심에 다른 정보를 더하거나 수식해주는 단위를 상술 표현(E)이라고 하며, 둘 이상의 단위를 연결시켜주는 단위는 연결어(N),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는 양화사(Q)라고 한다.

장면 간 관계(Inter-Scene relations)		
E-Scene	Elaborator Scene	상술 장면
A-Scene	Participant Scene	참여 장면
C-Scene	Center Scene	중심 장면
H-Scene	Parallel Scene	병렬 장면
L	Linker	연계어
G	Ground	배경

〈장면 간 관계〉

하나의 장면은 다른 단위의 하위 성분이 될 수도 있다. 상술 장면(E-Scene)은 비장면 단위인 중심(C)을 수식하게 된다. 참여 장면(A-Scene)은 상위 장면의 참여자가 된다. 중심 장면(C-Scene)은 단위가 장면을 일으키지만 장면이 포함된 구 자체는 장면으로 분석될 수 없는 특정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장면 간 관계를 만족하는 장면 중 상술 장면, 참여 장면, 중심 장면이 아닌 장면은 곧 병렬 장면(H-Scene)이다. 병렬 장면은 연계어(L)를 가질 수도 있으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배경(G)은 어떤 발화 사건(장면)을 외부에서 판단하는, 다른 장면과 직

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단위에 할당된다.

기타(Others)		
R	Relator	관계어
F	Function	기능어
UNA	Unanalysable	주석불가

〈기타 단위〉

그 외 단위로는 관계어(R), 기능어(F)가 있다. 관계어와 기능어는 장면과 비장면 단위의 하위 요소로 모두 나타날 수 있다. 관계어는 여러 개의 성분들을 이어주는 것인데, 병렬 장면을 이어주는 연계어(L)나 비슷한 유형이나 역할을 가진 중심을 이어주는 연결어(N)을 제외한 다른 성분들을 말한다. 기능어는 다른 관계나 참여자를 도입하지 않으며, 더 큰 단위의 일부로서만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다. 또는 시제나 초점과 같이 UCCA의 주석 체계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의미들을 나타내기도 한다. 주석불가(UNA)는 UCCA 주석 체계에 따라서 주석할 수 없는 단위에 할당된다.

보편 개념 인지 주석 말뭉치는 영어(17만 문장), 독일어(2만 문장), 프랑스어(2만 문장)로 구축되어 있다. 언어 독립적인 보편성을 추구하는 체계이지만 기구축된 같은 유형의 언어에 대한 주석과 달리 한국어에 이 체계를 적용하려면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한국어는 분석의 단위를 형태소, 어절의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으며 둘 중 무엇을 분석 단위로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분석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주석 체계가 비교적 형태 분석과는 연관성이 떨어지고, 형태소를 단위로 설정할 경우 문장의 표면형을 그대로 살리지 못하고 별도의 층위를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절을 주석 단위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어절을 기본 단위로 삼을 경우 지정사의 처리가 문제가 된다. 영어의 be 동사는 체언이 아닌 형용사와도 함께 나타나며, 보편 개념 인지 주석 체계에서는 체언과 함께하는 be 동사는 상태(S)로, 형용사와 함께하는 be 동사는 기능어(F)로 달리 분석된다. 한국어의 지정사는 체언과만 결합하여 문장 내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며 한국어의 주석 단위로 어절이 적절하기 때문에 체언과 지정사의 결합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여 상태(S)로 주석해야 한다. 보편 개념 인지 주석 체계는 문장의 표면형을 대상으로 하고 주석 표지의 개수가 적어 한국어에도 무난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어절 경계를 넘어서는 우연적 구성의 처리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한국어 적용 지침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3.3. 추상 의미 표현(추상 의미 표현: Abstract Meaning Represen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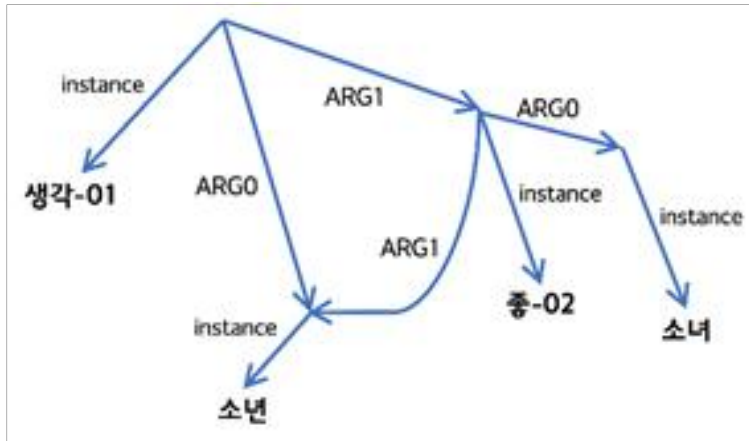
2013년에 추상 의미 표현이 처음으로 발표된 이후 관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어 추상 의미 표현 말뭉치는 LDC에 39,260 문장 구축되어 있고 중국어, 브라질포르투갈어, 베트남어 등의 자원이 소규모로 구축되어 있으며 스페인어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어 추상 의미 표현 말뭉치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프랍뱅크의 동사 프레임셋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례들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 프레임과 개체 타입을 추가하거나 단일 문장 단위 주석을 넘어서는 다중 문장 추상 의미 표현(MS-AMR) 주석 지침이 추가되는 등 세부적인 주석 지침이 계속해서 개정되어 왔다. 또한 시제와 상을 누락시키고 보편 양화사와 작용역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는 등의 한계를 극복하여 더 나은 의미 표상 체계를 개발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추상 의미 표현은 문장 단위의 의미 표상(Meaning representation) 프레임워크로 단일 또는 여러 문장의 논리적 의미를 그래프 구조로 표상한다. 추상 의미 표현 그래프는 단일 루트를 기준으로 하위에 여러 개념들을 포괄하는 유향 비순환 그래프(DAG)로 산출되는데 이때 루트는 표상의 초점으로 기능한다. 일단 초점이 정해지면 다른 개념들은 의미론적 관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합된다.

추상 의미 표현은 문법적 특질을 드러내기보다는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표상을 하는 체계이다. 추상 의미 표현 그래프 내에서 노드로 놓이는 각각의 개념들은 명사나 동사로 취급되기보다 사건(event)이나 개체(entity)로 취급된다. 때문에 추상 의미 표현에 나타난 개념들과 자연어 문장에서 나타난 어휘는 서로 엄밀하게 정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상 의미 표현은 아래와 같이 논리적 표현, 추상 의미 표현, 그래프 표현의 세 가지의 형식으로 표상이 가능하다.

```
(생 / 생각-01
  :ARG0 (소 / 소년)
  :ARG1 (좋 / 좋-02
    :ARG0 (소2 / 소녀)
    :ARG1 소))
```

```
∃ 생, 소, 좋, 소2:
instance(생, 생각-01) ^ instance(소, 소년) ^ instance(좋, 좋-02) ^
instance(소2, 소녀) ^ arg0(생, 소) ^ arg1(생, 좋) ^ arg0(좋, 소2) ^
arg1(좋, 소)
```



한국어 문장 “소년은 소녀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한다.”의 추상 의미 표현에서 “생”은 “생각-01(think)”의 인스턴스(instance)이며, “소(소녀)”, “소2(소녀)”, “좋(좋-02; like)” 등과 함께 그래프의 노드들을 구성한다. 이때 “소(소녀)”는 사건 “생(생각-01)”뿐만 아니라 “좋(좋-02)”의 프레임 논항(frame argument)으로도 쓰였는데, 추상 의미 표현에서는 인스턴스의 재진입(reentrancy)을 표상하기 위해 단순히 “:ARG1 소”와 같이 표기한다. 즉, “소”는 다른 위치에서 변항(variable)으로 기능한다. 추상 의미 표현은 문장의 통사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명제적 의미에 대한 표상이다. 따라서 “소년은 ‘소녀가 나를 좋아하네’라고 생각했다.”와 같이 문장의 구조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표상할 수 있다. 추상 의미 표현에서는 명제적 의미가 동일한 문장들은 하나의 추상 의미 표현으로 표상될 수 있으며, 비가역적인 표상 체계인 만큼 어떤 하나의 추상 의미 표현로부터 유일한 자연어 문장을 결정할 수 없다. 비록 추상 의미 표현이 개별 언어의 문법적 특성보다는 추상적인 의미에 더 가까운 표상을 지향하지만 유사한 뜻을 나타낸다고 간주되는 여러 문장들이 단 하나의 추상 의미 표현으로 완벽히 표상될 수는 없다. 자연어 문장의 의미는 그 언어 고유의 어휘, 품사 범주, 어순 등의 여러 형태-통사적 특질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상 의미 표현이 언어 표현의 표층보다는 기저의 의미에 집중하는 만큼 서로 다른 언어 의미 그래프 간의 정렬은 비교적 수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이 다언어 연구 시에 추상 의미 표현이 선호되는 이유이다.

추상 의미 표현은 프랍뱅크의 프레임셋과 일반 어휘들을 활용하여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둘 이상의 개념 또는 논항 노드들의 사이를 잇는 간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역할이다. 추상 의미 표현에서는 숫자가 매겨진 필수역과 수의역 등 일반적인 의미역을 비롯하여 부정, 접속, 명령, 소유, 양보, 수량, 시간 등 다양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약 100여 개의 역할들을 폭넓게 활용

한다. :ARGx 관계는 각 용언의 격틀에 의해 결정되는 상대역이다. 역관계는 복문에서 관계관형절을 표상할 때 주로 사용된다. AMR에서 $x : \text{relation } y$ 의 관계로 이루어진 트리플은 $y : \text{relation-of } x$ 의 관계로 치환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표상의 초점이 달라도 의미는 동일한 여러 개의 추상 의미 표현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다.

추상 의미 표현은 프랍뱅크 계열 자원에 강하게 의존하므로 사건 또는 개념의 필수 논항을 주석할 때에는 한국어에서는 일단 코리안 프랍뱅크의 프레임틀을 기준으로 주석해야 하는데 기존 영어 추상 의미 표현에서 제시한 기준들만으로는 한국어를 직접 처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정사 ‘이다’와 부정 형용사 ‘아니다’의 처리, 한국어의 특징적인 현상 중 하나인 격중출 구문의 처리 방침 등 한국어 상황에 맞는 주석 지침이 필요하다. 한국어 AMR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Korean Propbank의 프레임셋에 대한 확장이 필요하다. 현재 표제항 기준 2,749개의 용언 프레임은 규모나 다양성면에서 부족함이 있기에 한국어 용언에 최적화된 프레임셋의 대대적인 보완이 선결 과제라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Anil Kumar Singh 외(2008), Estimating the Resource Adaption Cost from a Resource Rich Language to a Similar Resource Poor Language, LREC 2008
- Banarescu, L., Bonial, C., Cai, S., Georgescu, M., Griffitt, K., Hermjakob, U., Knight, K., Koehn, P., Palmer, M., Schnetder, N., “Abstract Meaning Representation (AMR) 1.2.6 Specification”, 2019.
- Choe, Hyonsu, et al., “Copula and Case-Stacking Annotations for Korean AMR”, Proceedings of the First International Workshop on Designing Meaning Representations. pp. 128-135, 2019.
- Long Duong 외(2015), Low Resource Dependency Parsing: Cross-lingual Parameter Sharing in a Neural Network Parser, ACL 2015
- Meng Fang & Trevor Cohn(2017), Model Transfer for Tagging Low-resource Languages using a Bilingual Dictionary, ACL 2017
- Omri Abend and Ari Rappapor, “Universal conceptual cognitive annotation (ucca)”, Proceedings of the 51st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2013.
- Omri Abend and Ari Rappoport, “UCCA’s Foundational Layer: Annotation

Guidelines v2”, 2018.

Pustejovsky, James; Lai, Ken; Xue, Nianwen. “Modeling Quantification and Scope in Abstract Meaning Representations”, Proceedings of the First International Workshop on Designing Meaning Representations. pp. 28-33. 2019.

Roger Garside 외(1997), Corpus Annotation, Longman.

박혜진·오태환·김한샘(2018), “Universal Dependency를 위한 한국어 형태 주석 체계 연구”, 『언어와 정보』22-3, 한국언어정보학회, 67-89.

서셋별·김명주·성연숙·유성희(2019), “한국어 보편 의존 관계 분석에 관한 제언”, 『언어와 정보』23-1, 한국언어정보학회, 91-122.

이찬영·오태환·김한샘(2019), 한국어 보편 의존 구문 분석(Universal Dependencies) 방법론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47, 141-175.

임수종 외(2015), ExoBrain을 위한 한국어 의미역 가이드라인 및 말뭉치 구축, 제27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50-254,

제4부 연구 발표

한국어 어휘 연구와 코퍼스/ 최운호

사회언어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의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조태린

국어 어휘 연구의 주요 대상과 어휘 범주의 체계화/ 박동근

573돌 한글날·한글학회 창립 111돌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2019년 10월 11일 (금) 09:50 ~ 16:40

한글회관 열말글교육관

□ 제4부: 연구 발표

한국어 어휘 연구와 코퍼스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최운호

2019/10/11

1. 연구의 목적

- 동사 어휘의 형태 빈도, 그리고 어휘의 상적 의미 분류
 - 거리(distance) 척도에 의한 분석
 - 범주 분류(categorical classification)와 정도성(gradient)
 - 형태 사용 빈도의 창으로 들여다보는 문법적 의미의 사용 양상

2. 선행 연구와 분석

- 용언 사용의 양상, 거리 측정 함수
 - 최운호(2015), "한국어 '용언 어간 + 어미' 결합의 양상-용언별 결합 어미 분포의 집중화 경향에 대하여-", 언어학 71: 17-47,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 김태우(2015), "활용 어간과 어미의 어휘 표상", 형태론 17(2): 233-263, 형태론.
 - 최운호(2010), "레벤시타인 거리를 이용한 방언거리의 계산과 몽골어의 분석", 알타이학보 20: 127-160, 한국알타이학회.
 - 김윤신(2006), "한국어 동사의 사건구조와 어휘상(語彙相)", 한국어학 30: 31-61, 한국어학회.
 - 박진호(2003), "한국어의 동사와 문법요소의 결합양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목정수(2000), "선어말어미의 문법적 지위 정립을 위한 형태 통사적 고찰: {있}, {겟}, {더}를 중심으로, 언어학 26: 137-165,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질문

- 다음 동사와 보조 용언 구성의 결합 관계를 생각해 보자.

존재하다
가져가다
일어서다
결정하다

늘어붙다
둘러싸이다
운집(雲集)하다

끊기다
망하다
소멸하다

-고 있다

-어 있다

-어 버리다

-어 가다

3. 빈도, 그리고 정규화

• 빈도의 정규화

$$x_{norm} = \frac{x - x_{min}}{x_{max} - x_{min}}$$

$$0 \leq x_{norm} \leq 1$$

Entry	Frequency				xMax	xMin
	고_있	어_있	어_버리	어_가		
존재/NNG#하/XSV	74	2	0	0	74	0
가져가/VV	7	0	6	0	7	0
일어서/VV	6	0	5	0	6	0
결정_01/NNG#하/XSV	9	0	7	0	9	0
늘어볼/VV	0	7	0	0	7	0
둘러싸이/VV	0	44	0	0	44	0
윤집/NNG#하/XSV	0	5	0	0	5	0
끊기/VV	0	1	4	0	4	0
망하/VV	0	0	6	4	6	0
소멸_01/NNG#하/XSV	0	0	8	2	8	0

Normalized Score					
고_있	어_있	어_버리	어_가		
존재/NNG#하/XSV	1	0.027027	0	0	1
가져가/VV	1	0	0.857143	0	1
일어서/VV	1	0	0.833333	0	1
결정_01/NNG#하/XSV	1	0	0.777778	0	1
늘어볼/VV	0	1	0	0	1
둘러싸이/VV	0	1	0	0	1
윤집/NNG#하/XSV	0	1	0	0	1
끊기/VV	0	0.25	1	0	1
망하/VV	0	0	1	0.666667	1
소멸_01/NNG#하/XSV	0	0	1	0.25	1

573돌 한글날·한글학회 창립 111돌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5

3. 빈도, 그리고 정규화

2,207개의 고빈도 동사 어휘

	고_가	어_있	어_버리	어_가
둔갑/NNG#하/XSV				0
건너가/VV			0.5	0
뒤바뀌/VV			0.5	0
돌아서/VV			0.4	0
대치_04/NNG#되/XSV			0	
체계_03/NNG#화/XSN#되/XSV			0	0.5
직면/NNG#하/XSV			0	0.0416667

	고_가	어_있	어_버리	어_가
직면/NNG#하/XSV			0	0.0416667
굴주리/VV			0	0
예고_01/NNG#되/XSV			0	0
재현_02/NNG#되/XSV			0	0
정의_05/NNG#되/XSV			0	0
주차_04/NNG#하/XSV			0	0
채택/NNG#되/XSV			0	0
올라오/VV			0	0

573돌 한글날·한글학회 창립 111돌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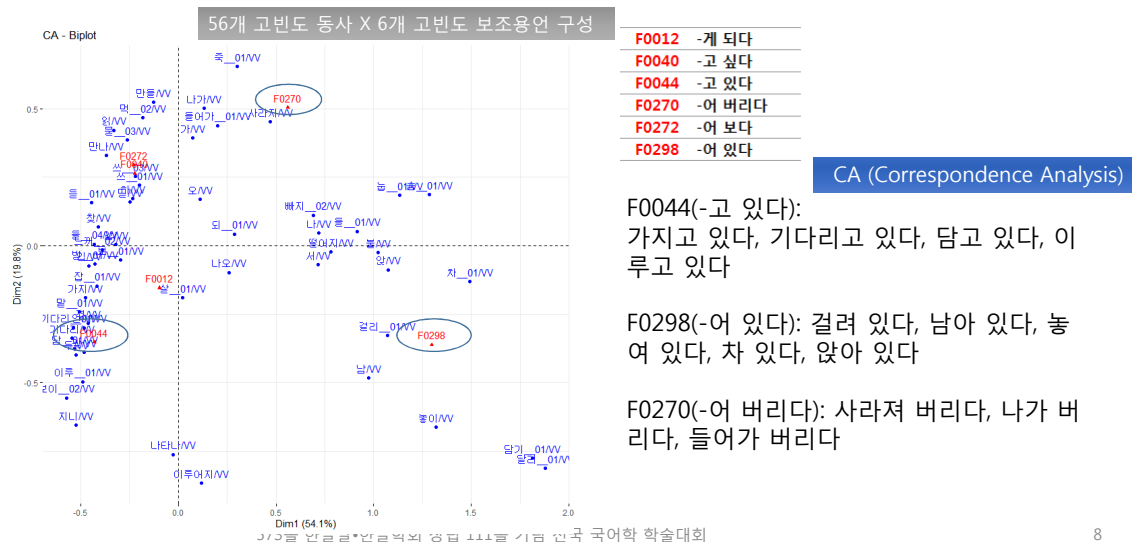
3. 빈도, 그리고 정규화



573돌 한글날·한글학회 창립 111돌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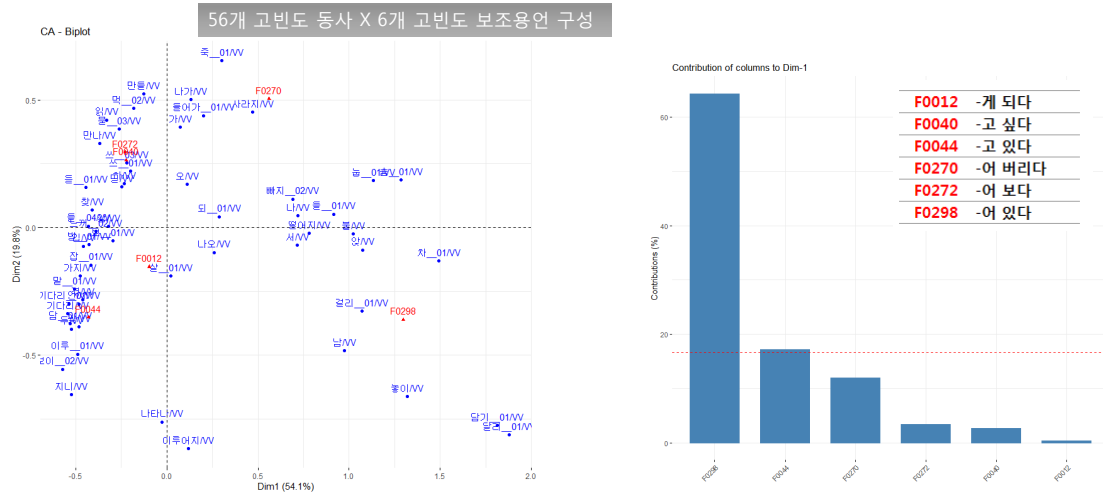
4. 동사 분류의 요인(대응 분석)



573돌 한글날·한글학회 창립 111돌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8

4. 동사 분류의 요인(대응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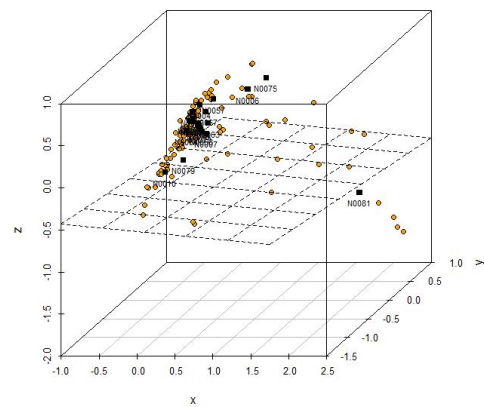
573돌 한글날·한글학회 창립 111돌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9

4. 동사 분류의 요인(대응 분석)

20개 보조용언 구성 x 105개 고빈도 동사

	기여율					
	Dim1	Dim2	Dim3	Dim4	Dim5	SUM
N0004 -고 나다	0.211917	1.277354	6.283661	2.187193	0.003103	9.963228
N0006 -고 말다	6.079497	0.243397	8.588061	1.893065	0.334229	17.13825
N0007 -고 보다	0.277328	0.528957	0.067466	1.664093	0.916267	3.454111
N0008 -고 싶다	0.024817	2.740226	3.515778	8.66786	1.228138	16.17682
N0010 -고 있다	2.093722	46.61261	11.41348	3.589747	4.29553	68.0051
N0046 -다 보다	0.054664	0.446343	0.369155	2.063207	0.050875	2.984244
N0057 -어 가다	0.257783	0.986994	5.907652	35.21665	2.678885	45.04796
N0058 -어 가지다	0.099	0.877488	0.204227	0.237734	0.576035	1.994484
N0063 -어 나가다	0.033053	1.594346	0.028704	10.6122	0.072329	12.34063
N0064 -어 내다	1.488246	2.168409	0.481837	6.715913	1.578139	12.43254
N0065 -어 놀다	4.471607	15.86579	0.105881	1.89453	26.5046	48.84242
N0066 -어 달다	0.613751	2.781482	0.074153	1.736817	4.835922	10.04212
N0067 -어 대다	0.047196	0.010008	0.679599	0.087146	0.2214	1.04535
N0069 -어 두다	1.368331	3.793315	0.12921	0.293555	11.51933	17.10374
N0070 -드러다	0.207	1.29257	0.20147	0.629577	3.756978	6.087596
N0075 -어 버리다	16.83322	0.034394	20.33082	0.82993	0.002471	38.03084
N0076 -어 보다	0.19574	0.265083	3.625334	13.16011	4.242644	21.48891
N0079 -어 오다	1.651301	0.00426	9.097053	1.211481	29.18947	41.15356
N0081 -어 있다	57.41362	4.250739	28.66509	0.94253	0.647601	91.9196
N0085 -어 주다	6.578207	14.22623	0.231367	6.366667	7.346049	34.74852



573돌 한글날·한글학회 창립 111돌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10

5. 동사와 보조용언 공기 빈도

- 고빈도 동사 2,207개
- 보조용언 구성: -고 있다, -어 있다, -어 버리다, -어 가다
 - 김윤신(2006) 참조.
- '고빈도 동사 x 보조용언 구성' 공기 빈도의 표준화
 - 표준화(z-score)

$$z = \frac{x - m}{\sigma} \quad (m: \text{평균}, \sigma: \text{표준편차})$$

5. 동사와 보조용언 공기 빈도

SERIAL	WORD	z_고_있	z_어_있	z_Diff	abs(z_Diff)
2110	해체_03/NNG#되/XSV	1.40556	-1.40556	2.81112	2.81112
865	바치_01/VV	1.26025	-1.54031	2.80056	2.80056
1517	이탈/NNG#하/XSV	1.38675	1.38675	2.7735	2.7735
728	만들/VV	1.35501	-1.41164	2.76665	2.76665
704	뛰어넘/VV	1.60591	-1.14708	2.75299	2.75299
1993	태우_02/VV	1.60591	-1.14708	2.75299	2.75299
1498	이기_01/VV	1.14708	-1.60591	2.75299	2.75299
1866	찍_02/VV	1.55342	-1.1806	2.73402	2.73402
2021	파_01/VV	1.55342	-1.1806	2.73402	2.73402
440	널/VV	1.62196	-1.10977	2.73173	2.73173
315	꺼내/VV	1.64345	-1.06341	2.70686	2.70686
1864	찌르/VV	1.64345	-1.06341	2.70686	2.70686
740	망각_02/NNG#하/XSV	1.4501	-1.25676	2.70686	2.70686
1986	다락_02/NNG#하/XSV	1.18322	-1.52128	2.7045	2.7045
901	밟/VV	1.56147	-1.14293	2.7044	2.7044
1989	탈바꿈/NNG#하/XSV	1.34164	-1.34164	2.68328	2.68328
2013	튀/VV	1.34164	-1.34164	2.68328	2.68328
247	굽하/VV	1.66667	-1	2.66667	2.66667
1679	정리_09/NNG#하/XSV	1.66514	-0.999083	2.664223	2.664223

min(-어_있)	-1.71317	min(-고_있)	-1.72609
max(-어_있)	1.73205	max(-고_있)	1.73205

5. 동사와 보조용언 공기 빈도

SERIAL	WORD	z_고_있	z_어_있	z_Diff	abs(z_Diff)	SERIAL	WORD	z_고_있	z_어_있	z_Diff	abs(z_Diff)
1230	스치_01/VV	-0.546109	-0.612707	0.066598	0.066598	2197	흘러들/VV	-0.57735	-0.57735	0	0
1358	없애/VV	-0.544679	-0.609716	0.065037	0.065037	2126	형_02/VV	-0.646997	-0.646997	0	0
1869	빚/VV	-0.555976	-0.619516	0.06354	0.06354	617	땀지/VV	-0.703526	-0.703526	0	0
1575	사르_01/VV	-0.612531	-0.668215	0.055684	0.055684	381	날/VV	-0.727607	-0.727607	0	0
1807	지우_01/VV	-0.629871	-0.671174	0.041303	0.041303	11	가로채/VV	-0.762493	-0.762493	0	0
244	굴주리/VV	1	1	0	0	216	구기/VV	-0.762493	-0.762493	0	0
1398	예고_01/NNG#되/XSV	1	1	0	0	721	마모_02/NNG#되/XSV	-0.762493	-0.762493	0	0
1626	재현_02/NNG#되/XSV	1	1	0	0	1182	소멸_01/NNG#하/XSV	-0.762493	-0.762493	0	0
1683	정의_05/NNG#되/XSV	1	1	0	0	1981	크_01/VV	-0.762493	-0.762493	0	0
1747	주차_04/NNG#하/XSV	1	1	0	0	1985	타_04/VV	-0.762493	-0.762493	0	0
1896	채택/NNG#되/XSV	1	1	0	0	2199	흡수_02/NNG#되/XSV	-0.816497	-0.816497	0	0
1821	직면/NNG#하/XSV	0.999548	0.999548	0	0	1227	스러지/VV	-0.830812	-0.830812	0	0
581	돌아서/VV	0.942809	0.942809	0	0	477	늪/VV	-0.834622	-0.834622	0	0
102	관너지/VV	0.904534	0.904534	0	0	352	관나/VV	-0.885627	-0.885627	0	0
622	뒤바뀌/VV	0.904534	0.904534	0	0	737	말살/NNG#하/XSV	-0.962225	-0.962225	0	0
1913	체게_03/NNG#하/XSN#되/X	0.904534	0.904534	0	0	745	망하/VV	-0.962225	-0.962225	0	0
542	대지_04/NNG#되/XSV	0.57735	0.57735	0	0	783	멸망/NNG#하/XSV	-0.962225	-0.962225	0	0
609	둔갑/NNG#하/XSV	0.57735	0.57735	0	0	552	덜_01/VV	-1	-1	0	0

573돌 한글날·한글학회 창립 111돌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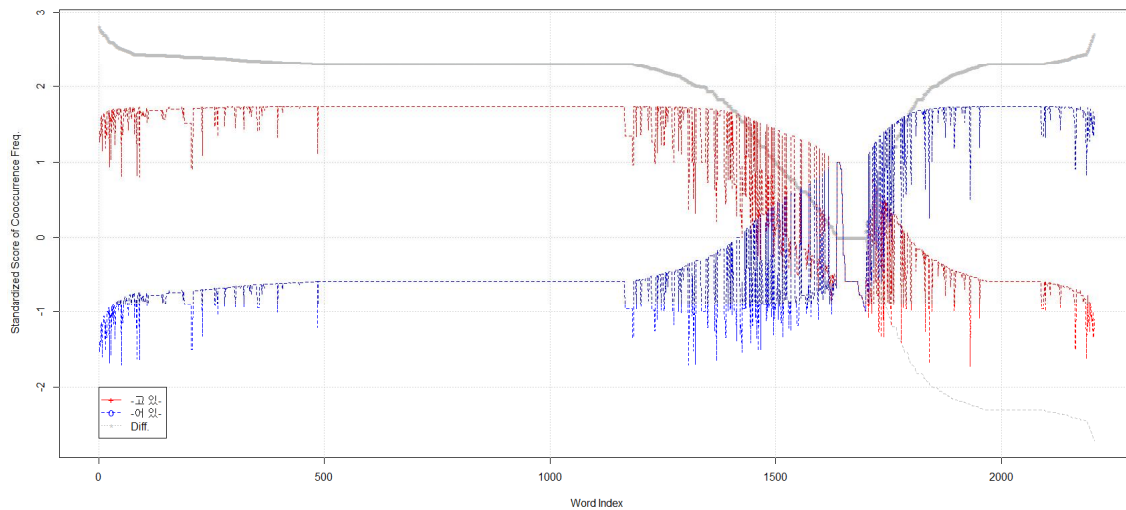
5. 동사와 보조용언 공기 빈도

SERIAL	WORD	z_고_있	z_어_있	z_Diff	abs(z_Diff)
1953	취직/NNG#하/XSV	-0.762493	1.67748	-2.439973	2.439973
214	구거지/VV	-0.855186	1.5882	-2.443386	2.443386
1470	유리_11/NNG#되/XSV	-0.855186	1.5882	-2.443386	2.443386
1025	분화_01/NNG#되/XSV	-0.786334	1.66004	-2.446374	2.446374
640	드러눅/VV	-0.791797	1.65558	-2.447377	2.447377
496	단절_05/NNG#되/XSV	-0.816497	1.63299	-2.449487	2.449487
1848	젓눌리/VV	-0.816497	1.63299	-2.449487	2.449487
322	포이_02/VV	-1.63299	0.816497	-2.449487	2.449487
515	달/VV	-1.63299	0.816497	-2.449487	2.449487
828	문하_02/VV	-1.04538	1.42002	-2.4654	2.4654
2131	해어지/VV	-0.76277	1.71623	-2.479	2.479
1350	얼_01/VV	-1.2052	1.28832	-2.49352	2.49352
438	넘어지/VV	-1.09322	1.40556	-2.49878	2.49878
1073	빠지_01/VV	-0.997241	1.52211	-2.519351	2.519351
1615	잡하_02/VV	-0.852666	1.67211	-2.524776	2.524776
239	군/VV	-1.27136	1.27136	-2.54272	2.54272
1956	취하_03/VV	-0.873642	1.69875	-2.572392	2.572392
591	되/VV	-0.904534	1.67985	-2.584384	2.584384
1427	왜곡/NNG#되/XSV	-0.973329	1.62221	-2.595539	2.595539
1283	쓰러지/VV	-1.12954	1.49588	-2.62542	2.62542
1833	질리_01/VV	-1.0402	1.59214	-2.63234	2.63234
1813	지지_01/VV	-1.24735	1.3875	-2.63485	2.63485
763	매몰/NNG#되/XSV	-1	1.66667	-2.66667	2.66667
1971	침잠/NNG#하/XSV	-1.34164	1.34164	-2.68328	2.68328
2098	함몰_02/NNG#되/XSV	-1.34164	1.34164	-2.68328	2.68328
160	고립_01/NNG#되/XSV	-1.10265	1.61156	-2.71421	2.71421

573돌 한글날·한글학회 창립 111돌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14

5. 동사와 보조용언 공기 빈도



5. 동사와 보조용언 공기 빈도

- '-고 있다, -어 있다, -어 버리다, -어 가다' 공기의 상관 관계
 - 모든 용언의 공기 빈도에 대한 상관 관계(표준화 점수 기준)
 - 2) '-고 있다', '-어 있다'의 결합 차이가 '≥ 2'인 경우

5. 동사와 보조용언 공기 빈도

2,207개 동사의 공기 빈도 상관관계수

	z_고_있	z_어_있	z_어_버리	z_어_가
z_고_있	1			
z_어_있	-0.6841	1		
z_어_버리	-0.3005	-0.2027	1	
z_어_가	-0.2713	-0.2609	-0.1495	1

1,704개 동사의 공기 빈도 상관관계수 (diff >= 2)

	zEP_P	zETM_PR	zETM_PA	zETM_FT	z_어_버리	z_어_가	z_고_있	z_어_있
zEP_P	1							
zETM_PR	-0.1688	1						
zETM_PA	-0.1371	-0.4523	1					
zETM_FT	-0.1891	0.0532	-0.2757	1				
z_어_버리	0.0034	-0.0926	-0.0035	-0.0536	1			
z_어_가	-0.0708	-0.0223	-0.0611	0.0203	-0.3830	1		
z_고_있	0.1714	0.3811	-0.6310	0.1990	-0.1420	0.0099	1	
z_어_있	-0.1474	-0.3381	0.6389	-0.1847	-0.0557	-0.1970	-0.9398	1

573돌 한글날·한글학회 창립 111돌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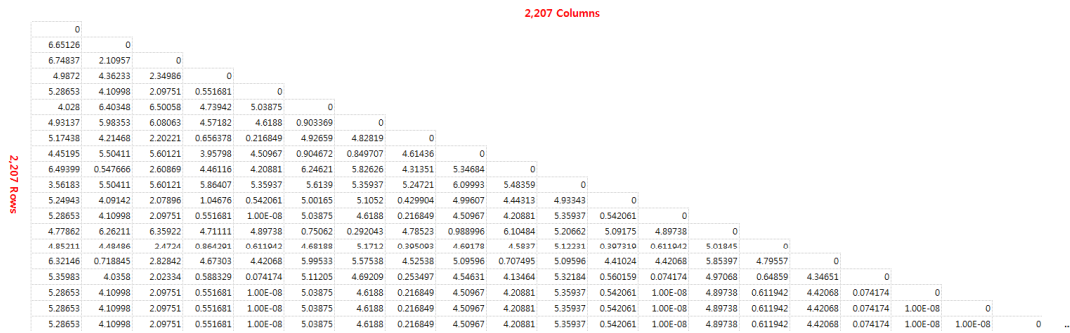
6. 동사와 보조용언 공기 빈도에 의한 분류

- 보조용언 구성 결합 빈도에 의한 용언 분류(classification)
 - 2,207 x 2,207 거리 테이블(distance matrix) 구성
 - 거리 공리(최운호 2010)
 - 표준화 점수의 차이를 거리화

573돌 한글날·한글학회 창립 111돌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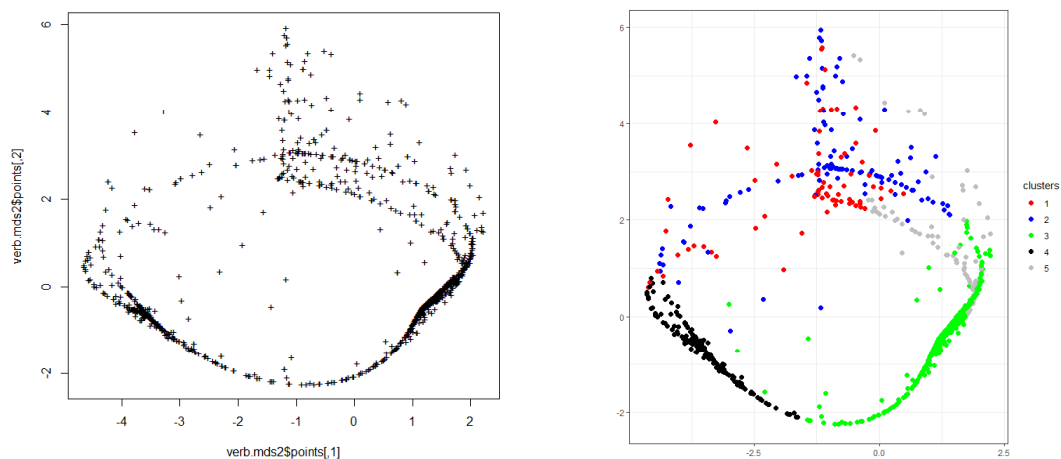
18

6. 동사와 보조용언 공기 빈도에 의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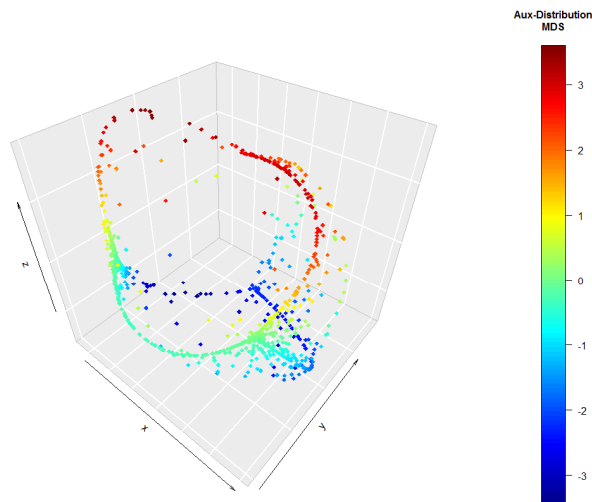
573돌 한글날·한글학회 창립 111돌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19



573돌 한글날·한글학회 창립 111돌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20



573돌 한글날•한글학회 창립 111돌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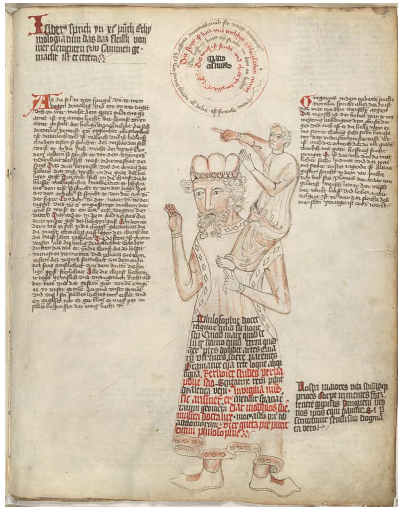
7. 남은 과제, 그리고 언어, 컴퓨터, 코퍼스

- 남은 과제
 - '동사 + 보조용언' 구성과 동사 어휘의 상적 의미의 대응 관계에 대한 탐색
 - 전망
 - 동사와 {-있-}과의 결합 관계, 그리고 보조 용언 사용 양상의 관계
- 언어, 컴퓨터, 코퍼스
 - 컴퓨터를 활용한 연구
 - 언어 정보의 기계 학습

573돌 한글날•한글학회 창립 111돌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22

7. 남은 과제, 그리고 언어, 컴퓨터, 코퍼스



nanos gigantum humeris insidentes

온고지신(溫故知新)

573돌 한글날·한글학회 창립 111돌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23

573돌 한글날 · 한글학회 창립 111돌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2019년 10월 11일 (금) 09:50 ~ 16:40

한글회관 열말글교육관

□ 제4부: 연구 발표

사회언어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의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조태린

연세대학교 교수
trcho@yonsei.ac.kr

1. 머리말

사회언어학은 언어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또는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되며, 그 연구의 주요 대상과 방법론에 따라 다양한 하위 분야로 나뉠 수 있고 각 분야별 연구 성과도 매우 깊고 넓게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언어학 연구의 모든 하위 분야를 대상으로 그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피상적인 연구사 정리의 수준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 이에 본고는 사회언어학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자 주제 중 하나인 언어 변이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를 중심으로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대학교수 간 호칭어 사용 변이를 대상으로 한 시론적 연구를 구체적인 사례로 들면서 향후의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의 발전 동기와 특성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sociolinguistic variation studies)’는 흔히 ‘변이 사회

언어학(variationist sociolinguistics)’이라고도 불리지만(Tagliamonte 2006; 한국 사회언어학회 2012 등), 본고에서는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변이 사회언어학’이 언어 변이의 문제를 사회언어학의 특정한 하위 분야만의 문제로 한정하는 느낌을 주는 반면에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는 언어 변이의 문제가 사회언어학 전반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자 주제임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는 1960년대부터 사회언어학이 하나의 학문 분과로서 형성되는 과정을 주도했고, 지금까지도 언어의 사회적 측면과 언어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연구로 발전해 왔다. 그러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언어학적 동기 중 하나는 이른바 ‘언어 변화의 역설’을 수용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형식언어학은 규칙과 원리의 고정된 집합체로서의 언어 구조를 밝혀내고자 했으나, 실제의 언어는 항상 변화하고 그 구조는 유동적이기에 구조적으로 온전한 언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Tagliamonte 2006: 4).

사실 기존의 형식언어학은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가 주목하는 다음의 세 가지 사실을 무시해 왔다(Tagliamonte 2006: 6-7). 첫째, 모든 언어는 내재적인(inherent) 변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변이에서는 임의적이지 않고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질서 있는 이질성(orderly heterogeneity)’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¹⁾ 둘째, 언어는 항상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는 끊임이 없다는 사실이다. 셋째, 언어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언어적 수단은 매우 다양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특정한 사회적 의미 또는 사회적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는 항상 끊임 없이 변화하는 언어에서 언어 변이의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고 그러한 변이가 지닌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는 “같은 것을 말하는 둘 이상의 방식”(Labov 1972)으로서의 ‘언어 변항(linguistic variable)’에 주목한다. 물론 언어 변항의 이러한 정의는 가장 고전적이고 엄격한 것이기에 음운 단위를 넘어서는 다른 방식이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어휘, 형태·통사, 담화 등의 단위에서 다른 어휘를 사용하거나 다른 어미나 문장 형식을 사용하고 다른 화행이나 담화 전략을 구사한다면, 이는 엄밀히 말해서 같은 의미를 표현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

1) Labov(1982: 17)가 말하는 ‘정상적인(normal) 이질성’도 같은 의미인데, 결국 언어에서 이질성으로서의 변이가 나타나는 것은 그 자체로 정상적이며,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언어학은 이러한 이질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게 된다.

여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는 언어 변이의 정의를 구성하는 ‘같은 것’의 개념을 ‘의미적 등가성(semantic equivalence)’만이 아니라 ‘기능적 등가성(functional equivalence)’ 또는 ‘담화 등가성(discourse equivalence)’으로까지 확장함으로써 연구의 범위를 넓혀왔다(Sankoff and Thibault 1981).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를 언어학의 다른 분야와, 심지어는 사회언어학의 다른 분야와 구별 짓게 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다른 무엇보다도 양적 접근(quantitative approach)을 한다는 것이다(Tagliamonte 2006: 12). 사실 언어 변이의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일일이 상세하게 들여다보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양적 접근은 언어 변이의 미묘한 양상과 규칙성, 그리고 언어 변이로 귀결되는 화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인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변인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와 의미까지 설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는 그 형성 초기부터 통계학의 기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왔으며, 언어 변이 연구에 최적화된 통계 프로그램(Goldvarb, Language Variation Suite 등)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Sankoff, Tagliamonte and Smith 2005; Scrivener, Diaz-Campos and Frisby 2016 등 참조).

3.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의 성과와 한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는 사회언어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형성을 주도했고 이제는 좁은 의미에서의 사회언어학이라고 간주될 만큼 사회언어학을 대표하는 위상을 갖게 되었다.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가 이러한 위상을 갖게 된 이유는 관련 연구가 양적이고 질적으로 충실한 성과를 내었다는 점에서만이 아니라 기존 언어학의 한계를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비판하면서 뚜렷한 존재감을 발휘한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가 변이를 언어의 본질적 측면으로 여기면서 실제로 사용되는 일상어(vernacular)에서 나타나는 변이의 패턴을 사회적 요인과의 관계 속에서 양적 접근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형식언어학과 뚜렷한 대조를 보여줄 수 있었다.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는 변이를 임의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연구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상적 언어의 구조와 형식만을 직관적 분석을 통해 기술하고자 하는 형식언어학을 정면에서 비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Labov의 연구로 대표되는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는 ‘동질적 언어 공동체 내에서의 이상적 화자-청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언어가 공동체의 수준에서건 개인적 문법의 수준에서건 동질적이지 않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기

존의 형식언어학을 ‘탈신화화(demythologizing)’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Cameron 1990: 80).

결과적으로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는 변이의 문제가 그 자체로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 그러한 연구를 통해 언어 사용의 실제 양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회언어학적 성과를 무수히 축적해 왔다. 그리고 그러한 성과를 가능하게 한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의 방법론은 이제 사회언어학 분야만이 아니라 형식언어학과 언어 교육 분야에서도 널리 적용되고 있다(Hazen 2007: 80-81).

설령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의 방법론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 방법론이 적용되어 구축된 자료에 의지하는 경우가 흔하다. 대다수의 문법 연구들은 특정 언어의 문법성 판단을 더 이상 연구자의 직관에만 의지하지 않고 말뭉치(corpus)를 핵심적인 근거로 제시하는데, 이때의 말뭉치는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에서 중시하는 사회적 변인들이 균형 있게 고려된 것이어야 설득력을 인정받는다. 사회적 변인들에 대한 균형 있는 고려는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언어 교육의 분야에서 더욱 강조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언어 교육 분야에서는 적절한 언어 교육의 내용과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균형 잡힌 구어 말뭉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목표어의 실제적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나 면접 조사 등과 같은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 방법론을 직접 사용하는 모습이 일반화되어 있다.²⁾

이처럼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는 언어 연구 전반에 많은 성과와 중요한 영향을 가져왔지만, 그 발전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기 시작했다. 그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의 주요 동기 중의 하나였던 언어 변이와 사회적 정체성의 관계 규명을 위한 논의가 점점 감소하거나 기피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언어 변이의 문제를 사회적 요인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관계가 가지는 사회적 맥락과 의미보다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 달라지는 언어 체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Eckert 2000). 또한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의 주요 방법론인 양적 연구는 “숫자를 생산하는 것(즉, 통계 요약)이 아니라 언어 현상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것”(Guy 1993: 235)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통계적 수치를 나열하는 데에 그치는 연구 결과가 상당수를 차지하였다.³⁾

2) 언어 교육과 관련하여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의 방법론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모습은 특히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3) 이러한 한계는 국내의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어의 지역적 변이에 대한 전통적인 방언학 연구를 넘어서 한국어의 사회적 변이에 대한 사회언어학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조태린 2015), 후자의 연구들에서도 한국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는 기존의 형식언어학을 탈신화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언어가 사회를 반영한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특정 변항의 분포만을 기술할 뿐이지 그러한 상관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상관적 오류(correlational fallacy)’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Cameron 1990: 85). 이러한 오류에 대한 비판은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에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의 개념을 결합시킨 연구들(Milroy 1980; Milroy & Milroy 1985, 1992)에도 마찬가지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언어와 집단 구성원 간에 관찰되는 상관관계는 좀 더 ‘일반적인 이론(general theory)’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기”(Romaine 1984: 37)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Deborah Cameron(1990)은 기존의 형식언어학을 탈신화화한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를 다시 한 번 탈신화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언어는 사회의 수동적 반영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적 제도이고, 이 제도는 언어 사용자가 언어 규범을 파악하고 수용하고 거부하고 전복하는 등의 메타언어적 활동(metalinguistic activities)에 의해 (재)생산된다고 한다. 그리고 탈신화화된 사회언어학은 그러한 메타언어적 활동을 이해하고 설명해 내기 위해 기존의 양적 접근과 상관적 미시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는 통합적 접근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Cameron 1990: 90-94). 본고는 이러한 비판과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언어 변이와 관련된 메타언어적 활동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변이의 양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양적 접근에 더하여 그 원인까지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고는 한국의 대학교수 간 호칭어 사용 변이에 대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결과를 구체적인 사례로 들면서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의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4. 사회언어학적 변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 대학교수 간 호칭어 사용 연구를 사례로

4.1. 대학교수 간 호칭어 사용 변이에 대한 양적 접근

조태린(2018)에서는 수도권³의 한 사립 종합대학의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대학교수 간 호칭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사회언어학적 변이 양상을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실제로 고려한 변인군(factor groups)⁴과 개별 변인

어의 사회언어학적 변이 양상을 양적으로 기술하는 것에 집중할 뿐이지 그 이유나 의미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거나 막연한 추정만을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factors)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조태린 2018: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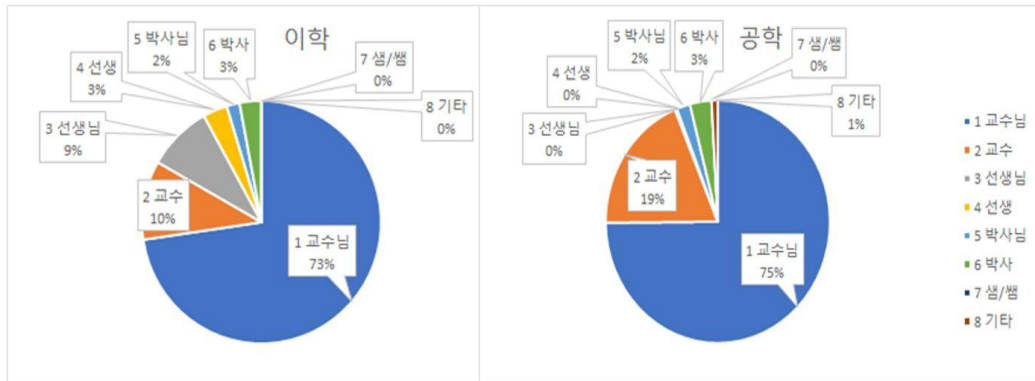
〈표 1〉 대학교수 간 호칭어 사용의 변인군과 개별 변인

	변인군	개별 변인
발화자 변인	발화자 학문계열	인문학, 사회과학, 이학, 공학
	발화자 연령대	30~40대, 50대, 60대
	발화자 성별	남성, 여성
수신자 변인	수신자 연배	손위, 동년배, 손아래
	수신자와의 친소 관계	친하다고 생각, 친하지 않다고 생각
	수신자 소속	동일 학과(전공), 타 학과(전공)
	수신자 성별	동성, 이성
상황 변인	수신자 보직 여부	보직자, 비보직자
	발화 상황	공적(교수회의), 사적(전화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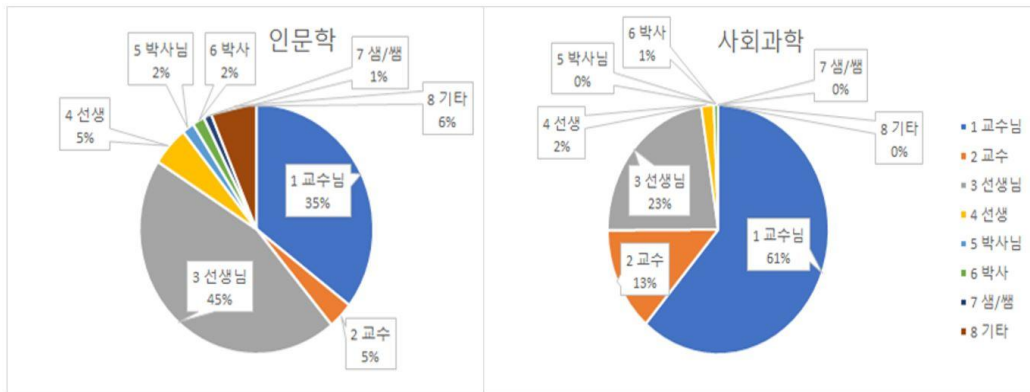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변인군과 개별 변인을 설정하고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모든 발화자 변인이 균등하게 할당되는 설문 응답들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조사 대상 대학의 경우에 전체 교수 중 여성 교수의 비율 자체가 절대적으로 낮았고, 이러한 불균형은 이학 계열과 공학 계열의 경우에 특히 심했기 때문이다. 또한 학문 계열에 따라 특정 연령대와 성별의 교수 분포에서 매우 큰 편차가 나타나기도 했다(조태린 2018: 249-250). 이러한 현실적 한계는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문제인데,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는 이 문제를 은폐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공개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야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발화자 변인별 설문 응답 수의 불균형이라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과 문항 설계의 단계에서 세운 가설과 마찬가지로 발화자의 학문계열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학 계열에서는 ‘선생님’(9%)과 ‘선생’(3%)의 사용이 적게나마 나타나지만, 공학 계열에서는 두 호칭 모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사회과학 계열에서는 ‘교수님’(61%)의 사용이 가장 많으면서 ‘선생님’(23%)의 사용도 적지 않은 반면, 인문학 계열에서는 유일하게 ‘선생님’(45%)의 사용이 ‘교수님’(35%)의 사용보다 많고 ‘선생님’과 ‘선생’을 합한 비율이 절반에 이르렀다(조태린 2018: 251-252).

4) 여기서 변인군은 “하나의 변이형(variant)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내적(언어적) 또는 외적(사회적) 맥락”이자 특정 변이형의 “선택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가설”(Tagliamonte 2006: 104)을 의미한다.



[그림 1] 이학 계열과 공학 계열에서의 교수 간 호칭어 사용 비율



[그림 2] 인문학 계열과 사회과학 계열에서의 교수 간 호칭어 사용 비율

둘째, 다음으로 발화자의 성별 변인에 따르면, 남성 교수는 ‘교수님’(64%)을 ‘선생님’(11%)보다 6배 가까이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여성 교수는 ‘교수님’(49%)과 ‘선생님’(47%)의 사용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의 사용 비율은 여성 교수가 남성 교수보다 4배 이상 높고, ‘교수님’의 사용 비율은 여성 교수가 남성 교수의 2/3 수준으로 적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전체 여성 교수 응답자의 절반(12명)이 인문학 계열이라는 점에서 성별보다는 인문학 계열의 특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되었다(조태린 2018: 252-254).

셋째, 발화자의 연령대 변인에 따르면, ‘교수님’의 사용은 30~40대 교수에서 75%의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는 반면, 50대와 60대 교수에서는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비율을 보였다. 이와 달리 ‘교수’의 사용은 6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반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1/2, 1/3로 급속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님’이 붙지 않는 호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교수의 폭이 넓어지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러한 호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교수의 수가 적다는 점을 반영하는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통계적 검정 결과, 발화자의 연령대도 성별과 같이 독립 변인으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함을 확인했다(조태린 2018: 255-256).

넷째, 수신자 변인군 중 수신자 연배는 발화자 연령대와 연동되어 이해할 수 있으며, 수신자 소속과 성별은 대학교수 간 호칭어 사용 양상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조태린 2018: 257).

다섯째, 수신자와의 친소 관계는 여러 호칭 중에서 특히 ‘교수님’, ‘교수’, ‘선생님’의 사용 비율이 달라지게 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수에게는 ‘교수님’(72%)을 사용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친하다고 생각하는 교수에게는 ‘선생님’(23%)과 ‘교수’(17%)의 사용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조태린 2018: 257-259).

여섯째, 수신자의 보직 여부도 호칭어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신자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보직 교수에게는 보직명이 들어간 호칭어(학장, 처장 등)를 사용하는 비율(73%)이 평소 사용하던 호칭어(교수, 선생 등)를 그대로 사용하는 비율(27%)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런데 수신자의 보직 여부 변인을 수신자와의 친소 관계 변인과 연관 지어 살펴보면,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된다. 친하다고 생각하는 보직 교수에게는 보직명이 들어간 호칭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62%에 머무른 반면에, 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보직 교수에게는 보직명이 들어간 호칭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85%에 이를 만큼 높게 나타났다(조태린 2018: 259).

일곱째, 상황 변인은 대학교수 간 호칭어 사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상황 변인은 보직 교수에 대한 호칭어 사용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공적 상황과 사적 상황의 대표적인 사례로 교수회의 상황과 전화 통화 상황을 설정한 것이 적절했는지, 연구 참여자들이 두 상황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했는지, 그리고 두 상황 모두에서 공적인 측면과 사적인 측면이 공존할 수도 있지는 않은지 등이 그것이다(조태린 2018: 260-261).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는 대학교수 간에 실제로 사용되는 호칭어의 양상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사회언어학적 양적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만으로는 대학교수 간 호칭어 사용 양상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의 원인이 무엇이고, 각각의 호칭어가 발화자 또는 수신자에게, 그리고 특정한 상황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해 내기 어렵다. 이에 본고는 대학교수 간 호칭어 사용 양상을 통계적 수치로만

나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양상의 원인과 의미를 확인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언어학적 질적 연구가 필요함을 절감하고 위와 같은 양적 연구의 연장선에서 추가적인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4.2. 대학교수 간 호칭어 사용 변이에 대한 질적 접근

본고는 앞선 4.1절에서 살펴본 대학교수 간 호칭어 사용 양상에 대한 양적 연구의 보완 연구 차원에서 심층 면담에 기반하는 사회언어학적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응답 과정에서 추가적인 심층 면담에의 참여 의사를 미리 확인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남긴 연구 참여자 중에서 특징적인 응답을 한 10명을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고에서 특징적인 것으로 간주한 응답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경우에 해당한다.

첫째, 특정한 하나의 호칭만을 수신자 변인 및 상황 변인과 무관하게 매우 일관되게 사용하는 경우

둘째, 특정한 둘 이상의 호칭을 수신자 변인 및 상황 변인에 따라 의식적으로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셋째, 동일한 발화자 변인군에 속하는 연구 참여자들 대다수와 두드러지게 다른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

넷째, 설문 조사의 주관식 의견란에서 흥미로운 의견을 제시한 경우

이상과 같은 네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일차적으로 15명의 심층 면담 후보를 선정하였는데, 이 중 5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심층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고 최종 10명에 대해서만 심층 면담이 이루어졌다. 심층 면담은 2018년 3월 29일부터 4월 2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연구 참여자가 가능한 일정에 맞추어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대부분 연구 참여자의 개인 연구실)에서 이루어졌으며, 개별 심층 면담의 시간은 최소 40분에서 최대 1시간 10분가량 소요되었다. 심층 면담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 10명의 성명을 익명화(匿名化)하고, 소속 학과의 학문계열, 연령대, 성별, 설문 응답 특징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심층 면담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 관련 정보 및 설문 응답 특징

연구 참여자(가명)	학문계열	연령대	성별	설문 응답 특징
HM40F	인문학	40대	여	손위 교수에게는 모두 ‘교수님’ 사용, 친한 동년배 또는 손아래 교수에게만 ‘선생님’ 사용

HM50F	인문학	50대	여	모든 교수에게 ‘선생님’만 사용
HM50M	인문학	50대	남	친한 동년배의 동성 교수 또는 친한 손아래 교수에게 ‘교수’ 사용, 그 외 모든 교수에게 ‘교수님’ 사용
SS40F	사회과학	40대	여	모든 교수에게 ‘교수님’ 사용, ‘김하늘 교수님’과 ‘김 교수님’ 간에 차이가 있음
SS50M	사회과학	50대	남	친한 손위 교수에게만 ‘선생님’ 사용, 친한 손아래 교수에게 ‘박사’ 사용, 그 외 모든 교수에게 ‘교수님’ 사용
SS60M	사회과학	60대	남	동년배 교수에게는 대부분 ‘교수’ 사용, 친한 손아래 교수 및 찬하지 않은 동일학과 손아래 교수에게 ‘교수’ 사용, 그 외 모든 교수(찬하지 않은 타 학과 손아래 교수 포함)에게 ‘교수님’ 사용
NS40M	이학	40대	남	친한 동년배 또는 손아래 교수에게 ‘박사’ 사용, 찬하지 않은 동년배 교수에게 ‘박사님’ 사용, 그 외 모든 교수에게 ‘교수님’ 사용
NS50M	이학	50대	남	친한 손위 교수에게만 ‘선생님’ 사용, 그 외 모든 교수에게 ‘교수님’ 사용
EN50F	공학	50대	여	친한 동년배 교수에게만 ‘교수’ 사용, 그 외 모든 교수에게 ‘교수님’ 사용
EN50M	공학	50대	남	모든 손위 교수에게 ‘교수님’ 사용 모든 동년배 또는 손아래 교수에게 ‘교수’ 사용

심층 면담은 사전에 개별 연구 참여자의 설문 응답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한 후에 다음과 같은 항목과 내용 구성으로 이루어진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표 3〉 심층 면담 질문지의 항목과 내용 구성

항목	내용 구성
1. 시작 인사	-
2. 진행 방식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게 사용하길 바라는 호칭 확인 연구 참여자의 면담 내용 녹음 허용 여부 확인
3. 선호하는 호칭	연구 참여자가 특정 호칭 하나만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 연구 참여자가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호칭과 그 이유에 대한 질문 연구 참여자가 수의적으로 사용하는 둘 이상의 호칭과 그 이유에 대한 질문
4. 선호하지 않는 호칭	연구 참여자가 절대 사용하지 않는 호칭과 그 이유에 대한 질문 연구 참여자가 절대 사용하지 않는 호칭으로 불린 경험에 대한 질문 연구 참여자가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호칭과 그 이유에 대한 질문 연구 참여자가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호칭으로 불린 경험에 대한 질문

5. 보직 교수에 대한 호칭	연구 참여자가 친한(친하지 않은) 보직교수에게 사용하는 호칭과 그 이유에 대한 질문 연구 참여자가 전직 보직 교수에게 사용하는 호칭과 그 이유에 대한 질문
6. 특정 호칭에 대한 부정적 경험	연구 참여자가 특정 호칭을 사용 시 상대방이 불편(불쾌)해 했던 경험에 대한 질문 연구 참여자가 특정 호칭으로 불렸을 때 불편(불쾌)해 했던 경험에 대한 질문
7. 기타 자유 의견	연구 참여자가 설문 조사 및 심층 면담에서 못 다한 이야기 확인
8. 종료 인사	-

이상의 심층 면담 내용은 모두 스마트폰(LGM-V300S)의 고음질 녹음 프로그램으로 녹음한 후에 주요 응답 부분을 선택적으로 전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앞선 양적 연구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대학교수 간 호칭어 사용의 여러 가지 이유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주요 결과를 심층 면담에서의 응답과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수 간에 특정 호칭어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표면적인 이유는 소속 공동체에서의 경험과 관습을 따르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문학 계열에서는 전통적으로 ‘선생님’을 ‘교수님’보다 더 많이 사용해 왔고, 공학 계열에서는 예전부터 거의 대부분 ‘교수님’을 사용하고 ‘선생님’을 사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이러한 차이가 현재 각 계열에 속한 교수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1) “저는 너무 단순해요. 제가 학부 거의 첫 수업에서 저희 돌아가신 지도교수 OOO선생님이 학생들이 교수님 이러니까 혼을 내시면서 교수는 직함이지 호칭이 아니다, 직함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는 것은 굉장한 결례다, 의사님이라 그러느냐, 그건 아니다, 하면서 주의하라고 하신 게 제 호칭 사용의 가장 큰 요인이 된 것 같아요. 아마 그때 같이 교육 받은 우리 학번들은 아마 교수님이란 말은 쓰면 큰일 나는 말 정도로.”(HM50F)

(2) “공과대학 내에서는 보편은 굉장히 선임 교수님들 때부터, 저희가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면 따라갔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희가 늘 듣던 표현들은 교수님이라는 표현을 들었어서 그렇게 약간 굳은 게 있습니다.”(EN50M)

(3) “공대에서는 대부분 ‘선생님’을 사용하지 않아서 저도 그 영향을 받은 듯해요. (...) 문과대 쪽에서는 그렇게(‘선생님’)도 많이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이상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상대가 그렇게 나를 부르면 나도 그렇게 부를 것 같아요.”(EN50F)

둘째, 대학교수 간 호칭어 사용을 소속 공동체에서의 경험과 관습을 따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는 특정 호칭에 나름의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선호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러한 의미나 가치 부여는 특히 ‘교수님’의 사용과 ‘선생님’의 사용에서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먼저 ‘교수님’을 주로 사용하고 선호하는 연구 참여자는 ‘교수’라는 직업 또는 직책이 가지는 사회적 권위나 특권적 지위 등에 주목하고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권위나 지위는 아마도 많은 대학교수들이 ‘선생님’보다는 ‘교수님’이라고 불리길 선호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을 것이다. 이에 ‘교수님’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방을 더 존중하거나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4) “아무래도 사회적 인식에서는 선생님보다 교수님이라는 용어에 좀 더 높이는 의미가 있죠. 사실 선생님이라는 말을 제가 학교에서 높은 보직을 맡은 분들한테는 못 쓸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이라는 용어를 학교 밖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일단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HM40F)

(5) “지금은 교수가 사회적 신분을 가리키는 거라서, 교사가 아니잖아요, 선생님은 교사를 가리키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자기가 교수라고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고등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대학 교수다라고 하고 싶으니까.”(HM50M)

(6)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고등학교, 대학교 가기 전에 교사분들께는 선생님이라고 쓰잖아요. 어린이집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런데 고등학교까지의 교사들에게 호칭을 교수님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 저는 그래서 교수라는 타이틀이 특정한 집단한테만 주어지는 호칭이기 때문에 정말 그분의 직책이나 직업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SS40F)

이와 달리 ‘선생님’을 주로 사용하고 선호하는 연구 참여자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교수님’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지거나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때 더 큰 의미란 자신을 직접 가르쳐주신 스승이거나 자신이 배우고 존경할만한 학식이나 인품을 가진 경우를 가리킨다. 이에 ‘선생님’이란 호칭으로 부르는 대상은 특정한 교수에게만 한정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7) “친한 또래 교수나 후배 교수한테는 ‘선생님’이란 말을 써요. 그게 더 친근해서 좋아요. (...) 지도교수님한테는 당연히 ‘선생님’이라고 해요. (...) 지도교수님한테도 당연히 ‘선생님’이라고 해요. 근데 학과 내 교수님들도 지도교수님이 아니신 경우에는 저를 가르치신 분들도 다 교수님이라고 해요. 사실 ‘교수님’이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말이긴 해요. ‘교수님’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약간 고민되는 게, 그게 직업 이름이지 명칭, 호칭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호칭을 사용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근데 또 거리감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아무한테나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지는 못하겠더라고요.”(HM40F)

(8) “스승 같은 분께는 절대로 교수님이란 말을 안 쓰죠. 항상 선생님이라고 쓰고, 직접 가르쳤던 분들께는 절대로 교수님아란 말을 안 써요. 그건 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선생님이 훨씬 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서, 세상은 자기를 교수라고 불러줘야 자기가 대접 받는 것처럼 생각하니까”(HM50M)

(9) “친한 순위 교수뿐만 아니라 좀 제가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선생님’을 사용합니다. (...) 제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께 선생님이라고 표현한 건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도교수님이거나 지도교수님이 아니더라도 제 판단으로 봤을 땐 참 선생님의 전형이다, 스승의 전형이다,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 교수라든지 교수님 같은 호칭은 직업의 한 종류 아닌가요? 거기에 뭔가 이 정감이라든지, 존경심이라든지 이런 걸 뭐 담아 내기는 저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SS50M)

(10) “지도교수나 그 정도로 연배가 많이 차이나면서 친한 교수님께서는 ‘선생님’을 사용해요. 선생님이 더 가깝게 느껴져서 그런 거 같기도 하네요.”(NS50M)

이처럼 ‘선생님’이란 호칭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연구 참여자 중에는 ‘선생님’을 선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교수님’을 사용하는 것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11) “사회적으로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너무 일반화되고 교수가 되는 게 힘들어지고해서 선생님과 구별되는 교수님이란 호칭으로 권위를 나타내려는, 그런 권위는 없어지는 사회가 돼야죠. 저는 교수가 특별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존경 받겠죠. 다만 교수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아무리 높이려 그래도 일반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상해지잖아요.”(HM50F)

그런데 ‘선생님’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게 더 좋은 호칭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교수님’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주변의 인식에 맞추어 자신이 사용하는 호칭어를 변경한 사례에 해당한다.

(12) “예전에는 ‘선생님’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는데, 요새는 안 해요. 처음엔 의식적으로 안 하다가 지금은 무의식적으로 안하는 거죠. 그게 사연을 좀 이야기하자면, 선생이라는 호칭은 그 뜻 자체가 자기가 배워야 할 사람이라는 뜻이 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라는 말을 쓰는 게 상당히 기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썼는데, 우리 세대는 굉장히 모한 세대라서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는 교수된다는 게 교수가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려웠던 세대예요. 근데 대학원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 갖고는 교수가 되기 굉장히 쉬워졌어요. 전에는 교수가 굉장히 특권적인 자리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특권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는 선생이라고 썼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교수라고 불러주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자길 선생이라고 부르는 걸 싫어해요. 처음에는 일종의 거부감 같은 게 있어 갖고 교수란 말을 잘 안 썼는데, 그게 결국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고 약간의 갈등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교수라는 이름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고 쓰다보니까 나도 서서히 교수집단의 일원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쓰게 된 거예요.”(HM50M)

(13) “근데 학교마다 다른 거 같더라고요. 같이 연구하는 OO대 출신들은 선생님이란 호칭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 저도 듣기로는, OO대 선생님들한테 듣기로는 선생님이 더 존칭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써야 한다고 저한테 그러는데,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잘 못쓰겠더라고요. OO대는 이과대인데도 선생님을 존칭으로. 그래서 직원들, 직원분들한테도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붙이니까, 그렇게 붙이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 직원들은 모르겠어요. 뭐뭘까라고 붙이던지. 선생님이 더 존칭이라서.”(NS40M)

셋째, 대학교수 간 호칭어로서 ‘박사님’의 사용은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박사님’이라는 호칭은 학과 내 연배가 높은 교수가 연배가 낮은 교수에게 사용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14) “제가 처음 임용되었을 때, 그리고 지금도 학과 내 연배가 높으신 교수님들은 저를 O박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제자뻘이니 그러려니 하면서도 좀 그렇게 좋지만은 않죠. (...) 대학 내에서 주로 자리를 잡지 못하신 비정규직 선생님들에 대해서 호칭할 때 교수님들이 누구누구 박사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요, 이게 맞지 않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비정규직 선생님들한테도 누구누구 박사라고 호칭하는 건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

면 이게 너무 구별화가 되는 거 같아요. 호칭을 할 때는 누구누구 선생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요.”(HM40F)

(15) “박사라고 하지 않는 거는, 물론 예전에는 박사 아니신데 교수가 되신 분들도 있으셨잖아요?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박사가 교수되기 전에, 다 박사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박사에서 교수되는 거가 더 어드밴스된, 더 노력을 해 가지고 교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교수님이신데 박사님이라고 하면 저는 결레인 거 같고, 또 교수 초기에 조교수로 왔는데 박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연배가 좀 있으시거나 저희 은사님들이신 분들이. (...) 저는 심지어 아직 정규직으로 풀타임으로 어느 학교에 전임교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객원 교수나 겸임교수시거나 하는 분들도 특히 학생들 앞에서는 교수님이라고 불러드려요.”(SS40F)

(16) “‘박사님’ 또는 ‘박사’라는 호칭은 박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아직 정식 교수가 되지 않는 사람한테 사용하는 거지, 교수가 됐으면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어린, 젊은 교수한테도 ‘박사님’이라 부르는 경우는 없어요.”(SS60M)

(17) “지금은 교수보다 박사가 많은 시기라, 박사는 학위 취득하고 아직 교수가 안 된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 ‘박사님’이란 호칭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정식 교수가 안 됐어도 박사 취득하고 전공 강의를 하면 모두 ‘교수님’으로 부릅니다. 심지어 제가 지도한 박사 제자도 ‘교수님’이라 불러요.”(NS50M)

(18) “예전에 공동 연구팀에서 책임자급 나이 많은 교수가, 당시 젊은 교수였던 저를 ‘박사님’이나 ‘박사’로 부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좀 존중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별로 유쾌하지 않았어요. 전 젊은 교수들한테 ‘박사님’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EN50F)

물론 이와는 달리 특정 공동체 내에서는 친한 동년배 교수나 손아래 교수에게는 ‘박사’라는 호칭이 매우 자연스러운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박사님’이 아니라 ‘박사’를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19) “친하다고 생각하는 손아래 교수에게는 김박사, 이박사를 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OO학과의 문화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OO학과에서는, 제가 OO학과 내 친한 그룹이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일정한 친밀한 그룹이 형성이 되고, 그 그룹 내에서 저보다 좀 나이가 많고, 제가 친하다고 느꼈던 그런 나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구요.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친밀한

후배가 생기면 또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고. (...) 그건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그러한 흐름, 문화인 거 같아요. (...) 사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그렇게 친한 사람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SS50M)

(20) “친한 동년배 교수에게는 박사라고 해요. (...) 제 또래는 이과대 다른 교수들도 비슷한 거 같아요. (...) 제 느낌에는 교수님보다 박사님이 조금 더 친한 느낌이 있어 가지고. 예. 저한테.”(NS40M)

그런데 ‘박사님’이라는 호칭과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웠던 점은 과거에는 ‘박사님’이 ‘교수님’보다 더 높이는 호칭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특정 호칭에 대한 의미 부여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모두 50대의 이공계 연구 참여자의 심층 면담 응답에서 발견되었다는 점도 흥미롭다.

(21) “우리 분야의 원로 교수님들을 부를 때 ‘박사님’이라고 불러요. 그 분들이 교수로 계시던 때는 교수보다 박사가 더 흔치 않아서 그랬던 거 같아요. 그 당시엔 교수보다 박사가 더 높이는 의미가 있었죠.”(NS50M)

(22) “아주 예전이지만, 예전에 대학원 시절에 지도 교수님을 ‘박사님’이라고 부른 기억이 있어요. 아마도 그때 박사가 귀한 시절이라 교수보다 박사가 더 높이는 의미가 있었던 듯해요. 지금도 그 분을 뵈게 되면 박사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요.”(EN50F)

넷째, 대학교수 간 호칭으로 ‘쌤/ 쌤’의 사용은 아직 매우 드물고, 대학교수에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거부감마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우리 세대엔 아주 어색하고 사용해 본 적 없어요.”(SS60M)

(24) “직접 들어보거나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주변에서 쓰는 건 들어 보긴 했죠. (...) 교수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닌 애매한 경우에, 뭐 강사 같은 경우나. (...) 저는 기왕 부를 거면 선생님이라고 하지, 그건 좀 너무 캐주얼한 느낌이어서 좀 그래요.”(NS40M)

(25) “에이.. 불러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NS50M)

(26) “교수한테요? 교수를 그렇게 부르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런 적이 없어요.”(EN50F)

(27) “아 그거는 저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쌤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다라고 하면,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직원 선생님들한테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쌤이라

는 표현을 사용해 본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 다 선생님이란 표현을 썼어요.”(EN50M)

특정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특정 교수에게 친근감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 쌤 ’을 교수들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 역시 해당 교수에게만 사용되고 상호적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8) “저희 과 경우에는 저희 과만의 특수한 상황일 수 있는데, 외국인 선생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학생들이 그 선생님에 대한 애칭으로 OO쌤이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도 그걸 굉장히 친근한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마치 전파가 돼 가지고 다른 동료 선생님들도 다 OO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듣기 좋더라구요. 하지만 OO쌤이 다른 교수들에게 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진 않아요. 그것도 아마 OO쌤의 지위가 다른 교수들과 다른 것에서 오는 좀 더 편안함이 이유인 것도 같아요.”(HM40F)

다섯째, 보직교수에 대한 호칭어로 보직명을 사용하는 것이 더 격식적이고 더 존중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식 상황에서는 보직명 호칭을 주로 사용하지만, 사적인 대화에서는 보직명을 사용하기보다는 평소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29) “만일 오피셜 행사 같은 자리에서, 공식 행사에서 뭔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할 때는 그런 직함을 사용하지만, 일상, 캐주얼하게는 평소대로 해요.”(SS50M)

(30) “공식 자리에서는 당연히 보직명을 사용하죠. (...)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학장님한테 교수님이라고는 절대로 안 하죠. 공식 자리에선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하고 학장님이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의견을 물으실 때, 거기다 대고 학장님, 학장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보다는 그냥 그러면 OOO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방향은 제가 볼 때는 맞는 거 같구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교수님을 쓰지만, 어느 한 명이라도 더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보직명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가능하면 뭐 군이, 근데 잘 모르는 분, 예를 들어 제가 처음 어딘가를 갔는데 그게 교무처장님실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는 처장님이라고 하죠.”(EN50M)

한편 보직교수들은 보직명으로 불리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아서 그에 맞춰 보

직교수에게는 주로 보직명 호칭을 사용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이른바 높은 보직을 맡은 교수를 대상으로 할 때 더 많이 나타난다.

(31) “두 가지 기준이 거기에 작용하는데요. 하나는 그걸 좀 높은 보직은 그렇게 불러주길 원하는 사람들이, 제가 너무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습관적으로 가령 뭐 학장 이상은, 꼭, 부학장까지도 그래요. 그렇게 불러주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불러주는 게 있고. 또 하나의 기준은 업무상, 저 사람이 지금 부학장으로서는 내가 연락을 해야된다고 하면 꼭 부학장님이라고 부르죠.”(HM50M)

(32) “주변을 보면 보직교수한테는 보직 이름을 불러주는 게 일반적이어서 그런 경향을 따라하죠. 또 보직교수 중에는 보직 이름으로 불러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아 보여서 그렇게 해요.”(SS60M)

(33) “보직 교수를 하는 교수한테는 보직 호칭을 사용하는 게 더 높이는 거라 생각해요. 저는 학과 내에서 더 어린 교수가 학과장을 하게 돼도 ‘학과장님’이란 호칭을 사용해요.”(NS50M)

보직교수 호칭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보직 임기가 끝난 교수에게도 높임의 의미로 이전의 보직명 호칭을 계속 사용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 역시 고위 보직을 맡았던 교수를 대상으로 할 때에 더 많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발견된다.

(34) “학장 임기 중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보직명을 부르는 게 자연스럽지만, 임기 후에는 선생님이라는 말이 충분히 존칭이므로 선생님이면 충분할 거 같아요.”(HM50F)

(35) “개인적 경험으로 내가 보직을 하다 그 보직이 끝났는데도 다른 교수들이 계속 보직명으로 날 부를 때 불편했어요. 보직했던 경험을 높게 대우해주려는 의도인 거 같은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직 기간이 끝나면 보직하기 전 호칭으로 돌아가면 좋겠어요.”(SS60M)

5. 맺음말

(미완)

〈참고 문헌〉

- 조태린(2015), 한국어 방언과 방언 연구의 변화에 대한 소고—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의 경계를 넘어서, 『사회언어학』 23(1), 177-199.
- 조태린(2018), 대학교수 간 호칭어 사용 양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사회언어학』 26(3), 235-265.
- 한국사회언어학회(2012), 『사회언어학 사전』, 서울: 소통.
- Cameron, D. (1990), Demythologizing sociolinguistic: why language does not reflect society, in J. E. Joseph & T. J. Taylor(eds.), *Ideologies of language*, London-New York: Routledge, 79-93.
- Eckert, P. (2000), *Language variation as social practice*.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Guy, G. R. (1993),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linguistic variation, In D. Preston (ed.), *American dialect research*,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223-249.
- Hazen, K. (2007), The study of varia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R. Bayley and C. Lucas(eds.), *Sociolinguistic variation: Theorie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70-89.
- Labov, W. (1972), *Sociolinguistic Patterns*, Blackwell.
- Labov, W. (1982), Building on empirical foundation, In W. P. Lehmann and Y. Malkiel(eds.), *Perspective on historical linguistics*,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7-92.
- Milroy, J. and Milroy, L. (1985), Linguistic change, social network and speaker innovation, *Journal of Linguistics*, 21, 339-384.
- Milroy, L. (1980), *Language and social networks*, Oxford: Basil Blackwell.
- Milroy, L. and Milroy, J. (1992), Social networks and social class: Toward an integrated sociolinguistic model, *Language in Society*, 21(1), 1-26.
- Romaine, S. (1984), The status of sociological models and categories in exploring linguistic variation, *Linguistische Berichte*, 90, 25-38.
- Sankoff, D. and Thibault, P. (1981), Weak complementary: tense and aspect in Montreal French, In B. B. Johns and D. R. Strong(eds.) *Syntactic change*, vol. 25,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205-216.
- Sankoff, D., Tagliamonte, S., and Smith, E. (2005), *Goldvarb X: A variable rule application for Macintosh and Windows*, Department of Linguistics, University of Toronto & Department of Mathematics and Statistics, University of Ottawa.
- Scrivener, O., Diaz-Campos, M., and Frisby, M. (2016), Language Variation Suite, Retrieved Nov. 16, 2017, from the World Wide Web: <http://>

languagevariationsuite.shinapps.io/Pages/.

Tagliamonte, S. A. (2006), *Analysing sociolinguistic vari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573돌 한글날 · 한글학회 창립 111돌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2019년 10월 11일 (금) 09:50 ~ 16:40

한글회관 열말글교육관

□ 제4부: 연구 발표

국어 어휘 연구의 주요 대상과 어휘 범주의 체계화

박동근

대진대학교 교수
muse13@hanmail.net

1. 머리말

이 연구는 음운론, 문법론, 의미론과 구별되는 독자적 영역으로서, 한국어 어휘론의 연구 대상이 되는 주요 어휘 범주(lexical categorization)를 상정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거시적으로는 국어학의 하위 분야로서 ‘어휘론’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어휘(또는 단어)는 음운론에서 다루는 ‘음소’와 ‘음절’이나 문법론의 연구 대상이 되는 ‘형태소, 구, 절, 문장’ 등과 더불어 언어의 핵심적인 단위이다. 하지만 어휘에 나타나는 음운 현상은 음운론에서, 어휘의 내적 구조나, 기능, 품사 분류 등은 문법론에서, 어휘의 의미는 ‘의미론’에서 주로 다루어, 어휘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어휘론이 국어학의 하위 분야로서 독자적인 위치가 불투명하였다.¹⁾

그런데 김광해(1993:139)에서는 방언, 은어, 공대어, 속어, 관용어, 전문어, 신어, 유행어 등 어휘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 소규모 집합들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종래 어휘론이라고 하면 이 분야를 의미할 정도로 어휘의 양상에 대한 연구

1) 국어학의 하위 분야로서 어휘론의 불투명성은 조오현 외(2008), 이광호(2008) 등에서 지적한 바 있다.

가 어휘론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보았다. 이에 국어 어휘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어휘론의 연구 대상이 되는 주요 어휘 범주를 확정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범주화란 인간의 환경 세계를 의미 있는 분절로 파악하는 것으로, 다양함 속에서 유사성을 파악하는 능력(Taylor 1989/1995)이다. 한국어의 어휘들은 한국어 화자의 경험적 판단에 의해 범주화되며, 이들 가운데 중요한 어휘 범주는 어휘론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한국어의 어휘 범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 가운데 한국어 어휘론 연구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어휘 범주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들 범주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앞선 논의들의 문제점 또한 살펴보게 될 것이다.

2. 앞선 연구 및 문제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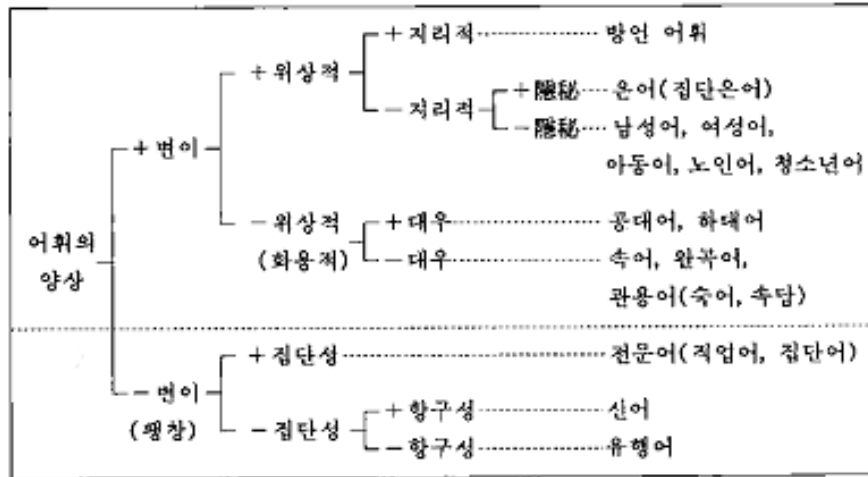
어휘론의 대상이 되는 어휘 범주를 체계화한 논의는 많지 않다. 초기 연구로 김민수(1981)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으로 국어의 어휘 범주를 분류한 바 있다.

(1) 어휘의 하위 분류(김민수, 1981)

- ① 역사적 방언 : 폐어, 고어, 외래어, 신어
- ② 방언적 차원 : 방언, 은어, 비어 와어(訛語)
- ③ 사회적 차원 : 전문어, 경어, 비어
- ③ 기능적 차원 : 문어, 시어, 구어, 속어, 유행어

김민수(1981)은 국어의 어휘 범주를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 이상 논의가 발전되지는 않았다. 이 분야에 대해 본격적이며 영향력 있는 논의로는 최근까지 김광해(1993)가 거의 유일하다.

김광해(1993)는 기존의 어휘 양상에 대한 연구가 적절한 분류 기준이 없어 범주 구분이 혼란한 상태로 처리되는 등 한국어의 어휘 양상을 체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국어의 어휘 양상을 구분하는데 기준으로 [변이]의 여부를 들고, 이를 다시 [위상성]과 [집단성] 등의 기준으로 하위 구분하여 국어 어휘 양상의 체계화를 모색하였다. 특히 언어의 각 층위에 대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이’(variation)를 어휘 양상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도입하여 어휘부를 이론화하려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후 김광해(1993)의 어휘의 양상은 학교 문법을 비롯해 어휘론 차원에서 어휘를 분류하는데 전범과 같이 인용되었다.



〈그림 1〉 어휘의 양상(김광해, 1993:140)

하지만 이러한 분류 방식에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첫째, 예시로 제시된 어휘 범주들이 국어 어휘 또는 어휘 연구의 대표적인 범주인가하는 점이다. ‘관용어, 신어, 방언 어휘’ 등은 국어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 왔으나 〈그림 1〉의 ‘남성어, 여성어, 청소년어’ 등은 어휘론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으며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수록될 만큼 용어가 개념화되지도 않았다.²⁾ 김광해의 양상 체계는 학교 문법에 수용된다.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문법』(2002)에는 ‘어휘’를 별도의 장으로 두고 있는데, 어휘 양상에서는 ‘방언, 은어·속어, 금기어·완곡어, 관용어·속담, 전문어, 새말’ 등 6가지 어휘 범주를 다루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어휘 교육은 유창하고 수준 높은 국어를 구사하기 위해 어휘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은어·속어 등이 『문법』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어휘 양상 중 핵심 범주로 포함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반면에 대부분의 개론서에서 한국어 어휘의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는 ‘감각어, 흥내말’ 등은 김광해(1993)나 『문법』 교과서의 어휘 양상 목록에 없다.³⁾

둘째, [+변이]와 [-변이]로 어휘 범주를 구분하는 것이 언어학적 일반성을 넘어서 실용적인 구분인가 하는 점이다. 무엇보다 하위 분류인 [위상성]이나 [집단성] 등은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셋째, ‘방언, 은어, 남성어, 여성어, 신어’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양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양상은 존재 방식을 뜻하는 것으로 한국어의 특수한 어휘

2) 여기서 국어사전은 『우리말큰사전』(1991)과, 『표준국어대사전』(1999)을 말한다.

3) 국어의 고유어도 나름대로의 특징을 보인다. 특히 고유어에 감각어와 상징어가 크게 발달되어 있다. (이관규(1999), 『(개정판) 학교문법론』, 3.3 국어의 특수성)

셋째, 고유어에는 상징어가 발달되어 있다. 고유어에는 감각어가 발달되어 있다. 다섯째, 국어에는 친족어가 발달되어 있다. (임지룡 외(2005), 『학교문법과 문법교육』 3.3 어휘의 특징)

범주군을 총칭하는 용어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김광해(1993)에서는 <그림 1>의 어휘 양상의 범주들과 별도로 어휘 체계론⁴⁾에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어종’(語種)의 하위 범주로 구분하였는데,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어휘 양상과 별도로 논의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⁵⁾ 또한 어휘의 종류를 통칭하는 ‘어종’이라는 용어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특정하는 학술 용어로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즉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는 어휘 체계론에서, 기타 어휘 범주는 어휘 양상에서 다루는 것의 타당성 문제이다.⁶⁾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류가 실제 어휘 연구나 교육에 유용한가이다.

이광호(2008)은 김광해(1993)의 ‘어휘 양상’ 전반에 걸쳐 의문을 제기한 첫 논의이다. 이광호(2008)은 어휘의 양상이란 “어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탐구하는 것으로 항상 기본 어휘소의 존재가 설정되어야 하며 어휘의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은 변이 어휘여야 한다고 보았다. 즉 어휘론은 어휘소의 변화로 나타나는 형태로 그 특성을 살피는 학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김광해(2008)에서 어휘의 팽창으로 보는 ‘신어’는 기본 어휘소가 없어 어휘소/변이 어휘의 대립을 보이지 않으므로 어휘론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⁷⁾

[+변이형]

[+개인형] ; 비속어, 연령어(유아어/아동어/청소년어/장년어/노년어), 관용어, 성별어(남성어/여성어), 동의중복어, 유행어

[-개인형] ; 방언, 은어, 완곡어, 공하대어(공대어/하대어), 전문어, 유행어

[-변이형]

[+개인형] ; 유행어

[-개인형] ; 신어, 전문어, 유행어

<그림 2> 어휘론의 연구 대상(이광호, 2008)

4) 김종택(1992), 김광해(1993)에서 ‘체계’의 쓰임이 다르다. 김종택(1992), 4장의 ‘어휘 체계론’에서는 낱말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김광해(1993)에서는 3장의 ‘어휘의 체계’에서는 어종이나 품사, 의미에 따른 분류를 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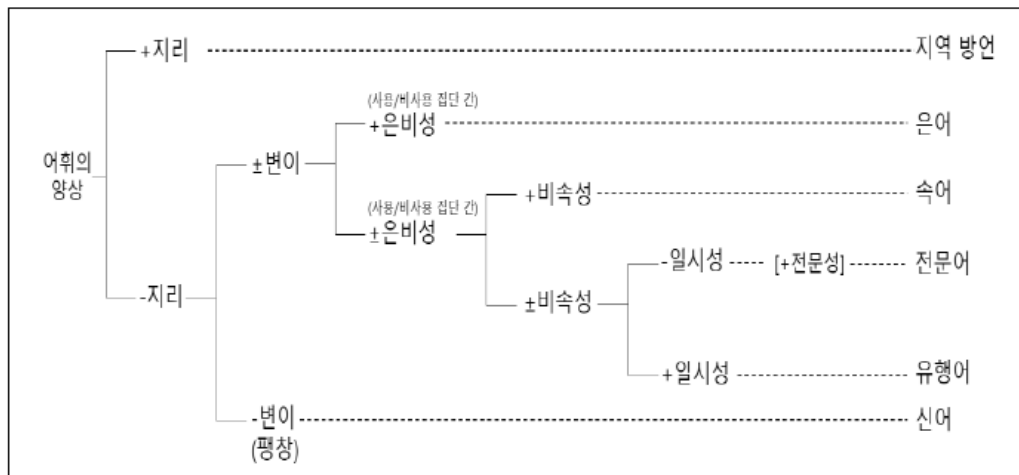
5) ‘어종’은 『표준』(1999)에 ‘언어의 종류’라고만 풀이되었으나 현재 인터넷 판에는 그 외에 “어휘의 종류. 고유어, 한자어, 혼종어 따위를 이른다”고 풀이되어 있다.

6) “사실 ‘어휘의 체계’라는 용어 자체는 어종(語種)에 따른 체계뿐 아니라 ‘사용 양상에 따른 체계’도 포함할 수 있는 함량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어과 교육과제에서 ‘어휘의 체계’는 통상 ‘어종에 따른 체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다. ‘어휘의 양상’ 역시 일정한 체계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용어 사용은 재고(再考)할 필요가 있다. ‘어휘의 체계’라는 용어는 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박인규 외, 2019)

7)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어휘의 양상’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엄연히 어휘론의 주요한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신어’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성을 얻기 어렵다. 오히려 ‘신어’를 포함하여 ‘어휘의 양상’을 재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해 보인다. 더 근본적으로 위에서 제시했듯이 <그림 1>의 범주들을 어휘 양상으로 총칭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광호(2008)는 어휘론의 연구 대상이 되는 어휘 양상을 <그림 2>와 같이 [+변이형]으로 한정하고 이를 다시 개인 의식이 반영된 것과([+개인형]), 집단 의식이 반영된 것([-개인형])으로 구분하였다.

박인규 외(2019)는 문법 교육의 측면에서 김광해(1993)의 ‘어휘의 양상’ 도식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박인규 외(2019)는 어휘의 양상 도식이 다양한 차원의 공존과 어휘 범주 간의 중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고 김광해(1993)에서 설정한 어휘 양상을 재구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 사이의 유행어는 ‘유행어’로 분류되는가, ‘은어’로 분류되는가의 문제를 김광해(1993)의 분류 자질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김광해(1993)에서 [변이]의 유무를 최상위 기준으로 삼는 데 따른 것으로 보았다. 즉 [변이]는 경향성의 문제로 하나의 어휘 범주가 [+변이]를 가질 때와 [-변이]를 가질 때가 공존하므로 범주간에 겹치는 영역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또한 [위상]이 갖는 포괄성과 그에 따른 구분의 모호함을 지적하고 어휘 양상을 구분하는 기준에서 이를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어휘 양상 도식을 제안하였다.



〈그림 3〉 차원의 구분과 범주의 중첩을 고려한 어휘의 양상 도식(박인규 외, 2019)

박인규 외(2019)에서는 김광해(1993)에서 [+변이]나 [-변이] 가운데 하나로 처리한 지역 방언, 은어, 속어, 전문어 등이 두 속성을 모두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을 [±변이]로 처리하고 ‘신어’만을 변이가 없는 평창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신어’에 대한 다음 정의로 볼 때 신어가 꼭 새로운 형태의 ‘평창’으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어를 [-변이]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⁸⁾

8) 국립국어원의 신어 조사에서도 사전에 있는 말이라도 의미가 다른 경우 조사 목록에 포함

(2) 신어에 대한 기존 정의

- ㄱ. 남기심(1983:193), ‘새말’이란 이미 있었거나, 새로 생겨난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며, 이미 있었던 말이라도 새 뜻이 주어진 것 그리고 다른 언어로부터 차용되는 외래어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이미 존재하는 개념이나 사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어휘의 표현력이 감소했을 때 그것을 보강하거나 신선한 새 맛을 가진 말로 바꾸기 위한 대중적인 욕구에 의해 생겨난다.
- ㄴ. 문금현(1999:296), ‘신어(新語)’라고 하면 기존 언어와 유연성없이 새롭게 창조된 말, 기존의 언어재를 그대로 이용해서 만든 말, 기존의 어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말, 외국어에서 차용한 말 등을 포함한다.⁹⁾
- ㄷ. 『표준국어대사전』(1999) : 새로 생긴 말. 또는 새로 귀화한 외래어.

3. 어휘론의 연구 대상으로서 한국어의 어휘 범주

앞선 논의들이 국어의 어휘 양상을 정밀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모두 가치 있는 연구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앞선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이 은어, 속어, 전문어, 유행어 등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들이 어휘론의 대상으로 한국어 어휘 범주를 대표하는지 의문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먼저 한국어 어휘론의 연구 대상이 되는 어휘 범주를 망라하고 그 가운데 주요 어휘 범주를 다시 가려내고자 한다.¹⁰⁾

여기서 ‘어휘 범주’란 다양한 어휘 내적 속성 가운데 유사성을 있으며, 이러한 유사성이 다른 어휘와 분절되는 독자적인 특징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 이들 어휘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어휘 내적으로 유사성을 갖는 어휘 범주는 ‘문법론’이나 ‘의미론’의 영역에도 있지만 이 글에서 어휘 범주란 어휘론 연구 대상에 한정한다.

(3) 문법 층위에 따른 어휘 범주

- ㄱ. 문법론 층위 - 명사, 동사, 부사 등의 품사 / 합성어, 파생어, 굴곡어, 단일어, 복합어 등
- ㄴ. 의미론 층위 - 다의어, 동음이의어, 반의어, 상위어, 하위어, 큰말, 작은말, 등
- ㄷ. 어휘론 층위 - 은어, 속어, 감각어, 색채어, 상징어, 친족어 등

하였다(조남호, 1994).

9) 문금현(1999)에서는 기존 언어와 유연성이 없이 새롭게 창조된 말을 ‘신생어(新生語)’라고 하고, 기존 언어재를 바탕으로 생성된 이차 어휘는 ‘신조어(新造語)’라고 하기에 이를 아우르는 용어로 ‘신어(新語)’를 사용하고 있다.

10) 여기서 어휘 범주는 ‘공통된 특성을 공유하는

같은 속성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예를 들어 ‘시간과 관련되 어휘’, ‘웃음을 표현하는 어휘’처럼 어휘를 분류하는 고유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어휘 범주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큰 원칙에 따라 먼저 국어사전에서 ‘X-어’, ‘X-말’을 검색하여 이 가운데 어휘론의 연구 대상이 될 만한 어휘 범주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4) 국어사전의 ‘X-어’, ‘X-말’ 어휘 범주

점양어(=점사말, ≡낫춤말), 고어(=옛말), 고유어(=토박이말), 관용어(=익은말, ≡숙어, 성어), 구상어(≡꼴말), 군대용어, 궁중말(=궁중어), 기초어휘(≡기본어휘), 꽃말, 논리어, 높임말(=공대말, 존경어, 존대어, 존댓말, 존칭어, ≡경우 >간접높임말, 직접높임말), 범어(凡語), 병어(兵語), 부정어, 빠르기말, 사어(폐어, 죽은말), 상용어(商用語), 상용어(常用語), 속어(=비속어, 상말, ≡낮은말, 비어, 비언), 순화어, 시골말(=사투리, ≡와어), 시사용어, 시어, 신어(=신조어, 새말), 아동어(유아어), 연어(이은말), 예사말, 외래어(=들온말, 차용어, 전래어, 귀화어), 유행어(≡시쳇말, 요새말), 은어(=변말), 음역어, 이언(이어), 일반어(=보통어), 전문어(≡ 전문어), 전성어, 전와어(轉訛語), 지역어, 지칭어(=가리킴말), 집단어, 직업어, 첩어, 친족어, 통속어, 표제어, 표제어(=올림말, >주표제어, 부표제어), 표준어(=대중말), 학술어(=갈말), 한자어, 현대어(=이젯말), 호칭어(=부름말, 호어), 활어(活語), 흥내말(=상징어, 시늉말, 의성의태어 > 의성어, 의태어, 짓시늉말, 꼴시늉말, 소리시늉말, 꼴흥내말, 소리흥내말), 힘줄말¹¹⁾ / 금기어, 감각어, 색채어, 완곡어, 특수어¹²⁾

국어사전에는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휘론 전문서에 수록된 것으로 어휘론의 연구 대상이 되는 어휘 범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5) 어휘론 전문서에서 언급된 어휘 범주¹³⁾

개념어, 고빈도어/저빈도어, 관련어, 기능어, 기저어, 남성어, 노인어, 생명종식어, 신문명어, 신체어휘,¹⁴⁾ 여성어, 유령어, 인명, 청소년어, 특수어

(4)는 범주를 지시하는 명칭이 하나의 단어로 고정되어 국어사전에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어휘 범주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5)는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 저술에서 어휘 범주를 지칭하는 데 사

11) 같은 뜻의 말은 하나로 ‘≡’로 표시하여 () 안에 묶었다. 유사 어휘 범주로 같이 논의되는 것들 역시 ≡로 표시하여 하나로 묶었다. ‘흥내말 : 의성어 의태어’처럼 상위어, 하위어 관계에 있는 말 역시 따로 두지 않고 한 범주로 묶었다.

12) 금기어, 감각어, 색채어, 완곡어, 특수어 『우리말 큰사전』(1991)과 『표준국어대사전』(1999)에 표제로 실려 있지 않지만, 『표준국어대사전』 인터넷 판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포함시켰다.

13) 김광해(1993), 김종택(1992)에 부록으로 수록된 색인어 참조.

14)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는 ‘신체어’가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다.

용되었다는 점에서 국어의 어휘 범주로 인정할 만하다. 하지만 (4), (5)의 어휘 범주들이 모두 어휘론의 연구 대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어휘론의 연구 대상으로(4), (5)의 중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어 연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연구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어학 연감』에 정리된 논문(학위논문과 학술논문) 목록을 참고하도록 하겠다. 『국어학 연감』은 국립국어원에서 그해에 발표된 연구 성과를 음운, 형태, 통사 등 분야별로 엮어 정리한 것으로 본 연구와 관련한 분야는 ‘어휘론, 의미론, 사전편찬학’이다. 『국어학 연감』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4년에 걸쳐 해마다 발간되었는데, 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어휘론, 의미론, 사전편찬학’의 논문 수는 해마다 약 500편 내외가 수록되었다. 그러므로 총 조사 논문의 수는 7천 편 정도이다. 이 가운데 어휘 범주와 관련한 논문을 선별하였다.¹⁵⁾ 분석 결과 모두 787개 항목의 어휘 범주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며 같은 어휘 범주에 대한 연구를 통합한 결과 모두 116개의 서로 다른 어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2회 이상 연구된 주제를 모두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 어휘론의 연구 대상으로서 된 어휘 범주(빈도 2이상)¹⁶⁾

대표 어휘 범주	연구 빈도	동일 어휘 범주 처리
관용표현	112	관용구, 속어
의성어/의태어	70	의성어, 의태어, 상징어, 흥내말, 본판말, 시늉말, 상징부사, 의성의태부사
지명	66	땅이름, 지명어
한자어	54	
속담	53	
외래어	45	차용어
신어	35	신어, 신조어, 새말
색채어	31	색이름, 색깔말
신체어	30	신체부위어, 신체용어
호칭어/지칭어	25	
간판어	18	간판언어
감각어	18	감각명사, 감각형용사, 미각형용사, 시각형용사, 온도형용사, 촉각어, 촉각형용사
연어	17	
친족어	11	친족어휘, 친척관계말
실체성명사	10	
분류사	9	
감정어휘	8	감정동사, 감정어휘, 감정용언

15) 논문 제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정확한 통계는 아니다. 다만, 이 조사가 전반적인 연구 경향을 살피기 위한 것임으로 목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16) 대표 어휘 범주는 연구중 논문에서 가장 많이 채택한 용어로 선정하였다.

전문용어	8	전문어, 전문어휘
성어	8	고사성어, 사자성어
공간어	7	공간개념어, 공간말, 공간어, 공간형용사
정도부사	7	
표제어	7	가표제어
고유어	6	고유어휘
마을이름	5	
기초어휘	4	
시간부사	4	
상품명	4	
지시어	4	
유행어	4	
상호	4	상호명
비속어	4	욕설
높임어휘	3	높임말, 존대어휘, 경어어휘
시어	3	
착용어	3	착용동사
희귀어	2	
채소명	2	채소관련어휘
시간명사	2	
기본어휘	2	
이동동사	2	
음식물명	2	음식물 명칭
토속어	2	
차별어	2	
도로명	2	도로이름

그 밖에 『국어학 연감』 2001년부터 2014에서 한 차례 연구된 어휘 범주는 다음과 같다.¹⁷⁾

- (6) 극한개념어, 발광동사, 비유어, 복식어휘, 봉수이름, 사고도구어, 상용어구, 민족 생활어, 사건명사, 사람이름, 섭취동사, 성격형용사, 사찰명, 소멸어, 소설어, 문화어휘, 대두어, 묘지명, 남북어휘, 시각행위명칭, 곤충이름, 법률용어, 대화명칭어, 시사용어, 모양 명사, 모순어, 떡이름, 교회명, 고어, 버섯이름, 방위어, 양상 부사, 양태부사, 양화사, 어류명, 교육용 어휘, 온도어, 완곡어, 왕명, 계절어, 외 모그림씨, 요리동사, 운동경기용어, 명태명칭, 육류명칭, 은어, 음료명사, 시간어, 의생활어휘, 의지형용사, 궁중어, 인간관련명사, 일상어, 남녀관련어, 젓갈명칭, 날씨어휘, 조류명칭어, 조리동사, 중세어휘, 가축어휘, 직업이름, 차명칭, 쌍형어, 나무 명칭어, 식물명, 식생활어휘, 광고어휘, 속도 형용사, 편지 어휘, 수량사, 가 게이름, 수분류사, 미디어 용어

17) 연구 빈도 1인 (6)의 상당수는 사전에 표제어로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고유한 어휘 범주로 굳어지지 않은 것이다. 연구자 개인의 관심에 따른 주제로 이들을 모두 어휘 범주에 포함하여 분류할 필요는 없다.

연구 빈도 상위 10위까지 살펴보면,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112회의 ‘관용표현(관용어, 속어)’으로 수적인 면에서 월등한 연구 우위를 보인다. 53회 연구된 속담이나 17회 연구된 연어와 8회의 ‘성어’가 관용표현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용표현 빈도는 역기에 따라 연구 빈도가 훨씬 높아질 여지가 있다. 두 번째는 의성어·의태어로 국어의 어휘적 특질을 대표하는 어휘라는 점에서 높은 연구 빈도를 짐작할 수 있다. 31회의 색채어나, 18회의 감각어 모두 국어에서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 어휘 범주로 연구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명 연구가 66회로 세 번째로 높은 연구 빈도를 보였으며,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는 각각 54회, 45회, 6회로 조사되어 어종 중에는 ‘한자어’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그 밖에 ‘신어’는 7위로 35회 연구되었으며, 호칭어/지칭어는 25회로 10위이다.

이를 김광해(1993)의 어휘 양상에 제시된 주요 어휘 범주와 비교해 보면, 관용어, 전문어, 신어 등은 『국어학 연감』에서 확인한 바, 어휘론의 연구 대상으로 높은 연구 빈도를 보이나, 유행어와 속어는 각각 4회, 완곡어는 1회에 그쳤으며, 은어, 남성어, 여성어, 아동어, 노인어, 청소년어, 공대어, 하대어는 해당 기간 『국어학 연감』의 조사 목록에 없다.¹⁸⁾

이에 본고는 어휘 범주의 체계를 <표 1>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 빈도가 높은 주요 어휘 범주를 대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어휘론의 연구 대상으로 어휘 범주 체계의 모색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김광해(1993)이나 학교 『문법』 등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온 ‘어휘 양상’이라는 표현 대신 ‘어휘 범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어휘 양상’에서 양상은 존재 방식을 뜻하는 것으로 한국어의 특수한 어휘 범주군을 총칭하는 언어학 전문 용어로 그 의미가 막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양상’에서는 어휘 체계론에서 ‘어종’으로 구분되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배제하고 있는데, 박인규(2019)의 지적처럼 ‘어휘 체계’는 어종과 기존의 양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 장에서는 기존에 어종과 양상 범주를 포괄하는 것으로 어휘 범주의 체계적 분류를 모색하고자 한다.

어휘 범주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김광해(1993), 이광호(2008), 박인규 외(2019)에서 사용한 구별 자질을 먼저 고려할 수 있다.

18) 물론, 본 연구의 수치가 이 기간에 이들 연구가 전혀 수행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7) 어휘 양상 구별 자질

- ㄱ. 김광해(1993) : [변이], [위상적], [지리적], [대우], [집단성], [항구성]
- ㄴ. 이광호(2008) : [변이], [개인형]
- ㄷ. 박인규(2019) : [지리], [변이], [은비성], [비속성], 「일시성」

그러나 (7)의 구별 자질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어휘 양상을 분류하는 데 한정되었으며, 그 대상도 의성어, 의태어, 색채어, 감각어 등 국어의 주요 어휘 범주는 배제하고 완곡어, 아동어, 노인어, 청소년어 등 한국의 어휘 연구에서 잘 다루지 않은 범주를 구분하는 데 많은 노력을 들였다. 무엇보다 어종으로 분류되는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온전한 어휘 범주 체계를 위한 구별 자질로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와 다른 차원에서 어휘론의 연구 대상으로서 어휘 범주의 체계화를 모색하고자 한다.¹⁹⁾ 먼저, 범주의 중첩은 이 연구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 구별 자질에 의한 체계화는 기본적으로 범주간의 배타성을 중요시 하는데, 어휘의 다양한 양상들을 배타적으로 도식하는 것은

이 연구에서는 어휘 범주를 체계화하는 방법으로 품사 분류의 기준이 되는 ‘형태-기능-의미’가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의미’는 최종단의 분류 기준이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크게 ‘형태’와 ‘기능’에 따라 하위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형태적으로 고유한 특성이 있는 것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다. 들은 각각 고유한 형태·통사적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범주화한다.

I. 형태 : 형태적으로 고유한 특성이 있다.

- 관용표현(숙어, 속담, 연어)
- 의성어·의태어, 색채어, 감각어
-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관용표현은 어휘론 연구에의 주요 연구 대상이지만 다른 어휘 범주가 ‘단어’인 반면에 구 이상의 형태를 갖는다는 점에서 다른 어휘 범주와 구분되는 형태적 특이성을 갖는다. 의성어·의태어는 반복구성, 자모 교체 등에서 고유한 형태적 특성을 공유하며, 한국어의 색채어나, 감각어는 어휘 파생 과정에서 형태내적인 특성을 공유한다.²⁰⁾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는 각각 다른 표기 형태를 갖는다는

19) 이때 범주의 중첩은 절대적인 고려대상이 아니다. ‘신어’와 ‘유행어’는 기준에 의해 분류되는 것이다.

20) 물론, 모든 의성어·의태어, 색채어, 감각어들이 각각의 형태적 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의성어·의태어가 반복형을 갖거나 자모 교체형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점에서 형태적으로 고유한 특성을 갖는 어휘 범주로 설정할 수 있다.

Ⅱ. 기능 :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다.

- 가치 부여 : 높임말, 차별어, 속어, 비어
- 지시 : 호칭어/지칭어, 친족어, 지명, 마을이름, 상품명, 채소명, 간판어 등
- 사용역 :
 - 전문용어, 기초어휘/기본어휘
 - 시어, 소설어, 직업어, 궁중어
 - 고어, 신어, 사어, 유행어
 - 표준어, 방언(어휘)

높임말, 차별어, 속어, 비어 등은 상대방에 대한 가치 평가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어휘 교육에서 이들은 한 자리에서 다룰 만하다. 호칭어/지칭어, 친족어 외에 각종 이름과 관련된 범주는 지시의 기능을 갖는다. 사용역에 따른 구분은 분류가 다소 불투명하다는 한계가 있다. 어휘 사용의 전문성에 따라 전문용어와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기초어휘/기본어휘를 묶을 수 있고, 시어, 소설어처럼 특정 문학 장르에 한정되어 사용하거나, 직업어, 궁중어처럼 특정 직종에 따라 사용되는 어휘 범주가 여기에 속한다. 고어, 신어, 사어, 유행어는 어휘 사용이 시간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으며, 표준어와 방언은 지리적 기준에 따라 구분된다.

5. 맺음말

(생략)

〈참고 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2), 『(고등학교) 문법』, 두산.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김민수(1981), 『국어의미론』, 일조각.
김종택(1992), 『국어어휘론』, 탑출판사.
남기심(1983), 새말의 생성과 사멸, 『한국어문의 제문제』, 일지사.
문금현(1999), 현대국어 신어의 유형 분류 및 생성 원리, 『국어학』 33, 국어학회.

- 박동근(2009), 새말의 어휘론적 위상 정립, 『한국어의 어제 그리고 오늘』, 역락.
- 박인규·조진수(2019), 문법교육에서의 ‘어휘의 양상’ 재구조화 연구, 『사회언어학』 27-1, 한국사회언어학회, 67-87쪽.
- 심재기(1982), 『국어어휘론』, 집문당.
- 이관규(1999), 『(개정판) 학교문법론』, 월인.
- 이광호(2008), 어휘의 양상 분류, 『언어과학연구』 45, 언어과학회, 23-41쪽.
- 임지룡 외(2005), 『학교문법과 문법교육』, 박이정.
- 조남호(1994), 『신어의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 조오현 외(2008), 『한국어학의 이해』, 소통.

“573돌 한글날 · 한글학회 창립 111돌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19년 10월 10일 박음

2019년 10월 11일 펴냄

위고 펴낸 이: **한글학회**
회장 권재일

펴낸 데: **한글학회**

주소: [03175]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3길 7.
전화: 02)738-2236~9.
전송: 02)738-2238.
누리집: 한글학회 또는 <http://www.hangeul.or.kr>
누리편지: webmaster@hangeul.or.kr

등록한 날: 1955. 2. 14.
등록 번호: 제1-440호.

* 이 책은 팔지 않음 *

“이 발표 자료집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